

세계일류 서울교육

서교연 2007-45

중학교



# 논술지도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세계일류 서울교육

서교연 2007-45

중학교



# 논술지도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격려사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논술입니다. 논술은 국가 발전을 좌우할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깊은 통찰력과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유용한 방법이기에 중요합니다. 논술이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총동원되는 고등 정신 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독서·토론과 연계한 논술교육을 강조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논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논술지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데 이어 초·중·고 논술읽기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사들의 논술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논술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로 연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논술교육은 학교급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중학교「논술지도 길라잡이」는 중학교 논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논술지도 방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과와 연계한 논술지도 방법은 교과별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자료가 중학교에서 논술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료 제작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개발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 6월

서울특별시교육감 공 정 태

# 발 간 사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존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는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촌각을 다투며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존의 지식은 습득하자마자 낡은 지식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내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논술 교육이 좋은 해결방법의 하나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논술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교과 담당 교사가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인식하고 교과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논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범교과적인 통합 논술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에서의 독서·토론 형태의 지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고등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지식의 창의적 재창조 능력을 키우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논술지도 길라잡이」가 제작되어 중학교에 배포하게 된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술지도 길라잡이」가 일선 중학교의 논술 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하여, 중학교 교사들이 먼저 논술 교육을 이해한 후, 논술을 지도함으로써 중학교 논술 교육의 정착화 및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논술지도 길라잡이」 개발 위원장을 다시 맡아 주신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이홍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자료집 제작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6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홍 승 표**

# 차례 · CONTENTS

## I. 중학교 논술에 대한 이해



■ 논술의 개념	
원만희(성균관대학교 교수) .....	11
■ 중학교에서의 바람직한 논술 지도 방안	
이희자(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장) .....	20
■ 중학교 논술 교육의 필요성과 지도 방안	
심재홍(홍은중학교 교감) .....	31

## II. 논술 지도의 방법과 실제



■ 단계별 논술 지도의 실제	
양정석(신상중학교 교사) .....	47
■ 신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의 실제	
강용철(경희여자중학교 교사) .....	65
■ '요약하기' 를 통한 논술 지도의 실제	
정형근(정원여자중학교 교사) .....	81
■ 독서-토론-논술의 과정에 따른 지도 방안과 실제	
심재홍(홍은중학교 교감) .....	96
■ 논술 교재,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활용 방안	
김은아(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109
■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의 활용 방안	
강용철(경희여자중학교 교사) .....	119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이희자(홍은중학교 교사) .....	128

### Ⅲ.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논술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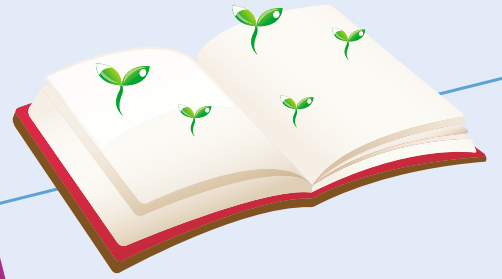
■ 교과와 연계한 논술 지도	
• 국어과에서의 논술 지도	
김근수(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141
• 도덕과에서의 논술 지도	
노영준(경인고등학교 교사) .....	152
• 사회과에서의 논술 지도	
이지나(동대문중학교 교사) .....	166
• 수학과에서의 논술 지도	
이환철(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교사) .....	185
• 과학과에서의 논술 지도	
양한재(서울정민학교 교사) .....	195
• 기술·가정과에서의 논술 지도	
최기옥(광신중학교 교사).....	204
• 음악과에서의 논술 지도	
박세란(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215
• 미술과에서의 논술 지도	
김영복(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226
• 영어과에서의 논술 지도	
홍윤빈(정원여자중학교 교사).....	247
■ 방과후학교와 논술 지도	
서태진(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255
■ 특별활동을 통한 논술 지도	
양정석(신상중학교 교사) .....	265





I

# 중학교 논술에 대한 이해



- 논술의 개념 원만희(성균관대학교 교수)
- 중학교에서의 바람직한 논술 지도 방안 이홍자(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장)
- 중학교 논술 교육의 필요성과 지도 방안 심재홍(홍은중학교 교감)





# 논술의 개념

원 만 희(성균관대학교 교수)

1. 논술의 개념과 필요성

2. 중학교 논술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3. 중학교 과정의 논술 지도 방법 : 개별 교과와 '논술형 수업'

## 1. 논술의 개념과 필요성

### 가. 논술의 개념과 특징

'논술(論述)'은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논리적인 서술 혹은 기술(description)'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논술을 제대로 정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논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밝혀져야 한다.

우선, 논술은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근거(들)를 제시해야 하는 논리적인 글**이다. 여기서 '논리'란 주장과 근거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이다. 어떤 글 혹은 문맥이 논리적이라 함은 그 안의 근거로부터 주장이 필연적으로 혹은 개연적으로 도출됨, 다시 말해서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가 적절함을 뜻하며, 따라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리가 철저하게 관철되는 영역이 학문 영역이다. 학문적 견해의 특징은 주장과 근거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이 엄밀하게 성립한다는 것이며, 이런 논리적 일관성이 필수적인 글쓰기가 바로 논술이다. 따라서 논술은 객관세계와 인간에 대한 보편타당한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적 의사소통의 기본 양식이며, 바로 이 때문에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 제도가 된 것이다.

두 번째로 논술은 **이성적, 논리적 설득이라는 의사소통 양식**이다. 관심과 욕구가 다양한 개인들, 사회 집단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고 수렴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현대 공동체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그 해결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그러려면 구성원들 각자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로 논술은 **개인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한다. 개인들의 삶 속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

책을 주체적 방식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체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논리적 글쓰기 활동인 논술의 특징과 그대로 일치한다. 따라서 논술 행위는 각각 개인들의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접근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학습 과정이자 실천 과정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네 번째 특징이 도출된다.

네 번째로 논술은 **문제를 제시하고 또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상황과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논리에 맞고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를 기술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논술은 객관세계와 인간 삶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에 대한 창의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게 하며, 문제 극복의 전망까지 제시할 수 있게 만든다.

## 나. 논술 교육의 필요성

위와 같이 '논술'을 이해할 경우 자연스럽게 아래와 같은 논술 교육의 필요성들이 도출된다.

### 1) 합리적 인간 형성

논술은 적절한 논거와 타당한 논증 절차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하는 활동이다. 이는 사유의 형식이자 규범인 논리와 이성을 충족시키는 방식이며, 이 방식만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논술 교육은 개인들이 이성적 사고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 능력은 크게는 개인의 삶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작게는 개인들의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에 기여한다.

### 2) 창의적 사고 능력 배양

논술은 객관세계와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창의적 해결 방법은 문제를 깊이 있고 폭넓게 바라보며, 가능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논술은 개인들의 지식과 관심의 폭, 깊이를 확장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영역 전이적 통찰력, 즉 수렴적 창의성을 함양시켜 준다.

### 3) 통합적 사고 능력 배양

수능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는 학생들이 가진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일면적이고 단편적인 교육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논술 교육은 통합적 사고 능력 형성에 기여한다. 논술 고사 역시 수능 시험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 논술 교육을 통해 통합교과적 문제 풀이 능력, 학제간 통합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심화 지식과 글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 4) 문제 해결력 제고

21세기의 지식인은 많은 지식의 소유자이기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논술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력의 소양을 키우는 가장 적절한 학습 방법이다. 왜냐 하면 논술은 텍스트를 통해 주어지는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해결 방식을 찾는 다음, 관련된 여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는 실천적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때문이다.

## 2. 중학교 논술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2007년 서울대학교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과 지식의 단순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독서·토론을 통한 사고 능력의 배양을 지향함으로써, 이른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 하기 위해서 대학별 고사로서 논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시험제도 실시의 명분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주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좋은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 학습 방식의 획기적 개선점으로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사고력 배양 교육과 둘째,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한 중등 교육의 정상화이다. 이 두 가지는 논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을 단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학교이다. 우선, 중학교에서의 논술 지도는 직접적으로 대입 논술 고사를 겨냥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의 능력도 그렇거니와 학제상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할 일도 아니다. 중학교 과정은 기본적인 지적 능력, 즉 학문 탐구를 위한 기초적 소양을 형성시켜 주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점에서 중학교의 논술 교육은 초등학교의 ‘글쓰기’ 교육과 고등학교의 본격적인 ‘논술’ 교육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고 여겨진다.<sup>1)</sup>

그러므로 중학교 논술 교육은 양면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한 측면은 학업의 기초 소양으로서 ‘논리적인 글쓰기’, 즉 논술 교육이며, 다른 한 측면은 말 그대로 ‘글쓰기’ 교육이다. 여기서 글쓰기라 함은 글, 즉 문자로 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형식을 말한다. 의사소통 매체로서 글을 **올바로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어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문법 규칙 중심의 작문 교육이다.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일수록 올바른 문자 사용 규칙에 대한 지식과 그 적용례에 대

1) 당연한 말이지만 ‘글쓰기’와 ‘논술’은 같은 것이 아니다. 후자는 ‘논리적’ 혹은 ‘논증적’ 글쓰기로서 학문적 의사소통의 주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논술 고사를 치르는 명분도 이것이다.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쓰기에는 이 외에도 ‘문예적 글쓰기’, ‘실용적 글쓰기’ 등 다양한 형태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논술=글쓰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오해이다.

한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법 중심 교육과 함께 중학교에서는 글의 내용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글쓰기 교육을 위해서 독서와 토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용적 측면이다. 기실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막론하고 학생들이 약점을 보이는 쪽은 형식이라기보다 써야 할 내용, 즉 생각(사고)의 결여이다. 부족한 독서, 주입식 암기 학습으로 인해 글로 표현해 낼 만한 ‘폭넓은 관심’, ‘깊이 있는 생각’, ‘심화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공허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형태의 글쓰기 교육이 중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지식을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독서나 토론을 논술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할 경우 논술 교육의 양적 확대를 가져올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 독서나 토론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독서와 토론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타인들과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논술을 위한 독서’ 혹은 ‘논술을 위한 토론’과 같은 획일적이고 강요된 독서, 토론은 이러한 기회를 송두리째 날려 버리고 말 것이다.

독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들을 경험하게 하고, 경험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여러 종류의 문학, 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삶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토론 교육도 ‘시민성의 자질’ 함양이라는 자체적인 교육 목표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다양한 지식 축적과 사고력 향상을 꾀하므로 논술 능력 향상을 위한 밑거름임에 틀림없다. 그 정도로 족하다는 것이다. 독서, 토론, 논술은 모두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만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 영역에서 따로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저절로 상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태여 이들을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중학교 논술 교육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그냥’ 글쓰기와는 구별되는, 말 그대로 ‘논술’ 지도 방법의 문제이다. 글 앞부분에서 우리는 논술의 개념, 논술 교육의 취지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과 방향과 취지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논술 지도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 글에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개별 교과의 ‘논술형 수업’이다.

### 3. 중학교 과정의 논술 지도 방법 : 개별 교과의 ‘논술형 수업’

‘논술형 수업’이란 교과 지도 과정 안에 글 읽기와 글쓰기를 포함시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글 읽기와 글쓰기를 교과과정에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이다. 글을 읽고 쓰는 과정은 깊이 있고 폭넓은 지식 습득을 위해 필수적인 ‘반성적’ 사고, 즉 ‘메타

인지적 사고(meta-cognitive thinking)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교과 내용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사실상 '논술형 수업'은 혁신적인 수업 모형이기보다는 '교과 심화 지도를 위한 수업 개선'의 한 방법일 뿐이다. 개별 교과의 수업 개선이 어차피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위한 수업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때 글 읽기와 글쓰기의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논술 지도의 핵심은 학생들로 하여금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사고 잠재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 능력은 '지식의 주입식 암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 교과의 내용들에 대한 심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개별 교과 영역의 내용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앎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영역 전이적 통찰력, 응용력이 바로 논술의 핵심 소양인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교과 내용에 대한 심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술형 수업'은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개별 교과의 심화 학습을 위한 글 읽기와 글쓰기는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 우선 그것은 중학교 전 과정의 교과서 및 교과 내용과 관련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과서 혹은 관련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여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글 또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쓰게 하고, 또 때로는 관련된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하여 이를 글로 표현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실습 과정이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글을 읽고 쓰게 함으로써 교사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동시에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읽기와 쓰기

'논술형 수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글쓰기 실습 방법으로서 필자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읽기와 쓰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 영역을 넘나드는 복합적 주제와 다변화된 평가 영역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별 교과의 심화 학습과 논술형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동시에 모색하는 실습 프로그램이다.

이 실습 프로그램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에 기초한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장이나 견해를 보다 깊고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반성적 사고'로 대략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를 따를 경우 비판적 사고는 교과 심화 학습과 논술형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 영역에서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독해와 평가, 나아가 대안 혹은 새로운 텍스트를 제시하는 형태의 글쓰기를 '논술형 글쓰기'라고 한다면, 논술형 글쓰기는 '비판적 읽기와 쓰기(critical reading and writing)' 혹은 '비판적 독해와 작문'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충분히 반영하는 논술형 글쓰기 실습의 구체적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잘 알려진 '비판적 사고의 요소와 기준(속성)'을 논술형 글쓰기의 지침들로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텍스트에 대한 독해와 평가, 대안 제시를 논술형 글쓰기의 유형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는 자연 세계와 사회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학문적 견해를 담고 있는 '정당화 문



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읽기'는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비판적 사고의 주요 요소들을 포착하는 일이며, '비판적 쓰기'는 그 독해된 텍스트를 비판적 사고의 기준에 입각해 평가하는 글을 쓰거나, 조금 더 심화된 단계로 새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 혹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정리하면 논술형 글쓰기 실습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아래의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sup>2)</sup>.

- 1) 읽기 :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비판적 사고의 요소들을 파악하는 과정
  - 비판적 사고의 기본 요소 : 현안 문제, 키워드, 주장, 근거
  - 비판적 사고의 부가 요소 : 기본 가정, 함축, 배경, 관점
- 2) 쓰기(1) : 주어진 텍스트를 비판적 사고의 기준에 입각해 비평하는 과정
  - 비판적 사고의 기준(속성) : 명확성, 정보의 정확성, 유관성, 타당성, 올바름, 사고의 폭과 깊이
- 3) 쓰기(2) : 현안 문제에 대해 주어진 텍스트와는 다른 대안적 견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

이상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아래 글이 특정 교과와 텍스트라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읽기와 쓰기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뤄진다.<sup>3)</sup>

당신이 해변을 걷다가 모래 위에 떨어져 있는 시계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자. 그것을 들여다봄으로써 당신은 그 시계가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교한 사물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파도가 모래를 때림으로써 시계가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원숭이가 타자기 위를 아무렇게 뛰어 다님으로써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씌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시계의 정교함은 그것이 지성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시계를 만든 지성적인 존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계는 존재한다.

생명의 세계를 한번 둘러보자. 생명의 세계에는 엄청나게 정교하고 환경에 잘 적응된 생명체들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사실 생명체들은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리고 시계가 시간을 측정하는 일에 알맞게 되어 있듯이, 생명체들도 생존하고 복제하는 일에 매우 적합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생명체들이 그렇게 놀라운 정도로 정교하고 잘 적응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파도가 모래를 때리는 것과 같은 제멋대로의 과정에 의해 우연히 난초들, 악어들,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엄청난 지성을 가진 창조자가 생명체라 불리는 대단히 정교하고 잘 적응된 기계들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최상의 설명일 것이다. 그러한 존재자를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 윌리엄 페일리, 『자연신학』중에서 -

- 2) 이 논술형 글쓰기 실습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글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의 위상과 ‘학술적 글쓰기’ 모델” 〈철학과 현실〉 65호, 2005, pp.120~137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 3) 예시된 모형 속의 글은 다소 어려워 보이나, 중학교 교과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텍스트를 사용할 경우 이 과정은 중학교 수준에서도 도입 가능하다.



1) 읽기

이 글에서 비판적 사고의 기본 요소와 부가 요소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현안문제	생명체(생명의 세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핵심어와 그 의미	지성 :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의 창조자 창조 : 지성의 목적 실현 행위 근거
근거	①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다. ② 시계는 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성적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 ③ 생명체(생명의 세계)는 생존과 복제를 위해 만들어진,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다. ④ 엄청난 지성을 가진 창조자만이 이러한 기계를 만들 수 있다.(①+②+③으로부터) 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자를 '신' 이라고 부른다.
주장	그러므로 신이 생명체(혹은 생명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기본가정	① 지성적 존재만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교하고 복잡한 사물을 만들 수 있다. ② 생명체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물과 유사하다.
배경	신의 창조 행위를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함. 즉 창조론을 지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함.
함축	① 생명체(생명의 세계)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② 창조주 신이 존재한다.
관점	창조론 혹은 지적설계론(Intelligence Design)의 관점

※ 글 자체엔 나와 있지 않은 부가 요소를 포착하는 일은 중학생 수준에선 무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교사가 글의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 더 적절해 보인다.

2) 쓰기(1)

'비판적 사고의 기준들' 가운데 이 텍스트와 관련된 것들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비평적 물음들이 성립하게 된다.

명확성	핵심 개념 '지성' 과 '창조' 의 의미는 명확한가?
타당성	제시된 근거 5개로부터 "신이 생명체를 창조하였다."는 주장이 제대로 도출되는가?
올바름	근거 ①, ②, ③, ④, ⑤ 중 의심스런 것은 없는가?
사고의 폭과 깊이	1) 생명체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지성' 의 도입이 불가피한가? 2) 모든 대상이 반드시 존재하는 목적을 지녀야 하는가?

이 물음들에 답변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 명확성의 기준에서

위 글의 키워드 ‘지성’과 ‘창조’는 엄밀히 말하면 명확성을 결여한 용어이다. 저자는 ‘지성’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사물의 존재 목적을 의식하고 이를 실현하는 제작 능력’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암묵적 정의는 ‘지성’에 대한 상식적 이해와 크게 다르다. 왜냐하면 그 정의는 ‘지성’에 ‘목적의 의식하는’ 지적 능력 이외에도 목적을 실현하는 ‘제작(만들) 능력’을 더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도 불명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 ‘창조’는 ‘제작’ 혹은 ‘만들’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행위로, 재료를 가지고 특정한 사물을 만드는 ‘제작’과는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 올바름의 기준에서

근거 ①, ②, ③, ⑥를 문제 삼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위 요약문의 핵심 근거 ④는 논리적으로 커다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근거 ④는 독립적인 논거가 아니다. 요약문에도 표시되었듯이 그것은 근거 ①, ②, ③으로부터 추리된 것이다(논리학에서 이러한 추리 유형을 ‘유비’ 혹은 ‘유추’라고 부른다). 문제는 근거 ④가 근거 ①, ②, ③으로부터 적절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계’와 ‘생명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 사과의 폭과 깊이의 기준에서

앞에서의 논리적 문제점 외에도 이 글은 논의의 폭에 있어서도 약점을 갖고 있다. 저자는 현안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모든 존재 혹은 대상이 각기 존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또 이러한 목적을 의식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지성’이나 ‘창조’와 같은 용어를 도입한 것만 보더라도 그 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3) 쓰기(2)

앞 단계의 글쓰기 내용을 정리하면, '신이 생명체를 창조하였다.'는 페일리의 주장은 적어도 '시계와의 유비' 그리고 '지성', '창조' 등의 용어 도입을 통해서는 제대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라는 원래의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 혹은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아래는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에서 발췌한 글로, 페일리의 견해에 대한 간략한 비판과 함께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단, ( )안의 부분은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열성적이고 성실한 페일리의 주장은 당대 최고 수준의 생물학 지식에 의거하였지만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도 완전히 틀린 주장이었다. 시계와 생명체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잘못된 유비(또는 유추)의 오류이다. 왜냐하면 시계와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 대상들이며, 따라서 둘 사이에 유비(또는 유추)가 성립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그 과정을 전개하였지만 모든 자연 현상을 창조한 유일한 시계공 '맹목적인 물리학적 힘' 이다. 실제의 시계공은 앞을 내다볼 수 있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미래의 결과를 내다보면서, 톱니바퀴와 용수철을 설계하고 그것들의 조립 방법을 생각한다. 다윈이 발견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과정인 자연 선택은 확실히 어떤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의 형태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며, 거기에는 미리 계획한 의도 따위는 들어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도, 마음의 눈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찰력도 없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한다. 만약 그것이 자연의 시계공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눈먼' 시계공이다.





## 중학교에서의 바람직한 논술 지도 방안

이 흥 자(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장)

1. 들어가며
2. 통합교과형 논술은 이렇게 준비하자
3. 논술 지도는 모든 수업 시간에 하자
4. 제대로 된 서술형 · 논술형 평가부터 시작하자
5. 마무리하며

### 1. 들어가며

‘논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함’이다. 이 때 ‘의견’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말한다. 다시 말해 논술은, 어떤 것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글이다. 따라서 논술을 잘하려면 ‘어떤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생각’해야 하며, ‘논리적으로 서술’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논술을 평준화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보기도 한다. 그것은 논술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스스로의 사고로 재편성하여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펴는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술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쓰기 능력 이전에 사고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뚜렷한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자유롭게 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야 한다. ‘정의’라고 하면 영국 철학자 존 롤즈의 ‘정의론’, ‘무지의 베일’이 등장하고, ‘삶의 질’이 화두로 나오면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1위이고 사회 전반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식의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들먹이면 개성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논술이 되기 쉽다. 정형화된 사고는 정형화된 글을 만든다. 창의적인 생각에서 창의적인 글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창의성이, 튀는 발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은 주장의 창의성이 아니라 주장을 펴는 논증의 창의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쓰기 단계에 가서는 단편적 글쓰기가 아니라 통합적 글쓰기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논술을 잘하고 있다는 학교의 논술 지도 방법을 살펴보면, 여러 선생님들이 열성적인 노력으로 통합적 논술 지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학교에서의 바람직한 논술 지도 방안

대전 대성고는 학생을 모집 단위 및 대학별로 나눠 맞춤형 지도를 하면서, 첨삭 지도와 토론 수업을 함께 진행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신문의 칼럼을 활용해 논제의 전개와 구조를 파악한 뒤 학생들이 논증을 계속 추가해 남의 글을 내 글로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자연계열은 여러 명이 토론과 발표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정보와 지식의 양을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지도한다고 한다.

서울 경희여고는 교사 12명이 논술 지원팀(철학 1명, 국어 3명, 사회 3명, 과학 2명, 수리 1명, 영어 2명)을 구성하여 각 과목 정규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논술 마인드를 키워준다는 목표를 세우고 효과적인 논술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 한다. 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논술의 비법을 찾지 말라.’, ‘주어진 것을 활용하라.’, ‘수능과 내신과 논술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서울 창덕여고의 유 모 교사는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수업에 믿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3년의 교육과정을 짜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3년 동안 140시간의 강의를 연속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학교 논술 프로그램은 논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현대사, 경제, 정치, 물리, 비문학, 화학과 생물 등 6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길러 준다고 한다.

논술 지도는 학교가 학원보다 강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평가권이 있고, 팀티칭이 가능하고, 방과후학교로 하든 정규 교과로 하든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논술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우리 교육 현실을 대변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하는 논술 교육은 공교육을 살리는 묘약이 될 수 있다. 아니, 논술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각 대학의 입시 전형에서 논술 비중이 늘고 있다. 이것은 논술 능력의 중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내년부터 논술 비중을 10%에서 30%로 늘리고 자연계에서도 논술을 도입한다고 한다. 비중이 높아진다고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적인 원리들을 아주 오래 공을 들여 정확하게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 22일 실시된 2008년 모의 논술 고사에서는 교과서 지문이 사용되어 교사들 32명 중 25명이 공교육과정만으로 서울대학교 논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시문 중 상당수가 교과서 내에서 발췌되었고 낯설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다만 제시문을 달달 외우는 식의 공부로는 논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제시문은 쉽지만 논제는 상당한 추론 능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토론식 수업, 심화 학습 등 수업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평이다.

금년 초, 서울대학교가 고등학교 100개교 재학생 196명을 상대로 시행한 모의 논술 고사에서는 5시간의 시험 시간 동안에 인문계 3문항, 자연계 4문항을 제시했다. 제시문은 평이했으나 문제 전체의 난이도는 높아서, 학생들 가운데 52.4%가 논제에 맞는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자연계는 오픈 북을 허용했으나 10명 중 1명만이 답안 작성에 오픈 북 허용이 도움 되었다고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오픈 북 시험은 없어질 전망이다.

자연계는 80.5%가, 인문계는 61.4%가 ‘어려웠다’로 응답했다. 시험 시간은 인문계 83.1%가, 자연계

68.0%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채점 결과 인문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51.52점, 자연계는 41.33점이었다.

채점 방식으로 인문계 3가지, 자연계 4가지로 시험해 본 결과, 인문계는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가 평가 기준에 따라 가채점한 뒤 등급화해 채점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삼고, 점수 편차가 큰 답안을 제3의 채점 위원이 다시 채점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고 하고 자연계는 출제 위원과 채점 위원이 가채점한 뒤 평가 기준을 협의해 본채점하는 방식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가 제시하는 새로운 논술 모형이 바로 통합교과형 논술이다. 과거의 논술은 학생들이 논술 교재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요령껏 암기하여 유사한 주제의 제시문과 논제가 출제되면 암기한 내용을 대충 짜 맞추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교과형 논술은, 암기된 지식 중심, 결과 중심, 개별 교과 중심, 주입식 학습에서 벗어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서로 다른 교과 간에 소통하는 교육, 자기주도형 교육으로 교육 방법과 형태가 바뀌면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즉, 통합교과형 논술은 새로운 커리큘럼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교과형 논술 대비책은 다음과 같다.

- 비법을 찾지 말라.
- 따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한다.
- 배운 원리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기른다.
- 깊이 있는 사고력을 배양한다.

## 2. 통합교과형 논술은 이렇게 준비하자

### 가. 논술 경향 파악

최근의 대입 논술 출제 경향은 계열에 상관없이 고전에서 지문을 발췌해 견해를 묻는 자료 제시형이고 시간은 대략 1문항당 100분~180분을 준다. 대개 통합교과형이고 일반 논술형도 가끔 있다. 분량은 보통 2,000자 내외이다. 글쓰기가 몸에 배지 않은 학생이라면 그 분량을 채우는 일 자체가 힘들다. 초등학교 때부터 긴 글쓰기에 익숙해져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짧은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짧은 글쓰기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 이상 자주 한다. 그러나 짧은 글만 써서는 논술이라는 긴 글에 적응하기 힘들다. 호흡이 긴 글에 익숙해져야 한다. 중학교 때는 800~1,000자, 고등학교 졸업 때쯤에는 2,500자 정도의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대학에서 논술 평가의 제시문은 교과서와 관련된 고전을 인용하고 있으나 긴 글 채점이 어려워 사 고력을 측정할 서너 문제를 내어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자기 생각을 본론 형식으로 쓰게 하기도 한다. 분량이



## 중학교에서의 바람직한 논술 지도 방안

적다고 쉬운 것이 아니다. 짧은 분량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전개하자니 압축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2008년 대학입시에서는 논술 점수의 영향력이 45%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논술의 반영 비중이 10%에서 30%로 세 배 오르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을 3.6%로 대학 측은 계산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계산상 그런 것이고 다른 것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의 영향력이 45%에 달한다는 논리다. 서울대학교가 통합형 논술을 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펴는 논리이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신을 절대적 상대평가로 하고, 수능을 등급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논술 반영 비율을 서울대학교 3.9%, 연세대 4.2%, 고려대 10%, 이화여대 3%, 중앙대 5%, 서울교대 3% 등 대부분 3~10%를 반영했었다. 그러나 점차로 조금씩 반영 비율을 늘리고 있다.

대학의 수업은 문·이과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학설을 읽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능력의 기초를 논술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요즘 학문의 특징이 문·이과의 구분이 별로 없다. 논리적 글쓰기는 어디서나 필수 요소이다.

대학은 궁극적으로 수능과 학생부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 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논술을 치르는 것이다. 이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아무나 뽑아서 제대로 가르치라는 요구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게 뻔하다. 논술을 보고 들어온 학생들이 보고서 작성을 잘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본고사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서 본고사는 당분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9월 서강대 수시 2학기 논술 고사에서 3,700여 명의 답안지를 채점하던 교수 10여명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논술 1번 환경 문제에 대해 2,000장 가량 답안지의 결론이 엇비슷했기 때문이다. “근대화를 추진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얼핏 보기에 나무랄 데 없는 결론이지만 서강대 측은 이렇게 답한 학생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한다. 수험생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이었는데 학생들이 너무나 보편적인 답변만 써 놓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학원에서 ‘개발’이란 주제가 나오면 무조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답하라고 한 것 같았다는 것이다. 이는 학원에서 논술을 지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학교 교육이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은 강남 논술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서울대학교 논술에서 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학원 문제를 어떻게 다 검토하겠느냐는 학부모의 우려가 있다.

학부모와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서 일선 교사들 입장은 정말 난처하다. 논술이건 무엇이건 공교육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부터라도 교사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게 되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은 고등학교에서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해야 한다. 발표 수업, 토론 수업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은 중학교에서 많이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교사들은 학원에서 할 수 없는 나만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 나. 통합교과형 논술 지도 과정

1980~1990년대 초는 ‘학력평가시대’였고 1994~2004년까지는 ‘수능시대’였다면, 2005년 이후는 ‘독서논술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독서 논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면 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정규 시간에 논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독서 교육 강화와 함께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논술에 독서가 기초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모든 독서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개념의 독서만이 논술에 도움이 된다. 독서가 강요된 과업이 되면 고통스럽다. 독서가 지식의 습득으로 바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바심은 학생들에게 독서를 또 하나의 숙제로 여기게 만든다. 그런 독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들 대부분이 정규교육을 마치면 더 이상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독서 습관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다. ‘느긋하게’, ‘아이들이 즐기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생활 경험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노는 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전 독서 경험과 잘 호응될 수 있도록’, ‘일상의 집안 생활과 잘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화 영화, 게임 등이 TV와 인터넷을 타고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저급 문화의 통로라면, 독서는 학교, 가정, 사회가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문명의 통로이다.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적절히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책을 제시해야 한다. 전집물이나 번역서를 무작정 안기는 것은 좋지 않다. 보호자나 교사가 먼저 책을 살펴보고 판단력이나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천하는 것이 좋다. 소설이나 수필류에서 시작하여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철학적인 내용의 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모든 수업 시간에 교과 내용과 관련된 책을 소개하면 심화 수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책을 읽는 힘이 생기면 시를 틈틈이 읽게 하는 것도 좋다. 시에 사용된 언어는 가장 함축적이고 정제된 형태의 글이기 때문이다.

‘읽기’는 무엇인가? ‘읽기’는 텍스트에서 객관적 지식이나 정보를 읽어 내는 ‘객관적 읽기’가 있고, 텍스트를 자신의 인지 체계에 맞추어 읽어 내는 ‘주관적 읽기’가 있고, 텍스트를 읽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쓰는 과정임을 전제로 하는 ‘구성적 읽기’가 있다. 가령 토의나 토론 학습, 역할극, 분단 학습 모형을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이 단계의 읽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논술을 쓸 수 있는 읽기는 비판하고 사고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는 ‘구성적 읽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수업 시간은 구성적 읽기 단계까지 도달하도록 수업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사 변인이나 학생 변인이 작용하여 수업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학생들은 수업 결손이 생기고, 그로 인해 구성적 읽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다음, ‘쓰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는 ‘단원의 길잡이, 읽기 전 활동, 읽기 후 활동, 생각 넓히기, 보충 심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 수업 단계를 보자. 글을 읽으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느낌을 동원한다. **사고를 동반한 읽기**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이 단계에서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게



한다. 다른 학생을 지적하여 발표시키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비판적 사고**가 생기는 것이다. 다음은 교사가 교과서를 쓴 전문가의 생각에 접근하는 읽기를 시도한다.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글쓰이의 목적이나 글의 구조나 글에서 얻는 교훈들을 이해하게 되고 생활への 적용을 생각하게 된다. 이리하여 자신들의 생각보다 월등히 수준 높은 전문가의 지식, 느낌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쓰기를 통한 심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쓰기는 읽기와 같지 않다. 읽고 이해한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거나 또는 확장하여 적용하는 쓰기 활동은 읽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다. 이 과제 수행 중에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자기 지식으로 분석하고 명료화하는 재생산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수업 단계는 사회, 도덕 등의 인문계 교과뿐만 아니라 실험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과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은 논술의 과정이다. 쓰기 과정을 거치면서 논거를 제시하면 다른 사람(논술 문제 출제자와 채점자)을 설득하는 글인 제대로 된 논술을 쓰게 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12년간 교과서가 제안하는 여러 학습 활동을 직접 해보는 주체적인 태도를 습관화하면, 다시 말해서 제대로만 수업하고 제대로만 배우면 통합 교과형 논술에 관하여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사는 다만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논술과 연결시키는 안목을 갖게 해주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업이 ‘읽고 이야기하고 쓰는 활동’ 중의 ‘읽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이다.

EBS 같은 방송 매체의 논술 지도가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는, 논술이 읽기에서 시작하지만 쓰기로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방송 매체에서는 쓰기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앉아서 듣는 논술 지도는 그때뿐이고 막상 쓰려고 하면 시작부터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미 배운 글이 지문으로 나와도 논제를 약간만 변형시키면 겁을 먹고 서두르게 되어 쟁점 파악도 못하고 제시문을 반복 인용하면서 글 분량을 채우는 논술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논술은 글쓰기지만 문장력 평가 시험이 아니다. 논리적이며 독창적인 글쓰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부터의 논술은 통합교과형 논술이다. 통합은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것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통합을 가능케 하는 것은 창의력이므로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창의력 신장이 필요하다.

창의적 사고란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생각을 생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창의성은 튀는 발상이 아니라 남과 다른 근거 제시 방법을 찾는 능력이라고 해야 맞다. 창의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먼저 필요한 능력은 문제 제기 능력이다. 주어진 문제의 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을 쟁점 파악이라 한다. 기존 관념에서 탈피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길 것이다. ‘어떻게’ 이전에 ‘왜’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그렇구나!”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사고할 거리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 다. 통합교과형 논술 시험의 평가 항목

통합교과형 논술 시험의 평가 항목으로 각 대학이 제시한 것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자료의 해석과 분석 능력

우선 논술 시험에서는 논제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시문으로 제시된 글을 읽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논술 시험은 주어진 자료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해석·분석 능력과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는 평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제시문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각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논술에 적용하는 응용 능력이 있는가?
- 조직적,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2) 논리적 사고 능력

논술 시험은 논리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시험으로, 대학에서의 학습 능력인 글쓰기, 말하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논술 고사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준을 두어 자신의 주장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 논리적 사고 능력 평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주장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논증의 절차와 규칙에 일관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가?
- 사상(事象)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비판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건전한 윤리가 바탕이 된 포괄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3) 창의적 사고 능력

논술 시험은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독창적이면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몇 가지 유형화된 논제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외워서 쓰거나 틀에 박힌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는 다른 자신의 견해를 심층적으로 밝혀서 설득력을 지녀야 좋은 논술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창의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논의의 관점이나 주장을 독창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있는가?
- 다양한 관점에서 발상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치밀하고 깊이 있게 논리를 전개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4) 종합적 사고 능력

논술 시험은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즉 논술 시험에서 제시된 논제와 제시문으로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습자의 과거 배경 지식(개인적 경험, 독서 체험, 학습 내용 등)과 결부시켜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논거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종합적 사고 능력 측정과 관련된 평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논술의 내용을 결정하는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가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가?
- 문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하여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문제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5) 언어 표현 능력

논술 시험은 표현력을 측정하는 글쓰기 시험이다. 따라서 단어, 문장, 단락, 전체 글이라는 맥락에서, 글 쓰기에 요구되는 언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어 규범에 맞는 자연스러운 글을 써야 하며, 논리를 중시하는 논술 고사라는 글쓰기의 개념과 특성에도 부합하는 논술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논술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언어 표현 능력의 평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표현의 조직과 전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풍부하고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사고 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3. 논술 지도는 모든 수업 시간에 하자

### 가. 논술 능력은 단기간에 형성될 수가 없다

1,600자~2,000자의 글을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써내려 가려면 글쓰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쟁점 파악에서부터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논술 능력은 모든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길러가야 할 일이다.

처음에는 한 문장을, 다음에는 한 문단을, 그 다음에는 두, 세 문단을 만들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동북 고등학교에서 인문사회 계열은 신문의 칼럼을 활용해 논제의 전개와 구조를 파악한 뒤 학생들이 논증을 계속 추가해 남의 글을 내 글로 만드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자연 계열은 여러 명이 토론과 발표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정보와 지식의 양을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지도한다고 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 나. 논술은 단순히 국어과의 작문 영역이 아니다

논술은 작문의 영역 중 논리적인 글쓰기에 들어가지만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작문 능력이 전부

가 아니다. 우선 출제되는 제재부터 범교과적이다. 제재에 대한 문학적인 접근은 오히려 논리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아름다운 표현도 삼가야 한다. 대학 입시 논술 시험에서 채점을 주도하는 교수들은 대개 철학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다. 배경 지식을 확장해야 한다

논술에서는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최근의 논술 제재는 사회, 윤리, 과학 분야가 많다. 따라서 그 방면의 배경 지식도 많이 필요하다.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다양하고 타당한 논거를 제시할 수가 있다. 배경 지식 확장을 위해서 독서를 생활화해야 한다.

#### 라.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단순 암기식 공부로는 좋은 논술을 작성할 수 없다. 따라서 논술 공부는 개별 논제에 대한 배경 지식 쌓기와 자기 견해 세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 논제들을 관통하는 상위 논제나 이슈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나름의 안목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통합적 사고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 마. 표 분석력이나 공식이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지난 200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부터 시작된 현상으로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거나, 학생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공식이나 원리가 도출된 과정을 설명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도와 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아 정답을 요령껏 맞추는 정도로는 표 분석력, 공식의 원리 설명이 쉽지 않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는가를 측정하는 한 방법인만큼 정확한 지식,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 바. 비판적 사고를 생활화한다

제시문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나 나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 논술의 기본 형식이다. 따라서 논제에 대한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서술보다는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 자신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세계가 점점 하나로 통합되어 가므로 국가와 국가, 문명과 문명의 갈등이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시사 잡지, 신문 기사·사설·칼럼, 뉴스 등을 통해 화제가 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현대 사회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고전, 문학 작품 등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 사.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키운다

시사 토론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한 문제에 대해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므로,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현상이나 유사한 경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통합교과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 과정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훈련도 해야 할 것이다.

### 4. 제대로 된 서술형·논술형 평가부터 시작하자

논술이 종합적 사고를 측정하는 쓰기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교육에서 지도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교사들의 의무가 우선적으로 담당 교과목 지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교과목의 내용들과 관련되면서 창의력, 논리적 사고, 표현력 등 통합적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술을 가르칠 교과목이 없으니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어 교사가 전담하고 있는 독서, 작문 등을 중심으로 국어과가 논술 교육을 일부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통합교과형 논술을 지도하기엔 힘에 부친다. 논술은 국어 영역이 아니라 철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교육에서 시행하는 논술 교육은 문제를 족집게처럼 집어낸다든지 유형을 학습시킨다든지 하여 암기 내지는 글쓰기 기술을 지향하여 비슷한 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통합교과적 논술에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과외 또한 단기간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의 교육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합교과형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서 이를 소화할 수 없으므로 대학에서 채택해서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필요한 교육은 당연히 공교육에서 행해져야 한다.

학교에서 행하고 있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도입은 현행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일이자 논술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어구나 어절 쓰는 문제를 서술형으로, 짧은 글짓기 수준을 논술형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서술형, 논술형 문제는 아니다. 교과별로 출제 방법 워크숍을 해야 할 것이고 출제 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서술형 평가란 말로 답하는 구술 시험을 글로 답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논술형에 비하여 분량이 많지 않다. 대개 2~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단 정도를 쓰면 된다. 논술형 평가는 대개 2~5개의 문단으로 된 완성된 글이어야 한다. 답안을 평가할 때도 서술형은 서술된 내용의 넓이와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 주안점인 것에 비해 논술형은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로 작성했는가를 평가하면 된다.

서술형·논술형 평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하는 것이 좋다.



- 선입관 없이 문제를 잘 읽었는가?
- 수필 또는 감상문 같은 글에서 탈피했는가?
- 제시문에 나오는 인용문을 재인용하지 않고 글을 전개하는가?
- 띄어쓰기,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고 글쓰기 기초가 되어 있는가?
- 자신 없는 표현이나 막연한 짐작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는가?
- 압축적인 표현을 하여 같은 양의 글 속에서도 남보다 많은 실속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 서론과 본론의 정합성, 즉 서론에서 제시한 현실의 문제점을 본론에서 긴밀하게 연결시켰는가?

## 5. 마무리하며

중학교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지도하자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대학 입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대안의 성공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모든 교과에서 제대로 수업하고 제대로 평가하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만들면 저절로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요즘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정보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다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만의 정보를 만들어 그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논술 교육이 학생들 시야를 넓혀주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이끌어 준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교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시대는 모든 교과 교사가 논술을 염두에 둔 수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일이 우리 교사의 일이라면 제대로 멋지게 한번 해 볼 일이다.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넷이 있는데, 첫째 열쇠는 성공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그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셋째는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마지막 넷째 열쇠는 목표 지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피해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는 것이라 한다. 넷째 단계가 가장 힘들다. 때로는 장애물을 치우고 가고, 돌아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물이 교사의 여러 가지 업무일 수도 있고, 배울 자세가 안 된 학생일 수도 있고, 사교육으로 달려가고 보는 성급한 학부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은 외적인 장애물이다. 문제는 내적 장애물이다. 혹시 교사가 맡은 수업만 적당히 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의 의식이 있다면 그 내적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성공의 열쇠일 것이다.

사람은 땀의 의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힘들게 얻은 소득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수업지도에는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 특별활동에서 논술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분들은 분명 남보다 많은 땀을 흘리는 분들이다. 그 흘린 땀의 소득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으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중학교 논술 교육의 필요성과 지도 방안

심재홍(홍은중학교 교감)

1. 중학교에서 논술 교육은 왜 해야 하는가
2.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논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공교육에서 논술 교육을 해야 하는지, 공교육에서 논술 교육을 한다면 어느 단계의 학교 급(級)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는 중학교에서의 논술 교육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중학교에서 논술 교육은 왜 해야 하는가

‘논술 교육을 중학교 단계에서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는 대학 입시 논술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논술’은 대학 입시라는 수단적 가치 외에 여러 가지 교육적 함의가 있는 말이다. 대학 입시로서의 논술 고사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논술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단시일에 신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학교에서도 논술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술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논제에 대한 풍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고, 깊이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며, 사고한 내용을 논리적인 글로 표현해 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폭넓은 배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과 독서가 필요하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고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쓰기 능력 또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조금씩 신장된다. 이런 점에서 논술 교육은 중학생 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는 중학교에서 논술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와 관련지어 정리해 본다.

### 가.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

지식 기반 사회는 지식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이므로 지식을 어떻게 구조화·체계화하여 활용·유통시킬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보다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중학교에서의 교육도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논술'은 학교 교육이 지식 기반 사회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미국의 에세이 등 선진국의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텍스트 독해, 내용의 생성과 조직, 문장 표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영상 세대인 지금의 학생들은 대체로 사고력을 요하는 글쓰기는 기피하고 감각적인 문화에 탐닉하는 경향이 있는데, 논술 교육은 이들에게 창의적·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감각적인 청소년 문화의 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지식의 연결보다는 문제의 근본을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과제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게 한다.

논술 교육의 효용성은,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교육 목표 중의 하나인 '지식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와 관련되어 있다.

### 나. 민주주의 가치 이해와 생활 방식의 체득

논술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논술은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펼치는 것이므로, 논술 교육은 특정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논쟁을 전개하는 토론을 활성화시킨다. 학급회나 학교 대의원회 등이 열릴 때, 주어진 안건이 상당한 토론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자주 본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토론방이 있고 건의 사항, 자유 발언대 등의 코너가 있어도 댓글을 달며 토론이 지속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논술을 가르치게 되면 이러한 수동적인 학교 문화가 좀 더 활기차고 합리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로 조금씩 바뀌어져 갈 것이다.

길을 가다 보면 접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차량 지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샷대질을 하며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가끔 본다. 이런 모습은 길거리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뉴스의 시위 현장 등 도처에서 접할 수 있다. 합리성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학교에서의 논술 교육은 논리적인 근거 제시, 비판적인 사고 과정 등의 훈련을 통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 시민 교육에 기여함으로써 합리성의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논술 교육의 이러한 효용성은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교육 목표 중의 하나인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와 관련되어 있다.



## 다.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문장 구사 능력의 습득

과거 어느 대학에서 합격자의 논술 답안지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총 20개의 문장 중에 17개의 문장이 어법에 어긋나거나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 입시 합격자의 문장이 이러할진대 중학생이 구사하는 문장이 어떠할 것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글은 그 글을 쓴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 문장의 논리성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사고 능력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그 사람의 수준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 논리적·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쓴 글도 논리성을 지니게 되고, 역으로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의 사고력도 논리를 갖추게 된다.

논술문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이므로 반드시 문학 작품처럼 아름다운 예술적 표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논술문에 사용되는 문장은 무엇보다도 논리성이 중요한 것이며 표현의 예술성은 차후의 문제이다. 논술 교육은 문법에 어긋난 문장과 정확한 문장을 구분할 수 있게 하고, 모호한 개념, 애매한 문장 사용으로부터 벗어나 뜻이 분명한 문장·개념을 사용하게 하며, 난해한 문장, 만연체의 문장으로부터 벗어나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분명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논리적인 문장 구사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논리적,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논술 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한 모습인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육성과 관련되어 있다.

## 라. 수학(修學) 능력의 향상

1997년 ‘학교 붕괴’라는 용어가 교사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매스컴 등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학교 붕괴가 실제 현상인가 아니면 과장된 것인가?’, ‘학교 붕괴 현상이 우리나라의 특유의 현상인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가?’ 등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었다.

학교 교육 위기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지만 학교 교육의 효용성, 즉 학교 교육이 지식 기반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점이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다시 말해 시대는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나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법은 산업사회의 노동자 양성 수준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지적이 옳다면 기계적인 교과서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 자료와 수업 방법, 그리고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논술 교육은 현재의 교실 위기 또는 학교 위기를 타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논술 교육은 교사의 수업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도 좋게 만들 것이다.

## 마. 평가도구로서의 유용성

예전부터 우리는 학교 교육의 폐해 중 하나로 주입식 교육 방법과 선다형 평가를 꼽아왔다. 피동적인 지식의 습득만으로도 문제를 그런 대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산업화 시대에는 주입식 교육과 선다형 평가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발휘하였지만 이제 이러한 교육 방법이나 평가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습득한 지식을 통합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논술 교육

은 이러한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며, 논술 시험은 이를 평가하는 타당도 높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분석과 종합을 통한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구상하고 표현하는 논술의 과정에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이 필요한데, ‘논술 시험’은 다른 어떤 평가 도구보다도 이러한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중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교사 개인의 차원과 교사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단위 학교의 차원, 그리고 가정에서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2.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가. 교과서와 학교 수업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제7차 교육과정을 구현한 교과서에는 논술의 기초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들어 있다. ‘학습 활동’, ‘보충학습’, ‘심화학습’, ‘읽기 자료’, ‘도움글’ 등, 교과서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활동 중심의 수업은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유발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교과서의 각 단원마다 이어지는 이러한 장치들에 대한 학습은 독서·토론·논술 공부와 연계되어 있다.

3-1학기 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 중 ‘목표학습’을 예로 들어보자.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단원의 ‘(1) 표준어와 방언’의 ‘학습활동’에서 ‘목표학습’을 보면 “‘표준어와 방언’을 읽고,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고 되어 있다. 이 학습 과제는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묻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배경 지식의 습득을 요구하는 것으로 논술 교육과 연결된다.

‘보충·심화’의 자료 글과 제시된 과제의 예를 들어 보자.

3-1학기 3단원 ‘독서와 사회’의 ‘보충·심화’를 예로 들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지문으로 주고 ‘이 소설에 대한 사회상(社會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의 제시와 그 해명은 논술 공부의 한 과정인 것이다. 문학작품을 통하여 그 작품에 반영된 빈부 격차, 사회보장의 한계,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근대화의 빛과 그림자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논술의 한 단계이며 이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고 답안을 구상, 작성해 나가면 완결된 논술문이 되는 것이다.

교과서는 독서와 논술 공부의 출발점이 되는 교재로 많은 읽을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교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논술의 주제나 내용 또한 교과서의 학습 내용으로, 일상적인 교

수·학습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논술은 교과 지도 교사가 해당 교과에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지도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겠다.

## 나. 학습 요소 중 쟁점 사항의 정리

논술 주제는 ‘찬성-반대-중립’, ‘옳음-그름-판단 유보’ 등, 의견이 둘 이상으로 갈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점에서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의 학습 요소 중 쟁점이 있을 만한 내용을 특히 잘 정리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과와 연계하여 논술을 지도하려면 우선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쟁점 사항을 추출·정리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상대적인 것인가?’,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인가?’, ‘언어가 민족 정체성의 표지(標識)인가?’, ‘나와 다른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차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우대해야 하는가?’, ‘다수결은 항상 옳은가?’, ‘과학은 가치중립적인가?’,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는가?’,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는가?’ 등이 그러한 쟁점 사항의 예이다. 쟁점이 있어야 토론이 유발되며 토론은 합리적인 논거 제시를 필요로 한다. 합리적인 논거의 제시는 바로 논술 능력이 요구하는 것이다.

쟁점 사항의 정리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토론 주제가 정해지면 그것과 관련하여 과제를 부과하거나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제에 대해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찬성-반대, 옳음-그름의 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 다.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습관의 배양

요약은 글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과 지엽적인 내용으로 구분하여 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읊기는 것으로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독해 능력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조직적인 표현 능력이 요구된다.

요약과 논술은 동전의 양면이다. 좋은 논술문에는 필자의 주장과 논거가 잘 제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좋은 요약문에는 필자의 주요 주장과 논거가 잘 요약되어야 한다. 특히 주제문의 진술과 그에 대한 논거를 인과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글의 결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요약문은 지문의 문장을 그대로 읊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표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즉, 본문의 문장을 그대로 읊기지 말고 연결을 위한 지시어나 접속어 등을 활용하여 내용의 왜곡 없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요약하기는 그 자체가 논술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논술문 쓰기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논술 교육보다는 요약하기 지도를 통하여 분석력과 종합력, 논리적인 사고력, 표현력 등을 신장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 라. 수업 방법의 개선-토론을 바탕으로 한 수업의 활성화

교과와 연계한 논술 교육을 위해 교사는 강의식 수업에 의한 지식의 전수에서 벗어나 발산적 사고력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과 토론을 유도하는 수업 형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발산적 사고는 하나의 점에서 펼쳐

나가듯이 사고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창의력을 의미하는데, 토론과 열린 질문은 이러한 발산적 사고를 자극한다.

토론과 논술은 모두 설득의 의도를 가지며 그러한 설득을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관에 치우친 주장으로는 제대로 토론이 될 수 없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 못하는 논술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는 점에서 토론과 논술은 논리를 생명으로 하는 합리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토론의 기회를 많이 가지는 일은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좋은 논술문을 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이것이 오늘날 논술 교육의 과정에서 토론을 중시하게 된 배경이다. 직과 토론, 분단별 토의 학습, 세미나식 발표 수업, 모의재판, 역할극, 탐구 과제의 수행, 집단 협력 프로젝트 수업 등은 토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모두 논술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업 형태이다.

어떤 교과든 독서-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단원에서 제기한 생각할 거리를 정리하게 하면 논술 지도가 된다. 주제에 따라 또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토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토론이 진도 조절을 어렵게 하고 학생들 통제에도 문제가 있으며 또 학생들 참여도가 낮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토론의 규칙,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면서 수준에 잘 맞는 주제를 고르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어떤 일도 교사의 지속적이고 열성적인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지만 특히 발표 및 토론 수업의 활성화는 그럴 것이다.

### 마.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

대학 입시가 우리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논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학교에서의 평가를 논술형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논술 평가는 결과 중심의 평가와 과정 중심의 평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결과 중심의 평가는 학생이 써 놓은 결과물로서의 논술문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술 평가가 이러한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과정 중심의 평가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사고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작은 문항들을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펴낸 중학교 교사용 논술 교재 「읽기에서 논술까지」에서 예를 들어 본다. 이 책에서는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인 신석기 유적과 부여 송국리 유적인 청동기시대 유적지에 관한 글을 읽기 자료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논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 ① 읽기 자료에 나타나 있는 신석기시대의 유물은 무엇인가 말해 보자.
- ② 읽기 자료에 나타나 있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은 무엇인가 말해 보자.
- ③ 읽기 자료의 제목을 붙여 보자.
- ④ 읽기 자료를 토대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비교하여 서술해 보자.
- ⑤ 읽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신석기인의 하루 일과를 작성해 보자.

①, ②는 읽기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③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 이해를 종합, 정리하여 개괄적인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④는 ③에서 파악한 제목과 관련하여 글의 중심적인 내용을 기준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⑤는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신석기인의 하루 일정을 만들어보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①~④의 단계적인 질문 없이 ⑤의 문항만 제시한다면 이는 결과 중심의 평가가 되기 쉽지만 ①, ②→③→④→⑤의 단계를 거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심의 평가는 답안을 암기해서 쓸 수 있는 폐단을 예방하며 또 단계를 거치는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논술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불식시켜 주는 데도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 중심의 평가 문항은 알고 보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는 학습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서술형 문항들이 이처럼 질서 있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논술형 문항의 난점은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평가자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과정 중심의 평가는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한편의 완결된 글을 요구하고 그것만을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완결된 글이 나올 수 있도록 출제하여 평가하면 이러한 선행 문항들은 그 답이 비교적 객관적이어서 채점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또 채점의 객관도와 평가의 신뢰도는 <유의 사항>에서 답안의 방향과 길이를 제한하거나, 채점 기준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채점자를 복수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교과와 관련하여 논술 교육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부분적으로나마 논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바. 다른 교과와 관련짓는 습관 들이기

논술은 역사, 사회, 도덕 등 다양한 교과 내용을 관련시켜 서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과 우리가 처한 현실 문제와의 관련을 짓도록 요구한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제각기 고립된 지식으로 남아 있으면 좋은 논술문을 쓸 수 없다. 논술은 교과라는 칸막이에 갇힌 고립된 지식이 아니라 교과 간에 소통하는 살아있는 지식을 지향한다. 논술의 이러한 성격을 강조하여 통합교과적 논술이란 말이 두루 쓰이고 있다.

통합교과적 논술은 영역 전이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다른 교과 내용이나 우리가 처한 현실 문제와 관련시키는 일은 이러한 영역 전이적 사고에 해당한다. 가능하다면 교사는 생각해보기, 더 알아보기 등의 과제를 통하여 다른 교과 영역까지 관련을 지어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체계적인 지식의 배양이나 통합적인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

앞에서 예시한 황해도 봉산 지탑리 유적인 신석기 유적과 부여 송국리 유적인 청동기시대 유적지에 관한 글과 관련한 5번 논술 문항의 “읽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신석기인의 하루 일과를 일기 형식으로 작성해 보자.”고 하였다면 이는 영역 전이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국어과에서 배운 ‘일기 형식’에 대한 이해를 역사 지식과 관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사. 다양한 독서와 글쓰기 체험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풍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특정의 주제로 논술문을 쓴다고 할 때 그 주제와 관련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알맹이 있는 글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

논술 능력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사고력이다. 한 마디로 사고력이라고 했지만 사고력에는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독해력 등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고력의 배양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배경 지식과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는 독서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지식은 독서를 통해 습득되며 우리의 사고력은 독서의 양과 깊이에 비례하여 함양된다. 독서 교육은 교과 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학교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읽을거리를 제시하고 독서 결과를 발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논술 능력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표현력, 즉 글을 쓰는 능력이다. 흔히 우리가 '논술'이라고 부르는 논리적인 글쓰기는 국어과의 전유물이 아니며 또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 모든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과제를 부과할 때 논리적인 글쓰기의 결과물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교과 지도와 관련한 글쓰기에서 과도한 장문의 글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문단 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무난하다. 하나의 명제(주장)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몇 개의 문장(논거)으로 짧은 도막(문단)을 써 보는 연습을 시키다가 2학년에서는 한두 개 문단을 쓰는 것으로 확장하고, 3학년이 되면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결된 글을 써 보게 한다. 이 때에도 분량이 너무 긴 글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500~1,000자 정도의 비교적 짧은 분량의 완결된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 3.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효과적인 논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단위 학교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가. 독서·토론·논술 교육 중심으로서의 학교 도서관

중학교에서의 독서·토론·논술 교육은 학교 도서관이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중학교 도서관도 빔 프로젝터, 실물환등기, DVD, 영상 기기 등 첨단 디지털 시설을 갖추고 도서관 활용 수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비록 보조사서가 없더라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학부모 명예 사서나 학생 사서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항상 활동하는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도서·DVD·비디오 등의 구입 방법 개선과 전자 도서관의 구축, 다양한 정기간행물의 구독·보관, 어머니 독서회 조직·운영, 독서 논술 경시 대회 개최 등의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독서 논술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이 학교 논술 교육의 진원지가 되도록 한다.

## 나. 논술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논술’을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있는 창의재량 시간을 활용하면 된다. 창의재량 시간을 활용하여 논술을 지도하는 것은 현재의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창의재량 시간을 논술 시간이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범교과적인 학습 내용을 가르치면서 수업 방법만을 독서·토론·논술의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예 ‘논술’ 시간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읽을거리를 소개하고 토론하며 논술문을 써 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전공 교과서에서 단원별로 보충·심화 지도할 내용을 추출하여 이를 교재로 구성, 창제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창제 시간 운영은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충·심화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술 교육도 함께 하는 이점이 있다.

주당 1~2시간씩 배정되어 있는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논술을 지도할 수도 있다. 자치활동 시간에는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발활동을 위해 편성된 반에서 독서 토론반, 시사 연구반, 고전 연구반 등 명칭이야 어떠하든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 활동을 전개하거나 쓰기까지 하는 반이면 모두 논술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술반’이라는 명칭으로 논술의 이론과 실재를 배우는 반도 편성·운영할 수도 있지만 자료 제공, 운영방법 등에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좀 더 집중적이고 본격적인 논술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과후학교에 논술반을 개설·운영한다. 같은 지역에 있는 5~6개 학교 가운데 거점(據點) 학교를 지정하여,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지역 학생들이 모여 논술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희망자를 수합하는 방식으로는 사교육 시장의 논술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이기는 커녕 논술반 자체도 조직하기 힘들다. 학생들로부터 명망이 있고 열성적인 교사가 스스로 나서서 직접 학생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학교에서는 학부모 연수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 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단 반이 조직되면 초기 운영만 잘 하면 학생들에게 입소문이 퍼져나가 한 기(期)가 끝나고 다음 기(期)에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 것이다.

독서·토론·논술반의 운영을 더욱 전문적으로 하려면 한 기(期)의 강좌를 20강 정도로 하여 전 교과에 관련된 주제들을 나열하고 각각의 주제에 조예가 깊은 교과 선생님들로 강사진을 구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팀티칭의 기법에 의한 것으로 강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효과는 사교육 시장의 논술 강의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강사진은 교내 교사들로 조직할 수도 있고 교사와 외부 강사들로 혼합하여 조직할 수도 있으며, 인근 지구 학교의 교사들과 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

## 다. 교수학습도움센터(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교수학습도움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논술 교수·학습 지도와 평가 방법 개선, 과제 해결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수업 개선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학생들

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우선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꿀맛닷컴의 적극적 활용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서울교육포털시스템과 꿀맛닷컴에 모든 선생님과 학생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하면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도 실시한다. 꿀맛닷컴에서는 1:1 첨삭 지도까지 해주고 있어서 논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교수학습지원센터와의 완전한 연동을 통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논술 관련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논술 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읽을거리 제시-토론하기-독후감 쓰기 또는 논술문 쓰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을 학교 홈페이지에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독서·논술 교육에서의 최종 과정은 첨삭 강평이다. 첨삭 강평에 의한 환류가 없으면 학생들은 자신이 쓴 글에 대하여 자신감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교사가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쓴 글에 대하여 첨삭 강평을 해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학교 홈페이지 내에 독서·논술 커뮤니티를 운영하면 그런대로 해결할 수 있다. 학생들이 쓴 글 중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 첨삭 강평을 한 후 탑재해 두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널리 읽히는 방법을 사용한다. 첨삭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답안을 상, 중, 하 수준 정도로 구분, 첨삭 평가하여 학교 홈페이지의 논술방에 탑재해 두면 좋을 것이다.

#### 라. 독서·토론·논술 교육력 강화를 위한 자율장학

수업 연구, 동료 장학(상호수업 참관), 교과 협의회, 교직원 연수, 교과 연구 동호회 등 교내 자율장학 활동을 통해 독서·토론·논술과 관련된 수업 방법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교과협의회에서 논술 연간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토론·논술을 활용한 수업 연구·동료장학 담당자와 수업 방법 등을 협의한다. 교과 협의회에서 논의한 토론·논술 교육 계획은 자율장학과 논술 교육을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계획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학교 관리자는 토론·논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지도 능력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 자신의 희망에 의한 개인적인 직무 연수 이수와는 별도로 논술 교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 연수를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나 교과 협의회 등을 통하여 논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강사와 연수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금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재 사용 방법에 관한 연수나 개인에게 일임해 이루어지는 독서·논술 연수만으로는 교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도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자율 연수’가 좋기는 하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제한적이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논술에 관한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논술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마.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

창의성은 순수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서 나온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낀다. 학교에서의 창의력 교육은 모든 교과 활동 속에서 목표로 설정되고 교사와 학교에 의하여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창의성 신장을 위한 지도 방법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창의적인 교사와 창의적인 교육을 북돋우는 학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창의성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싹이 돋고, 새로움을 가져오고 새로움을 인정하는 교사 집단이 있어야 그 싹이 자라 열매가 맺을 수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창의성’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도 창의성이다. 따라서 창의성 교육을 위한 학습 방법으로 토론식 수업이 장려된다. 학교 문화 내지 교풍 자체를 토론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에 좋은 환경으로 작용한다.

### 바. 학교 예산 편성의 적절성

독서·토론·논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적절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도서관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확충, 도서관의 개방 시간 확대를 위한 보조 사서의 고용, 독서·토론·논술 교육 활동 장려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시상, 수준별 논술 교재의 제작, 지도 교사의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가 초빙 연수, 교수학습 도움센터를 통한 사이버 논술 학습의 관리, 논술 문항의 개발과 첨삭 지도, 독서·토론·논술록의 제작 등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독서·토론·논술 교육 행사에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학교 예산 속에 적절한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거둘 수 있는 교육의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어느 학교이고 간에 도서 구입비로 기본 운영비의 5% 이상을 쓰고 있는 점은 의무 조항이어서 잘 지켜지고 있으나 그 외 각종 항목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부문에 대한 담당 교사와 학교 관리자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 4.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가. 논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선 가정에서 논술은 새로운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상을 기르기 위한 개선된 교육 방법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게 될 때 논술이 입시 준비를 위해서만 필요하다거나 특정한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이라는 오해는 자연스럽게 불식된다.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논술 교육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학습 내용과 연관된 읽을거리를 소개하거나 읽고 토론을 유도하는 수업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논술 교육인 것이다.

또 한 가지, 논술 교육은 ‘독서→토론→쓰기’의 과정에 따라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인식하는 일이

다. 가정에서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독서와 토론 자체가 논술의 한 과정임을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있는 한 독서 생활을 권장하도록 하고 글쓰기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나. 자기 주도적 학습의 생활화 지도

자기 주도적 학습은 자기 스스로 학습 내용과 수준을 결정해 가며 하는 학습이다. 자율적·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공부 내용과 공부 방법, 과정을 조절하고 분석하면서 전략적인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교과를 통합하는 능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암기도 안 통하고 정형화된 지식도 안 통하는 논술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생활화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접근이 어렵다. 학원을 보내야 안심이 되고 집에 와서는 책상머리에 앉도록 잔소리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기르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아이 스스로 독서하고 생각하고 글을 써 볼까를 생각해 보고 아이가 그러한 습관을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다. 학교 교육의 우수성에 대한 믿음

사교육은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학교 교육은 교육과정, 교사 조직 등이 경직되어 있어 수요자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학원에서 논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입시에 대거 실패하였다는 보도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학원에서의 논술 교육은 임기응변적인 기술에 치중함으로써 획일적인 내용과 표현의 답안을 양성해 내는 텃밭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은 그 학원을 대표하는 소위 논술 전문가를 내세워 논술의 중요성을 과대광고하고 조기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초·중학교 학생의 학부모에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한다. 아무리 큰 학원이라도 전 교과를 망라하는 강사들로 짜여진 논술 강의 팀은 없을 것이다. 몇몇 교과의 특정 강사들이 전담하는 논술 교육은 그야말로 다양한 교과 관련 지식과 깊이 있는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논술을 특정 교과의 울타리에 가두고 획일화하는 폐단에 빠지게 하기 쉽다.

이에 비해 학교는 전 교과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교과 내용을 가르치며 그것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자극하고 논술까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 교육은 학교에서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는 다양한 교육 자료와 팀티칭이 가능한 교사 조직이 그물망처럼 포진해 있고 또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지금은 학교에서도 논술 교육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나 방과후학교 등을 통하여 이미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논술 교육은 학교 교육에 맡기되 가정에서는 자녀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지켜보았으면 한다.

## 라. 생활록 작성을 통한 자기 성찰의 일상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기나 생활록을 작성하는 것이 통합형 논술 공부의 기초를 닦는 일이 될 수 있다. 일기를 쓰면 문장력과 관찰력이 좋아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학습 계획을 스스로 만들고 과제물 등을 메모하는 생활록 쓰기를 통해, 앞으로의 일을 미리 준비하고 지난 일을 반성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생활록은 담임 교사는 학생 생활을 이해하고,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의 기능을 한다. 문제는 일기나 생활록을 꾸준히 쓰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논술 공부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일기는 독서 일기, 토론 일기, 주제 일기 등이다. 독서 일기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줄거리와 감상 위주로 쓰는 것이다. 토론 일기는 생활 속에서 안건을 찾아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쓰는 일기로, 논술문으로까지 연결된다. 주제 일기는 하루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여 쓰는 일기이다.

## 마.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활발한 가정 만들기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논술 공부는 독서와 토론 능력의 향상과 연결되어 있다. 가족 구성원의 의사 표현을 억누르는 권위적인 가정 분위기는 자녀의 논술 능력 함양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자기의 견해를 뚜렷이 드러내는 분위기를 가진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자녀의 논술 능력 함양에 도움을 준다. 이런 점에서도 논술은 단순한 글쓰기 능력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의 합리화, 인격의 형성이라는 고차원적인 가치에 연결되어 있다.

자녀에게 책을 읽히고 자녀와 더불어 토의·토론하는 아름다운 가족 문화를 이루기 위해 부모가 독서하고 대화하는 본을 보이면 좋다. 어린 자녀는 부모와 교사를 모델로 성장한다.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강압적 지도에서 벗어나 더불어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대학 입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중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타의에 의해 논술 시대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논술은 교과 지도와 동떨어진 별개의 특별한 존재는 아니다. 앞으로 노력하고 대비한다면 우리 교사들은 충분히 논술 교육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학교에서의 논술 교육은 사교육의 논술 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논술 교육과 같을 수 없다. 서론은 어떻게 써야 하고 출제 의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하는 식의 고식적인 논술 요령의 학습보다는 교과와 연계하여 사고력을 기르고 배경 지식을 키워주는 방향, 즉 체질을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청의 지원이 있고 일선 교사들이 자기 계발의 노력과 학생 지도의 열정만 있으면 학교에서의 논술 교육은 충분히 그 성과를 거두리라고 본다.



## Ⅱ 논술 지도의 방법과 실제



- 단계별 논술 지도의 실제 양정석(신상중학교 교사)
- 신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의 실제 강용철(경희여자중학교 교사)
- ‘요약하기’를 통한 논술 지도의 실제 정형근(정원여자중학교 교사)
- 독서-토론-논술의 과정에 따른 지도 방안과 실제 심재홍(홍은중학교 교감)
- 논술 교재,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활용 방안 김은아(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의 활용 방안 강용철(경희여자중학교 교사)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이희자(홍은중학교 교사)





# 단계별 논술 지도의 실제

양정석(신상중학교 교사)

- 1. 들어가는 말
- 2. 논술의 기본 구조와 절차
- 3. 단계별 논술 지도
- 4. 제언

## 1. 들어가는 말

대학 입학시험에서 논술이 강조되고 2007학년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점 사업으로 ‘독서·토론·논술 교육 강화’가 선정되면서 중학교에서도 논술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논술 교육의 목표는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를 논증 과정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논술 교육은 그동안 수업 장면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영역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논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다. 논술은 가르쳐야 할 내용을 지도 교사가 소화해서 알기 쉽게 전달하는 지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논술 지도 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는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찾아 그것을 길러주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는 논술의 순서나 절차에 따라 다루어야 할 내용과 쓰기 기법 등을 지도하면 된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도 요소와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논술에 필요한 능력은 논술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어원으로 보면 논술은 ‘논리적 서술’을 줄인 말<sup>4)</sup>로 정의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논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리적 과정을 통해 전개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쓰기 방식이다.”<sup>5)</sup>라고 할 수 있다.

4) 논술이란 논리적 서술(論理的 敘述)을 줄인 말이다. 논리적이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서술(敍: 차례를 매기거나 순서를 정하는 것+述: 짓다, 설명하다)은 ‘순서에 맞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원진숙, 논술의 개념과 특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업관련 논술 지도 자료, p.1.



논술 :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 자기 견해를 / 조리 있게 전개하여 / 상대를 설득하는 글쓰기



이렇게 본다면, 논술은 자기 생각과 주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사고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그 기반 위에서 ① 주어진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② 파악한 문제에 대한 견해나 주장,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 ③ 자기주장을 조리 있게 전개하는 능력, ④ 그러한 내용을 순서에 따라 표현하는 쓰기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2. 논술의 기본 구조와 절차

### 가. 논술의 기본 구조

논술은 기본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본론은 다시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논술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리적 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과 해결책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글이라면 좋은 논술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어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논술을 쓴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간단히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론> 영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 제기)

<본론> 영어는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주장)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주장의 근거, 논거)

<결론> 영어를 일찍 가르쳐야 학습 효과가 높으므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실제 글에서는 서론도 세분화되고 본론에서 주장과 근거를 더 제시해야 한다. 논술문의 기본 구조에 답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센터(중등학교 도덕과), 논술면접지도요령-논술의 개념과 특징, p.26.

## \* 논술문의 기본 구조 \*

서론	본론	결론
1) 독자의 관심 유도 2) 화제와 입론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3) 용어의 정의 4) 배경 지식 제시	1) 문제의 진술 2) 글의 구조에 대한 진술 3)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진술 4) 제안된 해결책을 옹호하는 논증 5)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답변	1) 서론 내용 재진술 2) 현안 문제의 광범위한 함축 고려 3) 입론을 예증할 일화 제시 4) 간단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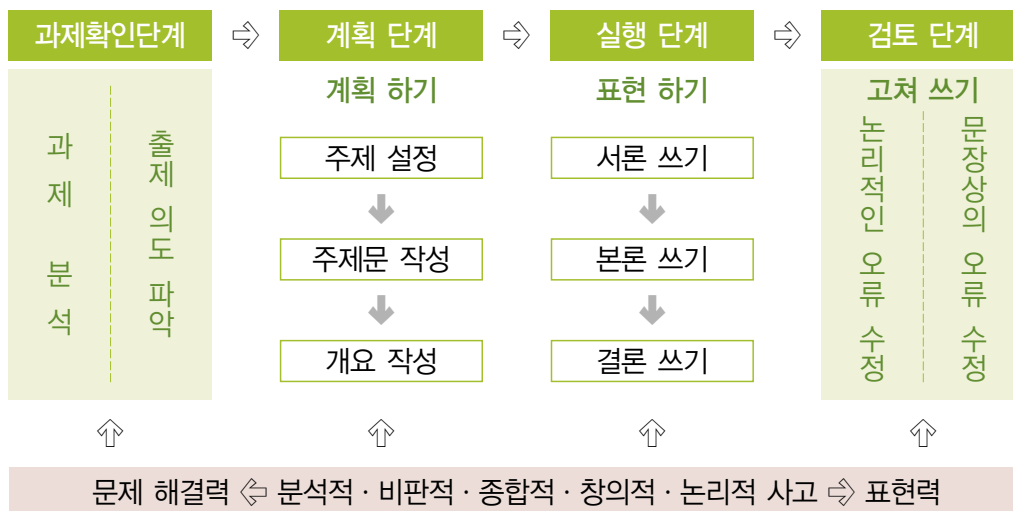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어떻게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구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그 틀 속에서 각각의 단계에 충실해야 한다.

### 나. 논술의 절차

어떤 종류의 글을 쓰는 간에 글쓰기에 앞서 글의 전체 내용을 구상하고, 그런 다음에 구상한 내용을 실제로 쓰고, 전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더하거나 빼거나 재배열하여 고쳐 쓰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논술문은 조리 있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일반 글쓰기와 달리 문제를 읽고 곧바로 써서는 안 된다. 논술문은 ① 과제를 분석하여 무엇에 대해서 쓰라는 것인지 파악하여, ② 논술의 방향, 자신의 견해나 주장 곧 논술 주제(참주제)를 정하고, ③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꼭 다루어야 할 사항,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의견을 수집하여 적절한 논거를 마련하고, ④ 주제를 입증하는 논거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글의 짜임을 설계한 후에, ⑤ 논술문을 쓰고, ⑥ 쓴 후에는 이를 검토하여 고쳐 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 논술문 작성 절차 \*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7)</sup>

결국 논술 지도는 위에 제시한 논술의 개념과 기본적인 구조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단계별로 그 성격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 3. 단계별 논술 지도

#### 가. 과제 확인 단계

과제는 출제자가 논술문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려고 제시한 글이다.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글을 쓰려면 과제를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논술 과제는 ‘문제’와 ‘유의 사항(자료 제시형의 경우는 문제, 제시문, 유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답안으로 써야 할 큰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 및 자료 분석, 출제 의도 파악을 소홀히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글을 쓰게 된다. 그리고 ‘유의 사항’은 글의 분량, 글의 방향과 방식, 반드시 지켜야 할 점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유의 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는 감점 요인이 된다.

논술 과제의 대표적인 형태는 ‘A와 B의 관계를 논하라.’, ‘A와 B를 비교 분석하라.’, ‘A(또는 AB)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라.’, ‘A와 B중 어느 한 쪽을 택하여 논술하라.’, ‘A의 입장에서 B를 논하라.’ ‘A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하라.’ 등이다.

과제를 받았을 때,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른다면 단독과제형<sup>8)</sup>의 경우 과제를 일단 질문의 형태로 바꾸어 보면 무엇을 써야 할지 좀 더 분명해진다. 예컨대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술하라.’라는 문제를 제시했다면, 출제자 측에서 보면 ‘너는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의 장단점에 대해 논술하시오.’라는 문제는 ‘너는 텔레비전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문제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자료 제시형의 경우는 문제를 물음으로 바꾸기에 앞서 주어진 자료를 독해, 요약, 해석하여야 한다.

중종 학생들의 논술을 보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바로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결과이다. ‘과제 분석-출제 의도 파악’은 논술의 실질적인 시작이면서 동시에 논술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7) 제시된 도표는 경기도 동안고등학교의 경기도교육청지정 논술지도연구학교 보고서(1997), p.52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8) 제목이나 명제를 제시하고 논술하도록 하는 형식을 단독 과제형이라고 한다. 이외에 자료 제시형이 있다. 자료 제시형의 경우는 출제되는 유형에 따라 자료를 기반으로 참주제를 이어 나가도록 하는 완성형, 주어진 자료를 독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독해 포괄형, 자료를 문제 상황으로 하여 발견, 해결의 과정을 논술하는 해석형 등이 있다.



논술이란 어떤 주제나 제시된 과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한 다음, 그 결과를 언어로 서술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논술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나. 계획 단계

### 1) 주제 설정

과제 확인 단계에서 큰 주제를 파악하고 나면, 글 전체를 이끌어 나갈 중심축인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해야 한다. 이 단계는 ‘나는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이다. 대체로, 과제 확인 단계에서 파악한 주제가 논술할 가주제라면, 계획 단계에서 설정해야 할 주제는 전체의 흐름을 결정할 참주제이다.

자기가 쓰고자 하는 주제를 설정할 때에는 되도록 중심 내용을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왜냐 하면, 주제가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글의 방향이나 내용이 너무 막연하여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시키지 못하거나 상식적이고 뻔한 내용을 되풀이하기 쉽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 보자. ‘텔레비전’이라는 주제는 다루어야 할 범위가 너무 넓고 막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로 글을 쓸 때에는 ① 텔레비전 발달의 역사, ② 텔레비전의 장단점, ③ 텔레비전과 생활 습관, ④ 텔레비전이 공부에 미치는 영향, ⑤ 텔레비전과 산업 발전, ⑥ 텔레비전과 건강, ⑦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형 등으로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주장하려는 핵심도 명확해지고 쓰기도 쉬워진다.

‘텔레비전’처럼 범위가 넓고 막연한 주제를 ‘가주제’라 하고 ‘텔레비전의 장단점’과 같이 범위를 한 단계 좁힌 주제를 ‘참주제’라고 한다. 논술의 주제는 참주제로 정해야 한다. 참주제는 논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주제를 정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의 목적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쓸 거리가 충분한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 주제의 범위는 될 수 있는 대로 좁히는 것이 좋다. 주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글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넷째,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읽는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보편적이면서도 참신한 주제를 정한다.

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장에 대한 근거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sup>9)</sup> 논술문의 생명은 주제를 해결할 만한 참주제 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견해와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 제시에 있다. 아무리

9) 논술에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 원리와 법칙, 용어의 개념, 대상의 본질과 특성, 통계나 보도 자료, 잘 알려진 학설이나 권위자의 견해, 사회적 현상이나 역사적인 사건, 우화 등이다.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논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술이 논술 본래의 가치인 논리성과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해 내세울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제를 설정해야 한다.



주제는 논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문제를 파악하고 나면, 자신이 내세우고자 하는 주장을 결정해야 한다. 우선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주장과 그 근거들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하고, 그 중에서 자신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제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 2) 주제문 작성

구체적인 주제, 즉 참주제를 정한 다음에는 주제문을 작성해야 한다. 주제가 글을 쓴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라면, 주제문은 참주제와 그것을 설정한 관점이나 이유, 조건을 완결된 문장으로 나타낸 것이다. 주제문은 글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논술문의 주제문은 일반적인 주제문과는 달리 주장과 근거가 포함된 문장이어야 한다.<sup>10)</sup> 따라서 어떤 형태로 과제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서술하면 논술문을 전개하는 데 편리하다.

논술문 주제문의 일반 형식 :	~은	~하므로	~해야 한다.
	주제어	근 거	주 장
	서 론	본 론	결 론

#### 가) 주제문 작성 과정

순서	구 분	내 용	주제문 작성을 위한 사고 과정
1	가주제 설정	텔레비전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2	참주제 설정	텔레비전의 장단점	무엇의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3	주제문 작성	텔레비전은 장단점이 있다.	무엇의 무엇이 어떠하다고 쓸 것인가?
4	논술문의 주제문 작성	텔레비전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시청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무엇의 무엇이 어떠하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쓸 것인가?

10) 일반적으로 논술에서 주제는 주장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주장은 주제문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논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 나) 주제문 작성 시 유의 사항

- (1) 완전한 문장 형식으로 진술해야 한다.
- (2) 원칙적으로 의문문이나 부정문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 (3) 비유적인 표현을 삼가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4) 글쓴이의 견해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 (5) 문제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주제문을 작성할 때에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진술하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잘 짜여진 주제문은 앞으로 쓰게 될 글의 방향을 예고하여 줄 뿐 아니라, 글의 내용과 길이를 조절하여 주고, 글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시켜 주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 3) 개요 작성

### 가) 개요의 의미와 종류

개요는 글의 전체적 윤곽, 글을 쓰기 전에 주제와 목적에 맞게 글감을 배치하여 글의 줄거리를 항목화한 것으로, 글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논술의 구성이란, 자기 견해를 ‘서론-본론-결론’의 단계를 통해 어떻게 전개하고, 각각의 단계에 어떤 내용을 제시할 것인지와 같은 전체 글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짜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한 전체 글의 골격과 핵심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개요이다. 개요에는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가 있다.

- (1) 화제 개요 : 각 항목을 핵심적인 어구로 간결하게 표현한 개요.  
작성이 용이한 반면 구체적 내용 파악이 어렵다.
- (2) 문장 개요 : 각 항목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한 개요.  
구체적 내용 파악이 쉬운 반면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나) 개요 작성의 필요성

- (1)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방지해 준다.
- (2) 불필요한 내용, 비슷한 내용의 반복을 막을 수 있으며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3) 글의 전체적인 균형 및 논리적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실제 글을 쓰는 작업은 개요에 내용을 덧붙여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개요를 충분히 짜면 글도 충실해지고 글을 쓰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요를 대충 짜고, 실제 글을 쓸 때는 즉흥적 발상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개요는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논술을 쓰기에 앞서 충실하게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 개요 작성 과정

- (1)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문을 작성한다.
- (2) 서론, 본론, 결론의 주요 내용을 항목화한다. 대체로 요구하는 길이에 따라 3단 구성, 즉 도입(서론) - 전개(본론) - 정리(결론), 또는 4단이나 5단 구성으로 한다. 논술의 각 단계에서 다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sup>11)</sup>

구 분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	내용 특성 <sup>12)</sup>
글의 머리	1. 서론	1. 도입(기)	1. 발단 2. 전개	주의 환기, 주제 제시 문제 제기, 과제 해명·설명 문제점 구체화, 과제 제기
글의 중심	2. 본론	2. 전개(승) 3. 발전(전)	3. 위기 4. 정리	자기주장 구체화 갈등과 주제의 집약 문제 해결·대안
글의 마무리	3. 결론	4. 결말(결)	5. 결말	요약과 강조, 기대·제언

- (3) 주요 항목들, 즉 각 단락의 소주제와 그들을 세분하여 세부 항목이나 논거<sup>13)</sup>들을 마련한다.
- (4) 주요 항목들과 세부 항목들 사이의 등위 관계나 상하위 관계, 포함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층위가 분명하도록 작성한다. 그리고 논거는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로 구분한다.
- (5) 중요도나 논리적 순서에 따라 항목들을 배열한다.

라) 개요 작성의 예

**<주제문 : 텔레비전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시청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I. 서론 ① 텔레비전은 오늘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 삶에 끼치는 해독도 적지 않다.

서론 ② 텔레비전의 장단점을 알아 보자.

II. 본론 ① 텔레비전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우리 생활에 활력을 준다.

셋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정별 논술의 실제, 서론-본론-결론 쓰기, p.27.

12) 내용 특성에서 이야기하는 과제 해명은 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지세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단계이며, 자기주장의 구체화는 보편타당성 있는 논거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자기주장의 옳음을 증명하는 단계이다.



본론 ② 텔레비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고력을 차단하여 폭넓은 생각을 못하게 한다.

둘째, 가족 간의 대화 기회를 빼앗는 일이 많다.

셋째, 모방 범죄를 일으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Ⅲ. 결론 텔레비전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시청 시간과 프로그램을 적절히 조절하여 좋은 점은 누리되 문제점은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 마) 개요 작성 시의 유의점

개요는 대강의 윤곽이라기보다는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주제 문, 각 단락의 구분, 단락별 소주제와 논거들, 예시의 구체적 내용, 일정한 기준에 따른 단락과 논거의 순서 배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각 단락의 배열 순서는 논리적인 질서에 따르도록 한다.
- (2)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 (3) 화제 개요식으로 대강의 틀을 짰 다음 구체적인 문장 개요를 짜는 것이 좋다.
- (4) 개요 짜기는 완전해질 때까지 반복하여 수정한다.
- (5) 글을 쓰는 중에 새로운 내용이 생각날 경우, 개요를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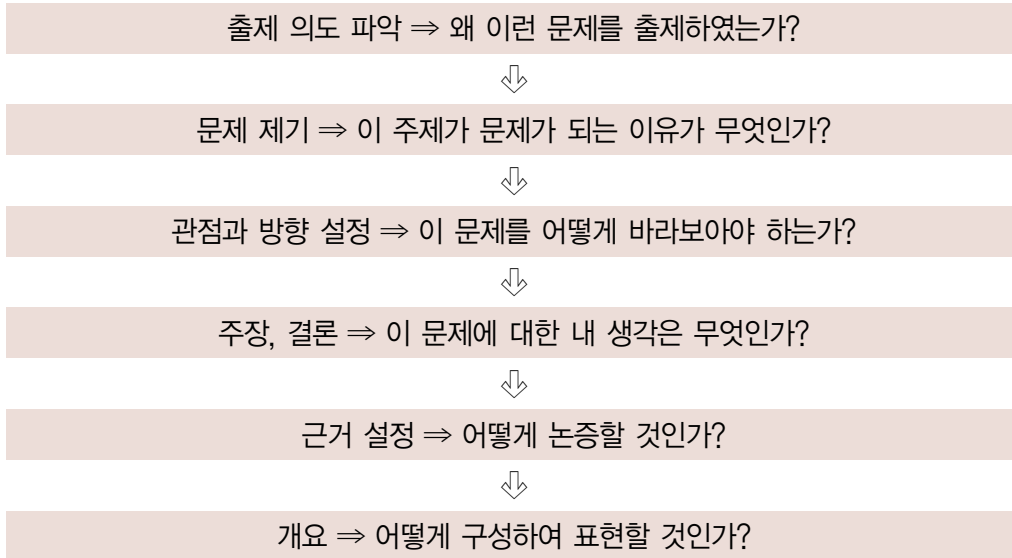
짜임새 있고 균형 잡힌 개요를 작성해야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개요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문장 개요로 작성하도록 하며, 항목 간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각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과제 확인 단계에서 계획 단계까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실제 논술을 지도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13) 논술이 논술 본래의 가치인 논리성과 설득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있어야 한다. 논거는 어떤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한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14) EBS 논술 특강 제2강 자료, 2006, p.6.

\* 논술 쓰기 준비의 일반적 과정 \*



**다. 실행 단계**

실제 논술 쓰기 단계에서는 작성된 개요를 바탕으로 살을 붙여 나가면서 문장과 문장 사이, 단락과 단락 사이에 논리적 관계를 설정해 주는 형식으로 서술한다. 서술을 할 때는 의미가 불분명한 말, 주관적인 단정 등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 논술은 각 단계별로 답아야 할 내용이 있다.

**1) 서론 쓰기**

**가) 서론의 의미**

서론(序論·緒論)은 말이나 글에서 본격적인 논의·주장을 하기 전에 관심을 유도하거나 글의 목표를 제시하는 도입 부분이다. 서론은 장차 전개될 글의 실마리를 열고 글의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나) 서론의 중요성**

서론은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글을 읽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글의 전개 방향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상 깊은 서론은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 글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론과 결론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다) 서론의 구성**

서론은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논술 주제로 관심을 유도하는 도입 부분이다. 그러므로 서론은 간결하게 서술해야 한다. 글의 첫머리는 본론에서 서술하게 될 내용을 암시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결론과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서론에는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글의

방향과 내용의 흐름을 제시한다.

### (1) 주의 환기(도입 부분)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부분, 즉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배경, 어떤 맥락 속에 위치하는지,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알리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본문에서 전개될 내용과 관련된 화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 (2) 과제 제기(논제 제시)

주의 환기에서 도입한 화제를 글의 논제로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글의 내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 상황과 논제가 어떤 측면에서 연관이 있는지, 그런 상황이 왜 문제가 되고, 어째서 해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논제를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부분이다. 문제 제기에는 ‘~을 살펴보자.’, ‘~을(를) 살펴보고 ~제시하고자 한다.’, ‘~을(를) 논하고자 한다.’, ‘~은(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한다.

서론의 구성을 문장 속에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문 : 텔레비전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시청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주의 환기) 20세기에 이르러 등장한 텔레비전은 현대인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파 매체라 할 수 있다. 텔레비전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과제 제기)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텔레비전이 끼치는 해독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집안에 텔레비전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텔레비전의 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텔레비전 시청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 라) 서론 쓰기의 방법<sup>15)</sup>

- (1)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시작하는 방법 : 주제가 비교적 넓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함으로써 글을 쓰는 것이 좋다.
- (2) 일반론으로 시작하는 방법 : 주제가 비교적 구체적인 것이면 그것을 포함하는 일반론으로 첫머리를 시작할 수 있다.
- (3) 인용으로 시작하는 방법 : 주제와 관계있는 속담이나 일화, 명언 등을 인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참신한 느낌을 주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의 자연스러움이 성패의 관건이며 출전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진부한 것보다는

15) 한국교총, 학교에서 논술 지도하기, 한국교총원격연수원, 2006, pp.142~145 요약

참신한 것이 생명이다.

- (4) 자신과 상반되는 견해로 시작하는 방법 : 내가 반박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견해를 끌어들이므로써 첫머리를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쓴다고 할 때 사형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의 발언을 먼저 말함으로써 시작한다.
- (5)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경우 :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엇갈려 논쟁이 일어날 때, 또는 용어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논지 전개상 구체적으로 의미를 한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6) 단도직입적으로 쓰는 방법 : 처음부터 자기주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여 논지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짧은 분량을 쓰는 문제는 서두 부분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여유가 없으므로 곧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 (7) 체험이나 사례를 서론으로 사용하는 방법 : 논제와 관련하여 자기 자신 또는 주변의 인물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체험이나 견문, 또는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시작하는 방법이다. 단,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은 삼가는 것이 좋다.
- (8) 비유로 쓰는 방법 : ‘비유’는 어려운 것, 생소한 것, 복잡한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쉬운 것, 친숙한 것, 단순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적절한 비유는 글을 돋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다.
- (9)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방법 : 논술에서 서론을 쓸 때 먼저 질문을 한 다음,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글의 첫머리를 써가는 방법을 말한다.

#### 마) 서론을 쓸 때 유의할 점

- (1) 거창한 표현, 미사여구, 주제와 동떨어진 장황한 서술을 삼간다.
- (2) 논제에 대한 불평이나 자기 변명을 하거나, 채점자에게 애원하지 않는다.
- (3) 무슨 내용에 관해 쓸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4) 개념 정의는 개념을 정의하지 않으면 실마리를 풀 수 없을 경우에만 한다.



글의 첫머리가 잘 되어야 앞으로 전개할 본론 부분도 잘 쓰여진다. 따라서 글의 첫머리에서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방향과 의도를 명확히 하고,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론은 본론에서 서술하게 될 내용을 암시하면서 결론과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 2) 본론 쓰기

### 가) 본론의 의미

서론에서 제시한 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문제에서 밝혀 주기를 요구하는 과제에 본격적으로 답하는 부분이다.

## 나) 본론의 중요성

서론이 본론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라면, 본론은 글의 중심 부분으로 자신의 주제가 타당함을 밝히고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따라서 아무리 서론과 결론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서론에서 밝힌 주제나 결론에서 최종적으로 밝힌 주장과 본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론은 글에 생명을 부여하고 좋은 글의 완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 다) 본론의 구성

본론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고,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논술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주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논리란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장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논리가 없게 되고, 좋은 논술문이 될 수 없다. 근거에는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가 있다.

- (1) 사실논거 : 연역, 귀납, 유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장의 타당함을 밝히는 것
- (2) 소견논거 : 전문가의 의견, 주장, 통계 등을 인용하여 주장의 타당함을 밝히는 것

## 라) 본론 쓰는 방법

### (1) '정반합' 형

변증법<sup>16)</sup>형 또는 제3 의견형이라고도 한다. 제시된 두 가지 의견 중 먼저 첫 번째 의견을 검토한 후, 이와 대립되는 제2의 의견을 논의하면서 이 또한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제1의 의견과 제2의 의견을 절충·조화한 제3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의 본론 전개를 변증법적 전개라고 한다.

**예>** '우리의 전통 문화를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가(正) 아니면 외래 문화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가(反)?' 라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 본론 (1) : 일정한 관점의 옹호(正 : 가. 옹호논거 1 제시 나. 옹호논거 2 제시)
- 본론 (2) : 상반된 논리의 도입(反 : 가. 반대논거 1 제시 나. 반대논거 2 제시)

16) 변증법은 정(正, These)이 있으면 그 정에 반하는 반(反, Antithese)이 있게 된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과 반이 대립하다가 양 극단을 아우르고 초월하는 합(合, Synthese)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합(合)은 다시 정(正)이 되고, 그 정에 반하는 반(反)이 또 생기게 되어 끝없이 순환하며 역사는 진보해 간다는 것을 이론을 말한다. 논술의 변증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정(正, These) : 문제에 대한 일정한 관점을 옹호하는 단계
- ② 반(反, Antithese) : 정에서 옹호했던 주장에 반대되는 논리를 제시하는 단계
- ③ 합(合, Synthese) : 중간적 진실을 설정, 혹은 새로운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였던 논리를 극복하는 단계

- 본론 (3) : 모순의 종합(습 : 가. 모순의 도출 나. 모순의 종합 또는 발전)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개하는 것도 이 유형에 속한다.

- 본론 (1) : A견해 비판(가. 사실 차원의 확인, 나. 부정적 영향의 검토)
- 본론 (2) : B견해 비판(가. 사실 차원의 확인, 나. 부정적 영향의 검토)
- 본론 (3) : 제3의견 제시(가. 공통적 기반의 확인, 나. 극복 대안의 모색)

#### (2) 원인-대책형

논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 또는 문제점(영향)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거나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나 대책을 제시하는 방식 등이 이에 속한다. 논술 문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답안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예> 대기 오염의 원인과 대책을 논하라.

- 본론 (1) : 원인 분석(원인 1 규명, 원인 2 규명, 원인 3 규명)
- 본론 (2) : 대책 제시(대책 1 제시, 대책 2 제시, 대책 3 제시)

#### (3) 열거형

이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첫째, 둘째, 셋째’ 등 항목 나열식으로 전개되는 구성 형식을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은 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 전개가 나열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모두 이러한 문제 유형에 속한다. 열거형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내용의 단순한 나열보다는 일정한 논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예> 광고의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 본론 (1) : 긍정적 영향 분석(A차원 분석 - 첫째, 둘째, B차원 분석 - 첫째, 둘째)
- 본론 (2) : 부정적 영향 분석(A차원 분석 - 첫째, 둘째, B차원 분석 - 첫째, 둘째)

#### (4) 비교 대조형

제시된 둘 이상의 대상(자료)을 바탕으로 이를 비교하여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논의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비교에 의한 본론 전개는 ‘비교되는 두 대상이 각각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경우’와 ‘비교 항목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두 대상을 비교해 가는 경우’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예> 확대 가족 제도(A)와 핵가족 제도(B)를 비교하시오.

- 본론 (1) : A와 B의 장점(또는 A의 특징)
- 본론 (2) : A와 B의 문제점(또는 B의 특징)

비교·대조형으로 쓸 때에는 먼저 비교·대조의 기준을 설정하고, 비교·대조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좋다.



### (5) 옹호 비판형

특정 주제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이런 유형의 논술문을 작성할 때에는 계획 단계에서, 먼저 내가 어느 쪽의 견해나 행동을 지지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양비론이나 양시론적인 태도는 금물이며,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견해에 대한 부분적인 동의 즉, ‘물론 상대의 견해도 이런 부분에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 과 같은 진술도 주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예) 두발 자율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 본론 (1) : 대립되는 견해 논박(상대 논거 1 비판, 상대 논거 2 비판)
- 본론 (2) : 자기 견해 옹호(옹호 논거 1 제시, 옹호 논거 2 제시)

### 마) 본론 쓰기의 유의점

- (1) ‘개요’를 철저히 검토하여 증언부언하거나 단순 나열식이 되지 않게 한다.
- (2) 서론에서 제시한 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3) 문단마다 중심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전개한다.
- (4) 문단을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 문단은 분량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생각이 다를 때 구분하는 것이다.
- (5) 문단과 문단,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전개한다. 문단을 바꿀 때는 그냥 바꾸지 말고 다음 문단의 내용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미리 만들어놓고 넘어가도록 한다.



본론은 좋은 글의 완성 여부를 결정짓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서론에서 불러일으킨 관심을 끝까지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본론 속에 담긴 내용이 체계 있고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본론에서는 논지의 일관성, 논의의 객관성, 내용의 참신성을 살리고 적절한 논거를 활용하면서 자기주장을 내세우도록 해야 한다.

### 3) 결론 쓰기

#### 가) 결론의 의미

결론은 서론 부분에서 제시하고 본론에서 논의한 핵심 쟁점 및 주장을 요약하고 강조함으로써 글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 나) 결론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결론은 글을 쓴 사람이 본론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압축적으로 밝히고, 자기 견해나 주장이 갖는 의미나 효과를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 서론과 본론에서 논의를 잘 이끌어 왔다고 하

더라도 결론이 좋지 못하면 그 논의는 헛수고가 된다. 따라서 결론 쓰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다) 결론의 구성

결론에 반드시 써야 할 내용은 본론의 요약·강조이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한 뒤에, 다른 내용들을 적절히 결합하여야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결론에 들어갈 내용에는 본론의 요약 외에도 본론의 평가, 제언, 전망 등이 있다.<sup>17)</sup>

- (1) 문제 상황 도입 : 결론의 첫머리에 논제와 직결되는 현실적 문제 상황이 전체적 맥락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결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지금(이제)까지 ~대해 살펴보았다.’는 형식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와 일치시켜 앞의 논의를 상기시킴으로써 결론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 (2) 본론 요약 :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부분이다. 요약 문장의 첫머리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등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3) 본론 평가 : ‘본론에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나 주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의나 효과를 지니는가?’, ‘본론의 내용이 다른 견해보다 어떤 점에서 더 바람직한가?’ 하는 물음에 답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된다. 결국 이것은 핵심 논지가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 주는 것이다.
- (4) 제언 : 이는 ‘자신의 견해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형식을 취한다.
- (5) 전망 : 전망은 자기 견해에 따를 경우, ‘문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내용이다. 이 때에는 ‘만약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어떨 때, ~하게 될 것이다.’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라) 결론 쓰기 방법

- (1) 본문을 요약하고 강조하는 방식 : 본론의 소주제문들을 모아서 압축한 것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결론 쓰기의 방법이다. 대체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다.’, 혹은 ‘지금까지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을 요약하면 ~이다.’와 같은 형식을 갖는다.
- (2) 본문을 요약하고 주장하는 방식 :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펼치거나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해 보자.’, ‘~야 한다.’, ‘~하자.’ 등과 같은 말이 많이 쓰인다.
- (3) 독자에게 당부하기 : 이 방식은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 다음, 독자에게 행동이나 변화를 촉구하는 방식이다. ‘우리 모두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하자.’라고 끝을 맺는다.
- (4) 제언 또는 전망하기 : 단순히 본론에서 언급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그것을 종합하여 새로운 방향을

17) 마상룡논술면접교실, IV-4 결론 쓰기, <http://mimacstudy.net>에서 재인용

제시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다면, ~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어떨 때, ~하게 될 것이다.'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마) 결론 쓰기의 유의점

- (1) 본론의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거나 본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정보나 주장을 언급하지 않는다.
- (2)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끝맺는다고 하여 본론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3) 결론은 서론, 본론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도록 한다.
- (4) 본론 전체에 대한 결말을 내리지 않고 본론의 어느 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매듭짓지 않도록 한다.



결론은 전체 글을 완성시킨다는 점과 함께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압축되어 제시되는 부분이다. 서론, 본론, 결론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각각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부분이 합해져서 한 편의 글을 이룬다. 따라서 결론을 쓸 때에는 서론에서 제시한 '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론에서 그것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 라. 고쳐 쓰기

글을 고쳐 쓸 때는 우선 논점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가, 그리고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을 오류 수정하기, 또는 고쳐 쓰기(퇴고)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쓰기 단계가 끝나면 자신이 쓴 글을 자신이 검토하여 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쳐 쓰기에서 살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sup>18)</sup>

- 1) 논제에 맞게 작성하였는가?
- 2) 제시문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 3) 개요 작성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 4) 주장은 명확하게 드러났는가?
- 5) 내용(주장-논거-예시-대안)은 참신한가?
- 6) 유의 사항(분량, 조건 등)은 잘 지켰는가?
- 7) 표현은 매끄러운가?
- 8) 맞춤법, 띄어쓰기, 한자 사용 등은 바르게 되어 있는가?

18)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논술기본과정 2기 연수 교재, 2007, p.154.

고쳐 쓰기는 훈련 단계에서는 가능한 일이나, 시간의 제약 등으로 실제 논술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평소에 논리적 모순이 없도록 개요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글을 쓴 후에는 간단한 표현법이나 맞춤법, 어휘 수준의 수정을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글은 정확해야 한다. 따라서 글을 쓰고 나면 표현면이나 논리면에서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유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논술 시험을 볼 때에는 고쳐 쓰기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소 연습을 통하여 실수를 줄이도록 지도해야 한다.

## 4. 제언

최근 학교 교육에서 논술이 강조된 것은 수업 방법 개선과 평가 방법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 추구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제 논술 교육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앞에서 제시한 쓰기 지도 외에 다음과 같은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체계적인 읽기 지도를 해야 한다. 읽기 지도는 교과 수업 시간에 학습 내용과 관련된 독서를 수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책을 읽고 그것을 수업 시간에 토론하거나 평가하고 정리하는 것은 배경 지식을 확장시켜 논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토론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 토론은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비판적 시야를 넓힐 수 있으며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는 데 유용한 수업 방법이다. 토론 수업을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토론 후에는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글쓰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글쓰기에 대한 평가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첨삭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삭 지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여건상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첨삭 지도를 글을 세세하게 교정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글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는 적절한지, 사용된 논거는 적절한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넷째, 학교 차원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논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술은 한두 시간의 특강식 수업이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에 다양한 형태로 다루고, 그것도 최소한 한 학년,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3년 과정으로 논술 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신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의 실제

강 용 철(경희여자중학교 교사)

1. '세상을 보는 창, 신문'을 활용한 교육
2. 신문활용교육의 효과와 교육적 가치
3. 비판적으로 신문 읽기
4. 신문 활용 논술을 위한 교사의 준비 요소
5. 신문 활용 논술의 교수-학습 방법
6. 신문 활용 논술의 일반적 도출 과정

## 1. '세상을 보는 창, 신문'을 활용한 교육

매일 아침 줄린 눈을 비비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세상 소식, 신문!

우리는 흔히 신문을 '세상을 보는 창'에 빗대어 표현하곤 한다. 왜냐하면 신문에는 사회·문화·정치·경제·예술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신문을 '신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 정도로 한정하여 볼 수도 있지만, 미래 사회가 지식정보화 시대이며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신문이야말로 '지식 적응력·지식 생산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열쇠'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신문을 이용한 대표적인 교육이 바로 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인데, 이는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 교재로 활용해서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sup>19)</sup>을 의미한다. 즉 신문을 교수 매체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살아있는 교과서인 "신문을 가르치고 신문으로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신문활용교육은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열린 교육이요, 정보화 교육인 셈이다.

19)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활용교육)

말하기, 쓰기 등의 언어 교육과 창의적, 논리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발, 인성지도와 감성(EQ)의 계발, 신문 제작 과정의 이해, 신문 바로 읽기 등 여러 영역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다면적 교육 프로그램

신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법은 신문활용교육(NIE)의 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논술의 핵심 요소인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상호 의사소통과 생각 나누기를 강조한 내용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신문활용교육의 효과와 교육적 가치

신문활용교육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의 교육 현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공한다.

첫째, 각 과목과 연계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소재를 제공한다. 신문의 각 분야에 담긴 다방면의 정보는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의 정보와 연결되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정보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재가 된다. 둘째,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서 사고력을 강화한다. 신문에 담긴 내용과 문맥을 읽으며 학생들은 직관적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사건이나 정보의 개요나 연계성을 생각하며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신문에 나온 풍부한 어휘와 문장을 접하며 어휘 구사 능력과 문장 구성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실제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른들의 용어를 접할 수 있고 신문에 구성된 문장의 형식을 보면서 올바른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넷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어 정보 활용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신문에 담긴 정보를 학습에 이용하거나 사회에 대한 배경 지식을 기르는 데 사용하여 정보력을 갖춘 학생으로 키울 수 있다. 다섯째, 교과목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족한 사회성을 길러준다. 시사성 있는 정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 속에 포함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여 사회성을 기르게 해 준다. 여섯째, 고정된 교과서의 내용을 상호 보완하는 신정보를 제공한다. 교과서의 경우 한번 개정된 후 일정 시간 동안 내용이 고정되곤 하는데 신문의 신정보를 통해서 교과서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신문을 활용하면 다양한 시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인성 교육이나 도덕 학습을 실천하는 교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국제 이해 교육과 평화 교육 등 세계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화하여 비판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다.

## 신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의 실제

### \* 신문활용교육의 가치<sup>20)</sup> \*

살아 있는 지식 습득	교과서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5~10년마다 바뀐다. 그 결과 지리과목 같은 경우 교과서에 실린 통계는 현실과는 먼 것이 보통이다. 반면에 신문은 최신의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살아 있는 교과서이다.
다양한 정보 제공	신문을 교수·학습으로 이용하면 해당 과목의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
학습 동기 유발	신문은 최신의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로부터 유발된 흥미와 관심은 과거와 미래로 확산될 수 있으며, 실용적인 측면과 직결되므로 학습 욕구를 강력하게 자극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	신문을 통해 정보를 찾고 해답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학습 동기가 유발되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강화된다.
협동심 배양	신문을 가지고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고 게임을 하는 집단 학습을 통해 협동심을 육성할 수 있다.
독서와 작문 능력 향상	인쇄 매체인 신문과 친숙해짐으로써 문자 정보를 읽는 습관과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정보 활용 능력 강화	신문의 많은 정보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해 활용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보 마인드 함양	신문은 문자와 그림·사진 등의 표현 형식을 갖춘 정보매체로서 그 자체의 여러 가지 특성상 독자들의 정보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 유리하다.
통합 학습용이	신문에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표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내용을 각 교과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판단력과 사고력 개발	많은 사실과 의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다.
민주 시민의 자질 배양	신문을 통해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 현상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사회성과 주체성을 지닌 민주 시민의 자질을 배양한다.

20) 에듀넷, <http://www.edunet4u.net/main/html/index.html>



### 3. 비판적으로 신문 읽기

신문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신문이 새로운 정보와 시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긍정성도 있지만,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신문을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내용면과 형식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용면에서는 첫째, 신문은 그 날의 새로운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기 때문에 오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회 현상과 결과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지만, 기자의 실수나 정보 파악의 부족함으로 인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의적인 사실 왜곡-과장 보도는 신문 활용 학습을 할 때 신문의 색깔이나 편집 방향과 연관시켜서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셋째, 비교육적인 기사 내용이나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신문사도 일종의 회사이기 때문에 신문에 따라서 다른 관점을 보일 수 있으므로, 2~3개의 신문을 통해 틀에 박힌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형식면에서는 첫째, 성인을 독자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기가 약간 어렵다. 둘째, 어려운 용어와 한자가 자주 나오는 편이다. 셋째,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신문은 내용면, 형식면에서 유의할 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나 신문 활용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요소를 찾으며 학습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하고, 하나의 기사 중심으로만 읽지 말고 다른 지면과 연계한 학습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면서 읽도록 지도한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신문 활용 방법을 만들도록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응용 사례와 적용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나아가 기사 내용과 교육과정이 필연적인 관계는 없으므로 수업 계획안에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읽기 자료, 학습 자료를 만들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사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할까>

기사를 읽을 때는 사실 위주로 읽기를 권유 드립니다.

기자의 의견(의견인지 티는 잘 안 납니다.)은 배제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군.’,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정립하십시오. 사건 중심으로 이해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사 토론방에서 생각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맹점을 보완하십시오.(보완이지 동화되면 곤란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생각이 빗나간 것 같다고 할 경우만 인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신문은 읽기만 하면 분명 시사 능력이 좋아집니다. 하나 아는 것만 중시하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자신의 주관을 확립하십시오. 비판적 독해는 신문을 읽는 데 있어서 필수, 그 자체입니다. 기자의 말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각 언론사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에 유리하게 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옳은가, 그른가?’ 에 대해 많이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논리가 상대에게 밀린다면 과감히 인정하십시오.

- 출처 : ‘시사 상식과 신문 읽기’ 중 -

## 4. 신문 활용 논술을 위한 교사의 준비 요소

본격적으로 신문 활용 논술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하도록 한다.

첫째, 신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르치는 교사가 먼저 신문에 대한 정확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신문 읽기나 스크랩만 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교육적 요소를 찾기 위해 교사가 먼저 신문을 공부해야 한다.

둘째, 학습과 연관된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작게는 하나의 기사를 어떻게 학습에 연결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나아가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계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셋째, 신문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습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설이나 칼럼을 읽는 방법을 신문 활용 논술의 전부로 생각하여 '사설, 칼럼 스크랩' 중심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설이나 칼럼은 신문 활용 논술의 중·고급 단계이며, 교육하기에 상당한 인내심과 학습 지속력을 필요로 한다.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수-학습법은 신문을 교재가 아닌 친구로 생각하게 한다.

넷째,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교수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역발상법, 뒤집어 보기, 다른 용도로 응용하기, 수정, 확대, 축소, 대체, 재전개' 등의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신문 활용 논술에 대한 열정적인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문의 작은 부분에서 큰 교육 내용을 도출하는 것은 교사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요소를 깊게 고찰하여 신문 활용 논술 과정에 도전해 보자. 본고에서는 신문 활용 논술을 위한 흥미 유발의 초급 단계와 스크랩, 학생 상호 작용을 위한 중·고급 단계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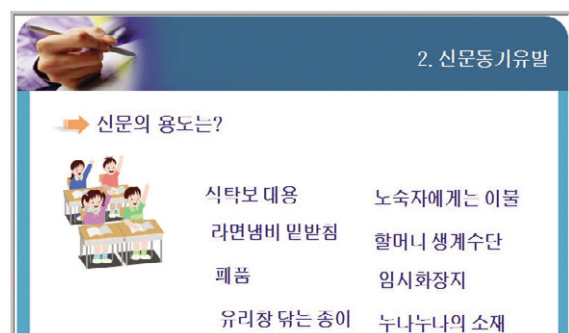
## 5. 신문 활용 논술의 교수-학습 방법

### 가. 신문에 대한 흥미 유발

#### 1) 신문에 대한 마인드맵(자유연상)

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신문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신문에 대한 자유로운 연상을 하도록 한다.

나) “신문하면 떠오르는 것은?”, “신문의 용도는?”과 같은 발문 지시를 통해서 학생들의 자유연상과 자발적인 발표를 유도한다.



다) 다른 방법으로 나무그림과 같은 일반적인 마인드맵 지도에 내용을 채우도록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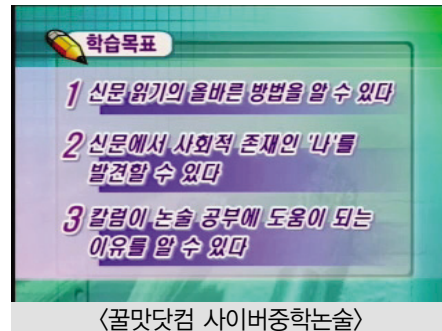
라) '신문의 좋은 점에 대한 자유연상'도 신문을 학습과 연결시키는 좋은 발문이 될 수 있다. 신문은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나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적어보게 하면 좀 더 쉽게 신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부정성에 대한 이야기의 경우, 신문에 담긴 내용은 교과서처럼 지식이 아닌 '정보'이며 우리는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2) 신문에 대한 동기 유발 동영상

가) 학생들에게 신문활용교육에 대한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초기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

나) 한국신문협회의 홈페이지<sup>21)</sup>에 가면 <NIE 동영상 가이드>를 볼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협회에 요청하여 동영상 가이드 CD를 받을 수 있다.

다) 꿀맛닷컴의 사이버중학논술<sup>22)</sup> 2강에 신문 논술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어서 신문 활용 논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3) 나비효과 이야기

가) 나비효과란,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표현한 말로, 신문의 경우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직접, 간접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도 작게는 가족과 친구 크게는 학교나 동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다) 이 활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라) 나비효과를 통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이 '나'와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준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내용도 체험할 수 있다.

21) <http://www.presskorea.or.kr/main.asp>

22) <http://www.kkulmat.com/si/index.jsp>

## ㉠ 나비효과 생각해 보기

### ※ '가을 가뭄' 이 나와 연관이 있을까?

가을 가뭄 → 농작물 수확이 부실 → 농작물 가격 상승 → 학교 급식이나 우리 집 식단에 영향 ⇒ 빈약한 메뉴

### ※ '김연아 스케이팅 선수권 입상' 이 나와 연관이 있을까?

멋진 김연아 선수의 모습 → 운동에 대한 욕구 → 줄넘기나 걷기부터 시작 ⇒ 줄어든 나의 체중, 튼튼한 근육

### ※ '자동차 파업' 이 나와 연관이 있을까?

자동차 파업 → 경제 침체 → 부모님의 경제생활에 영향 → 우리 집 식탁의 반찬이 줄어들음 ⇒ 나의 용돈이 줄어들음

## 4) 신문 둘러보기

- 가) 학생들에게 지하철의 무료 신문이나 무가지 신문이 아니라 주요 일간지를 준비하도록 한다. 무가지 신문이나 무료 신문의 경우 작은 기사와 광고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 나) 스포츠 신문의 경우 추측성 연예 기사나 선정적인 광고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처음에 신문을 천천히 넘기면서 편하게 읽어 보도록 한다. 신문 앞장의 상단에 있는 신문의 발행 호수, 광고의 예상 가격, 신문의 각 면에 담긴 특색 정보, 광고, 섹션지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 1) 제호 : 신문의 얼굴

2) 발행 정보 :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주소, 호수

3) 판수 : 인쇄 시기

4) 표제 : 신문 기사의 제목

### 5) 기사

가) 스트레이트 : 시사성이 크고 중요한 사건이 담겨 있는 뉴스 기사

나) 해설 기사 :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으로 복잡 미묘한 사안을 다룬 기사에 대한 보완적 역할

다) 피쳐 : 독자의 흥미를 자아내는 이야기들로 흔히 읽을거리 기사, 인간적인 면이 종종 등장

6) 사진, 사진 설명 : 백 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분위기를 표현, 사진 속에는 이야기나 메시지가 담겨 있음

7) 만화, 도표 : 압축과 절제의 미학, 만평, 4단 만화, 독자 만화, 이야기 만화

8) 광고 :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나침반이며,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유희유(고도의 설득)

- 9) 칼럼·시론 : 관계 전문가들의 논리 전개와 언어 구사 방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0자 내외로 자기주장을 기·승·전·결 형식으로 쓰임.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는 것으로 필자의 주장이나 개성이 반영된 글. 문제에 대한 진단 및 분석력, 종합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음.
- 10) 독자면 : 독자들이 200자 원고지 2~5매 분량의 글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음.

라) 신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가장 흥미가 가는 기사나 광고 등을 고르고 고른 이유를 짝에게 교대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때 고른 이유(근거)를 밝혀서 말하도록 독려한다.

### 5) 신문 브리핑 체험하기

- 가) 전체적으로 본 신문 내용 중에서 <가족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사나 광고>를 고르도록 한다. 이 때 가족 중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등 특정한 인물을 한 명씩 정해서 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오려다 주고 싶은 내용을 찾도록 한다.
- 나) 해당 내용을 학생들이 고르면, 실제 내용을 스크랩하도록 하고 그것을 고른 이유를 짝궁이나 모둠별로 돌아가며 이야기하도록 한다.
- 다) 실습 과제로 가족에게 스크랩 종이를 전해 주고 내용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면 신문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중요성을 알게 된다.
- 라) 응용 활동으로서 학생들에게 신문 내용 중에 '나의 경제생활' 과 직접적인 내용을 고르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책 광고, 스포츠 광고, 복권 번호 등을 고른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말하도록 하고 신문에는 생활과 밀접한 '경제생활' 이 담겨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마) 짝궁이나 모둠 중에서 설명을 잘한 학생은 전체 학생 앞에서 발표시켜서 브리핑을 체험하도록 한다.

## 나. 기사분석 및 스크랩

### 1) 기사 분석하기

- 가) 실제 쉬운 기사를 선정하여 기사의 구성 형태를 분석하고 기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나) 기사의 구성 요소인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에 대해서 알려주고 일반적으로 전문에서 기사의 핵심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알려 준다.

- ① 표제 : 기사 내용 전체를 함축한 제목
- ② 부제 : 표제의 내용을 보충하는 제목
- ③ 전문 : 육하원칙(5W 1H : Who, Where, When, What, Why, How)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 서술
- ④ 본문 : 전문에 이은 자세한 내용
- ⑤ 해설 : 사건의 전망, 평가 등

- 다) 실제 신문에는 위의 구성 요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사를 통해 학생들이 분석하도록 한다.
- 라) 신문 활용 논술의 초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사가 직접 제작한 기사를 활용하는 것이 흥미 유발과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다.

**학교 운동장에서 사람이 개를 물어**  
교사가 운동장에 들어와 소란 피우는 강아지를 물어

○○일 서울 ○○구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과 강모 교사가 운동장에 들어와 학생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던 사냥개의 뒷다리를 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점심시간 후 학교 운동장에 갑자기 큰 사냥개가 한 마리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사냥개는 학생들을 쫓아다니며 물려는 자세로 위협하고 있었고, 이를 본 최단신 강모 교사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를 쫓아내던 중, 개가 달려들자 다급해져 개의 뒷다리를 힘차게 문 것이다. 이후 사냥개는 동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현재 입원 중이다.

이 사건은 사람이 개를 문 최초의 사건으로, 개가 사람을 문다는 사람들의 상식을 불식시켜 주었으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의 사랑이 돋보이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 교사는 학생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강용철 기자>

## 2) 기사 정리 및 스크랩하기

- 가)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점검 문제(읽기 자료를 제공 후 학생들과 함께 점검하고 정리하는 과정)를 할 수 있다. 제목 붙이기, 내용 파악하기, 원인과 결과 알기, 바람직한 해결 방안 찾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기사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내용 파악이 용이한 내용을 선정하며, 정치적인 내용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읽기 자료>

민족의 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를 본다는 생각에 들떠 있지만 우리네 주부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특히 올해처럼 연휴가 짧은 때는 주부들의 명절 준비가 더욱 바쁘고 힘들기 마련이다. 한 포털 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주부들에게 명절은 이제 육체와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날로 꼽힐 정도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50대 여성의 경우는 가사 노동으로 인한 명절증후군성 척추질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는 보고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중략)



정신없이 명절을 보내고 나면 갑자기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며칠 동안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정에서 20~30분 정도 찜질 요법을 이용하면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다면 온찜질로 효과를 볼 수 있다. (후략)

- 00일보(2007. 2. 14.) -

- ➔ 1. 이 기사에 제목을 붙여 봅시다.
- 2. 여성에게 있어 명절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3. 허리 통증 완화 방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3) 학생 스스로 요약-토의·토론- 글쓰기 하는 적극적 기사 정리

- 가) 마음에 드는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으로, 가장 눈이 가는 기사를 오려서 공책이나 백지에 깔끔하게 붙이도록 한다.
- 나) 그 기사의 <핵심어>, <중심 내용>을 찾아서 다른 색깔로 밑줄을 긋도록 한다.
- 다) 내용에서 기사의 아래쪽에 모르는 단어를 적어보고 사전을 찾도록 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사전을 보고 낱말의 뜻만 적지 말고 반드시 학생들이 직접 예문을 직접 만들어 적도록 한다. 이렇게 숙달하면 학생들의 어휘력과 단어 구사력이 매우 향상된다.
- 라) 기사를 정리하는 단계로, 전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지 말고 기사 전체의 내용을 3~4줄 정도의 짧은 문단으로 요약하도록 한다.
- 마) 마지막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도록 한다.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기 때문에 의견과 생각을 적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사를 보고난 생각과 느낌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적어 보기를 권장한다.
- 바)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크게 2단계로 구분된다. 기본 단계는 ‘딛어쓰기, 맞춤법과 같은 정서법’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요약한 문장에 대한 짧은 피드백 문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화 단계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왜(Why)’ 형태의 질문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 ☞ 쓰레기 소각장 공동 이용 강행 기사
  -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본인이 OO구 주민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 ☞ 문화재 관람료 곳곳에서 옥신각신 기사
  - 처음에 문화재 관람료가 생겼던 이유는 무엇일까?
  -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알아보자.
-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기사
  - 리더의 조건은 무엇인가?
  -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사) 많은 학생을 지도할 경우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댓글이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짝궁이나 모둠원들이 서로 평가해 주는 또래평가, 동료평가의 방식을 적용한다.

### 4) 테마 기사 모으기

- 가) 논란이 되고 있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하나 정해서 <핵심 사건>으로 지정한다.
- 나)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을 하여 관련된 내용을 모은다.
- 다) 사건의 발단, 전개 및 진행,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건의 흐름에 대한 개괄을 파악한다.
- 라) 사건의 진행을 소개한 기사를 하나의 물결처럼 스크랩하고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의 글도 함께 찾아본다.

### 5) 만평 그리기

- 가) 만평이란 사회 풍속이나 시사 문제를 풍자하여 그리는 한 컷 또는 적은 컷의 만화를 의미한다.
- 나) 풍자성이 매우 강하며 촌철살인의 미학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은 컷에 상징적인 그림을 담아야 한다.
- 다) 학생들에게 만평의 예시를 보여주고,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지도한 후에, 학생들도 만평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나 내용을 구상하도록 한다.
- 라) 내용을 직설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지만, 빗대어 표현하거나 다른 내용에 담아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 마) 학생들이 그린 만평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며, 잘된 만평은 붙여두고 상을 제공할 수도 있다.
- 바) 학교생활과 관련된 만평은 교실 복도나 게시판에 붙여두어 많은 학생들이 공유하도록 한다.

## 다. 독자 의견, 칼럼, 사설 작성하기

### 1) 독자 의견 작성하기

- 가) 독자 의견은 일반 대중들이 자신이 주장하고 생각한 의견을 적은 공간이다. 신문의 독자 의견을 보면 사회를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이나 좋은 건의 사항, 제언을 쉽게 볼 수 있다. 독자 의견이 바로 자신이 생각한 바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일종의 논설문인 것이다.
- 나) 독자 의견 중에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독자 의견이라는 글의 성격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생각을 담은 논설문의 작은 전형이므로 학생들의 논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 다) 학생들이 직접 독자 의견을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이야기, 학교생활, 가족과 관련된 글과 같이 주변 생활에서 소재를 찾는 것을 권장한다. 두발 자율화, 역사에 대한 관심 갖기, 우리말 우리글 보전하기, 학생용 책의 가격 낮추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실제 독자 투고를 작성하도록 하고, 잘된 독자 투고는 교실 벽면이나 복도 게시판에 부착하여 좋은 글의 전형으로 보여주도록 한다.

### 수능날 수험생 안전 운송 도와야

고3학생들의 대학 수능 시험일을 불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다. (중략) 그러나 수능 당일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해마다 수능 경비를 맡다 보면 수능날 지각하는 학생들이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통 정체로 인한 지각생과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등이 발생돼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 돼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안전 운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까지 동원하여 지각 수험생들을 신속히 운송해 왔고 16일에도 그럴 예정이다. 해마다 이렇게 해 오고 있지만 경찰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협조를 요청해 본다. 수능날 지각 수험생 발견시 내 자식 내 동생으로 생각하고 신속히 운송해 주는 협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어느 해보다 더 지각생이 없는 수능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움의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자. 그리고 수험생들 모두에게 입실 시간을 잘 지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해 본다.

- ○○일보(2006. 11. 13 독자 투고) -

### 2) 칼럼·사설을 통한 상식 넓히기

- 가) 칼럼과 사설은 신문 활용 논술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콘텐츠이다. 이 두 가지는 집필자의 고도의 사고 능력과 밀도 있는 표현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중학생의 경우 내용을 파악하거나 논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높은 단계의 신문 활용 논술이므로 기본 내용 파악부터 교육하는 것이 좋다.
- 나) 칼럼과 사설은 성격이 다른 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칼럼은 시사 문제나 사회 풍속 등을 논평하는 글이고, 사설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시사 문제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가지고 지상에 표명하는 의견이나 주장을 담은 글이다. 사설이 신문사의 의견을 대표하여 사회의 주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칼럼은 주변의 일이나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폭넓게 작성한 글이며, 필자의 주관적인 감상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칼럼을 통해 집필자의 다양한 서술 패턴과 내용을 본 후에, 사설을 통해 논술의 요지, 논증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 다)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칼럼과 사설의 공부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핵심 주장 내용 찾기 → 주장에 밀줄, 근거에 번호 붙이기 → 모르는 단어, 낱말 찾기 → 주장과 근거를 개요표 형식으로 적기 → 자신의 의견 적기

### 3) 찬반 토론형 신문 활용 논술

- 가) 같은 신문사의 칼럼에서도 다른 주장을 하는 칼럼이나 사설을 만날 수 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은 교과서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 나) 찬반으로 양분되는 글을 제시하여 각 내용의 핵심 요지와 근거(뒷받침 내용)를 파악하도록 한 후,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한다.
- 다) 이 때 양쪽의 글에서 주장하는 논거를 개요표 형식으로 정리하게 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는 학습지나 점검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찬성 논리] ○○일보(2006. 1. 26)

## 언어 교육, 이룰수록 좋다

영어를 배우는 나라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전통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해 온 국가들이다. 두 번째는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과 미국의 식민 통치를 경험했던 국가로서 자신의 모국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세 번째는 한국, 일본, 중국 및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이다. 이 세 부류의 국가들을 합치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사용해야 할 기회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이런 추세는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나아감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에게 영어 사용을 종전의 단순한 외국어 교육 차원이 아닌, 이중 언어 교육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외국어 학습의 효과는 해당 외국어에 대한 노출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함으로써 당연히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것이고, 이는 전체적인 영어 노출량을 증가시켜 영어 학습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조기 영어 교육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기에 영어 학습을 함으로써 우리말 습득에 장애가 생기고, 또 정체성 확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영어 학습에 앞서 우리말을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서의 영어 교육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초등학교부터 조기 영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나이 어린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 능력이 저하되었거나, 학생들의 국가적 정체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략)

이제는 우리 모두 이중 언어 사용이 단순히 개인적인 자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자산'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어 교육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박준연(숭실대 교수 · 영문학) -

[반대 논리] ○○일보(2006. 1. 26)

### 조기 교육 효과 검증 안 돼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2008년부터 1, 2학년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에 16개 시도별로 1개교씩 1, 2학년 대상 영어 조기 교육 연구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아 2008년부터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2008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시범학교에서의 효과를 검증한 후에 다음번 교육과정 개정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초등 영어가 1982년에 특별활동교육으로 도입된 후 15년 만인 1997년에 비로소 정식 과목으로 도입된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조기 영어 교육은 이룰수록 좋다.”는 이론을 내세운다. 필자는 2004년에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운 고교 1학년생이 안 배운 고교 2학년생보다 영어 능력이 우수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초등 영어를 3학년에서 1학년으로 내리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과연 ‘비용 대비 효과(cost effectiveness)’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교육을 2년 앞당기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나은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하면 조기 유학으로 새어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는 빈약해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영어 때문에 조기 유학을 보낸다는 부모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23% 정도였다. 반면에 극심한 경쟁 위주의 교육과 대입 제도(21%), 과도한 사교육비(12%), 외국의 학력을 더 인정하는 풍토(11%),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 육성(10%) 등의 이유가 조기 유학의 배경으로 꼽혔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미지수다. 오히려 영어 사교육이 시작되는 학령이 더 내려오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사교육이나 조기 유학을 줄이려면 그 해법을 공교육의 근본적인 질 향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후략)

- 권오량(서울대학교 교수 · 영어교육학) -

찬성 주장	
찬성 근거	1) 2) 3)
반대 주장	
반대 근거	1) 2) 3)
나의 주장과 생각 적기	
더 알아볼 점 더 생각할 점	

#### 4) 통합교과형 신문 활용 논술

- 가) 신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 사회, 과학, 예술, 경제, 교육 같은 큰 범주의 내용이 세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교과에서 교과 관련 정보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내용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교재가 신문이라 할 수 있다.
- 나) 국제 관계의 사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하거나, 의학 관련 기사에 대한 수학적 결과를 도출하는 등 통합교과형 정보를 같이 담은 경우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예를 들어 북핵 실험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우라늄은 어떻게 생성되는가?”와 같은 관련 지식을 찾아보거나, 조류독감 사건에 ‘조류독감의 발병 과정’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다.

#### 한국 우주 개발 어디까지 왔나<sup>23)</sup>

1. 세계 여러 나라가 앞 다퉈 우주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2.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부터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를 일지 형식으로 정리해요.
3.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태운 소유스호 발사 현장에 파견된 기자가 돼 이 장면을 실감나게 보도해 봐요.
4. 우리나라 첫 우주인이 우주에서 하는 실험은 18가지인데,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세요.
5. 우리나라의 로켓 기술이 인공위성보다 뒤진 이유를 추측해 보아요.

23) <http://www.jnie.co.kr/> 중앙일보 NIE연구소



## 6. 신문 활용 논술의 일반적 도출 과정

신문 활용 논술의 전반적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갖는다.

- 1) 학생들이 관심 있는 기사를 찾아 스크랩
- 2) 핵심 주제를 도출
- 3)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를 찾아냄-논증력 훈련
- 4)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시
- 5) 친구, 선생님, 부모님과 토론-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창의력 신장 기법 (통계 자료나 그림을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

위와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내용의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하다. 각 교과별로 신문 활용 논술의 방법적 측면은 교과 전문가들이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교사의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학생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미되어야** 하며, 셋째 **직접 내용을 작성하고 스스로의 글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신문 활용 논술에 대한 내용은 신문활용교육(NIE) 관련 연수에 참여하거나 인터넷에 구축된 수많은 NIE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 ‘요약하기’를 통한 논술 지도의 실제

정 형 근(정원여자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2. 논술에 있어서 ‘요약하기’의 필요성
3. ‘요약하기’의 운영(안)
4. 운영(안)에 대한 설명 및 사례
5. 나오며

##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요약하기’를 활용한 논술 지도의 실례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술 수업 계획(안)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논술 지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술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술의 어느 측면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요청된다.

논술 지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단계적 지도 혹은 수준별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본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아이들의 수준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아이들도 흥미를 잃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지도가 요청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수준차가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요소도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논술 지도의 어느 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영역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능한 영역의 하나가 바로 ‘요약하기’이다. 요약하기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단계가 높아질수록 복잡화되고 추상화되는 단계를 거치므로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문제 해결력, 표현력 등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짧은 시간(예를 들어,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혹은 특별활동 시간)에 논술의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혹은 논술에 관한 이론 일반을 가르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빼앗고 더 나아가서는 논술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논술 지도를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보

다 세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학생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은 어느 특정한 시간(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심화보충 시간, 특별활동 시간, 기말 시험 이후, 특히 3학년 기말시험 이후 등)에 논술의 기본을 지도하는 방안의 하나인 ‘요약하기’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논술에 있어서 ‘요약하기’의 필요성

논술 고사에 ‘요약하기’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요약하기’가 학생들의 ‘독해력’ 측정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글을 얼마나 잘 읽었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를 이해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요약하기’의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요약하기가 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교과에서 행해지는 읽기와 쓰기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중학교 교과 시간 및 교과 외 시간에 수많은 글을 읽으며, 글을 읽고 난 후 그 글에 대한 감상을 쓰거나, 내용을 요약하거나, 메모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접하는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일종의 정보라고 할 때, 학생들은 매일 정보를 접하고 또 끝없이 정보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정보를 가공하는 행위의 핵심에 ‘요약하기’가 자리한다. ‘요약하기’는 단순히 제공된 내용을 줄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한 정보를 가공하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요약하기는 출제자에게 보다 큰 매력으로 다가설 수 있다. 왜냐하면 ‘요약하기’를 통해 답안 작성자의 추상화 혹은 일반화 능력 그리고 표현력과 문장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길고 구체적인 내용을 짧게 요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화·추상화시킬 수 있는 고도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며,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말과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표현력과 문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약하기’는 읽기, 더 나아가 논술 및 모든 쓰기에서 필요로 하는 ‘독해 능력’ 및 ‘일반화(추상화) 능력’, ‘표현력과 문장력’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술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약하기’는 단지 국어 시간뿐 아니라 많은 정보를 다루는 모든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교육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논술 지도에서 ‘요약하기’가 갖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물론 ‘요약하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든 제시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술문을 작성한다면 그 속에는 이미 본문에 대한 이해가 들어 있고, 또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본문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논술문을 작성해야 하므로 논술문을 통해 학생의 ‘독해력’을 측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제주일보 2007. 3. 17.)

## ‘요약하기’를 통한 논술 지도의 실제

가.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교육 현실은 ‘요약’이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온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학교 도서관을 들여다보면 작품을 요약한 책들은 많이 보이지만, 그 요약의 대상 작품들은 보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엿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학생들은 작품을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작품을 요약한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교과 교육(국어과를 포함해서) 전반에서 텍스트 해석의 시금석이 되는 ‘요약하기’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요약하기’가 교육과정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요약 능력이 모든 교과에서 또는 교과서를 넘어서 홍수처럼 제시되는 정보를 선택하고, 걸러내며, 가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에 해당되며, 우리 학생들은 이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일반화 능력과 표현력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들이 종합된 문제 해결력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약하기’는 논술 및 글쓰기 또는 읽기에서 전부는 될 수 없지만 반드시 습득해야 할 기본 능력임에는 분명하다.

다. 사실 ‘요약하기’는 국어과 수업을 통해서도 산발적으로 운영되며, 다른 교과에서는 ‘요약하기’에 대한 인식 없이 관습적으로 요약을 할 뿐이다. 아울러 국어과 이외의 교사들은 ‘요약’은 국어과에서 다루어질 문제이며, 그 능력을 국어 교과에서 길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설사 ‘요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교사라 하더라도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요약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다.

라. ‘요약하기’는 단지 주어진 내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긴 글을 짧게 요약하는 과정은 지적인 측면에서는 요약자의 추상화 능력 혹은 일반화 능력이 요구되며,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표현력(문장력)이 요청된다. 이처럼 ‘요약하기’는 내용 파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읽기의 과정이면서도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해석의 과정과 표현의 과정을 함축한다.

마. 이런 측면에서 ‘요약하기’는 단지 지식의 습득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자신의 말로 가공하여 표현하는 응용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요약하기’는 국어 교과뿐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모든 교과에서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 능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3. '요약하기'의 운영(안)

날 짜	지 도 내 용	비 고
1차시	논술에서의 요약하기의 중요성, 쓰기와 요약하기의 관계	수업 안내
2차시	요약하기의 일반적 원칙 및 방법	요약의 원리
3차시	문장과 문단의 개념, 문단의 구조	문단과 요약
4차시	문단 쓰기의 실제와 요약	
5차시	사설의 구성과 요약하기 및 논술 - 신문 사설의 전개와 요약	갈래에 따른 요약 방법
6차시	논술문의 구조와 요약 - 논술문의 전개와 요약	
7차시	설명적인 글의 구성과 요약 ① - 설명의 방법	
8차시	설명적인 글의 구성과 요약 ② - 설명문의 전개와 요약	
9차시	신문 기사의 요약 - 육하원칙에 따른 요약	요약의 실제
10차시	교과서 읽기와 요약 - 제목 붙이기를 통한 요약 연습 - 국사 교과서, 기술·가정 교과서 읽기와 요약	
11차시	사회 영역의 글 읽기와 요약 ① - 설문과 설문 결과 분석을 토대로 도표 작성하기	
12차시	사회 영역의 글 읽기와 요약 및 쓰기 ②	
13차시	예술·문화 영역의 글 읽기와 요약 및 쓰기	
14차시	자연 과학 영역의 글 읽기와 요약 및 쓰기	
15차시	인문 영역의 글 읽기와 요약 ① - 〈소나기〉를 읽고 요약하기	
16차시	인문 영역의 글 읽기와 요약 ② - 〈소나기〉의 요약문 작성	
17차시	요약 연습 및 마무리	마무리

## 4. 운영(안)에 대한 설명 및 실례

〈1차시〉 : 수업 안내, 요약의 중요성, 쓰기와 요약의 관계

- 1) 수업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2) 요약의 중요성 강조 : 제시문의 독해 능력 측정
  - 요약자의 추상화(일반화) 능력 측정
  - 요약자의 문장력과 표현력 및 논리력을 측정
- 3) 요약은 단순히 내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글쓰기임을 강조

〈2차시〉 : 요약의 일반적 원칙과 방법

- 1) 요약의 일반적 원칙
  - 선택의 원칙, 일반화의 원칙, 재구성의 원칙
- 2) 요약의 방법
  - 반복되는 내용이나 덜 중요한 내용은 삭제
  - 예시나 비유 등의 구체적 진술도 제외
  - 하위 개념의 추상화 및 일반화
- 3) 논술에 관한 서적이거나 각 교육청에서 발간한 논술 워크북<sup>25)</sup>의 ‘요약하기’ 단원을 이용한다.

〈3차시〉 : 문장, 문단의 개념 및 문단의 구조

- 1) 문장의 개념
  - 문장 : 사고(생각)의 단위, 마침표로 표시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 2) 문단의 개념
  - 문단(단락) :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문장들의 집합, 들여쓰기로 구분
- 3) 문단의 구조
  - 문단 = 소주제(문) + 보조 문장들(뒷받침 문장)

※ 주의 사항

- 문장이 생각을 펼쳐나가는 기본 단위임을 인식시킨다.
- 단락(문단) 나누기는 생각(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문단 나누기를 하는 데

25)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생각이 커지는 글쓰기」, 2006, pp.21~26.



어려움을 느끼므로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한 대목이다.

- 문단의 형식은 ‘(소)주제문+뒷받침 문장들(보조 문장들)’ 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주제문을 찾는 것이 글의 내용 파악에서 중요한 것이며, 요약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4차시〉 : 문단 쓰기의 실제와 요약

- 1) 문단을 펼쳐나가는 원리를 공부한 후 실제로 써본다.
- 2) 그 다음에 생략을 해 봄으로써 요약을 실습한다.
- 3) 문장을 펼쳐나가는 3가지 주요 원리인 ‘예를 들어(예시)’, ‘왜냐하면(논증)’, ‘다시 말해(상세화)’ 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sup>26)</sup>

〈문단 쓰기의 실제〉의 예

- 상세화

- ① 높이 오른 새가 멀리 본다.

다시 말해서 \_\_\_\_\_

- ② 흔히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_\_\_\_\_

- ③ 시험 과목이 너무나 많다.

다시 말해서 \_\_\_\_\_

- 논증

- ①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_\_\_\_\_

- ② 절벽 밑에 천막을 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_\_\_\_\_

- ③ 인간에게 외모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_\_\_\_\_

- 예시

- ① 무인도에서 필요한 것들은 꽤 많다.

예를 들어 \_\_\_\_\_

- ② 나는 동물들을 아주 좋아한다.

예를 들어 \_\_\_\_\_

- ③ 나에게서는 장점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_\_\_\_\_

## 〈5차시〉 : 사설의 구성과 요약 및 논술

- 1) 5차시에서는 ‘사설’의 구조와 요약에 대해 공부한다. ‘사설’의 구조와 그 예들에 대해서는 LG상남재단의 자료<sup>27)</sup>를 참조하면 된다.
- 2) 사설의 공부 방법
  - 가) 논지가 다른 두 가지 사설을 요약 대조하면서 공부한다.
  - 나) 사설 이외에도 칼럼이나 오피니언, 시론 등을 스크랩하게 하여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다른 글인 경우는 이에 대한 반박의 글이나 옹호의 글을 써 보게 한다.

### 〔사설〕 생활 소음을 줄이자 (○○일보 2007.3.28)

버스를 타면 크게 틀어 놓은 라디오 소리가 짜증을 부른다. 지하철에서는 휴대전화로 거침없이 떠드는 옆자리 승객의 무례에 시달린다. 심지어 공원에서조차 확성기 소리를 억지로 들어야 한다. 차량 경적에서 공사판 굉음까지 온갖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 시민들의 몸과 마음은 점차 황폐해진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165건의 사건 중 소음·진동 관련 분쟁이 150건(8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등 전국 대도시 전용주거지역의 소음도는 밤낮 모두 환경 기준을 초과한다. 환경부가 재작년 전국 29개 도시를 측정된 결과 소음이 기준치를 넘은 곳이 낮에는 22개 시, 밤에는 27개 시였다. 그것도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아닌 학교, 병원, 녹지, 전용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결국 전국 어디에 살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일할 수도, 잠을 청하기도 힘든 나라가 돼 버렸다. 물론 불가피하게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 일반의 소음에 대한 둔감한 인식, 경각심 부족이 ‘소음 공화국’을 자초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몇몇 지자체와 주민이 생활 소음 추방에 나선 것은 그래서 반가운 변화다. 서울 성북구는 2003년 6월 ‘생활소음 저감(低減)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북구의 ‘소음 관리팀’은 주민들로 구성된 소음 감시 순찰대와 협조해 아파트 공사장, 차량 경적, 행상들의 확성기 소음을 단속하고 있다. 공사장마다 소음 측정판을 부착해 기준치인 70dB(데시벨·낮시간 기준)을 넘을 경우 제재하는 조치가 특히 효과적이라고 한다. 관악구가 성북구의 사례를 본떠 지난해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고 노원구, 종로구와 성남시,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등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잦자 ‘개 짖음 방지 목걸이’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빌려 주고 있다. 청주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사례다. 시 전체의 소음도를 나타내는 ‘소음 지도’를 지난주 완성해 소음 방지 종합 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생활 소음이 건강과 정서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음 추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중교통이나 특정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백번 법규를 만들어도 국민의 인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역시 법보다는 시민 의식과 공공 예절이 앞서야 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다.

26) 허병두, 「허병두의 즐거운 글쓰기 교실1」, 문학과 지성사, 2006, pp.179~185.

27) LG 상남언론재단(<http://www.lgpress.org/library/book/book4/>)

▶ **주장** : 정부와 지자체는 소음 추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근거 : 1. 소음은 시민들의 몸과 마음(정서)을 해치기 때문이다.

2. 국민 일반의 소음에 대한 둔감한 인식, 경각심 부족이 '소음 공화국' 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6차시〉 : 논술문의 구조와 요약

- 1) 논설문은 넓게 보면 '주장+근거' 로 이루어진 글이다. 주장을 찾고, 그것에 합당한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6차시의 목적이다.
- 2) 논설문은 주제 문장이 쉽게 드러나는 글이다. 그러므로 앞서 4차시에서 배웠듯이 주제 문장과 뒷받침 문장들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요약하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3) 이론보다는 실례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춘향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중학교 3학년 3반 강○○

피고인 춘향은 현직 사또 변부사에게 지방 관장의 명을 어긴 것과 사또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기소되었다. 피고 측에서는 관장이 유부녀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우선 춘향은 종모법에 따라 기생이다. 기생은 한 지아비를 섬길 수 없는 신분이다. 양반의 소실로 들어간 상태였다면 변부사는 유부녀 겁탈 죄로 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춘향은 이도령의 연약과 비망기만 있을 뿐 그의 아내 또는 첩이라는 증거가 없다. 변부사가 수청을 요구했을 때 그는 기생인 상태의 춘향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 춘향을 나무라는 회계에게 피고 춘향은 조선의 질서 유지 수단인 유교를 들먹여 충효열 따로 있으나 나라의 포상을 받은 기생들을 열거하며 반박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은 조선에서 신분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생긴 예외들도 있는 법이다. 논개만 해도 전쟁 중에 적장을 안고 물 속에 뛰어들어 나라에서 특별취급을 한 기생일 뿐이다. 일반 상황에선 결코 총렬문에 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춘향은 조선 후기 신분 사회의 동요를 틈타 관장의 명을 이같이 거역하는데 아무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신분제가 흔들린다 해도 법정에선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피고는 정녕 모르는가?

지금까지의 주장을 여성의 인권 문제로 연결시키며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만인이 평등한 세상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변부사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언론 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매장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본 사건은 신분제가 나라의 기강을 떠받치고 있던 조선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시 조선 후기라는 사회적 배경이 신분제 동요라는 결과를 가져와 일개 기생에 지나지 않는 피고가 지방 관원을 농락하였지만 국가 유지의 기본 틀인 신분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피고 춘향을 지방 관원을 농락한 죄와 명예 훼손죄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만약 춘향의 아름다운 마음만을 높게 평가하여 춘향을 무죄로 판결하고 변부사를 처벌한다면 조선 신분제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가뜩이나 무너져 내리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피고 춘향은 변부사를 농락한 죄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 ▶ 주장 : 춘향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근거 : 1. 춘향은 기생이기에 변부사의 수청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국가 유지의 기본 틀인 신분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 〈7차시〉 : 설명문의 구성과 요약 ①

- 1) 사실 교과서의 대부분은 설명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설명문을 요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어 교과서의 이해를 넘어서 다른 교과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2) 설명의 방법 : 정의, 비교와 대조, 예시, 분류, 분석 등을 다루면서 반드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며, 요약할 때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지적해 주어야 한다.
- 3) 설명문의 구성 원리에 관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주변의 국어 교사에게 문의하면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8차시〉 : 설명문의 구성과 요약 ②

- 1) 설명문의 요약 방법은 앞서 3차시에서 배운 하나의 단락에서 소주제문을 찾고 뒷받침문장들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익혔다면 쉽게 요약할 수 있다.
- 2) 반복되는 내용의 삭제
- 3) 예시나 비유의 제외
- 4) 하위 개념의 추상화 및 일반화
- 5) 우리가 매일 매일 쉽게 접하는 정보는 대개 설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설명적인 정보를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9차시〉 : 신문 기사의 요약

- 1) 신문 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한다.
- 2) 육하원칙의 확장된 의미를 부각시킨다.
  - 언제(when) : 시간의 축, 역사의 문제
  - 어디서(when) : 공간의 축, 사회·문화의 문제
  - 누가(who) : 주체의 축
  - 무엇을(what) : 대상의 축
  - 어떻게(how) : 방법, 수단의 축
  - 왜(why) : 동기, 가치관, 철학의 축



## ‘요약하기’를 통한 논술 지도의 실제

### 〈11차시〉 : 사회 영역의 글 읽기와 요약 ①

- 1) 설문과 설문 결과 분석을 토대로 도표를 작성한다.
- 2) 역으로 도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관한 내용을 쓰게 한다.
- 3)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읽기에서 논술까지」 및 각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집을 활용한다.<sup>28)</sup>
- 4)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도 된다.

### 〈12차시〉 : 사회 영역의 글 읽기와 요약 및 쓰기 ②

- 1) 가치 판단에 관한 글(도덕과)을 읽고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sup>29)</sup>
- 2)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합당한 자료를 제시하면 더욱 좋다.
- 3) 내용이 짧으면 한 편 정도의 글을 더 준비한다.
- 4) 요약된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게 한다.

### 〈13차시〉 : 예술 문화 영역의 글 읽기와 요약 및 쓰기

- 1) 예술 및 문화에 관한 글<sup>30)</sup>을 읽고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 2)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합당한 자료를 제시하면 더욱 좋다.
- 3) 요약된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게 한다.
- 4)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읽기에서 논술까지」 및 각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집을 활용한다.

### 〈14차시〉 : 자연 과학 영역의 글 읽기와 요약 및 쓰기

- 1) 자연 과학에 관한 글<sup>31)</sup>을 읽고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 2)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합당한 자료를 제시하면 더욱 좋다.
- 3) 요약된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게 한다.
- 4)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읽기에서 논술까지」 및 각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집을 활용한다.

### 〈15~16차시〉 : 문학 작품의 요약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요약한다.

28)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논술 능력을 키우는 소논문」(2006 중학교 논술심화지도 자료집), 2007, pp.12~13.

29)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생각이 커지는 글쓰기」, 2006, p.81.

30)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생각이 커지는 글쓰기」, 2006, pp.129~130.

3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생각이 커지는 글쓰기」, 2006, p.166, p.181.

❖ 문학 작품 요약의 실제

- 1) 문학 작품, 특히 서사(이야기)는 내용이 길고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문학 작품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추론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서사(이야기)는 이야기가 인과관계를 통해 전개되기에, 작품 속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인과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은 상당한 논리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갈래의 글 읽기보다도 서사(이야기) 읽기와 요약은 논술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2) 문학 작품의 요약을 교과서에 실린 서사(시나리오, 희곡, 설화, 소설 등)로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의외로 학생들은 이미 배운 내용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 실제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 때 배운 「소나기」의 내용을 요약하게 하면 대개 「소나기」에 대한 잔상을 위주로 답하거나, 내용을 부분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 흐름을 간단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우선 「소나기」에 대한 독해(이해)가 미진했음을 뜻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소나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또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위주로 다루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없애고, 교과와의 연계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4) 희곡, 설화, 소설과 같은 긴 이야기(서사)를 요약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가) 장면별로 묶은 후, 그 장면별로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한다.
- 나) 요약된 문장들을 묶어 한 편의 글로 만든다.
- 다) 만들어진 글을 세 문단으로 요약한다.(처음 - 중간 - 끝)
- 라) 세 문단을 한 문단으로 요약한다.
- 마)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 장면별로 묶는 기준은 장면이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독자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구획된다.
- 만들어진 글을 세 문단으로 요약하는 것은 글의 일반적 구성인 3단 구성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글에 따라서는 4단 구성(기-승-전-결)을 취하므로, 네 문단으로 요약해도 된다. 아울러 소설의 구성 방식을 따라 4단락으로 또는 5단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요약의 양이 줄어들수록 요약자의 일반화 능력과 표현력이 요구되며,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글의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 ‘요약하기’를 통한 논술 지도의 실제

## \* 문학 작품 요약의 실례 - 〈소나기〉 요약의 예 \*

### 〈소나기〉의 각 장면

- (장면1) 서울에서 내려온 소녀가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친다.
- (장면2) 소녀가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다가 하얀 조약돌을 소년에게 던지고 갈밭 사잇길로 도망친다.
- (장면3) 소년은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보다가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는다.
- (장면4) 소년이 소녀가 하던 짓을 흉내내다 들키자 메밀밭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져 코피를 흘린다.
- (장면5) 소년이 산 너머로 놀러 가자는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 (장면6) 소년이 자신이 할 일과 소녀와 함께 있는 것 사이에서 갈등한다.
- (장면7) 소년과 소녀가 무밭에서 무를 뽑아서 먹는다.
- (장면8) 소녀가 꽃을 꺾다 다치자 소년이 상처에 송진을 발라 준다.
- (장면9) 소년과 소녀가 송아지를 타고 놀다가 소나기를 만난다.
- (장면10) 원두막이 비를 막지 못하자, 소년이 소녀를 수숫단 속으로 데려간다.
- (장면11) 소년이 소녀를 업고 소나기로 인해 불어난 개울물을 건넌다.
- (장면12) 소녀가 오랜만에 만난 소년에게 대추를 건넨다.
- (장면13) 소년이 소녀에게 줄 호두를 따서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린다.
- (장면14) 소년이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다.

### 〈요약문 1〉 - 3문단으로 요약

(장면1) 서울에서 내려온 소녀가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장면2) 치다가 하얀 조약돌을 소년에게 던지고 갈밭 사잇길로 도망쳤다. (장면3) 소년은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 보다가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장면4) 소년은 소녀가 하던 짓을 흉내내다 들키자 메밀밭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져 코피를 흘렸다. ⇒ 첫 만남의 시간(탐색의 시간)

어느 날, (장면5) 소년이 산 너머로 놀러 가자는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곧 (장면6) 자신이 할 일과 소녀와 함께 있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장면7) 소년과 소녀는 무밭에서 무를 뽑아서 먹고, (장면8) 소녀가 꽃을 꺾다 다치자 소년이 상처에 송진을 발라 준다.

(장면9) 그 이후 소년과 소녀가 송아지를 타고 놀다가 소나기를 만나고 소년이 소녀를 원두막으로 데려갔는데, (장면10) 원두막이 비를 막아 주지 못하자, 소년이 소녀를 수숫단 속으로 데려간다. 비가 그치자, (장면11) 소년이 소녀를 업고 소나기로 인해 불어난 개울물을 건넌다. ⇒ 함께 한 시간

그 이후 소나기로 인해 병을 얻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소녀가 (장면12) 오랜만에 만난 소년에게 대추를 건넨다. 그리고 (장면13) 소년은 소녀에게 줄 호두를 따서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다가 그 날 밤에, (장면14)

소년은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다. ⇒ 이별의 시간

〈요약문 2〉 - 한 문단(단락)으로 요약

서울에서 내려온 소녀와 시골 소년이 개울에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다. 어느 날 소녀가 소년에게 놀러 가자는 제안을 하자, 소년은 자신이 해야 할 일 때문에 갈등하다가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산 너머로 놀러 간다. 놀던 도중, 두 사람은 소나기를 만나고, 비를 피하기 위해 소년이 소녀를 수숫단 속으로 데려간다. 비가 그친 후, 소년이 소녀를 업고 물이 불어난 개울을 건너간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며칠 후에야 소년은 소녀를 보게 되었으나, 그날 저녁 소년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된다.

〈요약문 3〉 - 한 문장으로 요약

- 〈소나기〉는 몸이 약한 서울 소녀와 시골 소년의 만남과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다.
- 〈소나기〉는 서울 소녀와 시골 소년의 짧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 〈소나기〉는 서울 소녀와 시골 소년의 소나기 같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 〈소나기〉는 서울 소녀와 시골 소년 사이에 있었던 짧지만 소나기같이 청명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 5. 나오며

지금까지 ‘요약하기’의 필요성과 그 운영 방안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약하기’는 일면 논술 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길러야 하는 능력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내용을 파악한 후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용 파악 능력’, ‘추상화 능력’, ‘표현력’의 측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요약 능력’은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가공하는 능력을 뜻하므로 모든 교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요약하기’ 수업이 심화되기 위해서는 요약문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를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개인의 주장이 강한 논리적인 글에 대한 비판적인 읽기가 요청된다. 서사와 같은 문학 작품에 대한 비판적인 감상 또한 요약자의 사고력을 신장시켜 줄 것이다. 더불어 수업 중간 중간에 쟁점이 있는 논제를 갖고 논술문 쓰기를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요약하기’의 중요성이 ‘요약하기’ 수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요약하기’ 수업이 성공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기본 능력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적절한 예의 제시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예문 구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이론 중심의 수업 전개보다는 실례와 연습 중심의 수업 지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 '요약하기' 를 통한 논술 지도의 실제

생각 가다듬기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intended for summarizing or reflecting on the content.





# 독서-토론-논술의 과정에 따른 지도 방안과 실제

심재홍(홍은중학교 교감)

1. 독서와 토론과 논술의 관계
2. 독서·토론을 적용한 논술 교수 학습 모형
3. 독서·토론을 적용한 논술의 지도 과정
4. 맺음말

## 1. 독서와 토론과 논술의 관계

논술을 잘하려면 풍부한 배경 지식과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논술문을 쓰고자 하나 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쓸 거리가 없고, 글을 읽거나 내용을 조직하여 표현하고자 하나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면 독해도 작문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고민에 빠지게 된다. 독서는 이러한 배경 지식과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논술 공부의 출발점이다. 「읽기에서 논술까지」라는 말은 독서와 논술의 이러한 관계를 잘 드러낸다.

개인적인 글쓰기 과정에서는 토론이 생략되지만 학교 수업이나 독서(논술) 동아리 활동에는 독서 후 토론이 따르게 마련이다. 독서 후 토론은 텍스트(읽기 자료) 내용과 관련된 논제·논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논제가 토론의 전체적인 주제라면 논점은 그러한 주제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국면이다.

토론과 논술은 모두 설득의 의도를 가지며 그러한 설득을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관에 치우친 주장으로는 제대로 토론이 될 수 없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논술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는 점에서 토론과 논술은 논리를 생명으로 하는 합리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토론의 기회를 많이 가지는 일은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좋은 논술문을 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이것이 오늘날 논술 교육의 과정에서 토론을 중시하게 된 배경이다.

논술 교육의 접근 방식에는 잘된 글을 골라 이를 모방하게 하는 결과 중심의 접근법, 논술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러한 유형에 따라 해결 방식을 가르치는 유형별 접근법, 논술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지도하는 과정별 접근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고력 신장’이라는 논술의 취지와 본질에 부합하는 것은 논술 교육의 과정에 따른 접근 방식이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논술을 도입한 취지가 창조적, 논리적인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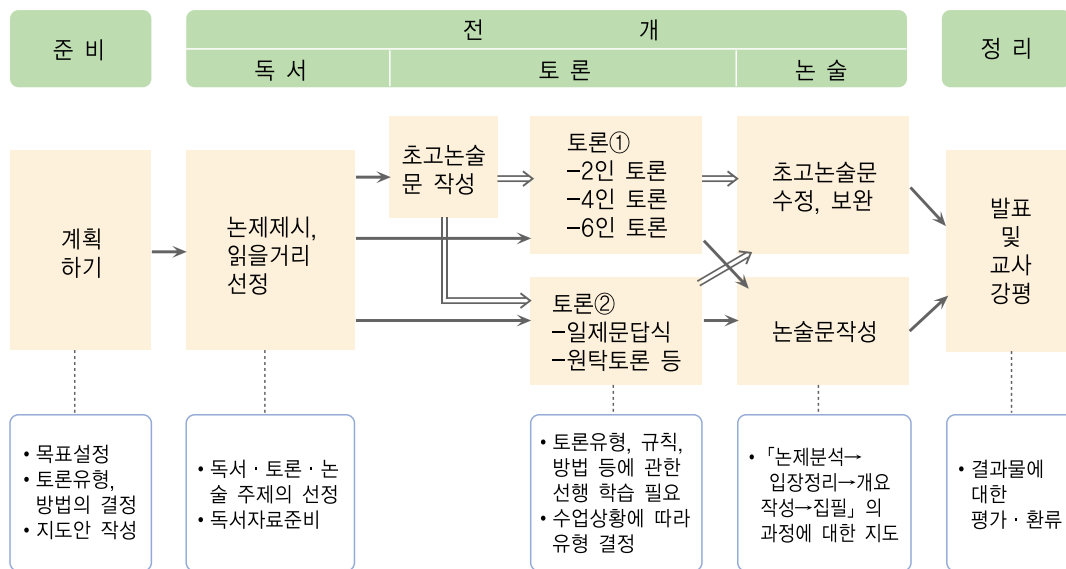
# 독서-토론-논술의 과정에 따른 지도 방안과 실제

능력의 배양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유형별 접근이나 결과 중심의 접근과 같이 임기응변의 방법으로는 이루기 어려우며, 교과 학습 내용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논제를 중심으로, 독서하고, 토론하고, 토론한 결과를 글로 써 보는 등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2. 독서·토론을 적용한 논술 교수-학습 모형

일선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논술 교수-학습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모형은 논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토론의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그림의 →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토론을 적용한 논술 교수-학습 모형 \*



이 그림에 나타난 방식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이다.

방식①은 본격적인 토론 학습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한 의미의 토론 방법과 원리를 논술 교육에 적용한 것이다. 이 방식은 토론 주제의 선정, 토론 조의 편성·운영, 토론방식과 규칙의 적용, 진행자의 역할 등 토론의 전반적인 과정이 일반적인 토론 원리에 입각하여 적용된다. 이 학습 모형을 단계에 따라 제시하면 ‘계획하기→문제 제시·읽을거리 선정→초고 논술문 작성→(예비토론→토론①→초고 논술문의 수정→보완→발표 및 교사 강평(또는 첨삭 지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학습 모형에서는 논술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친 계획하기나 토론의 규칙과 방법에 대한 학습 등이 필요

하므로 비교적 많은 준비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준비 단계를 제외한 전개 및 정리 단계만 하더라도 최소 2차시 이상의 수업량이 요구된다. ‘논술’이라는 독립된 교과가 없고 ‘논술 전문지도 교사’라고 할 만한 교사가 없으며, 짝 짜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바쁜 현실에서 이와 같은 논술 교육 모형을 교과 시간에 운영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 자체는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는 논술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근본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므로 사정이 어렵더라도 지도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있다면 교과 내용 중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창의적재량활동 시간, 특별활동반, 방과후학교 등에서 논술 교실을 운영한다면 이 모형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식②는 방식①에서 토론① 대신 토론②를 적용한 것으로 ‘계획하기→논제 제시·읽을거리 선정→초고 논술문의 작성→(예비토론→)토론②→초고 논술문의 수정·보완→발표 및 교사 강평(또는 첨삭 지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방식③은 방식①의 ‘토론’ 과정 전에 있는 ‘초고 논술문 쓰기’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계획하기→논제 제시·읽을거리 선정→토론①→논술문 작성→발표 및 교사 강평(또는 첨삭 지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방식④는 방식①의 ‘토론’ 과정 전에 있는 ‘초고 논술문 쓰기’ 과정을 생략한 점은 방식③과 같으나 토론① 대신에 토론②를 거치는 것으로, ‘계획하기→논제 제시·읽을거리 선정→토론②→논술문 작성→발표 및 교사 강평(또는 첨삭 지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①은 우리가 흔히 일컫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토론이고 토론②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토론이라 하기 어려운 일제문답식토론, 원탁토론, 버즈 등의 방식을 총괄하는 것이다. 방식 ②, ④의 모형에는 토론의 형태가 논술 교육 과정에 도입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규칙이나 방법 등의 면에서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에 머무른다. 따라서 예비토론을 거치지 않으며 4인 토론(직파토론), 반대신문식 토론 등과 같은 엄격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약식 모형은 한두 시간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수업 여건상 토론②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논술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토론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논술 과정에 토론을 적용한 취지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수준에서는 좀 어렵지만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논술 토론 수업이라 할 수 있는, 방식①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3. 독서·토론을 적용한 논술의 지도 과정

#### 가. 계획하기

논술 교수-학습은 일반적인 교과 영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업의 준비 단계인 ‘계획하기’에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지도 목표, 지도 시간, 지도 대상, 토론의 유형·방법 등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학습 계획을 짜게 된다. 그리고 연간 지도 내용을 선정·배열하기 위하여 교과서(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쟁점 사

## 독서-토론-논술의 과정에 따른 지도 방안과 실제

항을 추출한다. 쟁점이란 서로 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다투는 문제점으로, 토론이나 논증은 대개 쟁점을 검토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된 주장을 부정하고 자기의 타당한 주장을 입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쟁점이 없는 토론이나 논술은 존재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도덕과의 ‘윤리는 상대적인 것인가?’, 사회과의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인가?’, 국어과의 ‘언어는 민족 정체성의 표지인가?’, 영어과의 ‘영어 조기교육이 바람직한가?’, 과학과의 ‘과학은 가치중립적인가?’, 기술과의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것이다. 쟁점이 있어야 토론이 유발되며 토론은 합리적인 논거 제시를 필요로 한다. 합리적인 논거의 제시는 바로 논술 능력이 요구하는 것이다.

쟁점 사항이 정리되면 그러한 쟁점을 잘 보여주는 독서 자료(읽을거리)를 탐색한다. 쟁점을 드러내는 방식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암시적일 수도 있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암시적인 글이 학습자의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어서 더 좋다. 읽을거리는 한 편의 시로 제시될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기가 선하다면 결과가 비도덕적이어도 되는가?’ 라는 쟁점을 다루고 싶다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희생과 봉사의 아름다움을 다루고 싶다면 이성부의 <벼>, 안도현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읽을거리로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과와 연계한 논술 교육을 하려는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쟁점을 추출하고, 그러한 쟁점을 잘 드러내는 읽을거리를 선정,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배열하여(주제별, 또는 난이도별 등) 연간 지도 계획을 완성한다.

지도 계획이 짜여지고 나면 차후 토론 수업이 원활하도록 학생들에게 토론의 유형, 방법, 규칙 등에 관한 학습과 함께 실기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 실기 수업은 전개 단계에서 진행되는 실제 토론 과정에서 그때그때 행할 수도 있다.

### 나. 논제 제시 및 읽을거리의 선정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된 논제(쟁점)를 중심으로 “독서→토론→논술” 형태의 수업이 전개된다.

수업 전개의 첫 번째 단계는 논제 및 읽을거리의 제시이다. 논제는 토론에서(논술문의 경우 그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로 흔히 ‘주제’ 라고도 하는데, 논제를 찬반양론의 의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쟁점이므로 논제와 쟁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쟁점이며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사용상의 문제점’ 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논제이다. 논술 수업은 이처럼 논제(쟁점)를 선정하고 이를 잘 드러내는 좋은 글을 읽을거리로 제시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논제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예민한 정치 사회 문제라든가 청소년의 심성을 해할 수 있는 폭력과 선정적인 것들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사용상의 문제점’ 이란 논제는 컴퓨터 통신이 대중화된 오늘날, 청소년기의 언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컴퓨터 통신 언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논제가 선정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글이나 책을 읽을거리로 제시한다. 좋은 논제와 좋은 읽을거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청소년 통신 언어 사용 문제를 논제로 정했을 경우에는 외계어 등 통신 언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글이나 그것에 대한 논쟁 등을 다룬 사설 등을 읽을거리로 제시할 수 있는데, 가급적 수준 높은 필자들이 쓴 품격 있는 내용으로, 표현 면에서도 언어의 전범이 될 만한 것이면 더욱 좋겠다.

논제의 선정과 읽을거리의 제시는 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좋은 글이 있으면 그 글에서 토론을 전개할 수 있는 논제(쟁점)를 찾아내어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읽을거리는 반드시 장문의 완결된 글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권장 도서나 필독 도서와 같은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학습자에게 많은 독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만큼 부담을 주므로, 학교에서 교과와 연계하여 토론과 논술을 진행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장문의 글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다.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한 편의 시, 하나의 기사문, 긴 글 속의 짧은 한 도막의 글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의 논술 시험이라 볼 수 있는 미국의 ‘에세이’는 속담, 격언 같은 짧은 분량의 명문을 읽을거리로 주고 논제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논제나 논제와 관련된 읽을거리가 학생들의 수준에 비추어 어려운 것이라면 선행조직자를 동원할 필요도 있다. 선행조직자는 교사가 교과 내용을 가르칠 때, 기본적 개념이나 원리, 지식을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공하는 실례, 비유, 용어, 개념, 명제, 일반화, 원리, 법칙 등의 도입 자료를 말한다. 이러한 선행조직자는 새로운 과제를 학습하고자 할 때 기존 지식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중간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된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사용상의 문제점’을 논제로 삼았다고 가정하고, 통신 언어의 특징과 사상, 그리고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다루고 있는 글을 중학교 국어 교과서(1-2)에서 뽑아 제시해 본다.

통신 언어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게시판에 올라 있는 학생의 글을 살펴보자.

통신 용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통신에서 할롱~~~ 하이루~~~ 한다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 어디 헬롱 할루~~~하나요?>| 어른들의 지나친 걱정...쿠쿠...그럼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쓰여온 지방 방언이나 사투리는 문법이 바뀔 정도로 큰일이었나요?

이 글에서 “문법이 바뀔 정도로 큰일이었나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신 언어는 마음대로 만들고 변형해도 괜찮은 것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신 언어는 컴퓨터 통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언이다. 사회적 방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방언은 그 사회의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그 사회 안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게 하지만, 그 사회를 떠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 독서-토론-논술의 과정에 따른 지도 방안과 실제

우리가 표준어를 배우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통신 언어를 사용할 때에도 의사소통의 문제를 생각하여야 한다. 지나친 방언의 사용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쓰는 통신 언어는 의사 전달에 장애가 된다. 앞의 글에 사용된 ‘?>!’ 같은 부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의미가 모호한 것도 그 예이다.

다음은 통신 예절을 생각해 보자. 말에 의해 오해가 풀리고 친밀감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마마보이’라는 단순한 놀림이 주먹 싸움으로 커질 수도 있다. 통신 상황에서는 자신과 상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가 마구 사용되기도 한다. 노골적으로 상대를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욕설을 퍼붓기도 하며,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언어 사용은 그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게 된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교통 규칙이 있듯, 원만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예절이 필요하다. 통신을 할 때에도 반드시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서로 대화를 이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예절이다.

지나치게 문법을 무시하는 행위도 반성해야 한다. ‘너 말 잘하시네여.’와 같이 모순된 높임 표현은 상대를 조롱하는 행위이다. 대기가 오염되면 시야가 흐려지듯 언어가 혼탁해지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도 혼탁해진다.

끝으로, 언어가 언어의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게 언어를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지나치게 과장하여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상으로 우리는 통신 언어의 특징과 그 모습, 그리고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통신 언어는 통신 공간에서 사용되는 특이한 방언이라는 것을 알았다. 방언도 가치가 있듯 통신 언어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일상 언어생활과 통신 언어생활을 명확히 구분하여 언어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통신 언어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은 통신 언어 사용에 국한시켜, 일상 언어의 규범을 흐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왕문용, ‘통신 언어, 어떻게 쓸 것인가’ -

### 다. ‘유의 사항’ 형식으로 읽기 전략 제시하기

읽기란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유능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예측하기, 배경 지식 활용하기, 중요 내용에 밑줄 긋기, 문맥을 활용해 낯선 어휘 이해하기, 글 내용을 구조적으로 읽기, 마인드맵 등을 활용한 요약하기 등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한다. 이러한 읽기 전략은 단시간에 습득할 수는 없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읽기 전이나 읽는 중에 유의 사항 형식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위의 통신 언어에 관한 글을 읽는다고 할 때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의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에 표시해 보자.
- 화제가 바뀌는 곳에 표시해 보자.
-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어구에 표시해 보자.
-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자세를 몇 가지나 말하고 있는지 번호를 붙여 가며 표시해 보자.

이러한 유의 사항들은 배경 지식 활용, 예측하며 읽기, 중심 내용 찾기, 글의 구조 파악하기 등의 읽기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학생들의 독해를 돕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는 ‘통신 언어’이며, 읽기 자료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어구는 결론이 시작되는 부분의 첫 번째 문장에 있는 ‘통신 언어의 특징과 그 모습, 그리고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읽기 자료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어구를 찾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 화제가 바뀌는 곳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교과 내용, 논제, 읽기 자료, 수업 목표 등에 따라 교사가 제시하는 유의 사항은 달라질 것이다.

### 라. 초고 논술문의 작성

이 단계에서 말하는 ‘초고 논술문’이란 다음 단계에 전개될 ‘토론’을 위한 원고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완결된 논술문을 쓰기 위한 초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은 생략되지만 여기서는 초고 논술문 작성도 유용하다는 생각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이 작업은 수업 시간 중에 행할 수도 있으나 진도에 쫓기는 현실에서는 과제 형식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논술문 작성 과정은 ‘초고 논술문 작성’ 단계보다 토론 이후에 전개되는 ‘논술문 작성’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비록 완결된 글은 아니지만 초고 논술문도 어엿한 논술문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통합하여 다루기로 한다.

제시되는 문제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논술문 작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지도한다.

- 물음과 자료를 분석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 찬반·가부(贊反可否)의 입장을 정리하거나 논술할 내용을 확정한다.
- 주제를 한정하여 주제문을 작성한다.
- 구상을 하여 개요를 작성한다.
- 개요에 따라 서술한 후 퇴고를 한다.

논술문을 쓰기 위해 먼저 제시된 물음과 자료에 대해 치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논제를 제시한 교사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자료의 중심 내용은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파악해야 한다.

출제자의 의도,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파악되면 학생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학생의 입장은 논쟁을 유도하는 문제나 반박·비판하는 문제에서는 ‘긍정-부정-중립’ 또는 ‘찬성-반대-제삼의 견해’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제시된 물음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논지를 발전시켜 가는 문제나 추론하고 전망하고 분석하는 문제들은 이러한 찬반 가부의 입장 표명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물음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결정한다.

주제문은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 이 주제문에는 주제에 대한 필자

## 독서-토론-논술의 과정에 따른 지도 방안과 실제

의 신념, 태도, 의견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제문을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시켜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주제문을 작성하고 나면 답안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짜야 한다. 답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생각해 내어 그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줄거리를 짜는 것을 '구상' 이라고 하며, 그렇게 해서 짜 놓은 줄거리를 '개요' 라고 한다. 일상생활의 글쓰기에서 자료 수집은 관찰, 문헌 조사, 독서, 답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지지만 논술에서는 그 자리에서 생각해 내어야 하므로 쓰는 이의 생활 체험,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고 능력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논술 교육에서 개요 작성의 단계를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러한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개요 짜기의 능력 배양이 어려운 것이지, 개요를 잘 짜서 살을 붙이면 논술문이 된다.

구상을 할 적에 필요한 경우 제시된 자료 글에서 추출한 소재나 단서를 활용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단계는 답안을 실제로 작성하는 직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제시된 유의 사항, 제한 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단락의 개수, 단락별 분량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글의 짜임이 논리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에 대하여 학생이 작성한 초고 논술문을 예시한다.

### 제목 : 통신 언어의 폐해

통신 언어는 일상 언어를 지나치게 변형시킨다. 통신 언어 중에서도 외계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외계어란 알파벳·일본 문자·특수 문자·한글 자모·숫자 등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끝이다 이리저리 뒤돌아서 일반인들로서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도록 표현한 사이버상의 언어를 가리킨다.

이 통신 언어는 그 변형 상태가 극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 컴퓨터 통신을 자주 하지 않는 청소년들까지도 아예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비록 컴퓨터 통신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일상생활로 뛰쳐나와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컴퓨터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은어나 비속어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상생활에 외계어가 침투할 경우 언어의 오염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마. 토론하기

### 1) 논술 수업에 적합한 토론 유형

흔히 토론식 수업이라고 하면 토의, 토론을 구분하지 않고 배심토의, 심포지엄, 일제문답식토의, 조별 토론(원탁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2인 토론, 4인 토론, 6인 토론 등을 총칭하는 경우가 많다.

### 가) 조별 토론

학교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원탁토론(토의)의 일종인 조별 토론이다. 이 방식은 한 학급을 몇 개의 소집단(5~8명)으로 나눈 다음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조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토론 형식이다. 조별 토론은 규모가 작고 비공식적이어서 운영하기가 쉽고 참가자 모두에게 여러 차례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활발한 의사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조장과 서기를 선정하도록 하고, 조장의 주도하에 토론을 진행하고 서기는 합의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조별 토론을 끝낸 다음 나중에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종합하는 토론을 갖도록 한다.

‘청소년의 통신 언어,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논제로 조별 토론을 전개하였다면 각 조에서는 원탁토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긍정측 또는 부정측의 어느 한쪽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다. 각 조별로 토론(토의)이 끝나면 이어서 조별 발표자끼리 전체 종합 토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때 사회는 교사가 할 수도 있고 학생 대표가 할 수도 있다. 중학교 수준에서 조별 발표자간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며 토론 조별로 합의된 내용을 조별 대표자가 발표하도록 하여 다른 조의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 나) 2인 토론

토론의 유형 중 반대 신문식 토론은 일반적인 토론 속에 법정에서 행해지는 반대 신문을 추가한 것으로 유능한 토론자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중학생들에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방식은 미숙한 학생들이 토론에 임할 때에는 인신공격에 빠지기 쉽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별 토론 외에 중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론으로는 2인 토론과 4인 토론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토론자가 짝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유형의 토론에 공통되는 규칙은 긍정측과 부정측의 참가 인원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데 있다. 토론 참가자의 수를 늘리면 6인 토론과 8인 토론도 가능하지만 이는 진행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2인 토론과 4인 토론이다.

2인 토론은 두 사람의 토론자와 한 명의 사회자로 진행된다. 2인 토론의 시간 할당은 교사가 논제와 수업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주의할 점은 처음과 끝은 반드시 긍정측이 말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에 대하여 2인 토론을 전개할 때 한 사람 당 15분간씩 시간을 배당한다면 먼저 긍정자가 10분 정도 자기주장을 말하고, 부정자가 다음 15분간 긍정자의 주장을 논박하고, 자기주장으로 끝을 맺으면, 다시 긍정자가 다시 5분간 논박하고 자기의 주장을 재강조하여 끝을 맺는 형식이다.

그러나 중학생에게 이처럼 긴 시간 할당은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시간 할당은 토론이 끝난 뒤에 다시 토론하고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교사가 재조정하여 구성하면 될 것이다. 중학생은 아직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발언 시간을 단축 운영, 한 시간 수업을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2인 토론을 몇 팀씩 실시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 독서-토론-논술의 과정에 따른 지도 방안과 실제

## 다) 4인 토론

4인 토론은 보통 2인조가 되어 진행하기 때문에 2인조 토론이라고도 하는데, 사회자를 포함하여 5명이 필요하다. 제1긍정자가 긍정적인 주장을 전개하며 제1부정자가 제1긍정을 논박한다. 이어 제2긍정자가 긍정적 주장을 계속 뒷받침하고 제2부정자가 제2긍정을 논박한다. 다음으로 제1긍정자가 제2부정자의 주장을 논박하고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4인 토론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시간 표시는 임의적인 것으로 긍정자와 부정자 간에 같은 분량의 시간을 주면 되고 발언 시간이나 전체적인 시간 분량은 수업 설계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다.

사 회 : 청소년의 통신 언어,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3분)

제1긍정자 : 별 문제가 없다. 통신 언어 사용은 진부한 표현으로부터 벗어나 신선한 표현을 추구한 결과이다.(3분)

제1부정자 : 언어는 사회적 약속. 신선한 표현을 위하여 의사소통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5분)

제2긍정자 : 의사소통을 해친다는 말은 과장이다. 통신 언어는 발음이 어렵고 연령대별로 다양하여 일상 언어에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 (3분)

제2부정자 : 외계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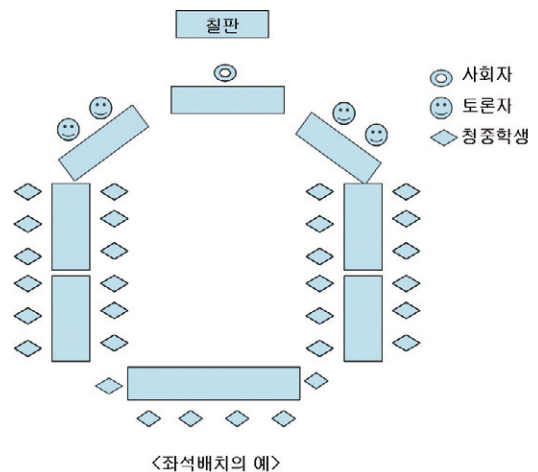
제1긍정자 :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통신 언어는 대부분 컴퓨터 통신에서만 사용되고 현실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재미를 추구하는 청소년의 개성적 표현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2분)

사 회 : 이상으로 토론을 마친다.(2분)

4인 토론은 토론 규칙, 절차 등에 대한 예비 학습이 필요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토론 유형으로서 조별 토론과 함께 매우 활용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2) 좌석의 배치

토론을 도입한 논술 교실에서는 2인 또는 4인이 교실 앞에 앉아 벌이는 토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긍정측과 부정측은 사회자를 중심으로 나뉘어 앉아 마주 보며 토론을 펼치게 된다. 토론 참가자와는 달리 청중 학생들은 대여섯 개의 분단으로 모듬을 구성하여 앉게 된다. 이렇게 청중 학생들을 조별로 배치하는 것은 이들이 단순한 청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별 단위에서 읽을거리를 음미하고, 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며, 논거를



탐색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적인 토의와 대립적인 토론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의, 토론은 원탁식 토론 내지 대좌식 토론의 성격을 띠며 작은 인원수의 분단으로 하여 소분단 협의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므로 버즈 세션이라고도 할 수 있다.

4인 토론을 한다고 할 때, 좌석의 배치는 위와 같은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토론의 구성 요소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제, 사회자, 참가자, 토론 규칙, 청중(심판 포함) 등이 있어야 한다.

논제는 찬반양론이 성립되는 것이어야 하며, 하나의 과제만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현으로 나타나야 하며 내용이 명료해야 한다.

토론에는 반드시 사회자가 필요하다. 사회자는 포용력이 있어 토론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찬성자와 반대자의 어느 한쪽에 서서는 안 된다. 필요할 경우 메모를 해야 하며 청중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논점을 정리하여 말해 주기도 한다. 논술 수업에서 전개되는 토론은 한 발언자가 오랜 시간을 계속 하기가 힘들므로 사회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토론 규칙은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발언 시간(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나, 발언 순서를 정하는 것,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발언 시간을 같게 하는 것, 토론이 끝나면 판정인을 통해 판정하는 것, 처음과 끝은 반드시 긍정측이 말할 것 등이 그 예이다.

### 4) 청중 학생의 역할

사회자와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청중이 된다. 청중 학생들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의 발언 내용을 잘 요약하도록 한다. 삼, 사십 명을 헤아리는 학급에서 모든 학생들이 토론 수업에 발표자로 참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록 발표자만 아닐 뿐 청중 학생 또한 훌륭한 수업의 참가자이다. 청중 학생들은 초고 논술문에 표현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가며 발표자의 발언 내용을 비판적으로 듣게 됨으로써 머릿속으로 왕성한 사고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2인 토론 또는 4인 토론이 끝나고 나면 분단별로 간단한 토의를 거쳐(또는 바로 직접적으로) 토론 내용에 대하여 발표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비록 질의·응답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라도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논제, 논점과 관련하여 자신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경험한다.

### 5) 교사의 역할

교사는 토론이 진행 중일 때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론 시작 전에 토론자와 사회자에게 토론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해 주고 청중 학생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한 시간에 하나의 토론조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언 시간을 줄여 한 시간 수업 중 둘 이상의 토론



## 독서-토론-논술의 과정에 따른 지도 방안과 실제

조를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동일한 논제로 인하여 중복된 내용의 토론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회자는 중복된 내용을 최대한 피하도록 유도하면서 발언자의 능력을 자극, 토론의 폭과 깊이를 더하도록 한다. 토론을 생산적으로 흐르게 하는 데에는 사회자와 발언자에 대한 교사의 사전 교육과 설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장면은 토론자와 청중 학생들 간의 질의·응답이 끝난 후라고 할 것이다. 감정에 치우쳐 발언했던 장면에 대한 지적, 논리적인 오류에 대한 정정, 빠뜨린 내용에 대한 보충, 요약과 정리 등을 행함으로써 토론 수업은 완결성을 지니게 된다.

참가자의 토론이 끝난 후 청중 학생들 중 조별 대표자들이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주의할 점은, 토론이 승패를 가르는 결전의 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나의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임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교사는 학생 판정인과는 달리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졌다는 식의 언급을 하기보다는 양쪽 주장의 장단점을 차분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 논술문의 작성

토론 결과에 대한 교사의 요약·정리가 끝나면 학생들은 이러한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논술문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논술문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토론 참가자나 청중 학생들은 토론을 진행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논제에 대한 논점과 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초고 논술문을 다시 읽으며, 잘못된 내용이나 빠진 내용을 고치고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아예 처음부터 논술문을 다시 쓰게 하기보다는 초고 논술문을 꺼내 놓고 그 위에 교정 부호 등을 활용하여 첨삭의 방법으로 수정·보완하도록 지도한다. 물론 찬반양론 중, 초고 논술문에서 택하였던 입장을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뒤바뀐 경우에는 논거도 모두 달라질 것이므로 첨삭에 의한 수정·보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초고 논술문을 수정한 논술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논술문은 초고 논술문에서 제시하였던 입장에서부터 토론을 거치면서 반대 입장으로 바뀐 예가 된다.

#### 제목 : 통신 언어 사용, 별 문제가 없어

통신 언어는 지금까지의 진부한 표현에서 벗어나 새롭고 재미있게 의사를 표현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통신 언어 중 특히 변형이 심한 외계어들은 그 자체로 발음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현실의 구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리고 통신 언어는 10대, 20대, 30대가 서로 제각기 다르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의 구어는 물론이고 글 속에서도 사회적 약속을 형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통신 언어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바. 논술문 발표 및 강평

논술문이 완성되면, 각 조별로 협의를 거쳐 발표자를 선정한다. 발표 방법은 작성한 답안을 OHP, 실물화상기, 프로젝터 등을 이용하여 발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이때 발표자는 자신이 쓴 글을 일일이 읽지

말고 중간 중간 포인터로 가리키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하도록 지도한다. 학생의 발표가 끝나면 이어서 교사가 내용 면, 구성 면, 표현 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평을 해 준다. 이러한 작업은 논술 교육의 최종 단계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여력이 있다면 학생이 작성한 논술문 하나하나마다 첨삭 지도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학교에서의 논술 교육에서 교사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분단)별로 한 편 정도씩 발표하는 방법은 개인별 첨삭 지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된다.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한두 분 단만 발표하고 나머지 분단은 다음 논제를 공부할 때에 돌아가면서 발표하게 한다.

교사가 학생이 작성한 논술문에 대하여 강평을 할 때에는 핵심적인 말을 샌드위치 식으로 칭찬하는 말 사이에 끼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흠이 많은 논술문이라도 일방적인 결점의 지적이나 직접적인 비판은 학생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단번에 꺾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조를 누그러뜨려 ‘이것만 바꾸면 더 좋은 글이 되겠다.’는 식의 긍정적인 지적과 함께 뒷부분에는 반드시 다른 측면의 장점을 들어 칭찬하고 고무하는 말을 하도록 한다.

## 4. 맺음말

중학교에서의 논술은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논술 교육 과정은 독서에서 토론을 거쳐 논술에 이르는 것으로 비교적 거시적인 수업 모형이다. 읽을거리는 교과서 본문을 예로 보였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교과서 제재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지문으로 삼아 독서-토론-논술로 이어지는 수업을 전개할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는 논술에 적합한 토론 유형으로 원탁 토의(조별 토론)와 2인 토론, 4인 토론을 제시하였으나 토론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굳이 토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분단별 토의 학습, 세미나식 발표 수업, 탐구 과제의 수행 등은 모두 논술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업 형태이다. 방식①이든 방식②, ③, ④이든 또는 그 변형이든, 교사가 처한 상황, 수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토론 방식을 찾아 논술 수업에 적용하면 될 것이다. 중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원활하게 토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본 수업과는 별도로 토론의 규칙에 대한 학습이나 토론의 과정에 대한 실습이 필요하며 때로는 본 토론에 앞서서 예비 토론을 지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학습은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이면 자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특별활동 중의 하나인 자치활동 시간을 통해 체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토론의 결과를 글로 표현해 보도록 지도하였으면 한다. 굳이 논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주장(중심 내용)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이루어진 글을 써 보는 연습이 중요하다.



# 논술 교재,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활용 방안

김 은 아(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2.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개발 배경
3.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구성 체계
4.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5. 논술 문항 제작 방법 따라하기
6. 논술 교육의 중요 과정, 피드백인 첨삭 지도
7. 맺는말

## 1. 들어가며

지금 학교 현장은 논술과 토론 교육 준비로 분주하다. 일단 발표된 논술 교육 강화 지침에 따라 논술, 토론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나 강조되는 영역으로 여겨 소홀했던 탓인지 중학교에서는 교과별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힘든 상태이다. 게다가 국어과 중심의 쓰기 활동이 아닌 통합교과적인 논술의 교과과정을 설계해야 하니 더욱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런 사회적 요구 속에 지난 해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집, 중학교 「읽기에서 논술까지」에 대한 일선 학교의 반응과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우선 시중에 개발된 고등학교 수준의 자료가 아닌 중학생용 논술 읽기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 모든 교과와 내용을 두루 갖춘 통합형 교재라는 점, 또한 기본적인 논술 문항과 심화된 논술 문항을 고루 제시하고 예시 답안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읽기에서 논술까지」 상, 중, 하 자료집 개발에 참여한 교사로서 이 책자를 교육 활동에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읽기에서 논술까지」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유형의 논술 문항을 어떻게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려 한다.

## 2.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개발 배경

「읽기에서 논술까지」 자료집 개발의 본래 목적은 초·중·고교 학교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 비중이 '2005학년도 30%, 2006학년도 40%, 2007학년도 50%로 확대' 되고, 200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커지면서 '논술 교육은 학교가 책임진다.'는 풍토 조성으로 공교육의 신뢰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에 학생들의 독서력 증진 및 독서 지도 활성화를 위해 교과별 「독서 지도 매뉴얼」이 2005-2006년에 개발되었고, 고등학생 대상의 「읽기에서 논술까지」 자료가 2005년 말에 개발되었다. 연계된 사업으로 초등학교 대상의 「읽기에서 논술까지 - 비문학용, 문학용」, 중학교 대상의 「읽기에서 논술까지」 상, 중, 하 책자가 2006년 하반기에 완성되었으며, 「읽기에서 논술까지」 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본 논술 지도 매뉴얼 형식의 중학교 교사용 「논술지도 길라잡이」 자료집이 개발되었다. 학교에서의 논술 수업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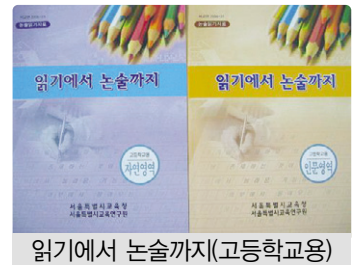
독서 지도 매뉴얼



읽기에서 논술까지(초등학교용)



읽기에서 논술까지(중학교용)



읽기에서 논술까지(고등학교용)

## 3.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구성 체계

「읽기에서 논술까지」 자료집은 중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읽기 활동, 이해 활동, 쓰기 활동, 토론 활동, 발표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과와 연계한 논술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사고력과 창의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각 교과 특성에 따라 <인문 영역>, <사회 영역>, <자연 영역>의 3장으로 구성, 이 영역의 논술 자료들을 두루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통합적인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수준별 별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년별로 사용하거나 학생의 학습 발달 정도와 논술 활동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상·중·하 각 권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은 내용에 따라 읽기 자료를 배열하고, 읽기 자료별로 하나의 학습 단위를 구성하여 스스로 논술하는 힘을 길러가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많이 읽고 쓰는 연습이 학생의 논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 스스로의 생각

# 논술 교재,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활용 방안

을 ‘깊고 넓게’ 갖도록 연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본 책자는 깊은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학습 수준별 읽기 자료와 단계별 질문을 제작하였다.

각 읽기 자료는 <배경 설명>, <읽기 자료>, <생각 나누기>, <논술 연습하기>, <자료 이해하기>, <더 나아가 읽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한 이와 같은 단계별 구성은 주제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논술 제목

읽기 자료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하단에 학습 활동과 연계된 학년과 해당 교과와의 관련 단원을 별도 표시하여 보다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권, 각 교과별로 다루고 있는 논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교과	논술 제목(페이지 순)		
		상(3학년)	중(2학년)	하(1학년)
인문	국어	베르테르는 정말 슬펐을까 / 재미 있는 춘향전 / 개인과 사회 / 운명과 필연 그리고 우연 / 인터넷과 시루떡 / 호응관계로 맺어지는 더불어 사는 사회	말은 그 사람의 인격 /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 언어와 사회·문화 / 효과 가족의 의미 / 문자와 매체로 의사소통하기	꽃들에게 희망을 /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 놀이와 청소년 문화 / ‘짱’ 문화와 외모지상주의 / 어른이 되는 길, 성장
	한문	맹모삼천지교	지필연묵과 멀티미디어	옛 사람의 이모티콘, 상형자 / 공부는 왜 하나요
	음악	.	애국가를 응원가로	아이들을 위한 대중가요
	미술	화장실 변기도 미술품일까	예술 행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두 그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영어	덴마크의 영어 교육 / 영어 공용화 / 영어는 하나가 아니다 / 영어의 어원 이야기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 / 고민 있으십니까 / 영어 학습의 결정적 시기 / 친밀감의 거리	지나친 영어 오·남용 / 할로윈에는 왜 호박 등을 달까 /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
사회	도덕	호주제 폐지 / 나홀로 족 / 여성의 사회 진출	태어난 인간, 만들어진 인간 / 동물에도 권리가 있을까 / 워드가 우리에게 남긴 것 / 민족 문화의 재탄생	양심의 본질에 관하여 / 사람에게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 부모와 자녀가 가야할 길 / 사이버 조문, 사이버 차레
	사회	석유 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 공장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 / 고령화 시대의 명암 / 도시, 꿈의 실현인가 / 쇠고기와 인간, 그리고 지구 / 아이 안 낳는 사회 / 월드컵!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	로마의 시민권 / 절대왕정의 개혁을 지향한 비판적 근대 철학, 계몽주의 사상 / 카스트와 달리트 /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적 가치의 조화	한강의 여러 이름 / 향만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 / 방글라데시의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수도 다카(Dhaka) / 목 타는 아프리카 / 한국 축구 승리의 원동력은 히딩크 감독의 개척 정신 / 위기와 기회의 땅 브라질
	국사	실리냐 명분이나 / 허생이 들려주는 실학사상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연맹왕국시대의 제천행사,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신석기시대, 농업 혁명이 일어나다 / <사기>는 역사책임가



## II 논술 지도의 방법과 실제

영역	교과	논술 제목(페이지 순)		
		상(3학년)	중(2학년)	하(1학년)
자연	수학	구고현의 정리와 피타고라스의 정리 / 피라미드 속의 수학 / 챌린저 호 폭발 원인은 통계의 오판 / 농구 게임과 동전 / 수학의 패러독스	수학 기호의 발달과 필요성 / 거리-시간-속력과 관계 / 설록 홈즈의 추리 / 큰 수 간단히 나타내기 / 수학과 도박 '공생 쌍곡선'	0의 신비 / 수학자들의 묘비 / 달력 속에서 찾아보는 수학 / 유클리드와 기하학 원론 / 수학은 엄밀하다
	과학	인류를 구할 대체 에너지 / 세계의 중심에 존재하는 씨 / 물질의 근원은 무엇일까 / 인공화합물이 없다면 현대 문명도 없다 / 생명체의 정보가 담긴 유전자 / 갈라파고스 섬에는 왜 포유류가 없을까 / 과학의 혁명가 갈릴레이	얼음이 물 위에 뜨는 이유 / 압력솔의 원리 / 우주 공간에서의 축지법 / 과학적 상상력과 문화적 묘사 / 가로수 이야기 / 긍정적 사고가 인생을 바꾼다 / 공룡 멸종의 과학적 수사 / 떠돌이 대륙	무엇이 익충이고 무엇이 해충인가 / 소 트림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 / 자연의 물감, 빛의 정체 / 하나, 둘, 셋.....을 세는 것처럼 쉽다 / 우리는 고체일까 / 자연친화적 냉방시스템 / 석유, 현대 물질 문명의 감초 / 소원 들어주는 바다 우체부
	기술 가정	가공 식품의 재료를 알아보면 / 자연이 숨쉬는 '우리 집' / 미래의 보금자리 자연친화 생태 건축	우리 옷 100년, 쓰개에서 배꼽 티까지 /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 나도 사이보그가 될 수 있다 / 소비에 중독된 아이들	양성평등과 저출산 대책 / 나는 위대한 꼬마 에디슨 / 21세기의 키워드 '유비쿼터스' / 컴퓨터 안에 너 있다
	체육	스포츠를 이용한 돈 벌기	.	비만은 병이다

앞에 제시된 논술 읽기 자료는 해당 교과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교과와 학년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 통합적인 논술을 시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도덕 담당 교사라면 도덕 영역의 논술 주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제시된 자료와 같이 연계된 타 교과의 읽기 자료 중 부분 발췌하여 새로이 구성한다면 또 다른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교과	도덕 교과에서 활용 가능한 타교과의 논술 주제
국어	베르테르는 정말 슬펐을까 / 재미있는 춘향전 / 개인과 사회 / 인터넷과 시루떡 / 말은 그 사람의 인격 /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 언어와 사회·문화 / 효와 가족의 의미 / 놀이와 청소년 문화 / '짱' 문화와 외모 지상주의
음악	애국가를 응원가로
사회	석유 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 고령화 시대의 명암 / 쇠고기와 인간, 그리고 지구 / 아이 안 낳는 사회 / 월드컵!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 / 카스트와 달리트 /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적 가치의 조화 / 한국 축구 승리의 원동력은 히딩크 감독의 개척 정신
과학	인류를 구할 대체 에너지 / 가로수 이야기 / 긍정적 사고가 인생을 바꾼다 소 트림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
기술 · 가정	자연이 숨쉬는 '우리 집' / 미래의 보금자리 자연친화 생태 건축 /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 나도 사이보그가 될 수 있다 / 소비에 중독된 아이들 / 양성평등과 저출산 대책 / 21세기의 키워드 '유비쿼터스' / 컴퓨터 안에 너 있다
체육	비만은 병이다

# 논술 교재,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활용 방안

## 나. 배경 설명

해당 주제의 의의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의 맨 앞에 제시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배경 설명 ■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나 자녀 모두 각자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넘치게 행하다 보면 서로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며, 현대 사회에 적합한 효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다. 읽기 자료

흥미롭고 참신한 내용의 <읽기 자료>는 주제와 쟁점에 관련된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부분 발췌하여 2~5쪽 내외로 제시하고, 자료의 출전을 밝혔다.

(가) 어머니가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은 밥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엮어진 밥그릇에서 튕겨져 나온 것은 남은 밥이 아니라 큼직한 무 토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같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밥그릇에 쑥 들어가게 모양을 내 깎은 그 무 토막 위에는 밥알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 중 <어머니의 밥그릇>에서

(나) 작은 섬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파란 하늘, 하얀 물새, 밀려오는 파도를 벗삼아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풀밭에서 물새알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쁘다.” 예쁜 물새알을 주운 소년은 얼른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새알이야. 모래속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새알을 요리해서 주었고, 소년은 어머니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 라. 생각 나누기

읽기 자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2~5문제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토의하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읽기 자료에 대한 이해 및 요약 활동이나, 종합적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글 <다>의 ‘이효상효(以孝傷孝)’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



**마. 논술 연습하기**

단계별 질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논제에 대한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끌고, 단계에 따른 논술 연습을 한 후 논제를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하여 논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통합적,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3**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여 효도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 말할 수 있을지 자신의 의견을 200자 내외로 논술해 보자.

**바. 자료 이해하기**

읽기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요지> 및 논제와 쟁점을 파악, 정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분석>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읽기 자료에 제시된 주요 개념을 쉽게 정리한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어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사. 더 나아가 읽기**

읽기 자료를 심화시킨 자료로서 주제와 관련된 폭넓고 전문적인 내용 및 자료를 제시하였다. 앞에서 부분 발췌한 읽기 자료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각적인 주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자료의 기능을 한다.

**■ 더 나아가 읽기 ■**

**기러기 아빠의 죽음과 교육, 가족의 의미**

사람들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고, 소식 끊긴 벗들이 울컥울컥 그리워지는 요즈음 어느 '기러기 아빠'의 죽음은 추일서정(秋日抒情)을 더욱 애잔하게 한다. 그는 자녀의 해외 유학을 위해 6년이나 홀로 지내다가 숨진 지 닷새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평소 고혈압으로 고생하면서도 외로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술·담배를 입에 달고 다녔던 이 50대 가장은 그야

**아. 예시 답**

답안의 제작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므로 모범 답안이 아닌 예시 답안 형태로, 표현의 관점과 사고를 다양하게 전개시킬 수 있도록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효상효’를 효행이라 보는 입장> 공자는 “우리의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다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며(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출세하여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 하였다.

부모님이 주신 육체를 감사히 여기며 작은 것 하나라도 함부로 자르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효라 볼 수 있다. 심청이 몸을 팔아 얻은 공양미로 심 봉사(심봉사)가 눈을 떴다 한들 기뻐했을 리 없고, 자녀가 악업(안 좋은 일)에 나가 번 돈으로 부모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모신다한들 부모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따라서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있는 데까지 충분히 노력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효’라고 생각된다.

<‘이효상효’를 효행으로 보지 않는 입장> 옛 고전에는 부모 봉양을 위해 극단적인 신체 훼손을 불사한 효자들의 이야기가 많다. 과학, 의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그들이

## 4.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 가. 수준별 논술 교육에서의 활용

학생 수준에 따라 기본적인 <읽기 자료>만 제시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 읽기> 자료를 통한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해당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여 교사가 원전을 확인하여 추가 학습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논술 문항의 경우, 기본 단계로 <생각 나누기>를 활용하고, 상위 수준의 학생들은 곧바로 <논술 연습하기> 단계로 나아가 수준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각 상·중·하 권의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 나. 학습 동기 유발 자료로의 활용

「읽기에서 논술까지」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반영한 제시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교과 수업에서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다. 교과서 밖의 참신한 내용은 학습 보조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논술 문항 유형을 통해 발산적 사고와 학습 동기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다. 재량활동에서의 활용

독서·논술 교육의 학습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라. 특별활동에서의 활용

논술반, 토론반, 시사연구반, 도서반 운영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 pp. 265~279 부분에 소개한 <특별활동을 통한 논술 지도>를 참고하도록 한다.

### 마. 방과후학교에서의 활용

논술반, 토론반 운영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 pp.255~264를 참고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수업 중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교과별로 수업 주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미리 찾아서 교과 시간에 보충 자료로 활용한다.
- 교과별로 수업 주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수업 시간 중에 <생각 나누기>와 <논술 연습하기>를 학습지 형태로 별도 인쇄해 배부해 주거나 답지를 학생들이 직접 공책에 써 보게 함으로써 논술문 작성 훈련에 활용한다. 이때 학생 발표 또는 토론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 기초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생각 나누기>와 <논술 연습하기>의 단계에 따른 질문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논술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은 곧바로 <논술 연습하기>의 논제를 작성해본 후, <더 나아가 읽기>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자료 이해하기>와 <예시답> 부분은 교사용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별도 심화 과정이 요구될 때는 <더 나아가 읽기>를 인쇄해 배부하거나, 교사 중심의 스토리텔링 형태로 제시하면서 수업을 마무리 하는 방법 또는 심층 조사 활동이나 글쓰기 활동이 이어지도록 지도한다.

유의할 점은 쓰기 활동을 교과 교육과정 설계시 몇 % 반영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매 시간 게다가 전 교과에서 일제히 쓰기 활동만을 반복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오히려 감소될 것이고, 수동적인 수업 방식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단원 내용 중 논술 활동을 강화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여 적절히 배분하여 활용하는 것이 요령이다.

## 5. 논술 문항 제작 방법 따라하기

글쓰기 과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점은 중학생에게 적합한 좋은 읽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종합적 이해,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읽을 거리를 수시로 스크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기사를 수집해 두거나, 신문이나 잡지, 광고 내용, 기본서라 소홀히 다룰지도 모르는 교과서의 중요 내용을 수시로 읽기 자료 파일로 만들어 두었다가 상황과 활동 주제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이 요령이다.

「읽기에서 논술까지」를 제작할 때, 집필자에게 부탁한 조건이 바로 되도록 양서(良書)인 고전(古典)을 참고하라는 것이었다. 시사적인 내용의 신문 기사를 부분 인용하기도 하였으나, 고전이나 교과서, 일반도서

## 논술 교재,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활용 방안

등에서 필요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읽기 자료>의 제시문은 보편타당하고 어법에 맞는 자료이어야 함을 강조하여 선별토록 하였다. 이런 관점은 학교 현장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읽기 자료 파일 제작을 위해 교과별 「독서 지도 매뉴얼」(2005~2006)에 제시된 도서 혹은 여러 교과별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제시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유의할 점은 읽기 자료는 꼭 문장 형태를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그래프나 도표, 그림, 요약문 등 다양한 형태의 지문에 익숙해지려는 시도가 바람직하다.

일단 좋은 글감이 마련되었으면, 다음의 일반적인 논술의 쓰기 형식을 고려하여 문항을 제작해 보도록 한다.

- ① 주제 + 예시 방식
- ② 원인 + 결과 방식
- ③ 문제 제기 + 해결 방안 제시 방식
- ④ 단계적 순서에 따른 방식

다음으로 위 문항 취지에 따른 적절한 술어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① 논술하라 : 주장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분석하라 : 주제를 구성요소로 나누고 각 부분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밝힌다.
- ③ 요약하라 : 핵심 내용이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④ 비교, 대조하라 : 두 사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밝힌다.
- ⑤ 비판하라 : 어떤 주장의 타당성이나 가치 평가 등을 평가한다.
- ⑥ 설명하라 : 사실이나 주장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밝힌다.

이에 따라 문항 제작도 위 형태에 맞는 단계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한다.

- ① 윗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 ② 이러한 주제를 드러낸 사례를 찾아 써 보자.
- ③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원인은 무엇인가?
-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지 예측해 보자.
- ⑤ 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자.
- ⑥ ~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해 보자.

## 6. 논술 교육의 중요 과정, 피드백인 첨삭 지도

정기 교사 문항 출제시,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것처럼, 논술 문항에도 모범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여러 교사들이 문항은 어느 정도 작성할 수는 있으나 예시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술에 완전한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문항 출제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 모범 답안을 교사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논술 교육이라 보기 어렵다. 물론 예시 답은 예상되는 여러 가지 답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학생들의 독창적인 글쓰기 지도를 위해 논술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예시답'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읽기에서 논술까지」에 제시된 '예시답'은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상반된 입장의 답안을 오답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답지 작성을 위해 처음에는 단락이나 요지 구성 방법을 연습시키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참신한 답지를 구성해 내는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출제 교사는 작성한 답안을 동료 교사와 함께 살펴 보면서 다양하고 객관적인 채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한 학습 과정도 필요하지만, 자기 나름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학생들과의 토론 과정을 통해 최종 답지를 작성해 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답안에 대한 평가를 받은 뒤 이를 반영해서 다시 써 보는 연습을 하여 자신의 의견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7. 맺는말

진정한 논술 지도는 학원식 암기 논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제시문 제시와 첨삭 지도를 담당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만들고 예시답까지 작성해 보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우리 학생들도 「읽기에서 논술까지」 책자를 통해 제시문을 충분히 읽고, 스스로 문제를 출제하고 답안을 작성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토론 수업과 발표 수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지치지 않는 노력과 열정이 요구된다.

- 가. 어려운 책 읽기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관심과 의식 형성에 도움되는 도서를 찾아보자.
- 나. 다독(多讀)도 중요하지만, 한 권의 책이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 다. 논술 문항 제작의 두려움을 없애자.
- 라. 각 과목에서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 마. 논술의 정답은 없음을 인식하자.

끝으로, 우리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도 얼마든지 '통합 논술'을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논술 포비아(phobia, 공포증)'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중학교 「읽기에서 논술까지」 상, 중, 하에서 찾길 바란다.



#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의 활용 방안

강 용 철(경희여자중학교 교사)

1.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의 추진 배경과 목적
2.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 참가 계기
3.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의 누리집 여행 - 메뉴 기능을 중심으로
4. 학교에서의 활용 방법
5. 2007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의 운영 계획

## 1.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의 추진 배경과 목적

### 가. 추진 배경

- 1)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은 사이버 학습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논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안하였다.
- 2) 질 높은 논술 교육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나. 운영 목적

- 1) 오프라인 논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 2) 온라인 논술 교육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오프라인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한다.
- 3) 참가반을 중심으로 하여 단위 학교 논술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 4)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 2.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 참가 계기

### 가. 사이버 논술에 대한 편견

처음 꿀맛닷컴에서 사이버 논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이버로 논술을 지도한다는 형태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논술 지도는 학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써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교실 현장에서 많은 학생에게 논술을 지도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이버를 통해 우수한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무엇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논술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 나. 사이버 논술에 대한 생각의 전환

훌륭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사이버 논술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무엇보다 우수한 논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컸고, 사이버 논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큰 과제가 부과되어 있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다.

2006년 논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느낀 사이버 논술의 강점과 매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공간을 벗어나 학생들과 일대일의 만남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이 가능하다.

정규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의 논술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직접 첨삭이나 개인별 지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 논술에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퇴근 후 또는 원하는 시간에 학생들의 글에 대한 일대일 첨삭을 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오프라인 교실 수업과 온라인 첨삭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연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양질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본 소양을 증진시키고 배경 지식을 쌓게 한다.

현재 꿀맛닷컴에는 30장 이상의 논술 동영상에 탑재되어 있다. 중학 논술에 대한 정형화된 커리큘럼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 논술>과 <독서 토론>으로 분화된 논술 동영상은 학생들에게 논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쌓게 하고 배경 지식을 기르게 할 수 있다.



셋째,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접근성이 용이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중심 학습이 가능하다.

동영상 강의가 큰 주제의 틀 속에서 구성되어 다양한 독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습 취향에 따라 자기 주도적-선택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자료 보관 및 관리가 편리하다.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는 디지털 파일로 보관되어 학생들의 발전 과정을 알 수 있고, 학습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교사가 사이버튜터(e-Learning 지도사)의 역할을 하므로 쪽지나 문자 SMS 기능 등 학생들에게 친밀하게 접근하여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 3.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의 누리집 여행-메뉴 기능을 중심으로

### 가. 누리집으로 찾아가기

- 1) 꿀맛닷컴-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에 접속한다.<sup>32)</sup>
- 2) 오른쪽의 <사이버 논술> 메뉴를 클릭한다.



32) 꿀맛닷컴-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http://www.kkulmat.com/index.jsp>

3) 학교 급별로 사이버 논술 홈페이지가 열린다.



### 나. 각 메뉴 둘러보기

상단 메뉴는 <강의실>, <참식 지도>, <참여 마당>, <질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강의실>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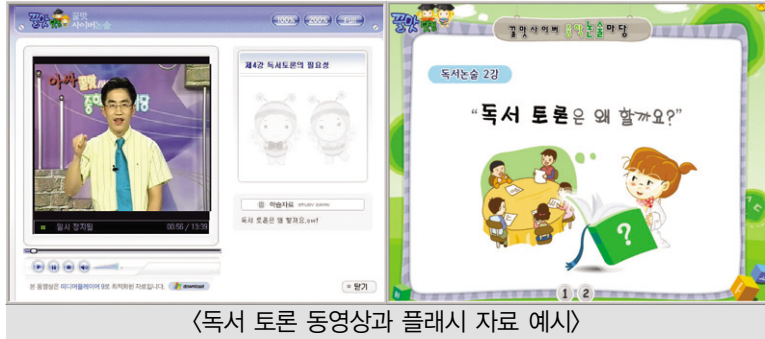
순번	하위메뉴	내 용
1	학부모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를 위한 논술 특강</li> <li>• 겨울에 실시된 2개의 강의 탑재</li> </ul>
2	학생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을 위한 논술 특강</li> <li>• 기본 강의에서 다룬 내용에 대한 심화 내용</li> </ul>
3	동영상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동영상 강좌</li> <li>• &lt;기본 논술&gt;, &lt;독서 토론&gt;의 2가지 대주제로 동영상 강의 탑재 (2007년 3월 : 28개의 강의가 탑재)</li> <li>• 강의는 학습량에 따라서 20분~30분으로 진행</li> </ul>
4	과제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학생들이 작성하고 활동한 과제를 제출</li> <li>• 비밀글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지정한 담당 교사가 과제 확인 가능</li> </ul>
5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자료집이나 각종 논술 관련 자료 탑재</li> </ul>

⇒ 강의실에서는 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다. 각 동영상은 300K와 500K(고화질)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동영상을 보면서 첨부파일을 다운받거나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첨부된 파일은 한글 학습지, 플래시 동영상 등이 있다.

⇒ 2006년 강의에서는 동영상을 보던 중 '화면 멈춤 지시 화면' 이 나오면 화면을 멈추고 플래시나 첨부

#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의 활용 방안

자료를 공부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는 성능 강화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다가 플래시를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멈추고, 플래시 학습을 해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독서 토론 동영상과 플래시 자료 예시〉

⇒ 〈기본 논술〉은 전략적 글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로서 글을 구성하고 작성하는 원리와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독서 토론〉은 분야별로 다양한 권장 도서·추천도서를 중심으로 각 단위 강의별로 독서 정보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	기본 논술 주제	강의	독서 토론 주제
1	왜 논술인가?	1	어떻게 읽을까?
2	창의성 기르기	2	독서 토론의 필요성
3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 키우기	3	성장 소설 읽기
4	원고지 사용법	4	시 읽기
5	요약하기	5	고전의 세계
6	쟁점 찾기	6	역사 읽기
7	구상하기	7	상상력의 세상
8	개요 짜기	8	미래 도시의 모습 상상하기
9	적절한 단어 선택과 문장 쓰기	9	시와 인생
10	문단쓰기	10	재미있는 춘향전
11	단계별 글쓰기	11	신문 읽기
12	고쳐 쓰기	12	세상을 보는 창, 신문 읽기
13	논술 완성하기	13	시사 토론
14	논술을 잘 하기 위한 7가지 습관	14	그 외 학생 특강, 학부모 특강도 구비

◎ 〈첨삭지도〉 메뉴



순번	하위메뉴	내 용
1	주제별 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에게 〈논제〉를 제시하는 메뉴</li> <li>• 각 메뉴는 ① 주제 ② 문제 ③ 분석 ④ 답안 ⑤ 첨삭의 형태로 구성</li> <li>•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첨삭방〉으로 이동하여 직접 논술글을 작성</li> </ul>

순번	하위메뉴	내용
2	주제별 첨삭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 제시된 논술 주제와 작성 기간 및 출제 교사가 공지</li> <li>• &lt;첨삭방&gt;으로 이동하여 학생 글을 첨삭하는 메뉴 제공</li> <li>• 논술 작성 기간이 마감되면 '총평'을 제공</li> </ul>
3	포래 첨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글을 학생 상호간에 댓글 형태로 제공</li> </ul>
4	논술 경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 꿀맛사이버 논술 경시대회 문제 탑재</li> <li>• 차후 매년 논술경시대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li> </ul>
5	우수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우수 글과 우수 첨삭문을 탑재할 예정</li> </ul>

- ⇒ 첨삭 지도의 경우 '원고지 솔루션'을 탑재하여 학생들이 웹-원고지에 자신의 글을 작성하고 첨삭 지도 교사를 지정하면 담당 교사의 첨삭이 제공된다. 학생들이 다른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내용도 <복사하기-붙여넣기> 기능이 가능하여 쉽게 웹-원고지에 작성할 수 있다. '원고지 솔루션'의 경우 담당 교사가 직접 글자 및 도형을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음성 삽입 등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제공하여 면대면 첨삭에 근접한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 ⇒ 학생들에게 첨삭 지도를 할 때에는 먼저 종이에 수기로 내용을 작성하고 웹에 올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에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자동으로 교정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숙달해야 한다. 컴퓨터로 쉽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쓰며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 ⇒ 2006년 제1회 꿀맛사이버 논술 경시를 개최하여, 사이버 논술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상찬의 효과를 유도하였다.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이 메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통글쓰기를 경험하도록 한다.





#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의 활용 방안

## ◎ <참여마당> 메뉴



순번	하위메뉴	내용
1	함께 책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서 토론 강의 중에 나온 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소개 탑재</li> <li>기타 학생 권장 도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내</li> <li>책에 대한 간단한 서평과 안내글 제공</li> </ul>
2	찬반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찬성과 반대로 양분되는 논제 제시</li> <li>찬반 또는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댓글 유도</li> <li>일정한 토론 시간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활동 유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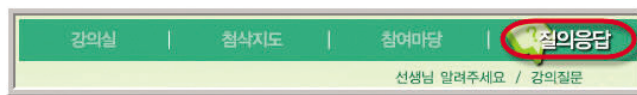
- ⇒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함께 책 읽기> 메뉴를 통해서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 찬반 토론에서는 양분되는 논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표현력과 논리력을 강화하고, 학생 상호간의 바람직한 댓글 문화를 정착한다.



<함께 책 읽기 예시>

<찬반 토론 댓글 활동>

## ◎ <질의응답> 메뉴



순번	하위메뉴	내용
1	선생님 알려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술과 독서 토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묻는 메뉴</li> <li>비밀글과 공개글 기능을 통해 논술 및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수렴하고 응답</li> </ul>
2	강의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영상 강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메뉴</li> <li>동영상 강의를 들은 후, 바로 강의 질문으로 연결되는 아이콘 존재</li> </ul>

## 4. 학교에서의 활용 방법

### 가. 아침 시간, 재량 시간, 수업 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활용

- 1) 동영상은 강의 콘텐츠나 학습 내용에 따라서 20분~30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수업 전, 재량 시간, 수업 시간에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2) 동영상의 목록을 보고, 수업이나 기타 시간에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동영상만 제공하면 화면만 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학습지나 글쓰기 종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지원부에서는 2006년 꿀맛사이버 강의 내용을 정리한 워크북 형태의 책자를 2007년 발간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동영상 시청을 병행하면서 생각을 글로 작성하고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거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제4강 독서토론의 필요성

김유정의 「봄봄」을 읽고

◎ 예비 정인과 싸우게 된 나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내가 작가라면 이 작품의 결말을 어떻게 바꿀까요?

김유정의 (영화)



김유정의 (영화)



#### 발전학습 .....

<조기 영어교육>  
-조기 영어 교육 실시, 옳은 것일까?

☞ 조기 교육에 대한 나의 주장과 이유를 적어봅시다.

주장 -  
이유 -

찬성 근거	반대 근거
1. 영어를 빨리 배우면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1. 외국어를 완전히 배우지기 전에 영어를 배우면 현미 있는 공학을 기를 수 없다.
2.	2.
3.	3.

**정리학습**

1. 토론의 뜻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근거를 바탕으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에서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이다.

2. 토론의 조건  
- 토론 주제 : 긍정이나 부정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  
- 사회자 : 토론을 긍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  
- 토론자 : 뚜렷한 찬반 의견을 가지고 토론에 참가할 자

<꿀맛사이버 논술 중등 워크북 예시>

### 나. 방과후학교의 활용

- 1) 방과후학교에서처럼 소수 학생들을 지도할 때 <동영상 강의>를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2) <주제별 탐사>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과 연계하여 실제 종이에 개요표 및 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논술 글을 작성하게 한다. 차후 사이버 논술의 탐사 지도에 글을 올려서, 선생님이 가능한 시간에 탐사를 제공하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 3) 온라인 작성만 할 경우 자판으로 작성하는 논술 글에 익숙해지고, 컴퓨터의 자동 맞춤법 교정 기능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실력을 배양하기 어렵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수업을 연계하는 방법이 매우 효율적이다.

- 4) 논술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작성한 대표 첨삭 글을 대형 화면에 띄워서 공통 교육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현상의 오류를 몇 가지 교육하면 반복되는 표현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좋은 첨삭 글을 통해 또래 첨삭이나 동료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 5) 방과후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학기 초에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응모하는 ‘참가반’에 지원하여 사이버 학급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참가반 지도 교사의 역할	참가반 지도 교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학습, 근태 및 학급 관리(온·오프라인)</li> <li>• 논술 및 토론 과제 부여</li> <li>• 학생 논술 결과물 첨삭 지도(온·오프라인)</li> <li>• 학생 논술 상담</li> <li>• 논술 관련 자료 탑재(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삭 지도 : 첨삭 지도 신청을 통한 지도 교사와의 1:1 첨삭 지도</li> <li>• 논술 상담 : 상담 신청을 통한 지도 교사의 상담 지도</li> <li>• 자료 열람 : 게시된 각종 자료 열람</li> </ul>

### 다. 초등-중등-고등 콘텐츠의 연계적 활용

- 1)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에는 초등, 중등, 고등 홈페이지가 모두 구축되어 있다. 초등의 경우도 금년부터 동영상 강의가 탑재될 예정이며 초등 논술과 관련된 효과적인 자료가 다수 준비되어 있다. 고등 논술의 경우 대학 입시를 위한 맞춤형 메뉴의 형태로 대학별·주제별·교과별 강의를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고 첨삭 및 관련 상담에 대한 많은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
- 2) 학생들의 능력이나 선택에 따른 수준별 논술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연계성 있는 논술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5. 2007 꿀맛닷컴 사이버 논술의 운영 계획

- 가. 2007년에도 중등 사이버 논술에서는 중학생을 위한 <논술 교양> 강좌를 제작하고 있다. 딱딱하고 어려운 논술이 아니라, 상식과 교양을 넓힐 수 있는 분야별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질 예정이다.
- 나. 전문가나 사회 인사의 동영상 인터뷰를 삽입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진로의식을 키워 줄 수 있도록 교양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다.
- 다. 사이버 논술 대회를 확대하여 단위 학교의 논술 지도를 지원하고 독려할 수 있는 대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이희자(홍은중학교 교사)

1. 학교 홈페이지 논술 커뮤니티 운영은 왜 필요한가?
2. 학교 홈페이지 논술 커뮤니티 운영의 실제
3. 학교 단위 사이버 커뮤니티 운영의 어려움, 이렇게 극복하자

### 1. 학교 홈페이지 논술 커뮤니티 운영은 왜 필요한가?

#### 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우리 사회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매우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현재 인터넷 이용 인구는 3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1999년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사의 경우 카페 수만 300만 개에 달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정치, 경제, 시민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외국의 분석틀을 적용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만의 새롭고 고유한 현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란, 사회학적으로 정의하자면, 인터넷 기반의 가상 커뮤니티로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공동의 경험과 관심사,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왜 1990년 후반 인터넷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을까? 그 요인으로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기술적 요인으로, 사람의 이동과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교환을 촉진하는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증가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1990년대 한국 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의 진전과 글로벌화가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술적인 요인보다 민주발전과 세계화라는 사회적 요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 더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는 가상 커뮤니티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선 온라인 가상공간 상의 연대와 오프라인 현실 공동체의 연대와 통합에 기초하고 있다. 즉, 가상 커뮤니티 대부분이 현실 공동체의 활동을 가상공간으로 확대한 경우이며, 가상공간에서 출발한 커뮤니티들도 오프라인 공간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제 사이버 공동체가 실제 오프라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은 이미 무의미하게 된 지 오래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그러한 질문보다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며,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인터넷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세계는 새로운 가상 공동체의 문화적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1세기 후기 근대(late modern) 정보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과 집단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우리 교육은 이러한 흐름과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때이다.

### 나. 학교 홈페이지 내(內) 커뮤니티 활성화의 필요성

한 통계(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6년)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률은 대졸 이상이 87.7%로 해가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 관리직 및 사무직이 88%, 학생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40대에 비해 10~20대의 이용률(90%이상)이 매우 높으며, 여자(50%대)에 비해 남자(70%대)가 높았다.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보내며, 또 그들만의 사이버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공간 상에서 덜 활동하고 있으며 개별 교사 차원의 사이버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제 개인 차원에서 더 발전하여 학교 단위로 가상공간의 문화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다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교 단위 사이버 커뮤니티 운영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공동체적 규제나 강제가 매우 강한 공식적 조직인 학교(학교 홈페이지)와 학생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즉, 학교 및 교사와 학생 간의 거리를 좁혀 공동체적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댓글로라도 대화를 나눈 학생들은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선택과 참여에 의해 가능하므로 학생들의 자발성과 참여성을 기를 수 있다. 즉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꼭 익혀야 할 바람직한 덕목이기도 하다.

셋째,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추억이 자료로 축적되고 동시에 관계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게 되므로 학교 공동체의 깊이 있는 전통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익명성 속에 갇혀 버리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넷째, 사이버 커뮤니티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소통할 수 있으며 소통의 넓이뿐만 아니라 그 깊이를 한 차원 더 높이 고양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다. 사이버 커뮤니티의 한계는 언어적·기술적 표현 수단을 통해서만 감정과 상황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 표현 능력과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과 같은 지역 사회에 거주하지 않는 교사들의 부족한 지역 사회와의 공동체성 내지 단절성을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논술 지도에 있어서 학교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의 운영은 어떤 좋은 점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자.

### 다. 논술 지도에 있어 학교 단위 사이버 커뮤니티의 장점

논술 지도에 있어서 온라인 지도의 장점은, 오프라인 지도 못지않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앙 단위 포털 사이트 내의 커뮤니티에 비해 학교 단위 커뮤니티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꿀맛닷컴 등의 중앙 단위 사이버 커뮤니티에 비해 학교 단위 사이버 커뮤니티의 운영은 오프라인으로 즉각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학생의 개별적 필요와 요구를 보다 쉽게 채워줄 수 있다. 이는 다른 여타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질 수 없는 학교 단위 커뮤니티의 큰 장점이다.

둘째, 교과 시간 내 논술 지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개별 첨삭 지도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학교 단위 커뮤니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사전 배경 지식을 넓히고 토론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키운다고 해도 막상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글쓰기이다.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은 개별적인 첨삭 지도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첨삭 지도는 교사에게 많은 시간적 부담을 주는데, 그 시간 부족을 온라인 첨삭 지도로 해결할 수 있다. 모범이 될 만한 글을 골라 주제면, 내용면, 표현면 등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첨삭 강평을 하여 커뮤니티에 게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첨삭 강평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셋째, 학생들 간의 댓글 달기 활동을 통해 사고력과 논리력, 의사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개별적인 첨삭 지도를 통해서도 논리적 사고력과 논술 능력이 향상되지만 다른 친구들의 글을 통해 더 쉽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특히 다른 친구들의 글은 다른 어떤 글보다 매우 집중해서 읽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서보다 더 빨리 발견하기도 한다.

넷째, 학급 단위 수준별 논술 지도의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논술을 배워보겠다고 찾아온 방과후학교의 학생들의 경우도 수준 차가 있는데, 일반 학급 학생의 수준 차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 한 줄 쓰기에서도 문장의 호응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600자, 800자를 시간 내에 소화하는 학생도 있다. 논술 지도에서 수준별 지도는 매우 중요한데, 그 점을 커뮤니티 내 다양한 메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2. 학교 홈페이지 논술 커뮤니티 운영의 실제

### 가. 메뉴 구성, 이렇게 하자

#### 1) 독서·토론·논술로 이어지는 논술 지도의 '과정'을 따라가는 메뉴를 만든다

논술 교육의 목표는 결국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및 의사소통 능력, 의사 표현 능력 신장 등 교육의 기본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폭넓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교양을 쌓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통합교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논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도 직접적인 논술 지도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읽을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독서 의욕을 자극하며 토론을 통해 사고력과 논리력 및 의사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예를 들면 읽을거리가 들어있는 메뉴, 토론 활동이 벌어지는 메뉴,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메뉴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커뮤니티의 이름도 논술로 국한하기보다는 '독서 · 논술 커뮤니티' 라고 하는 등 독서 · 토론 · 논술의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 2) 읽을거리 메뉴의 경우, 여러 수준의 자료를 담은 하위 메뉴를 만든다

읽기 자료의 제시가 수준별로 이루어져야 함은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다. 어휘에서 막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지적 자극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있다. 따라서 중 · 하위권 학생을 위한 잠언시방, 우화 · 만화 · 유머방, 중상위권 학생을 위한 신문칼럼방, 고급 에세이방 등을 마련하여 수준별 읽기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3) 토론하기 메뉴의 경우, 쟁점이 있는 논제를 선정하여 올린다

읽을거리 메뉴에서 읽기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시 논제를 정리해서 올린다. 이때 흥미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논제를 제시하면 때로 폭발적인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토론에 학생 이외에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는 것도 좋다. 교사 및 학부모의 글이 올라간다면 더 풍부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글쓰기 메뉴의 경우, 학생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수준별로 다양하게 공간을 마련한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글쓰기인데, 보다 쉽게 글쓰기 훈련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댓글 달기이다. 아직 글쓰기가 어려운 학생들도 한두 줄의 댓글 달기를 통해 기본적인 논술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이는 본격적인 논술문 쓰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댓글의 개수는 해당 주제의 인기도나 관심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므로, 학교 사이버 커뮤니티에서도 댓글 달기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토론하기 메뉴나 읽을거리 메뉴에 올린 자료에 대한 댓글 달기를 적극적으로 권장 ·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 줄 댓글 달기 이외에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춘 3줄짜리 의견 달기, 한 문단 쓰기, 400자 쓰기, 600자 쓰기 등 수준별 글쓰기 훈련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5) 본격적인 논술문 쓰기 지도를 할 수 있는 침삭 강평 메뉴를 만든다

침삭 강평을 할 경우, 분야별로 해당 전문 지도 교사를 두어 침삭 지도를 하도록 한다. 이때, 침삭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학생의 글을 골라 침삭 지도를 하여 탑재한다. 상 · 중 · 하 수준의 글을 골고루 침삭 지도하여 올리면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우 공개적인 공간이므로 침삭 지도 받는 학생의 반응이나 감정 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6) 기타 학교 특성 및 지도 교사의 특성을 살린 메뉴를 넣어 구성한다

메뉴의 이름이나 커뮤니티 이름을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공모하여도 좋다. 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 지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위와 같은 ‘독서·토론·논술 커뮤니티’를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독서·토론·논술 지도는 그 특성상 다양한 배경 지식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즉, 그 어떤 분야보다도 교사들 간의 협력적 지도가 필요하다. 주제의 설정, 논제를 위한 아이디어 구상, 읽을거리의 마련, 토론의 전개, 첨삭 지도 등 독서·토론·논술 지도의 과정은 담당 교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과를 망라하여 독서·토론·논술 커뮤니티 ‘지도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논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교과별로 한두 명씩 뽑아 구성하면 될 것이다. 지도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각 분야별로 읽을거리 제시와 토론하기 및 첨삭 지도를 담당하거나 요일별로 댓글 달아주기 순서를 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을 분담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 분담은 업무 부담의 감소뿐만 아니라 통합교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술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독서·토론·논술 커뮤니티 지도위원회의 예이다.

〈담당 분야 및 지도 교사〉

위원장 - 〇〇〇	
국어, 영어 - 〇〇〇, 〇〇〇	사회, 철학 - 〇〇〇, 〇〇〇
정보, 기술 - 〇〇〇, 〇〇〇	과학, 철학 - 〇〇〇, 〇〇〇
윤리, 도덕 - 〇〇〇	동양철학, 한문 - 〇〇〇
시사 및 통합교과 - 〇〇〇	

다. 독서·토론·논술 커뮤니티의 실제 운영 사례

다음은 서울 시내 한 중학교의 2007학년도 ‘독서·논술 커뮤니티’의 메뉴 구성을 정리한 표이다. 편의상 이 가운데 몇 가지 주요 메뉴를 골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단위 ‘논술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007학년도 ‘독서·논술 커뮤니티’ 메뉴 구성 \*

주메뉴	하위메뉴	내 용
읽어 보고	새소식	대회 소식 등 운영 관련 각종 공지 사항 게시
	추천 도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는 곳
	읽을거리	각 분야별 지도 위원 교사들이 학생용 읽을거리를 올리는 곳
	어휘/논리/맞춤법	논술에 필요한 기초 지식 관련 자료를 올려놓은 곳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주메뉴	하위메뉴	내 용
써 보고	논술 실전	본격적인 논술문을 논제에 맞게 쓰고 침착 강평을 받는 곳
	토론하기	읽을거리의 내용이나 토론하기방에 올려진 논제에 대해 자유 토론하는 곳
	책 읽고 쓰기	학생들이 개인 및 교과 활동 후 독후감 올리는 곳
	어머니 독서회	어머니 독서 회원이 글을 올리는 곳
이것 저것	조잘조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올리는 곳
	방명록	왔다 간 흔적을 남기는 곳
	자료 참고	관련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 자료를 올리는 곳
	사진 & 동영상	독서·토론·논술 교육과정에서 찍은 사진 올리는 곳

## 1) '새소식' 메뉴

방문자는 로그인과 관계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이 메뉴는 독서, 논술, 글짓기, 관련 뉴스, 관련 행사 등에 관한 기록물을 탑재하고 있다. '게시판'은 교내 독서·논술 교육 활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탑재하는 곳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메뉴는 학교 독서·논술 교육 활동의 현황을 알리는 게시판이자 사후 기록물 저장소 역할을 한다. 또한 국내외 독서 논술 관련 뉴스나 행사를 알리고 있다. 주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 실리지만, 중학교 교육이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육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교, 대학과 관련된 게시물도 탑재하고 있다.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공지	독서논술반과 도서실이 함께합니다.	홍유미	2007-03-13	16
144	학부모명예사서모집/좋은 책 나눠읽기 행사 안내입니다.	홍유미	2007-03-19	3
143	우리 독서논술반이 우수 커뮤니티로 선정되었습니다	홍유미	2006-12-20	30
142	☞ [답글] 우리 독서논술반이 우수 커뮤니티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명수	2006-12-20	30
141	☞ [답글] 와우! 이런 상도 있었군요. [1]	김지숙	2006-12-20	23
140	즐거움 수업을 위한 년센스 퀴즈 몇 개	심재홍	2006-12-20	23
139	양드래곤, "우리말 해점문" 선정	심재홍	2006-12-19	22
138	소논문쓰기 대회 안내	심재홍	2006-12-05	13

## 2) '추천 도서' 메뉴

이 메뉴는 교사 자신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읽고 싶은 글이나 책을 소개하는 곳이다. 중학생이 읽기에 적절한 도서명을 추천하기도 하고 책이나 글 중에서 중학생이 읽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내용과 분량을 뽑아 올리고 있다.

언어, 사회, 문화, 경제, 과학, 윤리, 철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주로 대학 교수급 이상의 필자가 쓴 글을 선정함으로써 독서

까지 불광동 정점으로 모이기로 된 약속이다. 어머님의 하늘은 흰히 밝아오고 서글서글한 바람이 옷깃으로 기어온다. 나는 문을 나서며 먼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백수(白首) 오십에 성취한 바 없이 열한 살 때 메고 가던 그 밥을 손에 들고 소년 시대의 기분으로 문을 나서느 사나이.  
어머니! 야망에 찢던 어머니의 아들은 이제 찰밥을 안고 흰 턱걸을 바람에 날리며, 손등으로 붉은 눈물을 뒹습니다.

이름	제목	등록일
김건	저는 소풍을 갈때 맛있는 밥이나 간식을 안주시면 짜증을 냈는데 여기있는 사람은 어머니의 정성어린 찰밥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참 놀랄습니다. ㅋㅋ;;	2006-08-17
허소영	갑자기 찰밥이 먹고싶네요 ㅋㅋ	2006-08-18
이범수	찰밥이라... 약간 생소하기도 하지만 정겹기도 한 음식.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음식. 원지 찰밥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2006-08-19
김기문	정말 감동적이에요~ 찰밥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견내도 좋을것 같네요~ 허야	2006-08-21
김은미	감동적이에요. [ ~*~*~* ]	2006-08-21
권준호	참 감동적이에요. 어머니께 찰밥해달라 그래야지!!~~~~	2006-08-21
현솔미	자신의 처지를 원망 하지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고 여기서는 찰밥이란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 표현 해주는 음식인듯 보이네요/	2006-08-21
박소영	아름을 위해 찰밥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글이네요.	2006-08-22












의 편식을 금하고 언어 사용의 모범을 보이교자 하고 있다.

학생들이 읽은 글 중 특히 감동을 준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 3) '읽을거리' 메뉴

각 분야의 지도 교사들이 읽을거리를 올리는 곳으로, 학생들의 심리, 취향을 잘 알아서 교훈적이면서도 흥미 있는 내용의 글을 골라 올린 경우에는 조회수가 많다.

신문기사, 「조용의 수학홈페이지」 수학기사 모음에서 발췌

목록보기	이동하기	개인자료함에담기	답변	수정하기	삭제하기
	정말 신기합니다. 수학자들이 도박에 등하하니... 하지만 수학자들이 도박을 할까 같지는 않습니다. 그시간에 한 공석이라도 더 만들었지요.. * * * (IP : 218.236.46.33)				2006-08-15
	수학자와 도박... 그리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지만 근거있는 말이네요. 확률이 높은 쪽에 걸면 될테니까. 그렇지만 정말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수학자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IP : 211.187.217.52)				2006-08-15
	정말 그런것같습니다. 수학자들은 계산쪽이나 전략을 할때 능하니까 도박을 잘 할 수밖에... (IP : 124.49.157.44)				2006-08-15
	수학이 도박에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게 놀랍습니다. 수학자들은 머리가 좋은니까 도박에는 능하겠네요. ㅋㅋ (IP : 211.207.248.98)				2006-08-16
	이글의내용이 국어숙제할때 필요한 책중 수학관련 도서 (수학비타민?)이내용과 앞 뒤 주장배고는 다 똑같은거 같습니다 이글을 읽고 약간 놀람지만 돈벌기위해 수학자 되서 이러한 사람이 적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IP : 211.42.214.95)				2006-08-16
	읽어보니까 정말 맞는말 같아요. 수학자들이 도박을 한다면 보통사람들보다 확률쪽을 더 잘아니까 돈을 벌 가능성이 더 많을거 같아요. 수학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흥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IP : 61.254.39.94)				2006-08-16
	수학자들은 계산적으로 계임을 하니 안정적으로 하긴하겠지만 도박은 운으로 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 거 같네요. 돈은 많이 벌겠네요 아무튼 참 신기합니다 (IP : 210.183.180.44)				2006-08-16
	그러면 수학을 잘하면 일석 미조네요ㅋㅋ 수학도 잘하고 도박도 잘해서 돈도 미중으로 벌고ㅋㅋ 이제부터 수학을 열심히해야겠네요ㅋㅋ (IP : 61.102.103.10)				2006-08-16
	수학자들은 계산력을 잘 하니까 도박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ㅋㅋㅋ (IP : 5				2006-08-16

### 4) '어휘/논리/맞춤법' 메뉴

이 메뉴는 독서 능력과 논술 능력의 기초가 되는 어휘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곳이다. '게시판'과 '추천 글·도서' 사이에 두어 독서·논술의 출발점이 되게 하고 있다. 어휘는 토박이말, 한자말, 외래어 등을 가리지 않고 중학생 수준에서 알아두어야 할 만한 것들을 탑재하고 그것이 사용된 문장, 즉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활용을 돕고 있다.

13	좋은 인과와 잘못된 인과-오비비락
12	응 빠른 제주
11	즐, KIN, 무늬충 [7]
10	문때뿌라, 대파주소. [1]
9	팍밥 먹을까 고기겍빡 먹을까
8	기린[麒麟, Ch'i-lin] 과 유니콘[unicorn]
7	상아탑 [象牙塔] 으로 가는 길, 상아탑이 뭘까.
6	아이비 리그
5	시지프스의 신화-인간 고통의 상징
4	오금을 박자니 오금이 저리고

즐

처음 시각이 온라인 게임 채팅상이라고 추정된다. 처음에는 [즐거운 게임이 되세요]의 줄임말로써 [즐겜]이라는 짧은 말로 쓰였던 것이다. 즉 [즐] 자체는 [즐거운~]의 줄임말로 쓰였던 것이다. 이로써 한때 [즐겜], [즐링](즐거운 채팅되세요), [즐넷](즐거운 인터넷 서핑이 되세요) 등 헤어질 때 인사말 정도로 쓰였다. 그러던 것이 주로 헤어질 때, 대화를 끊을 때 쓰던 말이라 의미가 확장되어 [그만해라. 그만두겠다.] 등의 의미가 되었고 은어의 속성상 공공의 언어가 아니라 공손함보다는 비속어적 측면이 강해 결국 [꺼져라, 닥쳐라, 무시]의 정도가 강한 부정의 의미를 뜻하는 비속어가 되었다.

KIN

: 이것 역시 욕이다. [KIN]을 옆으로 뒤어서 보면 [즐]과 모양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즐]에서 파생된 똑같은 의미의 유의어인 것이다.

무늬충

이 단어는 뇌가 없는 벌레라 하여 모멸적인 의미를 갖지만 이 단어의 어원이 한자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수 문희준을 비하하면서 생긴 언어라고 한다. [문희준 → 무늬충 → 무늬중 → 무늬충]

## 5) '논술 실전' 메뉴

'토론하기'에 탑재된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에서 뽑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활동을 전개한 후 이곳에 글을 올리면, 주제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를 전공한 담당 교사가 첨삭 강평을 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독서·논술의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첨삭 강사는 첨삭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답안을 골라 상, 중, 하 수준으로 구분, 첨삭 평가하여 '논술문 쓰기'에 탑재하고 있다.

다음은 탑재된 학생의 글과 그 글에 대한 첨삭 강평의 예이다. '살아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쓴 학생의 논술에 대하여 교사가 첨삭 강평을 한 것이다. 학생이 쓴 글의 여기저기에 표시를 해 놓고 내용면, 구성면, 표현면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지도·조언의 말을 들려주고 있다.

강평	논술문 쓰는 방법-말하듯이 쓰면 된다.
강평	강평에 응해 주실 선생님 명단
12	시간과의 달리기
11	→ RE [선생님의 강평] 학습능력의 둔화 이유를 잘 분석
10	살아있는 교육의 필요성 [1]
9	→ RE [선생님의 강평] 감격하게 잘 쓴 글
8	살아있는 교육 -20703 김소정
7	→ RE [선생님의 강평] 구체적인 사례를 잘 제시
6	'빨리빨리'병'으로 쪼든 우리의 현실 [1]
5	→ RE [선생님의 강평] 여유 있는 삶의 태도로 머물며 간 논리에 교체가 끄덕여지

### 제목 : 살아있는 교육의 필요성

I.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쁘다. 방과후에 학원에 가서 밤 12시가 넘어서 겨우 집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들은 학생들의 정서를 더욱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도 더욱 떨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밤늦은 공부는 다음날에 있는 학교에서의 수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더불어 학생들에게 실제로 더 중요한 것 보다는 점수가 이 세상의 전부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수능 시험때만 되면 자살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는 문제점도 생각하고 있다.

II. 이렇게 강제적인, 점수만을 위한 공부를 머리 속에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수업의 형태는 우리들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내 생각에 살아있는 교육이란, 먼저, 자신, 즉 학생들이 즐겨서 하는 수업인 것 같다. 내 경험에서 보아도 내가 좋아하는 영어수업이 싫어하는 과학수업보다 더 재미있고 점수도 잘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다른 과목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룬다면 지금보다 훨씬 능률이 오를 것이다.

둘째, 자신의 생각을 많이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을 남이 잘 들어주어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적극적이고 활기찬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서로에게 질문도 하고 부족한 점도 채워가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다면 어려운 부분도 좀 더 쉽게 이해도 되고 주입식 교육의 악몽은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창의적인 교육을 뜻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창의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일반적인 수업보다 더 깊이있고 수준높은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 III.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 살아있는 교육을 받게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먼저, 학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을 집어 넣지 않기 때문에 정서가 불안해지지 않아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능률도 오르게 될 것이다.

또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더 쉽게 극복하는 힘이 길러질 것이다. 일방적인 수업은 지식은 쌓이지만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 서로의 생각도 이해하고 교환하면서 얻게 된 교육 내용은 지혜가 되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육'은 깨끗하고 상큼한 느낌을 주는 '굴'과 같은 비타민처럼 우리의 활력소가 되어서 지치고 힘들때 우리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막아버리고 이해를 시키지 않는 주입식 수업의 한계를 벗어나 살아있는 교육은 재미와 흥미를 주게 될 것이다.

IV. 국여시각에 '스스로 터득한 지혜'라는 단원을 배운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육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억지로 시키는 공부는 한계가 있지만 스스로 터득한 지혜, 즉 살아있는 교육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루 빨리 교육의 형태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을 발판삼아 주입식 교육의 벽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훨씬 가벼워져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것이다.

<강평>

내용면

1. 살아 있는 교육이란 자신이 즐겨서 하는 공부, 주입식 교육과 대립되는 토론식 수업, 그리고 창의성을 살려주는 교육이라고 한 점도 매우 훌륭하다.
2. 살아 있는 교육의 장점(이는 '필요성' 이기도 하다)으로 학습 능력의 향상,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삶의 활력소 역할 등을 꼽은 점도 나무랄 데 없는 생각들이다.

구성면

1. 논제를 적절히 소화하여 자기 나름대로 제목을 설정하여 논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
2. I 은 서론, II, III 은 본론, IV 는 결론으로, 서론-본론-결론의 짜임이 매우 잘 되었다. (번호는 선생님이 강평을 위하여 붙인 것임)
3. 본론은 크게 살아 있는 교육의 개념(내용), 살아 있는 교육의 장점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다시 작은 문단으로 구분한 점도 좋았다. 한마디로 구성면에서는 조금도 나무랄 데 없이 잘 되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글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짜여지기는 쉽지 않을 터인데 선생님으로서 칭찬의 말을 아끼고 쉽지 않다. 고3 학생들이 쓴 많은 글을 평해 왔지만 중1학년인 규리의 글보다 못한 글이 많았다고 한다. 면 공이 믿음짜.

표현면

규리의 글에 굳이 아쉬운 점을 든다면 표현면에서의 결점(이는 중학생 수준의 글로서는 도저히 결점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이다. 본문에서 밀줄 친 문장, 어구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겠다.

- ㉠ '이러한 현상들은' 이 문장의 서술어와 잘 호응하지 못하므로 '이로 인하여' 로 고친다.
- ㉡ '내 생각에', '수업인 것 같다' 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한다. 논술문은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므로 '내 생각에' 는 불필요한 표현이다. '-인 것 같다' 는 추측성의 모호한 표현이므로 '-이다' 즉 '수업이다' 와 같이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 ㉣, ㉤의 표현도 이러한 점에서 좋지 않다. ㉢의 '내 경험에서 보아도' 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드는 것은 감상문이나 수필에서와는 달리 객관성과 보편성을 요하는 논술문에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 ㉥ 주입식 수업의 병폐를 언급하고 있는데 '주입식 교육이 생각의 틀을 막아버린다' 는 표현은 어색하다. '생각을 일정한 틀로 고정시키고 창의성의 싹을 뽑아버리는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 ㉦ 참신하고 적절한 예로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옮겨갈 수 있어서 매우 좋다.
- ㉧ 능력이 능력을 기른다는 말이 되어 어색하므로 이 문장은 '살아 있는 교육은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앞날에 무궁무진한 삶의 지혜와 능력을 길러 줄 것이다.' 정도로 고친다.
- ㉨ '우리의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는 어색하므로 '우리의 교육이' 를 '우리 사회가' 로 바꾼다.
- ㉩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을 발판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일 터이므로 이 문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이 주입식에 기울어져 있었던 점을 반성하여 그 성과는 일부 받아들여 주입식 교육이라는 전체적인 틀은 과감하게 깨뜨려 나가야 할 것이다.' 정도로 고친다.

6) '토론하기' 메뉴

38	디지털그적 살아만?! [2]
37	해커와 크래커에 대해 알아보자!
36	세상은 얼마나 편리해질 수 있을까? [1]
35	스포츠와 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
34	<b>재민식 &lt;미스터 탕&gt;을 읽고 우리가 치녀야 할 바람직한 생활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기 [1]</b>
33	갈매기의 꿈에서.. [1]
32	「프랑스인권선언문」을 읽고 현대 시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자 [3]
31	디지털조서일보 기획연재 「여자가 권력이다」 [11]

IV. 토론을 위한 주제
1. 디지털 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보고, 아날로그 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생각해보자.
2. 현대 사회는 엄격한 의미에서 순전한 디지털, 순전한 아날로그도 있을 수 없다. 아날로그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디지털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아날로그 속에 디지털이 있고, 디지털 속에 아날로그가 있다.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그적인 문화 및 아날로그적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실제 사례를 찾아보자.
3. 이전에는 디지털 문화가 유행처럼 받아들여지고 환영받았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디지털 문화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디지털 문화를 비판하고 아날로그와 대립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충돌하는 현상을 분리와 충돌의 개념의 인정에서 봐야 하는가? 아니면 협력과 조화의 개념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가? 과연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관은 무엇일까?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인격과 감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을까? 반복적이고 편리한 디지털과 개성적이고 개별적인 아날로그를 어떻게 융합하고 조화시켜야 할지 생각해보자.
4. 디지털그라는 말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디지털그라는 말 속에서 풍부한 상상력이 무한히 발휘될 수 있다. 디지털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창조적인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 지 고민해보자.

'추천 글·도서' 메뉴 외에 '토론하기' 메뉴에도 토론 주제 도출의 바탕이 되는 좋은 글을 신고 있다. 한 편의 글마다 말미에 토론 주제가 2~3개 설정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글을 읽고 난 후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음미하고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정리해 보는 경험을 가진다. 수록





9) '자료 참고' 메뉴

<input type="checkbox"/>	58	토론방식을 적용한 논술의 단계
<input type="checkbox"/>	57	홍은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조사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56	좋은도서관 개관식 ppt 자료
<input type="checkbox"/>	55	언어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토론·논술 지도 방법
<input type="checkbox"/>	54	미국의 논술시험
<input type="checkbox"/>	53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
<input type="checkbox"/>	52	논술 지도의 접근 방식

독서와 논술 지도를 위한 각종 자료들을 탑재하여 지도 교사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메뉴이다. 독서와 논술 지도에 관련된 논문, 논술 쓰기에 대한 이론, 서술형·논술형 평가와 관련된 예시 문항 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 3. 학교 단위 사이버 커뮤니티 운영의 어려움, 이렇게 극복하자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들은 대부분 '태동기-성장기-안정기-쇠퇴기'의 일정한 주기를 거치면서 발전하는데, 태동기엔 '리더'의 활약이 있으며, '리더'의 왕성한 활약에 의해 성장을 한다. 일정한 성장을 이루어 회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체 메카니즘에 의해 커뮤니티가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커뮤니티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

사실 현재 중학교 수준에서 논술 교육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전문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논술 커뮤니티 운영은 자연히 '전문가' 교사에게 그 몫이 돌아간다. 그러나 '전문가' 교사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커뮤니티 운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일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댓글이나 올라온 글들을 확인하여 다시 댓글을 달아주거나 침삭 지도를 하고, 좋은 자료를 개발하여 탑재하는 등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일에 걸리는 시간은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특정 교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이 되지 않으려면 지원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팀티칭의 구조를 세우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재정적 인센티브제의 도입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 자신의 수업 전문성, 논술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교사 자신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단위 사이버 논술 커뮤니티가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이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임을 교사들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의 보완 대책을 세우기 전이라도 독서·토론·논술 커뮤니티를 운영해보자. 일단 뜻을 세우고 공을 들이면 학생들은 알고 따라오며, 건네는 인사말이 달라진다. 건네는 눈빛이 따뜻해진다. 그것만으로도 커뮤니티 운영상의 애로 사항은 어느덧 해소된다.

### Ⅲ

#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논술 지도



- 교과와 연계한 논술 지도
  - 국어과에서의 논술 지도 김근수(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도덕과에서의 논술 지도 노영준(경인고등학교 교사)
  - 사회과에서의 논술 지도 이지나(동대문중학교 교사)
  - 수학과에서의 논술 지도 이환철(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교사)
  - 과학과에서의 논술 지도 양한재(서울정민학교 교사)
  - 기술·가정과에서의 논술 지도 최기옥(광신중학교 교사)
  - 음악과에서의 논술 지도 박세란(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미술과에서의 논술 지도 김영복(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영어과에서의 논술 지도 홍운빈(정원여자중학교 교사)
- 방과후학교와 논술 지도 서태진(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특별활동을 통한 논술 지도 양정석(신상중학교 교사)







# 국어과에서의 논술 지도

김 근 수(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1. 시작하며
2. 논술 교육 어떻게 할까
3. 수업의 설계
4. 마치면서

## 1. 시작하며

최근에는 모든 교과가 마찬가지로겠지만, 특히 국어 교사에게 논술은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 국어 교사에게 거는 논술 수업에 대한 기대가 사뭇 크기 때문이다. 사실 논술의 첫걸음은 ‘읽기’와 ‘쓰기’에 있는 만큼, 논술 지도에서 국어과가 담당하는 부분은, 논술 지도의 출발점이자 마무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국어 교사들은 논술에 대해 얼마만큼 잘 알고 있을까? 현재 교단에 서서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 중에 대학 때 논술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수강한 사람은 있는가? 교육 유관 기관에서 하는 논술에 대한 재교육을 충분히 받았는가?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의 연구로 논술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가?

의외로 많은 국어 교사들이 글쓰기에 자신 없어 하며, 생각보다 많은 국어 교사들이 논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학 때에 들은 논리학은 전공이 아닌 교양 과목이었고, 작문에서 일부 배우는 논설문 쓰기가 논술 교육의 전부가 아니었던가? 몇 번 학생들과 맞부딪혀서 논술 수업을 하고 나서야 감을 잡기는 하였지만, 무언가 철학적인 바탕이 갖추어지지 않은 듯한 이 허전함은, 비단 몇몇의 교사들만이 느끼는 심정은 아니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은 국어 시간에 강조하여 가르쳐야 한다. 이런 어려움을 딛고 국어 수업에서 논술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도구 교과로서 읽기와 쓰기의 기본 지도를 하는 쪽으로의 접근과 내용 영역으로의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생활 국어에서 가르칠 부분이 되겠고, 후자는 주로 국어 시간에 행해져야 한다.

교과 시간에 논술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업을 약간만 변형하면 훌륭한 논술 수업을 할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교과 수업과 논술 수업을 접목시킨 수업 아이디어이다. 보다 다양한 수업 시도가 있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더 짜임새 있는 접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어떻게 논술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 2. 논술 교육 어떻게 할까

### 가. 글쓰기의 기본 지도로서의 논술

이 부분은 주로 생활 국어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다. 글쓰기를 위해 자료를 요약하며 읽고, 생각을 발견하며, 문장이나 문단을 구성해서 글을 쓰는 것, 개요 짜기 등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글쓰기를 지도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조직적인 글쓰기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는 교과서의 체제나 학년 간의 위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글쓰기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쓰기 교육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 \* 글쓰기의 기초 - 1학년 \*

주 제	소 주 제	지 도 내 용	관 련 단 원
1. 생각 발견하기	1) 창의적인 생각 발견하기 2) 생각 발견하기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한 이유</li> <li>주어진 소재에 대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하기</li> <li>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li> <li>토론을 통해 내용 마련하기</li> </ul>	생활국어1-1. 1. 생각과 표현
2. 주제 정하기	1) 가주제, 참주제, 주제문 2) 주제 정하기의 방법 3) 글의 주제와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주제, 참주제, 주제문에 대한 설명</li> <li>주제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li> </ul>	생활국어1-2. 4. 글과 주제
3. 소재 찾기	1) 내용 선정의 방법 2) 소재를 정리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를 찾는 방법 안내</li> <li>소재를 정리할 때 유의할 점 (주제와의 일치, 출처 정리 방법 등)</li> </ul>	생활국어1-1. 3. 정보수집하기
4. 구성하기	1) 화제 개요, 문장 개요 2) 개요 짜기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에 대한 안내</li> <li>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짜는 방법</li> </ul>	생활국어1-1. 5. 내용 선정하기
5. 글쓰기	1) 문장 쓰기와 문장의 연결 2) 문단 쓰기와 문단의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문장 바로 쓰기</li> <li>두 문장 연결하기, 세 문장 연결하기</li> <li>한 문단 쓰기</li> <li>문단 연결의 방법</li> </ul>	
6. 고쳐 쓰기	1) 고쳐 쓰기 개요 2) 다양한 고쳐 쓰기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쳐 쓰기의 필요성과 방법</li> <li>돌려 읽고 고쳐 쓰기</li> <li>띄어쓰기, 맞춤법</li> </ul>	생활국어1-1. 7. 고쳐 쓰기

＊ 논술의 기초 - 2학년 ＊

주 제	소 주 제	지 도 내 용	관 련 단 원
1. 논술 이란	1) 논술의 특징 2) 논술에서 유의할 점	• 논술에 대한 개요 • 논술문을 쓸 때 유의할 점	
2. 논제 분석	1) 논제의 뜻 2) 논제를 분석하는 방법	• 간단한 내용 요약 • 중심 내용 파악하기	
3 논지 설정	1) 논지의 뜻 2) 논지 설정의 방법	• 주제문 만들기의 방법 • 논거를 포함한 주제문 만들기	
4. 논거 마련	1) 논거의 뜻 2) 논거 마련의 방법	• 논거를 마련하는 방법 • 토론하여 논거 마련하기 • 인터넷을 통한 논거 마련하기	생활국어2-1. 2.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5. 개요 짜기	1) 개요 짜기의 방법 2) 주어진 개요로 글쓰기	•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짜는 방법 • 주어진 개요를 하나의 문단으로 쓰기 •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작성하기	생활국어2-1. 4. 내용 구성하여 쓰기
6. 논술문 쓰기	1) 논술문 쓰기 2) 첨삭 지도	• 논술문 쓰기 및 첨삭 지도	생활국어2-1. 6. 바르게 쓰기
7. 고쳐 쓰기	1) 고쳐 쓰기를 꼭 해야 하나 2) 틀리기 쉬운 말	• 맞춤법, 띄어쓰기 • 돌려 읽고 고쳐 쓰기	생활국어2-2. 4. 글쓰기와 다듬기

＊ 논술의 심화 - 3학년 ＊

주 제	소 주 제	지 도 내 용	관 련 단 원
1. 논술 이란	1) 논술의 채점 방법 2) 논술을 잘 하기 위한 방법	• 논술의 채점 방법과 유의할 점 • 논술 답안에서 감점을 당하는 유형	
2. 요약하기	1) 요약하기의 개념 2) 요약하기의 바른 방법	• 단순 요약과 파워 요약 • 요약하기의 바른 방법과 실습	국어3-1.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3. 논제, 논지, 논거	1) 논제, 논지, 논거의 뜻 2) 논제에 맞는 논지를 세워 논거를 마련하기	• 글쓰기 위한 준비 • 논제 분석, 논지 검토, 논거 마련	
4. 서론 쓰기	1) 서론 쓰기의 방법 2) 서론 쓰기	• 서론을 쓰는 다양한 방법 • 인상적인 서론을 쓰기 위한 방법 • 독자를 고려한 서론 쓰기	생활국어3-1. 5. 독자와 글쓰기
5. 본론 쓰기	1) 본론 쓰기의 방법 2) 본론 쓰기	• 본론을 쓰는 다양한 방법 • 충실한 본론을 쓰기 위한 방법	
6. 결론 쓰기	1) 결론 쓰기의 방법 2) 결론 쓰기	• 결론을 쓰는 다양한 방법 • 핵심을 요약하고 정리하기	생활국어3-2. 3. 글쓰기의 실제
7. 종합	1) 논술문 쓰기 2) 첨삭 지도	• 실제 논술문 쓰기 및 첨삭 지도 • 다양한 주제로 논술하기	생활국어3-1.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사실 위와 같은 정리는 오로지 ‘쓰기’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 국어의 ‘국어 지식’이나 ‘듣기/말하기’ 등은 별도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년 간의 위계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생활 국어 교과서의 일관되지 않은 쓰기 교육을 개선하여, 한 학년 내에서는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인 ‘계획하기’, ‘구성하기’, ‘글쓰기’, ‘고쳐 쓰기’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또한 1학년은 글쓰기의 기초, 2학년은 논술 기초, 3학년은 논술 심화로 구성하였는데,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하나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앞으로도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나. 각 단원별 논술 주제

모든 시간에 논술 교육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정한 주제를 잡아서 특정한 단원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래의 내용은 학년별로 교과서에서 추출해 낸 토론-논술 주제들의 예이다. 모든 단원을 이렇게 짜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학년별, 학기별로 적절한 단원을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겠다. ([읽]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읽기에서 논술까지’를 뜻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는 주로 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실었다.)

#### \* 국어 1학년 1학기 \*

대단원	토론·논술 주제	참고 자료
1. 문학의 즐거움	• 왜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하는가?	강은교(2001) 나의 문학 이야기. 문학 동네
2. 읽기와 쓰기	• 수용적 읽기의 문제점과 비판적 읽기를 위한 방법	김창환(2006). 독서 잘 하는 아이가 무조건 대성한다. 한스미디어
3. 문학과 의사소통	• 동화를 통해 바라 본 현대인의 모습	웬디 페리스(2002). 스무 살이 넘어서 다시 읽는 동화. 명진 출판
4. 메모하며 읽기	• 옛날의 가정교육과 오늘날의 가정교육에 대한 나의 의견	홍석연(2005). 케네디가의 가정교육. 문지사
5. 삶과 갈등	• 요즘 청소년의 놀이 문화의 문제점과 대안 • 외모 지상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와 해결책 • 청소년기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자세	[읽]하30쪽. 놀이와 청소년 문화 [읽]하43쪽. ‘짱’ 문화와 외모 지상주의 [읽]하51쪽. 어른이 되는 길, 성장
6. 언어의 세계	• 통신 언어 - 새로운 창조인가, 언어의 파괴인가?	[읽]중47쪽. 문자와 매체로 의사소통하기
7. 문학과 사회	• 일제 시대의 변절 문학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노혜경(2003).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나 악랄하게. 아웃사이더

※ 생활 국어 1학년 1학기 ※

대단원	토론·논술 주제	참고 자료
4. 국어 생활의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속어 사용의 심각성과 비속어 사용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li> <li>인터넷 소셜 속의 언어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li> </ul>	[입]중13쪽.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입]중28쪽. 언어와 사회·문화

※ 국어 1학년 2학기 ※

대단원	토론·논술 주제	참고 자료
1. 능동적으로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상이 변해도 읽기가 중요한 이유</li> </ul>	정기철(2000).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2. 문학의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음이 정말 답답할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li> </ul>	안도현(1998). 외로울 때는 외로워 하자. 샘터사
3. 판단하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어진 사실을 읽고 사실과 의견 요약하기</li> </ul>	임노순(2003). 신문으로 끝내는 논술. 자료원
4. 시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는 우리에게 필요한가?</li> </ul>	[입]하20쪽.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5. 글의 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라진 장인 정신을 어떻게 되살려야 하나?</li> </ul>	박도(2003). 아버지의 목소리. 열매
6. 문학과 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설과 영화의 감동에 대한 차이</li> </ul>	이대현(2006). 14세 소년, 극장에 가다. 다할 미디어

※ 국어 2학년 1학기 ※

대단원	토론·논술 주제	참고 자료
1. 감상하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인의 이기주의적인 모습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li> </ul>	알렉스 로비라 셀마(2006). 출근길 행복하세요? 21세기북스
2. 어떻게 읽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업주의적인 광고의 실태와 문제점</li> </ul>	정기철(2000). 읽기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 문학이 현대인에게 가치 있는 이유</li> </ul>	[입]상23쪽. 재미있는 춘향전
4. 삶과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 가족 문화의 해체의 실상과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li> </ul>	[입]중34쪽. 효와 가정의 의미
5. 글과 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잘못된 낱말이라도 사전에 반영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li> </ul>	최기호(2004). 언어와 사회. 한국문화사
6. 작품 속의 말하는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 / 바람직한 남성상과 여성상</li> </ul>	[입]중20쪽.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 국어 2학년 2학기 ＊

대단원	토론·논술 주제	참고 자료
1. 작가와 작품	• 목숨이 위험해도 당당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비겁하지만 일단 살고 볼 것인가?	고진숙(2005). 아름다운 위인전. 한겨레아이들
2. 이야기의 구조	• 현대는 영웅이 없는 시대인가, 아니면 영웅을 만들 수 없는 시대인가?	C.아말비(2004).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카넷
3. 문학의 표현	• ‘내가 살고 있는 동안 통일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한 의견	임수경(2003). 참 좋다! 통일 세상. 황소걸음
4. 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 국어를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5. 창작의 즐거움	• 문학 작품을 쓰는 고통과 즐거움 중에 어느 것이 더 클까?	스티븐 킹(2002). 유혹하는 글쓰기. 김영사

＊ 국어 3학년 1학기 ＊

대단원	토론·논술 주제	참고 자료
1. 시의 표현	• 일상생활에서 시적인 표현이 쓰인 것을 찾고, 이런 시적 표현의 가치 논하기	김상욱(1998). 시의 길을 여는 새벽 별 하나. 푸른 나무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 • 과학은 정말 가치중립적인가?	J.에이센(2001). 탄압받는 과학자들과 그들의 발견. 양문
3. 독서와 사회	•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더라도 작가의 작품은 창작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가? •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 빈민의 가난한 삶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권오문(2004). 말말말 (대한민국사를 바꾼 핵심 논쟁 50). 삼진기획
4. 읽기와 토의	• 교포 2세 또는 3세가 우리말을 반드시 익혀야 하는가?	시정곤(2003). 한국어가 사라진다면. 한겨레신문사
5. 읽기와 매체 활용	• 부의 재분배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	[읽]상37쪽. 개인과 사회
6.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 문학사를 공부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이남호(2001).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

＊ 생활 국어 3학년 1학기 ＊

대단원	토론·논술 주제	참고 자료
4. 음운의 변동	• 지나친 된소리되거나 사잇소리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	KBS아나운서실(1996) 한국어 표준 발음과 낭독
6. 남북한의 언어	•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홍종선(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 국어 3학년 2학기 ✽

대단원	토론·논술 주제	참고 자료
1. 창조적인 문학 체험	•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부모가 말리지 못했을 때, 아들의 잘못이 큰가, 부모의 잘못이 큰가?	히라이 노부요시(2003). 부모가 아이의 능력을 발견하고 키우는 비결. 오늘의 책
2. 비판하며 읽기	•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일수록 기사는 훌륭한 의미에서 주관적이다.'는 말에 대한 자신의 의견	고승우(1998). 언론유감. 삼인
3. 작가의 개성	•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의 장단점과 우리의 자세	[입]상56쪽. 인터넷과 시루떡
4. 고전 문학의 감상	• 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기	[입]상23쪽. 재미있는 춘향전
5. 글과 표현	• 다양한 표현법을 따로 배우는 것이 나은가, 문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나은가?	정기철(2001). 인성 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 생활 국어 3학년 2학기 ✽

대단원	토론·논술 주제	참고 자료
5. 품사의 종류	• 조사를 품사로 봐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월인

다. 수업 설계의 방법

일반적으로 토론과 논술 수업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업 시수와 내용에 맞게 다음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골라 적절하게 수업 설계를 해 볼 수 있다.

연번	수업방법	방법	소요차시	진행 방법
1	개인학습	학습지 위주의 읽기 학습	1	① 주제에 관련된 읽기 자료 읽기 ② 학습지에 제시된 확인 차원의 질문이나 사고 확장 차원의 질문 등에 답하기 ③ 읽기 자료 요약하기
2	모둠학습	토론	2	① 주제 제시하기                      ② 함께 마인드맵하기 ③ 토론 팀 나누고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④ 토론하기                              ⑤ 간단하게 자기 생각 쓰기
3	개인학습	논술	2	① 주제 제시하기                      ② 제시문 분석하기 ③ 함께 마인드맵하기 ④ 학습지에 제시된 확인 차원의 질문이나 사고 확장 차원의 질문 등에 답하기 ⑤ 논술하기



**나. 단원 학습 목표**

- 1)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통신어의 뜻을 말할 수 있다.
- 2)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통신어를 구별할 수 있다.
- 3) 외국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통신어를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다.
- 4)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말할 수 있다.

**다. 지도상의 유의점**

- 1)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의 개념을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국어 생활을 반성하고 장차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하게 하도록 지도한다.
- 2) 학생들에게 단원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시킨다. 그래서 은어, 외래어, 비속어 따위를 일상생활에서 즐겨 쓰지 않도록 지도한다.
- 3) 올바른 국어 생활에 대한 훈계 위주의 수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잘못된 언어생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도한다.
- 4) 토의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미리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 정도의 진도라면 학생들 스스로 토의나 토론을 몸에 익히고 있어야 한다.

**라. 교수 - 학습 계획**

단원명	차수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참고 자료	관련 단원	준비물	비고	
4. 국어 생활의 반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의 길잡이 읽기</li> <li>• 국어 생활의 문제점 파악하기</li> <li>• 우리가 찾은 아름다운 우리 이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의 세상, 세상의 말], 장소원 외, 월인</li> <li>• [아름답고 정겨운 우리말], 문화관광부</li> <li>•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김열규, 사계절</li> <li>• [국어의 풍경들], 고종석, 문학과 지성사</li> <li>•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박갑수, 집문당</li> <li>• [나는 고발한다], 김영명, 한겨레신문사</li> <li>• [국어교육학개론], 최현섭 외, 삼지원</li> </ul>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지식	파워포인트	본시 수업 (3/4 차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통신어의 뜻과 예와 장단점 알기</li> <li>• 일상생활에서 외국어/외래어 찾기</li> <li>• 외국어와 외래어가 쓰인 글 고치기</li> <li>• 논지 제시 : ‘청소년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과 대책’</li> </ul>			(생활 국어 2-1-6) “바르게 쓰기” 중학교 3학년		과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를 통한 논지 정리</li> <li>• 함께 마인드맵하기</li> <li>• 토의하기</li> </ul>			(생활 국어 3-1-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CD 자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하기</li> <li>• 발표하기</li> <li>• 첨삭 지도</li> </ul>			학습지		논술 용지

마. 교수 - 학습 과정

단원 및 차시		4.(2) 국어 생활 반성하기 3/4	본시 주제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	
학습 목표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할 수 있다.			
학습 과정		학습활동		분	자료 및 유의점
과제 파악	논제 검토 논지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제 확인하기</li> <li>• 읽기 자료와 학습지를 풀면서 논지를 정리한다.</li> <li>• 간단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는다.</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자료</li> <li>• 학습지</li> </ul>
마인드맵	의견 모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의를 할 수 있는 좌석 배치를 한다.</li> <li>• 서로 간에 적은 의견을 나눈다.</li> <li>• 청소년 비속어 사용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모둠에서 세운 해결책을 찾아본다.</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 : 4~6명</li> <li>• 모둠 좌석은 간단히 의자만 둘러도록 함</li> </ul>
토의	전체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토의를 위한 좌석 배치를 한다.</li> <li>• ‘청소년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모둠원끼리 토의한 결과를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 추가적으로 의견 제시를 한다.</li> </ul> </li> <li>• ‘청소년 비속어 사용에 대한 대책’ 토의 결과를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각의 의견에 대한 적절성, 현실성을 검토한다.</li> <li>- 추가적인 의견을 나눈다.</li> </ul> </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토의 좌석은 처음의 좌석 배치와 같음</li> </ul>
발표	결과 정리 토의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은 토의의 결과를 발표한다.</li> <li>• 토의 후에 추가로 든 생각을 정리하여 다음 시간 논술을 준비한다.</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 칠판 기록, 문서 기록 등이 필요함</li> </ul>
정리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시간에 논술을 할 것임을 예고한다.</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li> </ul>

4. 마치면서

논술의 평가에 관해서 자신 없어 하는 교사가 있는 줄 안다. 논술도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문제는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시간이 좀 길다는 점만 다르다. 각 대학의 평가 기준이나 SAT의 논술 평가 기준<sup>33)</sup> 등을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평가 기준을 교사 스스로 몸에 익히고, 다양한 채점을 위한 수련을 한다면 논술 채점도 얼마든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는 모르 일이지만, 많은 논술 교재에서 지나치게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에

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논술·면접 지도 요령, pp.176~189. 참고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이는 주로 국어 교사가 개발한 자료에서 나타나는데, 외래어 사용, 비문, 어려운 말의 사용 등 폭넓은 문법 교육으로 논술 시간의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글쓰기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그것이 논술 교육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 또한 이 부분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가 흔히 있다. 실제로 각 대학이나 논술 평가 기관의 채점 기준을 살펴보면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요즘 학생들의 문법 실력이 나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논술 교육으로 이 모두를 쉽게 극복하기는 어렵다.

많은 학생들, 또는 일반인의 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문단 쓰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글이 많다. 문단이란 하나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문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의 글은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하나의 문단에 여러 개의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하나하나의 문장이 구체적인 뒷받침 내용 없이 별개로 구성되어 글을 이룬 경우도 흔히 있다. 심지어는 하나의 문단에 글 한 편의 내용이 통째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논리적 글쓰기는 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쓰고, 거기에 적절한 뒷받침 내용을 작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논술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하나의 문단을 제대로 구성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논술 교육이라는 큰 틀에 어긋나지 않는 다양한 수업 방법이 계속해서 시도되고 여러 방면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에 뒤지지 않는 우리만의 독특한 논술 교육이 전 교과에서 펼쳐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 도덕과에서의 논술 지도

노영준(경인고등학교 교사)

1. 도덕과와 논술의 관계 : 모든 내용이 곧 논제
2. 도덕 교과에서의 논술 지도 유형
3. 도덕 수업 시간의 논술 지도
4. 도덕과 평가와 논술의 연계
5. 학교 수업과 가정에서의 연계 지도
6. 맺는말

### 1. 도덕과와 논술의 관계 : 모든 내용이 곧 논제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도덕 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국가·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덕과에서의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보편적이며 이상적인 가치들과,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덕규범과 가치들을 내면화시켜 올바른 행동 습관을 기르는 동시에,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데 역점을 둔다.”고 하였다.<sup>34)</sup> 결국 도덕 교과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이 도덕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면, 그 교과 내용을 지도하면서 논의되는 모든 발문 하나 하나는 곧 인간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 교과 수업 시간에 지도 교사가 던지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논술의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을’, ‘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등의 고등 정신 능력을 신장시키는 과정이 도덕 교과에서 추구하는 교과 목표이자 의의라고 한다면, 이는 곧 논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34)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 교사용지도서, 2005, p. 8.

따라서 도덕 교과 지도를 준비하는 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사회, 국가, 민족, 세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문제,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 논의, 현실적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 등 도덕 교사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술은 도덕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을 학문적 기반으로 하는 교과 특성상 다양한 학문적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논술 지도에 가장 적합한 교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덕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 지도 활동은 논술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논제와 관련된 여러 상황과 과제들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전개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다면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인 논술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 2. 도덕 교과에서의 논술 지도 유형

### 가. 교과 내용의 학년별 강조점<sup>35)</sup>

중학교 1학년 및 2학년	도덕적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개념 파악과 도덕적 생활에 필요한 규범 및 예절의 습득과 생활화
중학교 3학년	도덕적 문제의 다양한 갈등 사태 해결 경험을 통한 가치 판단 및 선택 능력의 신장

교육과정 구성상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우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도덕적 삶과 예절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규범과 개념들을 익혀 생활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단지, 1학년과 2학년의 차이점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생활 영역의 차이로 인한 내용 구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중학교 1학년은 <개인 생활 영역,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을 다루고 있고, 중학교 2학년은 <사회생활 영역, 국가·민족 생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강조점은 같지만 생활 영역의 차이로 인한 교과 내용 구성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학년은 생활 속에서의 기본적인 도덕 개념 인식과 규범 생활화에 관한 내용으로, 2학년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시민 의식, 민주적 절차 및 민족·국가의 개념과 통일 환경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학년은 다소 많은 분량의 내용과 과제들을 파악하고 기억해야 하는 구성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과 내용 구성상의 계열을 같이하면서 가치 판단 및 도덕적 문제의 해결 능력 신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I 단원에서는 이런 도덕 판단 능력 신장 및 도덕 문제 해결

35) 교육인적자원부, 전계서, p.22.

능력 신장을 위한 원리와 이론 부분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II 단원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도덕 문제들에 대한 해결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중학교 3개 학년의 교육과정 구성 방향을 이해하고 나면, 도덕 교과 수업과 논술 지도 과정에서의 지도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도덕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 내용, 그리고 그 교과 내용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술 지도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된다.

### 나. 도덕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논술 주제들

1, 2, 3학년 교과서 각 단원별 내용 중에서 어떤 주제를 논술 지도에 활용해도 상관은 없겠으나, 학년별 특성이나 도덕 교과의 학년별 목표와 관련하여 실제 수업 시간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주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것 이외에도 훨씬 많은 주제들을 뽑아 낼 수 있다. 단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학년	논술유형	교과 내용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	교과서 관련 단원(중단원)
1학년	찬반 쟁점 토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심의 기원 : 선천적 vs 후천적</li> <li>• 교복, 두발 규정 vs 개성 신장</li> <li>• 절제 vs 욕구 실현</li> <li>• 사이버 조문 vs 전통 예절</li> <li>• 남녀 합반 vs 남녀 분리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의미와 도덕</li> <li>• 개성 신장과 인격 도야</li> <li>•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li> <li>• 친족 간의 예절</li> <li>• 학교생활 예절</li> </ul>
2학년	과제 분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와 그에 따르는 부작용</li> <li>• 학교에서의 민주적 태도와 비민주적 행태분석 (학생의 인권과 규율 준수와의 관계)</li> <li>• 물질적 풍요와 삶의 질과의 관계 (부와 행복도와의 관계 분석)</li> <li>• 문화의 세계화와 문제점 분석 (한류와 혐한류 현상의 분석)</li> <li>• 북한 핵 문제와 통일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li> <li>• 민주적 생활 태도</li> <li>• 생활 속의 경제 윤리</li> <li>•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li> <li>• 남북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li> </ul>
3학년	대안 제시 및 과제 해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선택 과정의 도덕 문제와 해결 방안</li> <li>• 호주제 폐지와 이에 대한 대안 제시</li> <li>• 친척 간의 도덕 문제와 해결 방안 (전통 도덕 중시와 합리주의와의 갈등 해결)</li> <li>• 이웃 간의 도덕 문제와 해결 방안 (전통적 이웃 관과 가족 이기주의의 갈등 해결)</li> <li>• 학교생활 중의 도덕 문제와 해결 방안</li> <li>• 인물학습의 삶과 도덕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 진학과 도덕 문제</li> <li>• 가정 · 친척 · 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li> <li>• 가정 · 친척 · 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li> <li>• 가정 · 친척 · 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li> <li>• 학교생활과 도덕 문제</li> <li>• 김삿갓, 노자, 영조, 루소</li> </ul>

### 3. 도덕 수업 시간의 논술 지도

#### 가. 일반적 유의 사항

학년별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주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중학교 도덕과의 경우, 1학년과 3학년은 사고력이나 글쓰기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 내용 중에서 해당 학년 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방식의 논제를 선정하여 토론이나 글쓰기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

1학년의 경우는 상황 분석이나 과제 분석 등과 같은 논제가 제시되면,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제되지 않았을 경우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학년 수준에 맞게 가치 갈등 상황이나, 찬반 쟁점 토론이 가능한 유형의 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면 훨씬 수월한 접근이 가능하다.

2학년의 경우는 교과 내용의 구성상 찬반 쟁점을 넘어 어떤 상황이나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관련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는 수렴형의 논술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학년 교과서 지도 과정에서 논술 주제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과제 분석형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3학년의 경우는 가치 갈등의 원인 분석과 이들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교과서 구성 방식을 활용하여, 실제 논술 지도도 이런 유형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도덕 수업 시간에 논술 지도를 할 때, 특별히 논술을 위한 도덕 수업이 아닌, 도덕 수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술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덕 교과서의 특성상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논술의 주제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도덕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뽑고, 이와 관련한 제시문, 또는 읽기 자료를 준비하여 자연스럽게 교과 내용과 논술 토론을 접목시킨다. 논술을 위해 관련 단원과도 상관이 없는 엉뚱한 주제가 갑자기 학생들에게 제시된다면 지극히 인위적인 뉘앙스를 갖지 않을 수 없고, 다소 어색한 수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어떤 내용도 논술 토론의 주제로 활용될 수 있는 도덕 교과서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자연스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물론 지극히 시사적인 부분들은 해당 시점에 주어진 시사 상황에 맞는 토론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시사적인 부분이라 해도 교과와 전혀 무관한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나. 논술 제시문 또는 읽기 자료 제시 방법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도덕과 교사들이 주로 활용했던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함께하기' 학습지 활용

교과 내용과 관련한 워크시트 형태의 '함께하기' 학습지를 자체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하여 공유되고 있는 자료들을 '유인물' 형태로 인쇄하여 배부하고, 노트에 부착하거나 파일에 첨부해 놓고 관리하도록 하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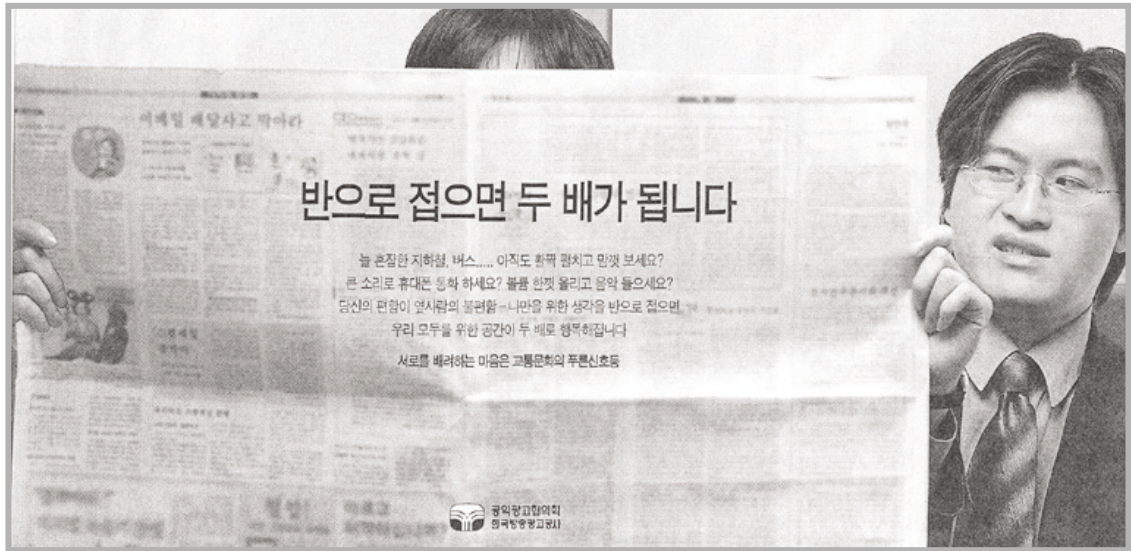
이다. ‘함께하기’ 학습지를 개발할 때 관련 내용을 논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단문 형태 또는 몇 개의 문단 정도의 분량으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도덕 교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논술 지도 유형이기도 하다. ‘함께하기’ 학습지의 사례를 하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년 반 번 이름

### 함께하기 1 『광고로 보는 논술』

→ 2. 인간의 삶과 가치 갈등 ..... (3)가치 갈등의 해결 ..... 61쪽

제시된 광고의 내용을 보고 생활 속에 갈등의 원인과 해결의 기본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
- 갈등 해결의 기본 자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  
-----  
-----



## 2) 노트 활용 직접 제시형

별도의 유인물 없이 노트에 논제를 적고 자신의 의견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역시 도덕 교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때는 꼭 논제 형태의 문제로만 제시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시하거나, 신문의 내용을 낭독해 줌으로써 읽기 자료를 대신할 수도 있다. 수업 중의 이러한 활동들을 누적하여 수행 평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때 수행 평가의 판단 기준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글쓰기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수시 지도의 경우 글쓰기 한 노트를 수합하여 첨삭 지도 또는 코멘트를 달아 주면서 글쓰기를 격려할 수도 있다.

## 3) 별도 시험지 제시형

수업 시간 중 하루를 잡아서 별도의 시험지에 논제를 제시하고 글쓰기를 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미리 예고한 시간이든, 예고 없이 준비한 시간이든 수업 중 활용했던 내용이나 주제를 제시하여 관련 내용의 생각을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사전 평가 계획에 제시된 것이라면 수행 평가로 활용해도 될 것이다.

## 4) 영상 자료 활용

동영상 뉴스 자료를 활용한 자료 제시 방법이다. 특히 시사적인 문제나, 민주적 생활 태도 등과 관련된 주제들의 경우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학생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흥미와 관심을 배가시키는 방법이다.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또는 캡처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 방법은 관련 기능이나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손쉽게 모든 도덕 교사들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는 뉴스 자료가 있다. 뉴스와 같은 동영상 자료의 활용은 도덕 수업 지도의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데에도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설명 위주의 수업 진행에 멀티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을 집중시킬 수 있다. 논술 지도에서도 주어진 상황과 사건 등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이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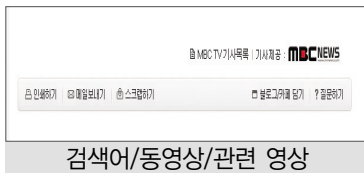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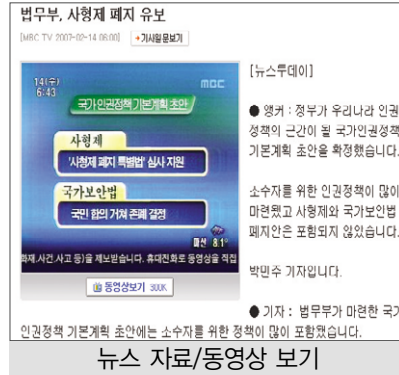
### <뉴스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구체적 방법>

- ① 포털 사이트의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한다. 이 때 <동영상>항목을 지정해 주면 해당 검색 자료 중 <동영상> 자료만 나타내 준다.
- ② <동영상> 검색 목록에서 논술 수업으로 활용할 적절한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선택한다.
- ③ 선택한 뉴스 자료나 동영상의 URL주소를 복사하든지, 해당 자료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 <메일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메일 계정으로 보낸다. (메일 보내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업 시간 중에 직접 검색하여 재생시킬 수도 있으나, 수업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된 영상들끼리만 모아서 정리해 두었다가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메일 보내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 ④ 사전에 자신의 메일 계정의 <편지함 관리>에서 별도의 <편지함>(편지함 예 : 논술 수업 자료함)을 추가



시켜 놓아, 수업에 사용할 자료만 모아둔다. 특별히 별도의 <편지함>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통합 메일함에서 직접 해당 메일을 열어서 동영상 자료를 재생시켜도 된다.

- ⑤ 수업 시간에 교실마다 설치된 컴퓨터에서 자신의 메일을 열어, 해당 동영상을 재생시킨다.



## 4. 도덕과 평가와 논술의 연계

### 가. 1학년 : 쟁점 중심의 논술 지도

정기 고사 등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1학년의 글쓰기 수준 및 사고력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분석하게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유형의 논술 문항은 1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문항의 타당도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시할 읽기 자료 또는 논제를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접근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학년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 구성면에서도 일상생활과 관련한 쟁점 중심의 찬반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제시문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1학년의 논술 평가의 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총 배점은 평가 계획에 따라 조절하면 된다. 제시문 내에 평가의 기준을 함께 제시해 주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1학년 도덕과 논술	1학년 반 번 이름 :	배점 : 40점	확인	
<p>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절친한 두 친구가, 20년 후에 무엇이 되어 어디서 무엇을 하건, 어떤 장소에서 저녁 8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그날이 되었다. 경찰이 된 한 사람은, 마침 그날 밤 순찰 당번이 되어 그 장소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그 장소에 한 사람이 나타나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그 순간 경찰이 본 얼굴은 지금 전국에 수배 중인 강도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그 친구가 아닌가?</p> <p>&lt;논술문제&gt;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시오.</p>				
평 가 관 점	영역별 배점	1차 점수	2차 점수	최종 점수
주어진 문제 사태에 대한 문제 파악의 정확성 정도	10			
대안에 대한 풍부성, 다양성	10			
자기주장의 논리적 정당성 및 타당성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10			
전체적인 논리의 일관성 (내용 전개에 일관성이 있는가?)	10			

### 나. 2학년 : 과제 분석 중심의 논술 지도

2학년 도덕 교과서의 주요 내용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서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익혀야 하는 것들이 많다. 이를테면,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삶에서 갖추어야 할 여러 과제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살려 논술 지도를 할 때, 수업의 내용 전개와 궤를 같이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제반 요소들을 분석, 정리하도록 하는 유형의 글쓰기 지도가 필요하다. 물론 1, 2, 3학년 도덕 수업 시간 중 어떤 유형의 논술 지도를 하든 특별한 상관은 없다. 지도 교사의 취향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 져도 된다. 다만, 논술 지도를 도덕 수업과 별개가 아닌, 수업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것이 좋다. 수업 중에 많이 활용했던 유형의 문항을 평가 시에도 제시하면 학생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2학년 도덕 교과 논술 평가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학년 도덕과 논술	2학년 반 번 이름 :	배점 : 40점	확인	
<p>영국의 한 교수가 최근 5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방글라데시가 1위, 나이지리아가 3위를 차지하는 등 가난한 나라들이 상위권을 휩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46위), 일본(44위), 독일(42위) 등 선진국들은 하위권으로 처졌다. 한국은 중간쯤인 23위. 다소 의외인 이 조사 결과는 행복이 무엇이며 잘산다는 것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p>				
<p>&lt;논술 문제&gt; 삶의 질과 부(富)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p>				
평 가 관 점	영역별 배점	1차 점수	2차 점수	최종 점수
자기주장의 논리적 정당성 및 타당성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10			
전체적인 논리의 일관성 (내용 전개에 일관성이 있는가?)	10			
전개 과정의 진지성 및 성실성 (성의 있게 진술하고 있는가?)	10			
내용의 독창성(얼마나 창의적인가?)	10			

#### 다. 3학년 : 대안 제시 및 과제 해결 중심의 논술 지도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는 주당 1시간인 관계로, 도덕 시간에 논술 지도를 많이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구성 상 3학년 교과서는 실생활에서의 도덕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음을 고려하여, 실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유형의 논술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3학년 1학기 중에는 주로 가치 판단, 가치 갈등, 도덕 판단, 도덕 판단 검사, 도덕적 추론 등 주로 도덕적 생활에 필요한 이론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진도 나가기에다 빠듯할 수 있다. 따라서 논술 지도는 실생활에서의 도덕 문제 해결 방안 에 대해 다루고 있는 2학기 중에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3학년 도덕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논술 문항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학년 도덕과 논술	3학년 반 번 이름 :	배점 : 40점	확인	
<p>자녀를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 혼자 몸으로 갖은 고생을 하며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할머니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동안 혼자 지하 방에 세를 들어 살고 있던 김 노인은 이웃의 신고로 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p> <p>김 노인의 첫째 아들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현재 스텐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 둘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나뿐인 딸은 결혼하여 미국 LA 한인 타운에 살고 있다.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키워 낸 할머니는 항상 이웃들에게 자식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하였다.</p> <p>그런데 어쩌다 한번씩 자녀들이 다녀가긴 했지만 몇 년간은 거의 자식들 왕래가 없었다. 혼자 지하 방에 세들어 산 지도 꽤 오래되었다. 같은 집에 함께 세들어 사는 이웃들과 자주 자식 얘기도 하며 지내던 노인이 며칠째 통 보이질 않아서 궁금하게 여긴 이웃에서 문을 두드려도 전혀 인기척이 없자, 열쇠공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였다는 것이다.</p>				
<p>&lt;논술 문제&gt; 위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하여 &lt;이웃 간의 관계, 가족 제도&gt; 등과 관련하여 논술하시오.</p>				
평 가 관 점	영역별 배점	1차 점수	2차 점수	최종 점수
자기주장의 논리적 정당성 및 타당성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10			
전체적인 논리의 일관성 (내용 전개에 일관성이 있는가?)	10			
전개 과정의 진지성 및 성실성 (성의 있게 진술하고 있는가?)	10			
이웃 관계, 가족 제도와와의 관련성 여부	10			

## 5. 학교 수업과 가정에서의 연계 지도

### 가. 지속적인 논술 지도의 필요성

교과 수업 시간 중의 논술 지도 과정은 자칫, 논술 쓰기 요령 및 방법에 대한 지도 또는 토론을 통한 말로 표현하기 등으로 종료되기 쉽다. 왜냐하면 수업 중에 자료 제시하고, 제시된 자료에 대해 요약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을 하고 나서 자신이 파악한 대로 개요를 작성하여 글쓰기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5분 수업 중에 이 모든 것이 다 완료되기는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시간으로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어지는 시간이 주당 단위 수가 높은 교과인 경우는 다음 날 바로 연계가 되지만, 주당 1시간 또는 2시간인 도덕 교과 시간에는 토론의 열기나 생각 정리의 정도가 연계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 나. 카페(커뮤니티) 토론방으로의 연결

요즘 누구나 쉽게 개설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커뮤니티)를 이용하면 교실 수업과의 연계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당 카페에 토론방 메뉴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수업 중 마무리되지 못한 토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 교실 수업의 한계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오히려 보완의 수준을 넘어 매우 효과적인 사이버 교실로 거듭날 수 있다. 물론 논술 토론방뿐 아니라 수업 자료실로도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별로 교과 홈페이지가 마련되지 못한 학교에서는 이런 카페를 이용하면 교과 수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카페 토론방을 이용하는 것은 교실 수업 따로, 사이버 교실 따로인 별개의 운영이 아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논술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 제시하는 카페 토론방은 교실 수업 시간의 연장이다. 따라서 도덕 교사 자신이 지도하는 모든 학급 학생들이 토론방에 제시한 제시문을 읽고 토론방에 직접 글을 작성하거나 지정된 장소(가령 비밀토론방 또는 소모임방)에 글을 올리도록 하면 논술 지도도 되고, 수행 평가로도 활용할 수 있다.

#### 다. 사이버 토론방에서의 논술 지도

##### 1) 활용 유형

##### 가) 수업 시간과 연계형

도덕 수업 시간에 논술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에 대한 요약 및 분석을 마치고 수업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벌이고 미처 글쓰기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논제에 대해 글쓰기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토론방에 다시 한번 논제와 읽기 자료 또는 관련 영상 자료 등을 제시하고 곧바로 글쓰기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도덕 교사들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학교 홈페이지 내에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도 생겨나서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한 교과 카페를 활용할 수도 있다.

##### 나) 논제 직접 제시형

도덕 수업 시간과 별개로 토론방에 직접 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글쓰기를 하도록 지시하는 유형이다. 과제 부여 형식으로 논제와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글쓰기 장소와 분량, 기한을 명시하여 수행 평가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예전에 출력물 형태로 제시되던 과제를 사이버 상에 업로드시켜 과제 수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무 많은 인원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평가 시에 타인의 글을 표절 또는 복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별 소모임 형태의 소

모임방을 개설하여, 해당 카페 내의 소모임 회원만(소모임당 대략 5~6명 정도) 출입이 가능하며 관리자인 지도 교사는 모든 소모임을 다 들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표절 여부 등을 가려낼 수 있다.

### 다) 채팅을 통한 실시간 대화방에서의 토론

카페의 장점 중의 하나는 카페 내에 대화방을 개설,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도 컴퓨터실(멀티미디어실)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동시 토론을 채팅으로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업 연구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 방법을 시도해 보면 멋진 수업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여러 가지 유의 사항이 뒤따른다.

이 방법을 모든 수업 종료 후에 가정과 연계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채팅을 통해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당일 수업 시간에 하던 토론이 마무리되지 못했을 경우 그 학급 학생들에게 대화방 동시 입실 시간을 안내하고 집의 PC 앞에서 느긋하게 도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이 이 시간에 학원에 가서 논술 지도를 받는 시간에 자신은 도덕 선생님과 도덕 교과 논술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 2) 카페에서의 토론방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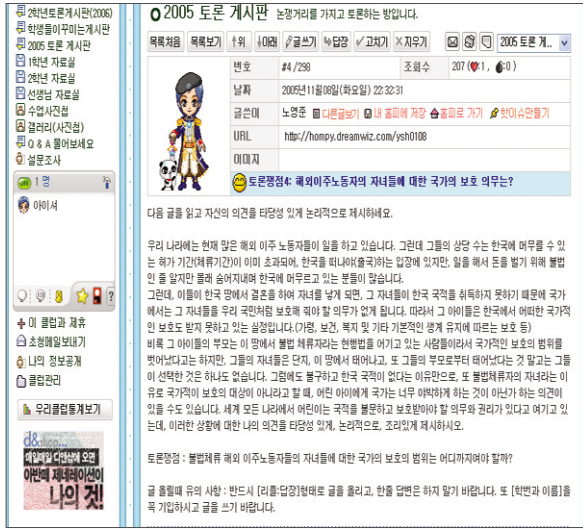


〈사진1〉 모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필자의 카페 초기화면 모습이다. 카페 내의 메뉴들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며, 메뉴 명칭도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수업 자료실, 토론방(토론 게시판), 조별 소모임, 대화방 등의 메뉴를 활용할 수 있다. 카페는 회원제로 해서, 지도하는 학급의 학생들만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진2〉 토론 게시판에 제시된 논제에 대해 학생들이 각자 글을 올린 목록이다. 전년도에 지도했던 자료들을 새 학년도에 삭제하지 말고 별도로 메뉴로 유지할 수도 있다. 학년 초에 새 학년 학생들에게 선배들이 활용했던 토론방을 일정 기간 열람하게 한 후, 이후는 입실 제한을 설정하여 동일한 주제를 새 학년도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년별 학생들 수준 비교도 가능하다.





〈사진3〉 토론 광장에 올린 읽기 자료 및 논제의 사례 : 토론방에 토론 주제를 게시했음을 수업 시간 중에 안내하고, 논술을 작성토록 지시한다.



〈사진4〉 조별 소모임 : 조원들만 입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별 협의나, 과제물 제시, 토론 글쓰기를 게시할 때 활용하면 유용하다.



〈사진5〉 2개 학년을 거쳐서 지도를 하는 경우 학년별로 별도의 토론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진6〉 조별 소모임 내에서 조원들끼리만 글을 올리고 확인하는 모습의 사진이다. 운영자는 모든 소모임에 입실 가능하다.

## 6. 맺는말

지금까지 모든 도덕 교사들이 교과를 지도하면서 해 왔던 지도 방법과 내용들을 체계화하고 정리하면, 그것이 곧 논술 지도가 될 수 있다. 화두가 되고 있는 논술 지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려면, 교과 지도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가 필요하다. 도덕과에서의 논술 지도는, 교과 내용의 일부에서 관련된 단원을 찾아 논술과 연계하려고 하는 타 교과와는 그 접근법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교과의 성격을 바로 알고, 교육과정 구성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교과 지도와 관련한 논술 지도의 방향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교과보다도 교과 지도의 방식이 지도 교사 자신의 취향에 따라 천차만별인 도덕 교과 지도는 곧 논술 지도의 방식에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방식의 차이라기보다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의도된 방향으로 지도를 했을 때 비로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중학교 논술 지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선봉적으로 교육을 해 나갈 도덕 교사들이 긍지와 열정, 준비된 지도 교사로서의 자세 등을 가진다면 우리 학생들은 진로 준비와 관련된 고민에서 한결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학생이 행복하면 지도 교사는 가슴 벅찬 보람을 얻는다. 그 보람이 곧 교사의 행복이다.





# 사회과에서의 논술 지도

이 지 나(동대문중학교 교사)

1. 사회 시간에 논술을
2. 내용 구성은 이렇게!
3. 수업 구성은 이렇게!
4. 주제 선정, 자료 준비보다 더 중요한 수업 준비는?
5. 부록

## 1. 사회 시간에 논술을!

교과 시간을 활용한 논술 교육은 우리의 지향점이다. 논술이 급부상하면서 마치 ‘논술’, ‘통합 논술’ 이라는 것이 교과 시간에는 충족될 수 없는 별개의 영역인 양 인식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논술’이 대학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로 등장하면서 논술 광풍이 불고 있지만, 사실 ‘논술 시험’을 볼 학생들은 공부를 꽤 잘하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따져 보면 중학교에까지 불고 있는 논술 광풍은 대단한 에너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의 논술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논술이란 것이 ‘사고력 신장’에 목적을 둔 것이기에 대학 입시에 상관없이 강조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제반의 사회 현상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정립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다.

중학교 논술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별개의 교과처럼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논술에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논술 교육은 교과 시간에 ‘수업 방법 개선’ 차원의 하나로 행해질 수 있다. 물론 교과 진도에 쫓길 때도 있지만 한 학기에 중간·기말고사가 끝나고 여유 있는 시간에 1~2번 정도만 독서·토론·논술 수업을 한다면 교사의 부담은 줄고, 학생들은 1년이면 다른 과목까지 합쳐 총 20번도 넘는 토론-논술 수업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토론-논술 지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2. 내용 구성은 이렇게!

교과 시간에 하는 논술이니만큼 내용 및 주제는 교과서 안에서 발췌하는 것이 좋다. 단원 마무리나 심화 학습, 교사용 지도서 등을 참고하여 기본 주제를 추출해 내고, 주제 이해에 필요한 읽기 자료를 수집하고 수업 방식에 맞도록 학습지를 제작하면 된다. 주제 선정과 자료 수집이 어렵다면 이미 개발된 <읽기에서 논술까지>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그 책에 소개된 도서들을 참고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논술 수업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학년별로 교과서에서 추출해 낸 토론-논술 주제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1학년 사회 토의-토론-논술 주제 \*

연번	관련 단원	주 제
1	I. 지역과 사회 탐구	지도는 정확할까? 지도 속에 담긴 왜곡과 선입견
2	II. 중부 지방의 생활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 해야 할까?
3		간척 사업(댐 건설),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4	III. 남부 지방의 생활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무역 구조를 고려해 볼 때, 항만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은?
5	IV. 북부 지방의 생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할까?
6	V.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아프리카의 슬픈 보석, 다이아몬드와 전쟁, 발전이 갖는 관계
7		'사막화'의 원인과 심각성,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8	VI. 유럽의 생활	남유럽의 '시에스타' 문화의 배경과 장단점, 현재의 존립 필요성 여부
9		유럽 사회의 인구 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10	VII.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다인종 국가인 북미 대륙이 처한 사회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
11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남미의 발전이 늦어진 이유와 그로 인한 사회 구조의 문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12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 개발 근거와 선진국의 견제 논리에 대해 생각해보기
13	VIII. 인간 사회와 역사	객관적인 역사 서술은 가능한가?
14	IX.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	농업 혁명이 가져온 인류의 생활 변화
15	X.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	카스트제가 지속된 인도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16		관리 선발에 있어서 추천제와 과거제가 갖는 차이점과 영향력

\* 2학년 사회 토의-토론-논술 주제 \*

연번	관련 단원	주 제
1	I. 유럽 세계의 형성	‘도편 추방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했던, 바람직한 제도였을까?
2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시민권을 타국인에게 주는 데 너그러웠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3		중세 유럽 사회에서 교황의 권력과 지위는 어떠했으며,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4		십자군 전쟁이 중세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과, 이슬람 세계의 입장에서 ‘십자군 전쟁’에 대해 생각해보기
5	II.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과 변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6		중세의 교회 주장과 서양 근대 초기의 종교 개혁가들의 주장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를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상과 관련지어 설명해보기
7		계몽사상의 의미를 알고, ‘인류 역사는 진보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기
8		산업 혁명 이후의 사회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자.
9		마르크스의 사상 출현 배경과 그의 사상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논술해 보자.
10	III. 아시아 사회의 변화와 근대적 성장	간디의 비폭력·불복종 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11	IV. 현대 세계의 전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독일과 일본의 용서 및 화해 과정의 차이를 조사하고 그 둘의 차이점을 토대로 일본에게 보내는 편지 써보기
12		유대인은 용서를 비는 나치의 군인을 용서해야 할까?
13	V.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 제도와 시민 의식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14	VI. 개인과 사회의 발전	‘문화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슬람의 ‘명예살인’에 대한 입장을 세워보기
15	VII. 사회생활과 법 규범	악법도 법일까?

※ 3학년 사회 토의-토론-논술 주제 ※

연번	관련 단원	주 제
1	I.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할까?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할까?
2		고교 평준화 유지되어야 하나?
3		선거는 민주적인가?
4		낙선 운동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시민의 올바른 정치 참여에 대해 생각해보기
5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로 대립하는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 이유에 대해 정리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자.
6	II. 민주 시민과 경제생활	기부금 입학제, 허용되어야 할까?
7		세계화 시대에 국산품 애용은 애국일까?
8	III. 시장 경제의 이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토지 공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용되는데, 공익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될까?
9		쌀 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 및 농가에 미칠 영향과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농가, 국민들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10	IV.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빈곤국에 대한 식량 원조가 계속되어야 할까?
11		인터넷 실명제 도입되어야 할까?
12	V. 자원 개발과 공업 발달	자원의 무기화가 가능한 이유와 자원 전쟁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3	VI. 인구 성장과 도시 발달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 우리 사회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14	VII. 지구촌 사회와 한국	교토 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환경 협약이 필요한 이유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생각해보고, 우리나라에게 환경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 3. 수업 구성은 이렇게!

수업은 주제의 난이도, 교과 진도 진행 상황, 수업 주체들의 친밀도, 교사의 역량, 학생 구성원들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연번	수업 방법	중점 영역	소요 차시	진행 방법
1	개인 학습	읽기	1	① 주제 관련 읽기 자료 각자 읽기 ② 학습지에 제시된 확인 차원의 질문이나 사고 확장 차원의 질문 등에 답하기 ③ 읽기 자료 요약하기
2	모둠 학습	토론	2	① 주제 제시하기 ② 함께 마인드맵하기 ③ 토론 팀 나누고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④ 토론하기 ⑤ 간단하게 자기 생각 쓰기
3	개인 학습	읽기-논술	2~3	① 주제 제시하기 ② 간단하게 자기 생각 쓰기 ③ 함께 마인드맵하기 ④ 주제 관련 심화 읽기 자료 각자 읽기 ⑤ 학습지에 제시된 확인 차원의 질문이나 사고 확장 차원의 질문 등에 답하기 ⑥ 논술하기
4	모둠 학습	읽기-토론-논술	3	① 주제 제시하기 ② 간단하게 자기 생각 정리해보기 ③ 함께 마인드맵하기 ④ 주제 관련 심화 읽기 자료 각자 읽기 ⑤ 학습지에 제시된 확인 차원의 질문이나 사고 확장 차원의 질문에 답하기 ⑥ 토론 팀 나누고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⑦ 토론하기 ⑧ 논술하기

⇒ 개인별 학습 형태로 진행하는 <읽기-논술>의 예는 [부록 3] 참고

⇒ 모둠별 학습 형태로 진행하는 <읽기-토론-논술>의 예는 [부록 4] 참고

위와 같은 방법 중에서 단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토론 후에 논술을 하게 되는 4번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아무리 심화된 양질의 읽기 자료를 주더라도 학생들끼리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

고려 신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토론은 기본적으로 ‘말하기’ 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쓰기’ 인 논술보다 부담을 덜 느낀다. 또한 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신의 생각이 정립되지 못했을 때, 충분한 논거들을 마련하지 못하여 논술문 작성에 힘들어할 때, 토론은 친구들의 생각을 엿보고 나누며 사고를 키워가는 기회가 된다. 즉, ‘토론’ 은 본격적인 ‘논술’ 에 앞서 부담은 덜면서 사실 이해와 사고력 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물론 토론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논술을 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토론은 논술의 열개를 세우기 전에 단계적인 사고와 논박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주장을 정립하게 하므로 논술 쓰기에 있어 학생이 대면한 문제를 반 이상 해결해 준다. 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한 논술 수업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거나 글쓰기 훈련으로 단련된 상투적 논술을 극복하고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논술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 4. 주제 선정, 자료 준비보다 더 중요한 수업 준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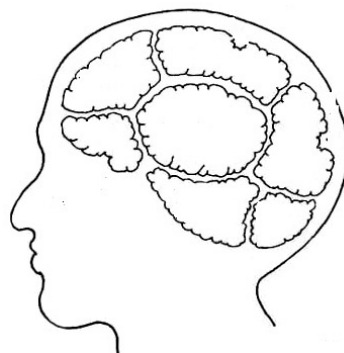
좋은 주제, 양질의 읽기 자료, 핵심을 찌르는 논술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사도, 학생도 부담을 느끼기 쉬운 토론-논술 수업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먼저 교사가 토론-논술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넘치는 에너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사고와 입을 열어, 토론과 글쓰기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도들이 반복될 때 좋은 논술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 가. 학생들의 머리와 입을 열어주자!

갑작스레 토론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기대감과 부담감을 갖는다. 다소 어색하지만 입을 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적절히 시기별로 사용할 수 있다.

#### 1) 나의 뇌구조를 보여 주며!

- ① 자신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도록 다음의 뇌 구조에 주제어를 쓰고, 부연 설명을 달도록 한다.
- ② 이름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교환하고, 학급의 어떤 친구의 뇌구조인지 유추케 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발표하게 해본다. 틀렸을지라도 설명이 나름대로 논리적일 경우, 상을 준다.
- ③ 학기 초에 사용해도 좋다.



2) 인터뷰 기사 작성하기

- ①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파악하기에 적당하고, 인터뷰 당하는 사람에게 매우 신선할 법한 질문들을 10개 정도 생각하게 한다.
- 예) 주말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가?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된 사이트는 어떤 것들인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3가지를 꼽는다면?
- ② 짝꿍, 앞뒤 사람들과 겹치지 않는 질문들, 신선한 질문들을 몇 가지만 골라 서로를 인터뷰하게 한다.
- ③ 인터뷰 결과와 답변에 미루어 볼 때 상대의 성격이 어떠한 것 같은지를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가 논리정연하고 어휘가 적당할 때, 상을 준다.
- ④ 논술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모둠끼리 친해질 시기에 사용하면 좋다.

3) 명탐정 나가신대!

문			걸레	휴지통	TV		과자 냉커피	핸드폰 충전	집중 사니
	이부자리							화장대	창 문
								책상	
	가방	책상	컴퓨터 서류	CD	옷걸이	옷장			

- ① 위와 같은 그림을 주고, 이 방 주인의 나이, 성별, 성격, 취미, 직업 등을 방 구조를 토대로 유추해보도록 한다. 정답은 없으므로 최대한 논리적인 근거들을 많이 들 수 있도록 독려한다.
- ② 다양한 답들과 그 근거들을 들어보고, 논거가 적당하고 표현이 좋을 경우, 상을 준다.

4) 소풍날, 효율적으로 놀아보기!

학교별로 자주 가는 소풍지의 내부 지도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나눠주고,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돌아다녀야 가장 효율적으로 놀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발표하게 한다.

**나. 아이들의 사고를 열고, 기다려 주자!**

**1) 자기 인식 시간 주기**

토론-논술 문제를 접하기 전에 온전히 혼자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통 수업에 대한 부담이나 주제에 교사가 몰입하다 보면 학생들이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자기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사고력이 신장될 기회도 적어지고, 추후에 토론-논술을 할 때 학생들이 혼란을 거듭할 수 있다.

**2)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정립했다고 해도, 특정한 한 부분만을 보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면들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교사가 함께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을 해주면 학생들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가 있다. 추후에 토론 개요서를 작성할 때도, 보다 쉽게 상대방에서 반박할 부분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반론 준비도 철저하게 된다.

**3) 처음에는 학교생활 문제들로 토론을 시작하자**

처음부터 교과 지식이 필요한 무거운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면 학생들은 흥미와 참여 의지를 잃기 쉽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들이 공감하는 학교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시작 단계의 토론 주제 예 \***

연번	논 제
1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가?
2	학급의 왕따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인가?
3	순수한 이타심에 의한 행동은 가능한가?
4	인터넷 친구도 친구로 볼 수 있는가?
5	이유 없이 좋아하거나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는가?
6	교육적 체벌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위와 같은 주제들은 대부분이 가치 논제에 해당하므로 이런 주제의 토론만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토론의 경험과 방법을 체득한 후에는 교과와 연계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을 경험하도록 한다.

**다. 토론의 두려움을 없애 주자**

**1) 토론 개요서를 문장으로 작성하게 하자**

선생님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을 하고 나면 학생들은 논제를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상태에서 같은 입장끼리 모여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그 자체가 미니 토론의 역할을

하게 된다.

토론 개요서를 작성할 때는 온전한 문장으로 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산재한 아이디어들이 사족은 제거되고, 핵심적인 논거들이 논리적인 위계를 가지고 배열된다.

### 2) 토론 개요서에 이유와 실례, 발언 순서를 메모하게 하자

토론 개요서에 주장에 대한 이유와 구체적 예에 대해서 적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꾸준히 지도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깊이 생각하게 된다. 또한 본격 토론 직전에는 토론 개요서를 살피면서 하나의 논거와 예마다 발언 순서를 메모하게 한다. 처음에는 다소 작위적이고 서툴러 보일 수 있으나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토론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그 순서를 지켜서 읽기만 해도 무리 없는 진행이 가능해진다. 최소의 발언 횟수만 지키고 나면 특정한 학생들이 더 많이 발언하더라도 상관없이 진행해도 된다.

### 3) 게임적 요소를 도입하자

토론에 게임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케 하는 동기가 된다. 찬반 토론의 승패를 가리는 방식, 유효 발언 및 논리적 반박 횟수 등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식, 토론 과정 전체를 배심원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다. 토론 논제에 따라 토론의 형식과 게임적 요소 또한 변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모듈별 평가를 누적하는 수업 방식에서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라. 글쓰기의 막막함을 덜어주자

글쓰기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단계적으로 해결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1) 좋은 문장을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자

글의 핵심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논술 훈련이 된다고 한다. 신문의 칼럼이나 각종 기고, 양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학생들이 단락별로 요약하거나 전체 600자로, 전체 3문장으로 다양하게 요약해 보는 연습을 하게 한다.

### 2) 글쓰기를 단계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자

처음부터 800자 이상의 통글쓰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과 같이 글쓰기의 단계를 마련하여 글쓰기의 기초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배려한다.

\* 글쓰기 지도 방안의 예 \*

차시	주 제	학 습 내 용
1	논술이란? 개요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지 사용법</li> <li>• 모방하여 쓰기</li> <li>• 요약 연습(수시로 실시)</li> <li>• 문장 개요 짜기 연습(수시로 실시)</li> </ul>
2	문장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이해하기</li> <li>• 주술 / 성분 / 수식 등 호응하는 문장 쓰기</li> <li>• 간결한 문장 쓰기</li> <li>• 단락 구분하기</li> </ul>
3	단락 쓰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성 있는 단락 쓰기</li> <li>• 대립-동의-전환의 의미 있는 보조 단락 쓰기</li> <li>• 본론→서론→결론 쓰기 방법 및 실제</li> </ul>
4	단락 쓰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보고 글 완성하기</li> <li>• 부분 단락 써서 글 완성하기</li> <li>• 통글 쓰기(400자→600자→800자→1000자)</li> </ul>

3) '통글 쓰기' 보다는 '문장 개요 짜기'에 주력하자

통글 쓰기는 학생들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교사에게도 첨삭 지도의 부담이 크다. 그러나 논제에 대해 '문장 개요 짜기'를 하면 학생 부담 및 교사의 첨삭 부담 또한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수사적 표현 능력이 아닌 오로지 사고의 논리성과 합리성, 체계성에 대해서만 주목하게 되므로 '사고력 신장'을 목표로 한 토론-논술 교육의 최종 결과물로서도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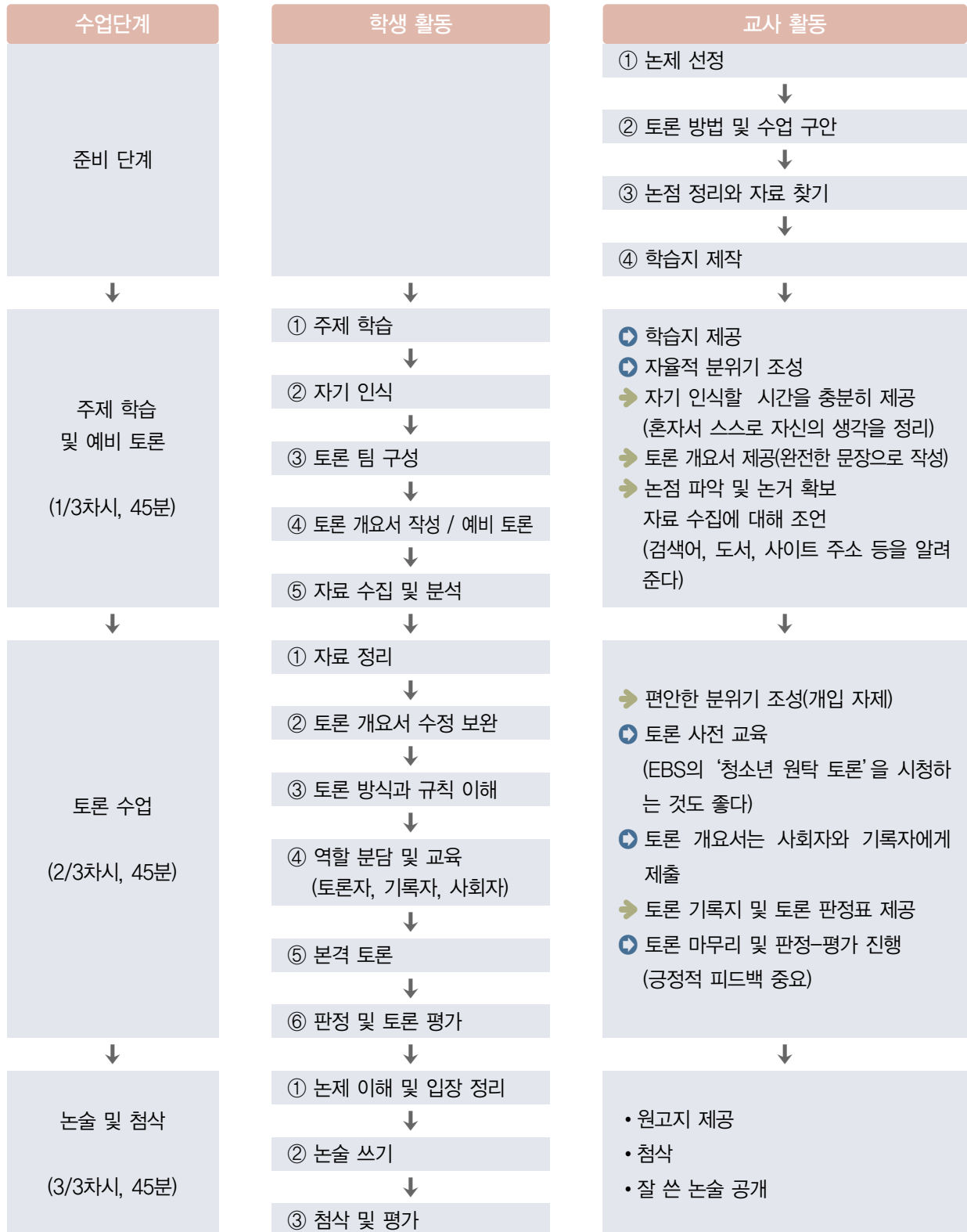
4) 잘 쓰여진 글을 공유하자

자세한 첨삭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이 쓴 글에 대해 교사는 반드시 읽고, 대강의 수준이라도 나누어 3수준 평가, 5수준 평가라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잘 쓰여진 글 한두 편을 골라 학생들이 모두 읽어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은 자기 글이 좋은 점수를 받아 공개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부분이 잘 쓰였는지 읽어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5. 부록

### 〈부록 1〉 토론·논술 수업의 구성 및 교사-학생 활동



## 〈부록 2〉 문장 개요 작성 양식의 예

<p><b>논제</b> (제시된 주제, 질문)</p>	<p>* 제시된 논제를 정리하여 다시 쓰거나 자신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고쳐 씁니다.</p>
<p><b>논지</b> (나의 주장)</p>	<p>* 자신의 생각이나 잠정적 결론을 간단히 메모해 둡니다.</p>
<p><b>논거-본론</b> (근거, 이유, 자료 제시)</p>	<p>* 근거와 이유, 부연 설명 거리,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생각해본 후 논리성이 살아나도록 근거들을 정리하여 문장으로 서술합니다.</p>
<p><b>서론</b></p>	<p>* 본격적인 글을 전개하기 전에 논제나 자신의 입장을 소개하는 정도로 작성합니다. 논제에 따라 문제의 정의, 심각성, 실제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글의 방향을 알리는 역할을 하되, 너무 고루하지 않게 쓰다면 좋겠습니다.</p>
<p><b>결론</b> (나의 주장 활용)</p>	<p>* 단순히 본론을 요약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요약과 함께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간단히 언급한다거나, 전망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서론에서 언급한 이야기를 결론에서 다시 마무리하며 언급해도 됩니다. 다만, 결론에서 새로운 정보를 준다거나 본론에서 주장한 것을 흐트러뜨리는 애매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p>

〈부록 3〉 개인별 학습 〈읽기-논술〉의 예

##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 다시 보기

▶ 관련 단원 : 중 2 사회. I. 유럽 세계의 형성 (수준 : 중)

(가) 그리스 반도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산지가 많아서 커다란 도시가 형성되기 힘들었다. 때문에 그리스 반도에는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테네는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해 번영을 누렸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과 상공업을 통해 부유해진 평민들이 많이 나타났고, 해외에서 노예도 많이 유입되었다.

B.C. 508년 집정관에 선출된 클레이스테네스는 귀족의 독세와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면서 안정된 민주 공화정을 수립하고자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따라서 권력은 시민들의 모임인 민회가 중심이 되었고 그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다. 민회에는 20세 이상의 아테네 성인 남자 - 보통 성인 남자는 3만에서 4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나 무역일로 해외에 나간 사람들도 있어서 평상시 민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1만명 정도였다고 한다 - 라면 누구나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국가의 최고 기관인 민회는 해마다 몇 차례 소집되었다. 전쟁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것도, 외교관계를 맺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의하는 것도 민회에서 이루어졌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민회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부 부처와 비슷한 조직까지 만들었다. 오백인 회의라고 불리는 기관인데 재산이나 재능과는 관계없이 제비뽑기에 의해 추천된 500명으로 구성된 기관이었다고 한다.

(나) 도편추방제가 만들어진 지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의 일이다. 해마다 열리는 도편추방 투표장에서 아테네 정계의 거물이기도 했던 아리스티데스에게 한 사내가 말을 걸었다. 그 사내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왔는지, 상대가 아리스티데스인 줄도 모르고 말을 건 모양이다. 사내는 도자기 파편을 내밀면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여기에 아리스티데스라도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글씨를 쓸 줄 몰라서 말입니다."

아리스티데스는 그 사내한테 아리스티데스라는 인물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다.

"아뇨.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다만, 아리스티데스는 위대한 인물이라니 정의의 사도라느니 하는 말을 하도여 기저기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다 보니까 진저리가 나서요."

아리스티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내가 내민 도자기 파편에 자기 이름을 써서 돌려주었다. 그 해에 아리스티데스는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

그런데 3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그는 아테네로 불러왔다.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귀국한 아리스티데스가 총사령관인 데미스투클레스와 협력하여, 아테네가 앞장서서 싸운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데미스투클레스도 그 후 도편추방의 희생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원전 417년에 폐지되었다. 도편추방이 국익에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테네인들도 깨달았는지 모른다.

-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1]에서 -

1. 제시문 (가)를 읽고, ①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과 ②그와 같은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었던 원인을 공간적, 사회적 측면에서 서술해 보자.
2.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도편 추방제'의 한계점과 위험성을 서술해 보자.

〈부록 4〉 모둠별 학습 〈읽기-토론-논술〉의 예

## 햄버거 커넥션(Connection)

- 쇠고기와 인간, 그리고 지구 -

- ◎ 햄버거, 쇠고기... 좋아하세요?
- ◎ 경제 성장, 문명의 발전과 환경 보존의 대립
- ◎ 환경을 지키기 위해 편한 것,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 관련 단원 : 중 3. V. 자원 개발과 공업 발달 (수준 : 상)

### Warming Up

### 햄버거... 좋아하세요?



▶ 위의 그림들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유추해봅시다.



**활동 Tip.** 주제 워밍업 시간에 동기 부여를 위해 다양한 그림이나 동영상(EBS 지식 e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다가가기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의 수는 12억 8천 마리로 추산된다. 소의 사육 면적은 전 세계 토지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은 수억 명을 넘어서 살릴 만한 양의 곡식을 먹어치우고 있다. 소의 무게를 전부 합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무게를 능가한다.

소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지구의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6대륙의 거주지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그 무엇보다 소의 증가는 현재 남아있는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중앙 및 남아메리카의 수백만 평에 달하는 열대우림 지역이 소 방목용 목초지로 개간되고 있다. 또한 소 방목을 사하라 이남 및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목장 지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의 원인이다. 과잉 목축으로 인해 4대륙에는 메마른 불모지가 생겨나고 있다. 나아가 사육장에서 흘러나온 축산 폐기물이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소가 내뿜는 메탄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가스로서 지구 대기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소는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전체 곡식의 1/3을 먹어 치우고 있는 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농토가 생계용 양식 곡물 생산에서 상업용 사료 곡물 생산으로 전용됨에 따라 수많은 농부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다. 인간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지만 소와 다른 가축들은 실컷 곡물을 먹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격렬한 정치적 분쟁이, 북반구의 산업화된 국가들과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적대감이 움트고 있다.

수백만 명의 인간들이 곡식이 부족해 기아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선진국에서는 사료로 사육된 육류, 특히 쇠고기 과잉 섭취로 인해 생긴 질병으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인, 유럽인, 일본인들은 곡물로 사육된 쇠고기를 탐식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풍요의 질병’, 즉 심장발작, 암, 당뇨병 등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에서 발췌 -

- ① 쇠고기를 먹는 것은 나쁜 것일까? 왜 과거에는 소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 ② 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현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소를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④ 위 글에서 과도한 육식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 ⑤ 과도한 육식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활동 Tip.** 주제 관련 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질문과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 질문을 제시한다.

## 깊이 보기

## 경제 성장, 문명의 발전과 환경 보존의 대립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년 경제 성장 논리, 문명의 발전 논리, 인간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의 논리에 의해 가로막힌다.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바다를 메워 육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을 계속해 왔다. 또한 천연 자원이 부족해 전기 공급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농지를 제공하고 서해안 교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새만금 간척 사업은 경제적 이익이 크다.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 더 짓고 핵 폐기장을 건설하면 석유 수입을 줄여도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갯벌이 없어지면 바다를 정화하는 역할을 대신할 것이 없어지고, 많은 갯벌 생물들이 사라질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수십 년 후에 폐기해야 하므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할 것이고, 발전소와 폐기장은 지진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이미 일본에서는 갯벌을 간척하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용이 크다고 판단해, 갯벌 살리기 사업이 한창이다.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sup>36)</sup> 사건 이후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 나가고 있다. 심지어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길러지는 엄청난 양의 소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리며, 의식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아픔을 초래하고, 지구 환경을 파괴한다.

간척과 갯벌 보존, 핵 발전과 폐기, 쇠고기의 대량 소비와 소량 소비. 둘 중 어느 것이 가치가 높은 것인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해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낫다. 그리하여 경제 성장 및 인간의 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자연의 개발과 미래의 지구를 위한 환경 보존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지속 가능한 개발,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적 합의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 각국은 무분별한 개발이 인류 공동의 터전인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회의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채택되었다.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개발 방식에 합의한 것이다. 지금 충분하다고 해서 마구 나무를 베고 석유를 파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사용할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36)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 : 1986년 4월 26일 오후 1시 23분,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다. 폭발과 함께 원자로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방사능 가스와 물질을 4.5km의 상공으로 날아갔다. 발전소에서 일하던 직원이 현장에서 죽었으며, 그 후 29명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어 목숨을 잃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수만 명에 달한다.



또한 세계 각국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공업의 발달로 인해 지구의 대기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이른바 '온실 기체'가 크게 증가했다. 이 기체들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이와 같은 효과가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2100년에는 해수면이 50cm 이상 올라간다. 해안 지방이 점차 바다에 잠기는 것이다. 또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이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며, 강수량이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여름 태풍이 갈수록 강해지고 집중 호우가 자주 오는 것을 자연 재해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 기체 방출량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가입국들은 1997년 '교토 의정서'를 마련했다. 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1990년 방출량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001년 '기후변화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여러 개발도상국들도 산업 발전과 양립할 수 없는 환경 협약들에 난감함을 드러내고 있다.

### 생각해 보기-토론하기

1.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협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2. 미국이 환경 보존을 위한 각종 협약에서 탈퇴한 이유는 무엇일까?
3. 개발도상국은 환경 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논제1〉 여러 환경 협약들이 지금까지 지구를 심각하게 파괴했던 선진국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선진국들은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환경 기술을 갖고 있는데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 협약이 선진국의 환경산업 돈벌이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음을 읽어보자.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 우림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 브라질이 열대 우림을 개발하는 이유는 식량 자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세계 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기 나라의 식량 자급을 줄여야 한다면 누군가가 보상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은 세계 환경을 위해서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는 말만 할 뿐, 실질적인 대안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치 1년에 1억 버는 사람이 1년에 2000만원 버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는 격이다.

위의 글을 참고로 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와 '심각한 세계 빈부 격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토론해 보자. 각 경우마다 선진국, 후진국, 전 세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활동 Tip.** 보다 심화된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폭넓은 사고를 유도하고, 토론할 때 짚어보아야 할 부분들을 질문으로 제시한다.

논제 2) 과학 기술은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까?

▶ “예”라면 왜 그런가요? - 과학기술주의의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아니오”라면 왜 그런가요? - 생태주의의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나와 같은 입장을 가진 친구들과끼리 모여 다음의 토론 개요서를 작성해 보자.

① 자기 팀의 입장 (입론)

② 입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

1. \_\_\_\_\_

2. \_\_\_\_\_

3. \_\_\_\_\_

③ 예상되는 상대측의 논거

④ 상대측의 문제점 (논거상의 약점, 결함)

⑤ 예상되는 반론

⑥ 반론에 대한 대책



**활동 Tip.** 실제 토론 논제를 주고, 각 입장의 주장과 한계점 등을 혼자서 생각해보게 한다. 후에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토론 개요서를 작성한다. (주제의 난이도에 따라 토론팀에게 참고 자료를 주면 좋다.)

**글쓰기 과제**

※ 다음 논제 중 하나를 택하여 쓰시오. (원고지 상단에 이름과 논제를 적을 것)

- ① 복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쇠고기 소비를 줄일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작성하라. (과도한 육식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지구 환경 및 인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것, 900자±90자)
- ② ‘교토 의정서’와 같은 국제적 환경 협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라. (500자±50자)
- ③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 (1000자±100자)
- ④ 환경 보존에 대한 관점 중 기술주의와 생태주의 중 하나를 택하여 자기 입장을 논술하라. (1200자±100자)



**활동 Tip.** 학생들의 수준 및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토론 내용을 생각하여 논술 주제를 선정한다.



# 수학과에서의 논술 지도

이 환 철(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교사)

- 1. 수학에서의 논술
- 2. 수학에서의 논술 예시 (1)
- 3. 수학에서의 논술 예시 (2)
- 4. 교실 수업에서의 논술 준비

## 1. 수학에서의 논술

현재 수학과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2006년 8월 29일,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어 현재 교과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개발되는 교과서는 2009년 중1, 고1 학생들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개정된 교육과정이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수학과 교육과정 목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제7차 교육과정	개정된 교육과정
수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수학적으로 고찰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른다.

제7차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실생활이라는 부분이 크게 강조되었다. 따라서 단원명에 함수와 실생활, 방정식과 실생활 등이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실생활이 강조되면서 조금은 억지스런 실생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역효과(?)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실생활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식이 될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새로 나올 교과서에는 수학적 의사소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수학 수업의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이란 말 그대로 수학 시간에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과정들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에서 중요하게 강조될 것이 논리적 근거에 따라 의사소통하는 것이

며 이는 곧 논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의사소통이 모두 논술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논술이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논술이란 무엇이고, 수학에서의 논술이란 무엇일까?

논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한 논증을 통한 글쓰기이며, 수학에서의 논술이란 수학적 문제에 대한 논증을 통한 글쓰기라고 한다. 우리가 주목할 수학에서의 논술의 의미가 이리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학에서 논술 문제가 어떤 것이냐 그 예를 보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수학에서도 논술이 필요하다면 서로의 고민점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중학교 수학에서 할 수 있는 논술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도해왔으며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서술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 개진이 보다 많은 분들에 의해 논의를 거치고 실제 적용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나은 수학 논술 지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2. 수학에서의 논술 예시 (1)

현재 중학교 수학과 논술 자료 중에서는 지난 2006년에 발간된 「논술 읽기 자료」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학년별 5개씩 총 15개의 수학과와 관련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1학년	2학년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의 신비</li> <li>• 수학자들의 묘비</li> <li>• 달력 속에서 찾아보는 수학</li> <li>• 유클리드와 기하학 원론</li> <li>• 수학은 엄밀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 기호의 발달과 필요성</li> <li>• 거리-시간-속력과의 관계</li> <li>• 설록 흠스의 추리</li> <li>• 큰 수 간단히 나타내기</li> <li>• 수학과 도박 '공생 쌍곡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고현의 정리와 피타고라스의 정리</li> <li>• 피라미드 속의 수학</li> <li>• 챌린저호 폭발 원인은 통계의 오판</li> <li>• 농구 게임과 동전</li> <li>• 수학의 패러독스</li> </ul>

이러한 수학과 논술 읽기 자료는 배경 설명, 읽기 자료, 생각 나누기, 논술 연습하기, 더 나아가 읽기, 예시 답의 순서로 되어 있다.

다음은 수학과 논술 읽기 자료의 하나의 예시 자료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 수학 기호의 발달과 필요성

### 배경 설명

우리는 수학 시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수학 기호들을 접하고 있다. 이들 수학 기호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말과 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수학 기호들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어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 읽기 자료

+, -, ×, ÷, =, 이 5개의 기호는 초등학교는 물론 학력 전 어린이들까지도 개별적으로 그 의미와 사용 방법을 알고 있으며 고등수학에서도 없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이 기호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럼 이 기호들이 어떤 유이곡절을 겪어 왔는가?

고대 그리스와 인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두 숫자를 나란히 써서 덧셈을 나타내었다. 이를테면  $3 + \frac{1}{4}$  을  $3\frac{1}{4}$  로 썼다. 지금도 대분수 표기에서 이런 표기법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뿔셈에 대해서는 두 숫자를 띄어 놓는 방법으로써 나타내었다. 이를테면  $6 \frac{1}{5}$  은 곧  $6 - \frac{1}{5}$  라는 뜻이다.

### 생각 나누기

1 수학 기호인 +, -는 어떠한 이유로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2 덧셈, 뺄셈 기호는 덧셈, 뺄셈 기호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거쳐 근세에 이르러서야 그 기호가 +, -로 통일되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표현 방법으로 사용되었을에도 결국에는 하나의 통일된 기호로 사용되게 된 이유에 대해 추측해 보고,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자.

3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 기호들 중 영문자를 본뜨거나 도형의 모양을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학 기호들을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보자.

### 논술 연습하기

#### 문제

1. 순환소수 2.714714714...을 간단히 표현할 때 우리는 순환마디의 처음과 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 2.714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만약 이러한 표현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보자.

2. 기호를 사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좀 더 간단히 나타내어 그 편리함을 맛보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도 흔히 사람들에게 숫자로 번호를 붙여 그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이러한 예를 하나 들고, 그 장단점에 대해 서술해 보자.

### 더 나아가 읽기

#### 기호가 없다면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초보 단계에서부터 문자를 많이 접하게 된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  $x$ 라든가  $x^2$ ,  $x^3$  등의 기호를 만나게 되므로 곧 익숙해져서 문자의 편리함과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사실 고맙기는커녕 오히려 귀찮고 지겨울 때가 많을 것이다. 점점 더 깊이 배울수록 복잡하고 생소한 기호들이 등장하여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자 혹은 기호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수학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호는 엄청나게 많다. 각 나라의 말도 일종의 기호라 할 수 있고, 기리의 교통 표지판, 지도상의 특정 표시에서부터 심지어 음악의 악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약속된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만일 이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불편할까.

이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다.

### 예시 답

#### 기호의 발달과 필요성

##### 생각 나누기

1. 수학기호는 개인의 소유물, 즉 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것 같다. 곡식을 외상으로 빌리면 그 수량을 기록해놓거나 또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관리하는 등 개인의 이익과 관련해서 수학기호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2. 수학의 모든 기호들은 가장 편리하고 간단하게 발전되기 마련이다. 옛날에는 다른 나라간의 교류가 발달하지 않아서 나라마다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사용되다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여러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가장 간단하고 쓰기 편리한 기호로 통일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영문자를 본 뜬 것에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in$ (Element), 합집합을 나타내는 연산 기호  $\cup$ (Union), 여집합을 나타내는 연산 기호  $C$ (Complement), 닮은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sim$ (Similar) 등이 있다. 또 도형의 모양을 축소하여 나타내는 것에는 삼각형을 나타내는 기호  $\Delta$ , 사각형을 나타내는 기호  $\square$ , 각을 나타내는 기호  $\angle$  등이 있다.

##### 논술 연습하기

1. 2.714를 쓸 때면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점을 찍는 것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실수로 찍은 것과 혼동되기 쉽다. 가장 간단하게 이런 단점을 해결하면서도 기존의 표현법과 비슷하게 하려면  $\overset{\circ}{2}.7\overset{\circ}{1}4$ ,  $\overset{\circ}{2}.7\overset{\circ}{1}4$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반복된다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면  $\overset{\circ}{2}.7\overset{\circ}{1}4$  등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 요즘 우리는 자료가 물론 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숫자화해서 편리함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번을 매겨서 학생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다. 학생들의 학번은 학생들을 쉽게 부르고 분류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잘못될 염려도 적다. 사람을 숫자 하나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커다란 편리함이다. 하지만 불리는 입장에서서는 이름이 아닌 숫자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식된다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다. 숫자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 줄 뿐, 어떤 사람에 대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누군가라는 것을 말해준다. 요즘은 편리함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간과하기도 한다. 우리는 편리함과 인격존중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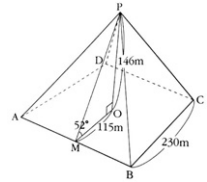
이 중 문제를 직접 푸는 것에는 생각 나누기와 논술 연습하기가 있다.

생각 나누기는 읽기 자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로 읽기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작되었다. 논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논술과 토론식 수업은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생각 나누기는 논술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 틀림없다.

생각 나누기에 이어 논술 연습하기는 말 그대로 논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과 특성상 언어, 사회 영역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수식으로 써나가는 논술이 필요할 때가 있다. 따라서 논술 연습하기 문항에는 수식이 포함된 문장으로 해결하는 문항과 수식이 포함되지 않은 문장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문항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제시하였다. 다음은 수식이 포함된 문장으로 해결하는 문항의 한 예이다.

문  
항

오른쪽 그림에서  $\overline{PM}$ 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하여 구하고,  $\overline{PB}$ 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하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서술해 보자.



또한 생각 나누기와 논술 연습하기의 구분을 지을 때, 생각 나누기는 3줄 내외로 답을 작성할 수 있는 문항으로, 논술 연습하기는 10줄 내외로 답을 작성할 수 있는 문항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이러한 생각 나누기, 논술 연습하기의 구분에 앞서 중요한 것은 역시 문제의 문장 서술에 있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즉, 문제가 무엇을 묻는 것인지를 학생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시하여 상호 검토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검토하였다.

### 3. 수학에서의 논술 예시 (2)

중학교 수학과 논술에서 필요한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요약하기’ 단계를 지도하게 되는데, 반드시 내용을 몇 글자나 몇 줄로 요약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해 보거나 중요한 단어들을 나열해 보는 것도 내용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읽기 자료 속에 포함된 수학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학과와 논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읽기 자료 속에 포함된 수학적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들을 다뤄보고 이를 확장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숨겨진 수학 찾기’ 라는 단계는 이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중학교 수학과 독서 및 논술 지도 프로그램 개발」 자료가 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6명이 각각 1개의 도서를 정하고 그 도서 중 3개의 주제를 정해서 각 주제별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만들었다.

차시	내용	비고
〈1차시〉 내용 이해하기	책에 대한 이해 수학적 개념의 확인 단계	수학과 독서 교육
〈2차시〉 숨겨진 수학 찾기	책의 수학적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 문제해결 확장 단계	수학과 문제 해결력 신장 교육
〈3차시〉 논술 연습하기	책 속의 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소재를 찾고 글 쓰는 단계	수학과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및 논술 교육

다음의 예시 자료는 그 중 하나인 「밥상 위의 수학」(이광연)이라는 책을 기본으로 하여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적은 것이다.

### 가. 1차시



우선 수업을 시작하면서 책의 지은이인 이광연 교수님과 인터뷰 내용을 들려주었다.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이 책이 가지는 특징, 이 책을 읽고 나서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 이 책을 읽는 중학생 독자들에게 하고픈 한 마디)

인터뷰에 이어 선정 도서 중 2차시에서 수학적으로 좀 더 살펴볼 내용을 찾아 읽게 하였다. 그 양은 10페이지 내외로 1차시 동안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정했다.

읽은 내용은 오른쪽과 같은 활동지에 직접 정리해 보게 하였다. 정리의 방법은 오른쪽과 같이 직접 글로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직접 책에 있는 내용대로 만들어 보는 것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하였다. 다음은 내용 이해하기의 다양한 형태의 예들이다.

#### 제1차시 내용 이해하기

본 주제는 미술사의 미술하는 과정과 그 미술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다. 1에서 8까지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 미술하는 과정을 잘 읽어보고, 그 과정을 여러분이 미술사라고 생각하고 관객들에게 하는 말로 고쳐서 써 보자.

- 1.
- 2.
- 3.
- 4.
- 5.
- 6.
- 7.
- 8.

#### 제1차시 내용 이해하기

색종이를 이용하여 책에 주어진 방법으로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을 직접 접어서 아래의 여백에 붙여 보자.

#### 제1차시 내용 이해하기

① 본 주제는 포켓볼 게임을 이용하여 유리수와 무리수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읽은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5개~10개 적어보자.

② 인상 깊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피타고라스와 무리수

1차시에 대한 교사용 지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교사용 지도 자료는 크게 활동 지도, 지도상의 유의점, 참고 자료, 예시답, 학생 활동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교사용 지도 자료**

관련단원 | 중학교 1학년 문자와 식

**1. 활동지도**

(1) 제시된 활동지를 나눠주고, 미술사가 되어 관객들을 향해 하는 말을 써 보게 한다. 책에 제시된 8개의 과정을 각각 실제 말하는 문장으로 써보게 한다.  
 (2) 시간은 약 10~20분을 주도록 하고, 요약 정리 후 피망자가 직접 자신이 정리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10여 분 갖는다.

**2. 지도상의 유의점**

(1) 학생들이 미리 읽이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한다.  
 (2) 미술을 과정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 봄으로써 그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  
 (3) 상 수준의 아이들에게는 66, 67쪽을 보여주지 않고 2차시의 1. (1)을 진행한 후 보여줘도 좋다.

**3. 예시답**

1. 오늘의 미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눈을 이 수건으로 제 눈을 가려 주실 문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2. 이 앞에 놓인 바둑들은 어떠한 표시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3. 자, 이 통에서 바둑들을 원하는 만큼 꺼내신 후, 같은 개수로 세 무더기를 만들어 주세요.  
 4.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왼쪽 무더기부터 차례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5. 각각 A, C무더기에서 3개씩을 B무더기로 옮겨주십시오.  
 6. A무더기를 없애주십시오.  
 7. C무더기에 있는 바둑들의 개수만큼 B무더기에서 빼주시고, C무더기도 없애주십시오.  
 8. 남은 B무더기에서 원하는 만큼 바둑들을 집어주세요. 몇 개입니까? 4개라고요? 네 그럼 남은 바둑들은 5개이겠네요. 맞습니까?

**<학생 활동 자료>**

1. 먼저 제가 두들어왔답니다.

2. 자정 바둑들에 발은 표가 없지 않았을까요?

3. 아예 세마를 바둑들에 세마의 바둑의 개수는 개보다 많아감다 2번의 바둑들의 수 같아감다.

4. 그림 세마를 왼쪽부터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5. A와 C무더기에서 각각 바둑 3개씩 B무더기로 옮겨주세요.

6. 그림 세마를 없애주세요. 그림 B와 C무더기 없애주세요.

7. 아예 B무더기에서 C무더기의 개수만큼 바둑들을 빼주세요. 그림 C무더기까지 없애주세요.

8. 가미 B무더기 밖에 남지 않았죠? 그림 B무더기에서 자기의 원하는 개수만큼 바둑들을 집어주세요. 몇 개입니까? 음.. 음.. 대략위에 놓아있는 바둑들의 개수 5개입니다.

**나. 2차시**

2차시는 숨겨진 수학 찾기로 선정 도서 중 수학적으로 좀 더 해석해 볼 만한 내용을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탐구해 보는 시간이다.

우선 오른쪽과 같은 활동지를 주고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학생들의 작성한 내용은 조별 토론을 거쳐 발표하였고,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시간이 남을 경우를 대비해 교사용 지도 자료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한 문제들이 실려 있어 이를 활용하여 충분히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다음은 교사용 지도 자료에 제시된 추가 자료이다.

### 제2차시 숨겨진 수학

1. 다음 글은 제1차시에서 학생이 작성한 글 중 하나이다. 이 내용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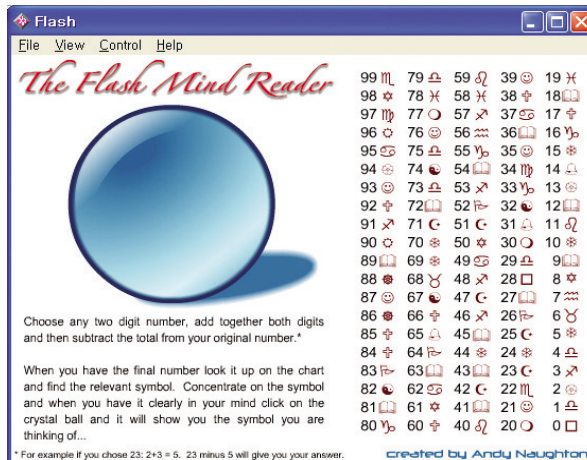
1. 오늘의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눈을 이 수건으로 제 눈을 가려 주실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2. 이 앞에 놓인 바둑돌에는 어떠한 표지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3. 자, 이 통에서 바둑돌을 원하시는 만큼 꺼내신 후, 같은 개수로 세 무더기를 만들어 주세요.
4.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왼쪽 무더기부터 차례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5. 각각 A, C 무더기에서 3개씩을 B 무더기로 옮겨주세요.
6. A 무더기를 없애주세요.
7. C 무더기에 있는 바둑돌의 개수만큼 B 무더기에서 빼주시고, C 무더기도 없애주세요.
8. 남은 B 무더기에서 원하는 만큼 바둑돌을 집어주세요. 몇 개입니까? 4개라고요? 네 그럼 남은 바둑돌은 5개이겠네요. 맞습니까?

- (1) 마술사가 마지막에 5개라고 말한 이유를 문자를 사용하여 설명하여라.
- (2) 5번 과정에서 각각 4개의 바둑돌을 B 무더기로 옮기는 것만 바꾸고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면 마지막에 마술사는 몇 개라고 말했는지 문자를 사용하여 설명하여라.
- (3) 5번 과정에서 각각 개의 바둑돌을 B 무더기로 옮기는 것만 바꾸고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면 마지막에 마술사는 몇 개라고 말했는지 문자를 사용하여 설명하여라.

### 다. 3차시

3차시는 논술 연습하기로 앞의 1, 2차시에서 마술에 관한 내용을 진행해 왔기에 마술에 관해 논술을 써 봐도 좋을 거라는 판단 하에 만들어진 문제이다.

학생들은 직접 작성하기 전에 조별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이에 직접 자신의 의견을 논술로 써본 후 다시 조별로 자신이 적은 논술을 읽어 보았다. 상대방의 글을 읽고 다시 토론을 한 후 자신의 글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교사는 개개



수를 생각하라. 그 수에서 각 자리의 합을 빼라. 어떤 모양과 대응하는가? 모두 같은 모양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다음 선생님과 윤철이의 대화이다. 대화의 마지막에 선생님이 “무조건 네가 나온 값에서 6을 빼면 네가 생각한 수가 나오지?”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문자를 사용하여 설명하여라.

- 선생님 : 윤철아, 두 자리 자연수를 생각해 보라.  
 윤 철 : 예, 생각했어요.  
 선생님 : 그럼 십의 자리의 수에 5를 곱하고 3을 더해봐라. 그리고, 그 더한 값에 다시 2를 곱하고 처음 생각한 수의 일의 자리의 수를 더해라. 그럼 몇이니?  
 윤 철 : 예, 88이요.  
 선생님 : 그래 그러면 생각한 수는 82겠구나.  
 윤 철 : 어, 어떻게 맞았어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 무조건 네가 나온 값에서 6을 빼면 네가 생각한 수가 나오지? 지금부터 이유를 알아볼까?

### 제3차시 논술 연습하기

1. 마술에 대해 예술의 하나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가하면 단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있다. 자신의 생각을 논거를 들어 설명해 보아라. 참고로 다음은 마술, 예술, 눈속임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적은 것이다.

- 마술 :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수 따위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여 보이는 술법  
 예술 :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눈속임 : 남의 눈을 속이는 짓

- 국립국어원

인의 논술에 대해 침삭을 하지 않고 각 조별로 선정된 글을 발표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술사 이은결의 인터뷰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논술 연습하기는 수학을 이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해보는 수리 논술적인 문제와 전 교과에 걸쳐 있는 내용인 통합논술적인 문제들이 각 도서와 주제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논술 연습하기 문제의 다른 예들이다.

### 제3차시 논술 연습하기

다음 글의 (가)는 수학자 데카르트가 제시한 문제해결 사고패턴이고, (나)는 [모든 것은 단순화할 수 있다]의 내용 중 일부로 퍼즐문제를 수학적 원리와 관련지어 탐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를 이용하여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써 보아라.

가) 데카르트는 모든 문제는 동일하고 보편적인 '수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방법을 그는 '보편수학' 이라고 불렀다. 그가 제시한 문제 해결 사고패턴은 다음과 같다.

- ① 어떤 문제이든 수학적문제로 환원하라.
- ② 어떤 수학적문제이든 대수문제로 환원하라.
- ③ 어떤 대수문제이든 한 방정식의 풀이로 환원하라.

[참고] '대수문제' 는 쉽게 방정식이나 부등식과 같은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 단순한 계산이나 정해진 절차를 따라 가는 것처럼 보이는 퍼즐 문제도 그 이면에는 그 자체로 수준 높은 수학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한 예로 영화 <다이하드 3>의 주인공 매클레인은 저울폭탄의 폭발을 막기 위해, 저울 위에 4갤런의 물을 올려 놓아야 하는 데, 주어진 3갤런과 5갤런들이 물통을 이용하여 정확히 4갤런을 만들어 폭발을 막는다. 이 퍼즐 문제의 해법은 수학적 원리-최대공약수의 성질-와 관련지어 좀 더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 제3차시 논술 연습하기

2. 다음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가) 다각형의 꼭지점에서 외각이란 180°에 대한 여각을 뜻한다. 학자들은 모든 다각형의 외각의 합이 360°라는 '외각(의 합) 불변법칙' 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원을 따라 한 바퀴 도는 것을 360°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나) 이러한 성질은 데카르트(R. Descartes, 1596-1650)에 의하여 다면체 등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볼록다면체에서 외각의 합은 720°'

(다) 곡률 보존법칙이란 몸매가 뛰어난 사람이나 맛있는 사람이나 나오고(+) 들어간(-)양을 모두 더하면 다 같은 것이다. 풍선의 한쪽을 눌러 납작하게 하면 어딘가 다른 곳이 볼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와 같은 전(全)곡률은 지구처럼 큰 구면이던지, 오이처럼 길쭉한 구형이던지 상관없이 모두 이다. 볼록다면체의 외각의 합이 720°(즉,  $4 \times 180^\circ$ )인 것처럼.

- 출처 : 수학으로 과학보기 (김홍중 저)

저자는 제시문 (나)에서 설명한 볼록다면체의 '외각 불변의 법칙' 을 제시문 (다)에서는 '나오고 들어간 모든 물체' 에 적용하여 '곡률보존법칙' 이 성립한다고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로 유추할 때 제시문(가)에서 설명한 볼록다각형의 '외각 불변의 법칙' 이 오목다각형에서도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목다각형에서 '외각 불변의 법칙' 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오목사각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라.

## 4. 교실 수업에서의 논술 준비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예시 자료 모두 중학교 수학과 논술 자료로서 좋은 자료이지만 정규 수업 시간에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규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논술 지도를 하는 것이며,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키우는 방법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첫째, 수업 시간에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를 부르는 문제 상황을 만들고, 그러한 발문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두 실수 3과 7 사이의 실수 3개를 말해 보자.”

- 이 발문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은 모두 4, 5, 6이다. 일단 사고를 여는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② “두 실수 3과 4 사이의 실수 3개를 말해 보자.”

- 각종 대답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때, 소수로 제한해 볼까? 분수로 제한해 볼까? 무리수로 제한해 볼까? 정도의 추가 발문을 통해 아이들의 다양한 답을 정리하여 본다. 자기 나름의 방법들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③ “두 실수  $\frac{1}{2}, \frac{2}{3}$  사이의 실수 3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설명해 보자.”

- 이 발문이 진행되면서 조별로 자신들의 방법을 토론해 보고, 토론된 결과에 따라 실수 3개를 써보고 이후 자신들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둘째, 수시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끝나기 전 1~2분 동안 오늘 수업에서 배운 것을 공책에 직접 정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 수업 시간 중간 중간에 학생들이 칠판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마인드맵 같은 형식이 주어진 것을 이용해도 좋지만 그날 배운 내용 중 중요한 용어만을 적어보게 하는 것도 좋다. 다만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조별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조원들끼리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을 서로 알게 되고 새로운 방법도 발견하는 계기가 되므로 조별 학습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이상으로 중학교 수학 시간에서 해볼 수 있는 논술 예시 자료들과 그 방법들을 언급해 보았다. 정말로 진도 다 나가면서 논술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들 것이다. 그러나 수업을 해 본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수업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느낄 것이다. 단지 논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학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수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수학의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이 수학 교육의 목표라 할 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 글의 내용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모범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과 의견 개진을 통해 좀 더 아이들에게 진정한 수학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참고로 다음 글은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에 게시는 박정일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논술문 작성 과정에 따른 수리 논술 수업 방안>이다.



1. 문제 이해 및 파악

- ① 사전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학습되어야 한다.
- ② 통합교과형 문제인 경우 다른 영역에 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 ③ 교사는 학생들에게 제시된 문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 ④ 학생들에게 문제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 ⑤ 복잡한 문제인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토론을 한다.

2. 가능한 해결책들의 모색과 분석

- ① 머리 짜내기(brainstorming, 온갖 생각 다해 보기)를 한다.
- ② 학생 개인별로 하도록 하거나, 전체 학생이 자유로운 발표를 통해 수행한다.
- ③ 가능한 해결 방법들과 정답들을 두서없이 열거한다.

3. 해결책들의 비교 및 분석

- ①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따지고 비교한다.
- ② 유망한 해결책 몇 가지를 선정한다.
- ③ 다수의 정답이 가능한 문제인 경우 소수의 정답을 선정하거나 일반화한다.
- ④ 정답이 유일하고 해결 방법이 여럿인 경우 해결 방법들에 순위를 부여한다.
- ⑤ 친구 가르치기(peer instruction)를 실행한다.

4. 오류 가능성 조사(검토) 및 해결책 확정

- ①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② 논리적으로 완전한지 확인한다.
- ③ 친구 가르치기(peer instruction)를 실행한다.

5. 논술문 개요 구상

- 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았다면 이를 종합하고 정리해야 한다.
- ② 학생들로 하여금 그 정리된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 ③ 발표하는 중간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허점이나 표현상 잘못이 있으면 다른 학생에게 발표를 하도록 한다.
- ④ 단순히 수식이나 단어를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한다.
- ⑤ 발표할 경우에는 어떤 보조 수단(원고, 쪽지)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 논술문 작성

- ① 공개 첨삭(논술문 한 개 또는 2~3개 사용), 상호 첨삭, 대면 첨삭을 통하여 학생들의 논술문을 첨삭하고, 다시 수정한 글을 제출하도록 한다.
- ② 표현,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 등 글쓰기의 기초를 점검한다.
- ③ 수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논리적인 서술을 하도록 유도한다.

7. 역량 강화 및 영역 전이

- ①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 스스로 논술문을 작성하게 한다.
- ② 해결 방법은 유사하지만 영역과 맥락이 다른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이 체득한 해결 방법을 다시 적용하고 응용하게 한다.
- ③ 교과 내용을 확장하여 실생활과 연관되는 비교과 내용을 다룬다.



# 과학과에서의 논술 지도

양한재(서울정민학교 교사)

1. 여는 마당
2. 중학교 과학과 논술의 특징
3. 중학교 과학과 논술의 지도 방안
4. 닫는 마당

## 1. 여는 마당

학교 교육에서 논술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논술이 학문적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논술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시키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서론, 본론, 결론)을 사용하거나 논리적 일관성과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을 ‘실용적 글쓰기’ 혹은 ‘생각 쓰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논술은 특별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상생활이며,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만 이해하면 학생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이러한 논술의 기본 개념에 혼란을 주는 요인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논술’이다. ‘입시 논술’은 논술의 형식과 개념을 취하고 있지만, 선발적 기능이 강조되어 논술의 기본적인 취지에서 많이 변형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논술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오랜 시간 동안 독서와 토론, 생각의 정리, 실용적 글쓰기를 해온 학생들과 단기간의 사교육을 통해 ‘입시 논술’을 배운 학생들이 뒤섞여서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입시 논술’의 부담에서 벗어나 논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시 논술’도 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논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 중학교 과학과 논술의 특징

### 가. 중학교에서 과학과 논술 교육의 필요성

아직도 일부에서는 과학과(자연계) 논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수학과 물리학 등 수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교과외의 경우 논술 시험과 이에 대비한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과학과 논술을 ‘입시 논술’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의 이야기이며, 논술의 근본 목적인 학문적인 의사소통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공계 학문을 전공한 학생이라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학 입시의 영향을 적게 받는 중학교 과정은 더 효과적으로 논술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 나. 과학과 논술의 특징

과학 교과 논술이 갖는 특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교육 목표와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 지식의 체계를 이해하며,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자연관을 가지는 데 있다.

- 1) 자연 탐구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한다.
- 2)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실생활에 이를 활용한다.
- 3) 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실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4)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한다.

이러한 과학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논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대해 먼저 ‘왜’ 라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관찰과 탐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고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과학과 논술의 특징은 인문계 논술과 기본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 입시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자연 과학의 한 분야의 지식만을 활용하기보다는 인문 사회 과학적인 지식과 자연 과학 지식을 연계하는 통합교과적인 내용이나 자연 과학의 여러 영역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3. 중학교 과학과 논술의 지도 방안

#### 가. 읽기 지도 방안

##### 1) 독서 지도 방법

과학과 논술뿐만 아니라 전 교과 영역에 걸쳐 논술 지도를 하기 위한 첫 단계는 독서와 읽기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독서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즉 독서를 통해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갖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학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 도서 목록은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한 교과별 독서 지도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중학교 논술 읽기 자료 「읽기에서 논술까지」를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중학교 과학교과서 내용 중 논술 및 토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년별 주제 목록 \***

(중학교 논술 읽기 자료 「읽기에서 논술까지」 참조,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발행)

학년	분야	단원	주제	참고 도서
1	물리	빛	자연의 물감 빛의 정체	석양은 왜 붉은 것일까 (안도열)
			하나, 둘, 셋...을 세는 것처럼 쉽다	남이야 뭐라 하건 (리처드파인만, 홍승우)
	화학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우리는 고체일까	과학의 역사에 숨겨진 뒷이야기 (오석봉)
		상태변화와 에너지	자연친화적 냉방시스템	OO일보 신문 기사 (2004. 04. 28.)
	생물	소화와 순환	소 트림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정재승)
	지학	지각의 물질	석유, 현대 물질 문명의 감초	살아있는 과학교과서 (홍준의)
해수의 성분과 운동		소원 들어주는 바다 우체부	소원 들어주는 바다 우체부 (신현정, 함석진)	
2	물리	전기	세계의 중심에 존재하는 씨	퀴크의 마법사 (로버트길모어, 이충호)
	화학	물질의 특성	압력솔의 원리	과학으로 만나는 호기심 51가지 (원영주)
얼음이 물위에 뜨는 이유			물위의 기름이다에 숨겨진 과학 (장하나)	

학년	분야	단원	주제	참고 도서
2	생물	식물의 구조와 기능	가로수 이야기	푸른 마을을 꿈꾸는 나무 II (임경빈)
		자극과 반응	긍정적인 사고가 인생을 바꾼다.	오체불만족 (오토다케 히로타다)
	지학	지구와 별	우주공간에서의 축지법	판타스틱 사이언스 (수 넬슨, 리처드홀링엄, 이충호)
			과학적 상상력과 문학적 묘사	파운데이션1 - 위험한 서막 (아이작 아시모프)
		지구의 역사와 지각 변동	공룡 멸종의 과학적 수사	영화 속에 과학이 쏙쏙 (최원석)
			떠돌이 대륙	사이언스 퍼스트 (로버트 E. 아들러)
3	물리	일과 에너지	인류를 구할 대체 에너지	상상은 미래를 부른다 (최성우)
	화학	물질의 구성	세계의 중심에 존재하는 씨	퀴크의 마법사 (로버트길모어, 이충호)
			물질의 근원은 무엇일까	재미있는 화학여행 (김희준)
		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인공화합물이 없다면 현대문명도 없다	인공화합물 없인 현대문명 없다 (이덕환)
	생물	유전과 진화	생명체의 정보가 담긴 유전자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정재승)
			갈라파고스 섬에는 왜 포유류가 없을까	살아있는 과학교과서1 (홍준의)
	지학	태양계의 운동	과학의 혁명가 갈릴레이	갈릴레이 (마이클 화이트)
1,2,3	환경	인간과 환경	무엇이 익충이고 무엇이 해충인가	반디불이는 별 아래 난다 (신유향)

위 자료는 토론, 논술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독서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수행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행 평가도 책을 읽고 단순히 독후감 쓰기 등 진부한 방법보다는 독서 퀴즈나 쪽지 시험 형태로 운영하면 학생들의 호응이 좋으며, 1학기에 1권 정도로 여유를 갖고 읽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 지필 고사의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를 권장 도서의 내용에서 출제하는 것도 학생들이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 읽기 지도 방법

읽기 지도란 단순히 책을 읽히는 것이 아니라 요점을 파악하는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문학 작품의 경우, 내용의 전개와 흐름에 따라 읽는 사람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읽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인문 과학이나 자연 과학의 전공 서적 혹은 논문의 경우에는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는 읽기 훈련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바로 파워리딩법(Power Reading)이다.

파워리딩이란 글을 읽을 때, 각 문단에서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찾아 가며 읽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문단별로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찾아서 표시하게 하고, 이를 연결하여 점차 페이지, 단원, 책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분량의 읽기 자료를 제공해 주고 나서 파워리딩 연습을 하게 하면 학생들은 어려운 글의 내용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파워리딩을 위한 읽기 자료는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행한 중학교 논술 읽기 자료 「읽기에서 논술까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3) 요약하기 지도 방법(입체적 요약하기)

책이나 제시문을 읽고 나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약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요약을 하도록 지시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어미나 조사를 생략해서 양을 줄이는 물리적인 요약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논술에서 필요한 입체적 요약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요약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제시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요약 실습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과제〉 다음 내용을 읽고 아래 빈 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결하여 요약하시오.

순돌이는 자장면과 볶음밥을 좋아하지만, 울면과 짬뽕은 싫어한다.  
 순돌이는 비빔밥은 좋아하지만, 냉면과 육개장은 싫어한다.  
 순돌이는 초밥은 좋아하지만, 우동은 싫어한다.

〈요약하기〉

〈물리적인 요약의 예〉

순돌이는 자장면, 볶음밥 좋아하고 울면, 짬뽕 싫어함.  
 비빔밥 좋아하고 냉면, 육개장 싫어함.  
 초밥 좋아하고 우동 싫어함.



〈입체적인 요약의 예〉

- 서론 : 손돌이가 먹은 음식은 중식, 한식, 일식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배경 지식 = 많은 양의 독서)
- 본론 : 좋아하는 음식 : 중식 → 자장면, 볶음밥, 한식 → 비빔밥, 일식 → 초밥  
⇒ 공통점 : 국물이 없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 중식 → 울면, 짬뽕, 한식 → 냉면, 육개장, 일식 → 우동  
⇒ 공통점 : 국물이 있는 음식
- 결론 : 손돌이는 국물이 없는 음식을 좋아하고 국물이 있는 음식은 싫어함.

⇒ 특징 : 서론 부분에서 글을 읽고 내용을 논리적으로 재분류함(함축적 의미 사용).  
결론 부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재해석함.

나. 신문 기사 활용 수업(NIE 수업)

신문 기사를 수업에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시대적인 흐름을 알리고 최신 과학 정보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단순히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의 내용 중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과 반대하는 내용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작성하게 하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마무리는 개인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서로 토론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과학실이나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E-mail을 사용하면 신속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다. 신문 기사를 활용한 수업은 수행 평가 방법으로 유용하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도록 한다.

＊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신문 활용 방법의 예 ＊

교실 수업 시	준비물	실물화상기, 과제 유인물, 과학 기사가 있는 신문
	방 법	1. 과학 기사가 들어있는 신문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기사를 오려서 붙이기 2. 과제 유인물을 작성하여 제출하기(작성시간 15분 이내) 3. 실물화상기로 확대하여 보면서 토론하기(수정하기)
컴퓨터실 활용 시	준비물	과제 유인물 양식
	방 법	1. 인터넷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 기사를 찾아서 과제 유인물 양식에 다운 받기 2. 과제 유인물 양식을 작성하여 교사에게 E-mail로 보내기(작성시간 15분 이내) 3. 줌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보면서 토론하기(수정하기)

\* 신문 활용 수업을 위한 과제물의 예 \*

제출자	소속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름
활용 매체	○○일보	일자	2007. ○. ○. (○)		지면	면
기사 내용						
자신의 의견	동의하는 점					
	반대하는 점					
토론 후 다시 알게 된 점(생각이 바뀐 점)						

**다. 과학 교과 토론 수업**

수업 방법 중 토론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사전에 토론 내용에 관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토론의 기본 원칙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경우, 수업 진도에 맞추다 보면 정규 교과 시간 내에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시간의 부족을 느끼게 된다. 또 학생들에게 배부할 학습 자료를 준비하고(과제물 양식 등) 토론 방법에 관한 교육도 사전에 실시해야만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정규 수업 시간에 토론 수업을 진행하려면, 비중이 낮은 단원이나 내용은 요약, 압축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시간 확보를 한 다음, 연 1~2회 정도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것이 좋다.

**1) 토론 수업의 준비 : 팀 구성 및 토론 전략 세우기 (팀은 과제별로 찬성팀, 반대팀, 참관평가단으로 구성)**

토론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시 학습을 통해서 과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익힌 다음 개인별 조사 과제물을 배부하여 사전에 준비하게 한다. 이후 6~7명이 1모듬이 되도록 모듬을 편성하고 모듬별 회의를 통해 모듬별 입장을 정리하고 토론 준비를 한다.

- 가) 자신의 주장,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박, 자기 팀의 재반박 자료 조사하기
- 나) 우리 편 주장의 근거를 표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토론 전에 교사가 점검하기

**2) 토론하기**

- 가) 처음부터 난상토론을 하지 않고 작성된 표대로만 순서대로 1명씩 발언하기

나) 자유 토론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다) 참관 평가단은 미리 표를 만들어서 양쪽의 주장과 근거를 기록하면서 평가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기

### 라. 논술 쓰기 지도 방법

글쓰기는 크게 문학적 글쓰기와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적 글쓰기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학적인 글쓰기와 읽기에 비해 실용적인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논술과 같은 실용적인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이처럼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먼저 논리적인 틀이 있는 글쓰기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생들이 일정한 틀 속에서만 글쓰기를 익히게 되면 누구나 비슷한 형식의 글을 쓰게 되므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틀에서 벗어나서 상황에 맞는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적인 틀을 가진 글쓰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5문단 형식의 기본 에세이의 구성 형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5문단 에세이의 구성 형식

주제 : 제목

순서	주제문 위치	내용(형식)
1문단	..... ..... ..... 주제문 .....	서론(미괄식)
2문단	..... ..... 주제문 .....	본론 1(두괄식)
3문단	..... ..... 주제문 .....	본론 2(두괄식)
4문단	..... ..... 주제문 .....	본론 3(두괄식)
5문단	..... ..... ..... 주제문 .....	결론(미괄식)

※ 각 문단의 주제문만 읽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하며 주제문의 위치는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과의 약속임.

## 4. 닫는 마당

논술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논술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게 하고 읽기 훈련(POWER READING), 입체적인 요약, 생각의 틀 만들기, 토론 연습, 쓰기 훈련(POWER WRITING) 등 논술의 틀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틀을 익힌 후에는 그 틀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만의 틀을 갖지 못하고 획일적인 연습 과정에서 그치게 되면 일부 사교육 기관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은 획일적인 사고와 답안을 작성하게 된다.

논술을 대학 입시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학생들의 학문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사고력, 표현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려면 논술이 갖는 교육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교사는 논술을 입시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질 높은 수업을 위한 수업 방법 개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과학과를 포함하여 모든 교과 논술 교육에서 빠른 시간 내에 쉽게 논술을 잘 지도하는 왕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교사들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자신이 고민한 결과를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 기술 · 가정과에서의 논술 지도

최기옥(광신중학교 교사)

- 1. 들어가며
- 2. 기술 · 가정과 논술 지도 방법
- 3. 맺는말

## 1. 들어가며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고도의 창의력과 사고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개인이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고도의 창의적인 지식을 통해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 교육도 지구촌화된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시각과 문제 의식, 그리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교 논술 교육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단편적인 교과별 논술 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 보급한 「독서 지도 매뉴얼」은 교과 교육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및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을 돕기 위한 교사용 지도 자료이다. 또한 중학교 논술 자료집 「읽기에서 논술까지」는 교과 논술과 관련된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고등 정신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보급되었다. 이제 교사는 교과서 내용만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책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독서를 기본으로 하는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확산적인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학생들은 교과 관련 도서를 접함으로써 폭 넓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책을 통하여 학습 과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과와 관련한 배경 지식의 습득은 학생의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단순한 취미와 교양을 위한 차원의 소극적인 독서 지도가 아닌, 전 교과와 교사 차원의 적극적인 독서 ·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

## 2. 기술·가정과 논술 지도 방법

효율적인 교과 학습 방법 면에서 보면 어느 교과든지 그 교과의 수업은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중심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사는 수업의 시작 부분에서 교과서의 글을 읽게 하고, 수업 중간에는 글 내용을 이해시키거나, 다른 학생들과 토의나 토론을 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지도를 한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는 학생들에게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써 내는 과제, 혹은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제, 혹은 배우고 나서 느낀 점을 써 내는 과제를 내는 것이다.

기술·가정과 논술 지도 방법에도 이런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 가. 교과서 탐구 과제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 1) 중학교 1학년 탐구 과제를 활용한 논술 주제 예시

대단원명	중단원명	생각해 볼만한 논술 주제 예시
I. 나와 가족의 이해	1. 청소년기의 이해와 발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흡연, 가출 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고,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li> <li>◎ 또래 집단과 집단 따돌림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건전한 또래 문화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li> <li>◎ 청소년기를 과도기, 질풍노도기, 제2의 탄생기, 제2의 반항기, 심리적 이유기, 주변인, 중간인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 이유를 찾아보고,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li> </ul>
	2. 청소년의 성과 이성 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느껴 본 성적 호기심과 욕구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생각해 보자.</li> <li>◎ 성 욕구를 성 관계로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li> <li>◎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토론해 보고, 미혼모의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li> </ul>
	3.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가족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나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li> <li>◎ 우리 가족의 의사소통 관계를 가족 도표로 만들어 보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아 보자.</li> <li>◎ 부모의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자.</li> </ul>



※ 다음 문장을 읽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올바른 해결 방안을 200자 이내로 써 보자.

중학교 1학년인 상호의 부모님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신다. 항상 밤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상호 집에는 친구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놀다 가곤 한다. 요즘에는 같은 반 여학생들도 몇 명 모인다. 오늘은 친구들이 비디오 가게에서 야한 영화를 빌려 왔다고 함께 보자고 한다.

대단원명	중단원명	생각해 볼만한 논술 주제 예시
II.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1.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배에서 난 두 마리의 강아지 중 한 마리는 우유를 적게 먹이고 한 마리는 우유를 충분히 먹였더니 많이 먹은 강아지가 빨리 크게 자랐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li> <li>◎ 청소년이 성인보다 많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li> </ul>
	2. 청소년기의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식습관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모아 이야기해 보자.</li> <li>◎ 나의 식습관 중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li> <li>◎ 우리나라 국민의 식습관과 외국의 식습관을 비교하여 좋은 점과 나쁜 점에 관해 토론해 보자.</li> </ul>
	3. 조리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저녁 설거지를 해보고 다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 (걸리는 시간, 사용된 세제의 양과 물의 양)</li> <li>◎ 전자레인지에는 금속 그릇이나 금 또는 은의 무늬가 박힌 그릇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써 보자.</li> <li>◎ 먹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조리법을 이야기해 보자. (예 : 먹다 남은 김밥을 재활용한 김밥전, 추석 등 명절에 먹다 남은 전과 잡채 등을 재활용한 전골)</li> </ul>

2) 중학교 2학년 탐구 과제를 활용한 논술 주제 예시

대단원명	중단원명	생각해 볼만한 논술 주제 예시
I. 의복 마련과 관리	1.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입고 있는 옷은 디자인의 어떤 원리가 적용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자.</li> <li>◎ 나의 체형의 장, 단점을 생각해 보고, 디자인의 요소를 이용하여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이야기해 보자.</li> </ul>
	2. 의복 마련 계획과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옷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li> <li>◎ 우편이나 통신 판매로 구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교환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li> <li>◎ 내가 기성복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다섯 가지를 적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li> </ul>

대단원명	중단원명	생각해 볼만한 논술 주제 예시
I. 의복 마련과 관리	3. 의복의 손질과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집에서 세탁에 사용하는 세제의 양은 한 달에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li> <li>◎ 의복을 잘못 보관하여 못 입게 된 경우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li> </ul>
	4. 옷 만들기와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옷의 찢어진 부분을 고쳐 입거나, 옷단의 길이를 조절하는 등의 의복의 수선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li> <li>◎ 유행이 지났거나 오래된 옷을 재활용하여 입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li> </ul>
V. 자원의 관리와 환경	1. 자원의 활용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비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li> <li>◎ 우리 집에서는 1주일 동안 일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조사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li> </ul>
	2. 나의 시간과 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중 나의 생리적 생활시간, 노동 생활시간, 여가 생활시간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고, 친구들의 생활시간과 비교하여 세 가지 생활시간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li> <li>◎ 나의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li> <li>◎ 집안일 중 내가 분담하여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li> </ul>
	3. 나와 소비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에 내가 직접 구입한 물건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li> <li>◎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여러 가지 상품 광고를 모아보고, 허위, 과장 광고가 없는지 이야기해 보자.</li> <li>◎ 과시적 소비를 해 본 경험을 이야기해 보고, 올바른 소비생활 태도를 생각해 보자.</li> </ul>

3) 중학교 3학년 탐구 과제를 활용한 논술 주제 예시

대단원명	중단원명	생각해 볼만한 논술 주제 예시
II. 가족의 식사 관리	1. 식단 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단을 계획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li> <li>◎ 식단을 짤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5가지 이상 써 보자.</li> </ul>
	2. 식사 준비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급식의 식단, 배식, 위생 상태, 남은 음식 처리 및 쓰레기 배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li> <li>◎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 사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li> <li>◎ 계절 식품을 활용하면 좋은 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li> </ul>

대단원명	중단원명	생각해 볼만한 논술 주제 예시
II. 가족의 식사 관리	3. 상차림과 식사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여러 나라의 독특한 식사 예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li> <li>◎ 한식 상차림은 양식 상차림에 비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li> </ul>
V. 자원의 관리와 환경	1. 생활공간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집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찾아 공간 활용 계획을 세워 보자.</li> <li>◎ 현재 우리 집에서 오래 되어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찾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li> <li>◎ 주거 공간을 생활 내용에 따라 5가지 분류하여 설명해 보자.</li> </ul>
	2. 쾌적한 실내 환경과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집 각 방의 조명 방법을 조사해 보고, 조명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곳의 조명을 계획해 보자.</li> <li>◎ 우리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곳을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음 대책을 세워 보자.</li> <li>◎ 가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3가지 이상 설명해 보자.</li> </ul>
	3. 주택의 유지와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집의 전기, 가스, 상수도 계량기를 점검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자.</li> </ul>

### 나. 독서와 함께하는 논술 지도

#### 1) 기술·가정 교과 내용 중 가족생활 영역에서의 독서 활용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술·가정 교과 영역에서 ‘가족생활’ 영역의 수업은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과서의 ‘가족생활’ 부분의 내용은 가족의 의미, 가족의 의사소통, 바람직한 가족 관계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짧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룬 좋은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좋은 책을 선정하고 함께 읽는 작업만큼, 책을 읽고 난 후에 재미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교과서 단원과 도서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독서 후 학생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효과적인 독서 후 학생 활동은 교수-학습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기술·가정 교과 내용 중 가족생활 영역에서의 독서를 활용한 논술 지도

가) 활용할 만한 도서와 논술 주제 예시

단원명	활용도서(저자)	도서 내용 소개	생각해 볼만한 논술 주제
나와 가족의 이해	식구 생각 (윤문원)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책	우리 가족이 최근에 겪었던 일 중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했던 일화를 이야기해 보자.
	고슴도치 아이 (카타지나크토프스카)	입양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가르쳐 주며, 입양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책	해외입양아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고, 입양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가족나무 만들기 (로렌리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 아니라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등의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자.
	울어도 괜찮아 (명창순)	가정 폭력의 심각성과 ‘방치’되고 있는 아이의 삶을 통해 아동의 ‘행복권’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책	우리의 ‘행복권’에 대해 토론해 보자.
	1분이면 마음이 열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부모가 자녀에게 건낼 수 있는 보석같이 귀한 대화의 사례를 제시하여 가족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책	우리 가족의 대화 중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구절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어린이를 위한 배려 (전지은, 한상복)	나도 행복하고 친구도 행복하고, 가족과 이웃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우리 사회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	내가 실천한 ‘배려’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나) 기술·가정 교과 내용 중 가족생활 영역에서 활용할 만한 논술 읽기 자료 예시

(1) 「식구 생각」

- ◎ 저자 : 윤문원
- ◎ 지도 주제 : 가족의 소중함 알기
- ◎ 관련 단원 : 중학교 1학년 (1) 가족의 의미와 가족 관계
- ◎ 논술 주제 : 나의 가족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나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읽기 자료 ①

그리움의 이름, 아버지

당신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로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흘린 눈물을 본 적은 있습니까?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입니다.

묵묵한 아버지가 툇 던지는 헛기침 소리는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당신의 존재함을 알리는 짧고 굵은 신호입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태연해하거나 자신만만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허탈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움을 겪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어른인 척 굴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질문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털어놓지만, 아버지는 그저 속으로만 읊니다.

아버지는 침묵과 고단함을 자신의 베개로 삼는 사람입니다. 정작 아버지가 옷걸이에 걸고 싶은 것은 양복 상의가 아니라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 향하는 곳은 정글 같은 세상입니다.

가슴속에 품은 꿈 하나를 숨기고 자신을 팔아야만 하는 바로 그 세상. 가정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연히 ‘나’는 없어지고 ‘가족’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는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웃음을 짓습니다. 아들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열 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 번 현관문을 쳐다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가 웃는 웃음의 두 배쯤 농도가 진합니다. 울음은 열배쯤 될 것입니다.

- 윤문원, 「식구 생각」에서 -

읽기 자료 ②

**생명의 젖줄, 어머니**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젖을 빨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아가의 모습을 볼 때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머니의 젖가슴은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젖가슴에서 흐르는 사랑의 젖을 먹고 우리는 성장합니다.

어머니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이자 스승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아이의 학교이며 어머니의 말은 아이의 교과서입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아이의 정신적인 영양소입니다. 어머니는 만인에게 영원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마음의 고향이며 안식처이자 피난처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한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어머니’라는 낱말에는 인간의 온갖 아름다운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생, 헌신, 희망, 정성, 수고, 노력, 지혜, 용기 등 온갖 가치를 포함하는 정신의 저수지입니다.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행해 온 여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기쁠 때, 가장 슬플 때, 가장 위험할 때 그 마음 깊이 깔려 있는 근원적인 소리인 ‘어머니’를 외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약한 여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모성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이 본능적으로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 윤문원, 「식구 생각」에서 -

읽기 자료 ③

**혈연 공동체, 형제자매**

당신은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얼마나 닮았고 얼마나 다풀습니까? 당신은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형제자매가 있거나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형제자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형제자매 관계가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와 보니 이미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싸우고 다투면서 좋았던 때도 많았고, 지겹고 귀찮을 때도 많았고, 미울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가장 친숙한 관계이면서도 때로는 무관심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친밀해질 가능성도 높지만, 일상을 같이 했다는 것이 언제나 끈끈한 우애로 남는 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우리의 삶과 운명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종종 형제자매에게 무심합니다. 형제자매를 가족이라는 익숙함으로 소홀이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이면에 가려진 모습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어떤 때는 쉽게 상처받는지 헤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 윤문원, 「식구 생각」에서 -



(2) 「울어도 괜찮아」

◎ 저자 : 명창순

◎ 지도 주제 : 행복권을 찾아 떠나는 가족 여행

◎ 관련 단원 : 중학교 1학년 (1) 가족의 의미와 가족 관계

◎ 논술 주제 : ‘가족’이란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 엄마와 살게 되는 준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읽기 자료

보통 아빠였던 준서 아빠는 몇 년 전 교통사고가 나 허리를 다친 뒤부터 난폭한 아빠로 변해 버립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 살림이 어려워진 데다 일거리마저 줄게 되자 술을 마시고는 엄마와 준서에게 화풀이를 하지요. 그런 아빠와 싸우다 결국 엄마가 집을 나가자, 준서는 엄마를 기다리며 아빠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빠는 술에 취하면 준서를 때리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두어 놓기도 합니다.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도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 책임질 줄도,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는 아빠인 것이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는 준서 짝인 헤지의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내 자식만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헤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준서와 놀지 못하게 하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준서에 대해 나쁘게 말함으로써,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준서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헤지 엄마가 헤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나와 내 자식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일 뿐입니다. 그 밖에 지호 엄마나 떠돌이 개 도돌이를 잡아먹으려는 버럭버럭 아저씨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어른들입니다.

반면, 늘 준서를 다정하게 돌봐 주는 중국집 배달원 번개 형은 아직 청소년이고 공부도 많이 못 했지만 남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준서에게 이따금씩 우유를 주는 으뜸 슈퍼의 깜깜 할머니 역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착한 사람입니다.

자주 밥도 굶고 아빠에게 심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준서가 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번개 형과 깜깜 할머니에게 배운 사랑의 마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준서에게 은근히 마음을 써 주는 짝 헤지도 준서에게 여러모로 힘이 되어 주었지요. 그리고 준서에게는 떠돌이 개 도돌이가 있습니다. 준서에게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꼭 필요하듯이 도돌이에게도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도돌이를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서 준서는 사랑과 책임감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책임감이 나쁜 길로 빠지려던 준서의 양심을 되찾아 주고, 절망감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릴 뻔했던 준서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 명창순, 「울어도 괜찮아」에서 -

### (3) 「1분이면 마음이 열립니다」

- ◎ 저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 ◎ 지도 주제 : 마음이 열리는 가족 간의 대화하기
- ◎ 관련 단위 : 중학교 1학년 (2) 가족의 의사소통
- ◎ 이야기 주제 : 우리 가족의 대화 중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대화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 읽기 자료


### 사랑과 용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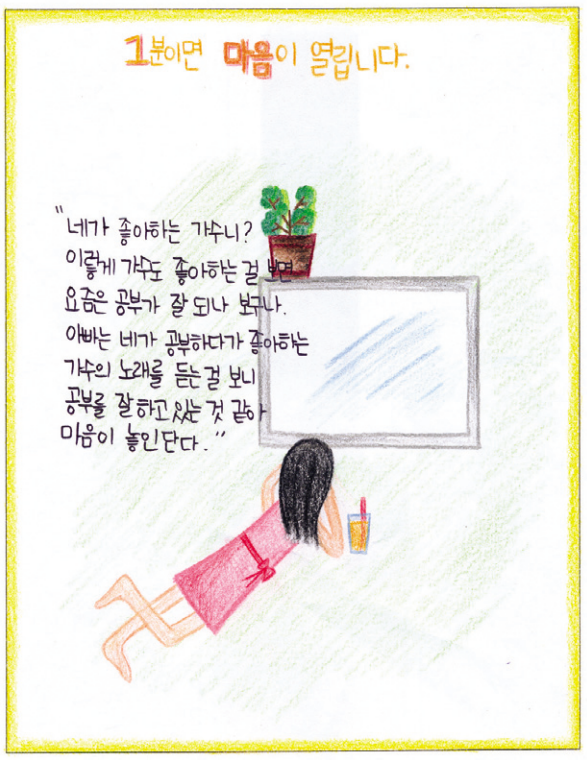
“자녀의 용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는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만큼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녀의 요구는 존중하되, 액수만큼은 약간 모자란 듯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원하는 것을 다 갖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슬기롭게 사는 것을 배우는 데는 모자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사랑의 크기가 용돈의 액수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청소년상담원, 「1분이면 마음이 열립니다」에서

## 학생 활동 예시

[책소개서로 표현하기]		학년이름	2124 장다은
도시명	1분이면 마음이 열립니다.	지은이	한국청소년상담원
표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이제부터 '이 권권의 책'을 소개하는 독서전문가입니다.</li> <li>■ 아래 시시문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보세요. 독서전문가인 만큼 책을 소개하는 이유를 타당성있게 쓰세요.</li> <li>■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책의 내용, 재미와 감동,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등을 씁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이 책을 소개한 이유</p> <p>이 책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먼저 책이 읽기 쉽고 그림이 예뻐서이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건 내용이 감동적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책의 내용은 주로 우리가 그동안 지나칠 수 있는 습관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한 말투로 대해 좋은 시간을 보냈거나 감동적인 사건을 계절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내뱉거나 하기 쉬운 행동을 조금만 바꾼다면 더 행복해 질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또 생각을 부정적인데서 긍정적인으로 훨씬 밝은 쪽으로 바꿀 때 정말 많은 자아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p>		
인상 깊은 글귀나 재미있는 말		기쁨 인상 깊은 장면	
<p>“씨를 뿌린 것은 사랑지만 싹을 틔우는 것은 자애입니다.”</p> <p>“인디언 말로 친구란 ‘내 짐을 대신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 입니다.”</p>		 <p>“친구나 강아지 아이에게 있으면, 친구를 대하고 강아지 같은 아기도 있습니다.”</p>	
내담대로 생각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더 자세하게 읽어보았는데 내용을 오래 기억할수 있을 것 같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다가 책 소개도 해보니까 seru고 재미있다.		



다. 중학교 「읽기에서 논술까지」와 함께하는 논술 지도

순서	학년	관련 단원	논술 제목	도서명, 신문 기사 (인용 페이지)	저자
1	중1 가정	I. 나와 가족의 이해 1. 청소년기의 이해와 발달 특성 (5) 성 역할의 발달	양성 평등과 저출산 대책	돼지책(2~29) 한국경제 2006. 5. 31 한국경제 2006. 6. 12	앤서니 브라운
2	중2 가정	I.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1.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3) 한복	우리 옷 100년, 쓰개에서 배 꼽티까지	우리생활 100년, 옷 (327~331)	고부자
3	중2 가정	V. 자원의 관리와 환경 3. 나와 소비 생활 (1) 청소년의 소비문화	소비에 중독된 아이들	소비에 중독된 아이들 (72~74) 한국일보 2006.5.16	안드레아 브라운
4	중3 가정	II. 가족의 식사 관리 2. 식사 준비와 평가 (1) 식품의 구입	가공식품의 재 료를 알아보면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83~87) 중앙일보 2006.6.19	안병수
5	중3 가정	IV. 가족생활과 주거 1. 생활공간의 활용 (3) 가족생활 특성에 따른 주거 공간	자연이 숨쉬는 '우리 집'	주강현의 우리문화2 (10~18) 우리생활 100년, 집(8~11)	주강현 김광언

3. 맺는말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의 행동과 사고로 정당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을 통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사고력, 사회적 현상의 이해, 여성과 가족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인식과 비판,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과 교사들은 개인, 가족, 사회를 보는 관점을 개발하고 생활 세계와 체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여성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은 어떤 본질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하고, 가정과 교육이라는 채널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정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문 활동을 해야 할 때이다.

이런 시점에서 가정과와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에 대한 모색과 수업에의 적용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가정과와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교과서 탐구과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생각하고 써보게 하는 수업으로 시작해서, 독서와 함께하는 읽고 쓰는 수업 방법과 「읽기에서 논술까지」를 활용한 논술 지도를 시도해 볼 것을 적극 권유한다.



# 음악과에서의 논술 지도

박 세 란(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1. 시작하며
- 2. 논술 수업의 실제
- 3. 마치며

## 1. 시작하며

온 나라가 '논술' 열기로 가득 찼다. 학원 밀집 지역은 한 집 건너 논술 학원이다.

언젠가부터 대학 입시에 '논술'이 강조되더니 금방 '통합교과형 논술'로 확대되어 실기 중심 교과인 음악, 미술, 체육 수업에도 논술 수업이 요구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왜 논술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는지는 이미 여러 교과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였기에 음악 교과에 당면한 음악과 논술 수업을 위한 논의만 하고자 한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여러 교과목 학습을 통해 습득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게 하는 논술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들이 그 배운 내용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여 써 나가는 과정이다.

실제 2005학년도 성균관대 정시 논술에서는 대중음악과 클래식 간에 장르가 무너지는 크로스오버음악에 관련된 제시문으로 '대중음악이 갖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2005년 가톨릭대학교 수시 1학기 논술에서는 모차르트 음악은 몸에 좋고 헤비메탈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제시문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논술의 일부로 출제되었다. 또한 2007 고려대 정시 논술에서도 '악론'(정약용), '프루스트의 예술론'(이형식), '예술의 언어들'(넬슨 굿맨) 등 예술의 효용에 관한 여러 제시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중학교 음악 수업에서는 우선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확장하여 자신이 가진 음악적 지식의 사고 폭을 넓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다양한 관련 도서를 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음악 관련 현상과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보며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음악 교과 논술 수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음악 교육의 목표는, 음악에 대한 표현력과 음악의 다양한 가치 및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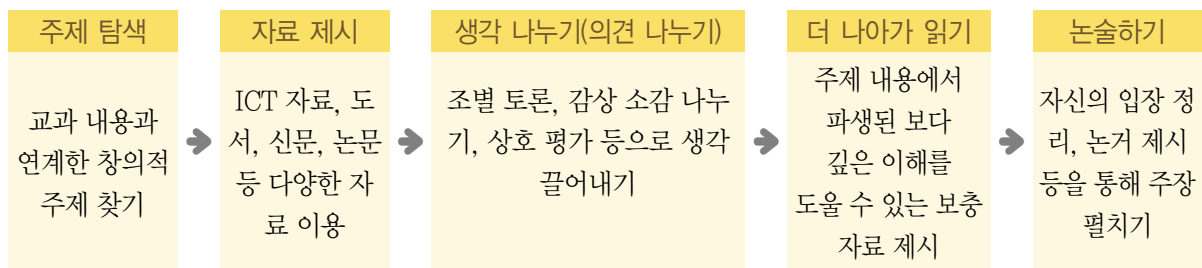
을 기르고,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본 목표 아래 보다 확장된 음악적 사고력, 창의성, 비판력을 기르기 위한 음악과 논술 수업의 방법을 모색, 안내하고자 한다.

### 논술 지도 길라잡이 사용 시 참고할 점

- 이 길라잡이는 음악 교과 수업시 적용할 수 있는 논술 주제와 문제에 대한 사례 제시, 그에 관련된 간단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 이 길라잡이에서 제공하는 읽기 자료의 내용들은 관련 논술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당 도서 및 관련 자료의 일부분을 인용했으며 전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출처를 밝혔다.
- 음악과 제7차 교육과정은 음악 교과의 내용 체계를 크게 이해와 활동(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음악 교과는 타 교과와 달리 단원의 개념이 없으므로 영역별로 수업 예시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기악 영역 관련 수업 후에 사용한 논술 문제를 감상 영역 관련 수업 후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지도 교사가 필요한 영역의 수업에서 해당 논술 문제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 이 길라잡이는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기본으로 관련 서적과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음악과 독서 지도 매뉴얼 등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 2. 논술 수업의 실제

### 가. 논술 수업의 과정



- 1) 기존의 음악 교과서 학습 내용 중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논술 주제를 찾아내어 논술 수업으로 연계한다.
- 2) 음악과 수업이니만큼 논술 수업으로의 도입을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상 자료(음악 CD, 공연 실황 자료, ICT자료, 신문 칼럼 및 기사, 논문 등)를 활용하여 동기를 유발한 후 관련 읽기 자료를 제공한다.
- 3)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계층화시켜 단계별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둠을 형성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한다.







- 4) 최대한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음악적 지식이 없는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넓힌다.
- 5) 모둠별 토론, 읽기 자료 요약·정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후, 글쓰기를 한다.

**나. 논술 수업 예시**

영역	가창	관련 단원	의식(행사) 음악(애국가, 교가, 각종 기념일 노래, 응원가 등)
논술 수업 연계를 위한 학습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떤 의식 활동에 사용되는 음악(노래)인지를 알고 분위기를 살려 표현할 수 있다.</li> <li>2. 가사의 뜻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부를 수 있다.</li> </ol>
자료 제시 (읽기 자료)			<p>음악이 제사, 즉 인간을 넘어선 신비한 힘과 연결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은 인류가 초창기부터 제사 또는 예배 의식을 가져 왔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간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보충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다듬어 왔다. 이때 음악은 그 중심적인 사항이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쓰이고 있는 음악이라는 단어(글자)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사 내지 의식과 관련하여 탄생했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 예배 의식은 선사시대나 원시 민족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은 끊임없는 의식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충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다고 예배 의식이 약화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 외형적 모습이 달라진 것이다. 오늘날의 예배 의식은 공인된 종교 집단에서의 예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는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나 순간에 빠짐없이 의식을 행하고, 그러한 의식에는 항상 음악이 있다. 음악은 인간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을 딛고 보다 근원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음악과 인간의 관계」 중에서, 주대창</p> <p><b>삼일절 노래</b>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義)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p> <p>◆기타 참고 도서 「삶과 죽음의 음악」, 한상우</p>
생각 나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자.</li> <li>2. 의식의 노래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지 하나의 예(교가 등)를 들어 말해 보자.</li> <li>3. 각종 의식에 음악(노래)을 만들어 연주하는(부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li> </ol>
논술하기			<p>◆ 지난 3월 1일, 한 방송사의 기사 제목이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3.1절 잘 몰라요.”  - ‘독립운동 기념일’ 불구, 노는 날로 전락(...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식 음악(노래)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적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 서술해 보자.</li> </ol>



영역	기악	관련 단원	타악기 연주 및 기악 합주
논술 수업 연계를 위한 학습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악기를 이용하여 곡의 분위기를 살려 연주할 수 있다.</li> <li>2. 타악기 사용 여부에 따라 곡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다.</li> </ol>
자료 제시 (읽기 자료)			<p>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을 그냥 앉아서 듣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마이크를 잡든 손가락을 두드리든 좌우지간 악을 쓰면서 노래를 불러 제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민족이다. ... 워니 워니 해도 우리 민족은 두들기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음악만 나왔다 하면 그렇게도 두들긴다. 타악기는 누구나 배우기 쉽지만 완성을 보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 원래 타악기는 악기 가운데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이건 서양 음악이나 우리 음악이나 마찬가지다. 원시인들은 제사 의식을 행하면서 타악기를 두들겼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은 타악기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타악기는 현악기나 관악기처럼 음의 높낮이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중시한다. 그래서 타악기는 가장 연주하기 쉬운 악기인 동시에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라고도 한다. ... 타악기는 가장 먼저 생겨난 악기이기에 아직 원시성이 남아 있다. 타악기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태고의 냄새가 난다. 또 타악기는 리듬감과 힘의 강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힘이 넘치는 악기가 바로 타악기다.</p> <p style="text-align: right;">- 「우리 소리 우습게보지 말라」 중에서, 김준호</p>
생각 나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악기(리듬악기)를 연주할 때와 가락악기(리코더, 피아노 등)를 연주할 때 어떤 악기 연주가 더 수월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li> </o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동일한 합주곡을 타악기 없이 연주한 후, 타악기를 곁들여 연주한 후 기악 합주에서 타악기가 곁들여지면 곡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li> </ol>

영역	감상	관련 단원	난타, 도깨비 스톼, 사물놀이 등의 타악기 연주 감상
논술 수업 연계를 위한 감상 요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리듬의 빠르기에 따른 기분의 변화에 유의하며 감상한다.</li> <li>2. 감정이 긴장 또는 이완될 때의 리듬에 유의하며 감상한다.</li> </ol>	
자료 제시 (읽기 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b>음악은 심장 박동, 심박수,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b></p> <p>인간의 심장 박동은 특히 소리나 음악에 맞추어 조율되기도 한다. 심장 박동은 주파수, 빠르기, 음량과 같은 음악적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듣는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음악의 템포가 빠르면 빠를수록 심장도 이에 맞추어 빠르게 박동하며 느린 템포에는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 호흡 속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장 박동이 느릴 경우에 신체적 긴장과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마음은 진정되고 신체의 치유 과정은 활발해진다. 즉 음악은 자연적인 심장 박동 조절 장치이다. 비록 강한 비트를 가진 음악이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힘을 주지만, 루이지애나 주립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록 음악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모차르트 이펙트」 중에서, 돈 캠벨</p>	
생각 나누기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난타 또는 도깨비 스톼의 공연을 실제 관람한 후 또는 녹화 영상을 보여준 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악기 공연을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의 자신의 기분(감정)이 어떠했는지 그 차이를 장점, 단점 한 가지씩 말해 보자.(심장의 두근거림, 귀의 울림, 맥박 수 등을 예를 들어)</li> <li>2. 만약 공연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나의 감정(느낌)은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 보자.</li> </ol>	

영역	이해	관련 단원	음악치료(음악요법), 환경 음악, 생활 속의 음악
논술 수업 연계를 위한 학습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악이 생활 속에 이용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이상 들 수 있다.</li> <li>2. 내가 즐겨 듣는 음악의 종류와 그 음악이 나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li> </ol>
자료 제시 (읽기 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 음악</b></p> <p>주목적이 음악 감상에 있지 않고 환경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음악으로 배경음악·산업음악이라고도 한다. 넓은 뜻으로는 바로크 시대에 많이 볼 수 있었던 파펠뮤직(식탁음악)도 포함되었으나,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옛날부터 음악과 노동·놀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으며, 자연민족(강한 자연조건에 지배되어 인공적인 문화가 뒤떨어진 민족)의 경우, 노동가나 동요는 그것이 완전히 노동이나 놀이의 일부분처럼 여겨졌다. BGM(background music, 배경음악)은 원래 작업 중에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작업의 단조로움을 잊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음악을 공급하는 데는 오직 생연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었다. BGM이 대규모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작업 중의 음악’이 나오면서부터이다. 그 뒤로는 라디오뿐 아니라 LP레코드나 테이프레코더 등이 많이 개발되어 음악을 이용하기가 쉬워져 BGM도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어떤 음악이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BGM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양식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BGM이 많이 활용되는 공장·은행·호텔 같은 곳은 정도에 차이는 있을망정 시끄러운 곳이며 작업 능률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가 없는 대중적인 곡(세미클래식 등)을 음량 변화의 폭을 없앤 채 연주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p> <p><b>◆기타 참고 도서</b>          음악 마케팅의 활용과 전략,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음악 치료』, 정영조          『모차르트 이펙트』, 돈 캠벨</p>
생각 나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가 즐겨 듣는 음악은 어떤 종류의 음악(클래식 또는 대중음악, 발라드풍 또는 록음악 등)인지 리듬, 빠르기, 음량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 보자.</li> <li>2. 자신의 생활 중, 주로 음악을 듣는 때가 언제인지 말해 보자. (단순히 음악만 듣는다. 또는 공부할 때, 독서할 때, 책상 정리를 할 때 등)</li> </ol>

<p>생각 나누기</p>	<p>3.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이 학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말해 보자. 또 가사가 있는 음악과 가사가 없는 음악 중 어떤 것이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말해 보자.</p> <p>4. 드라마의 장면에 사용된 음악이 극의 진행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시청자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해 보자.(예를 들어, 모 방송사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주인공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상황에 대처할 때의 배경 음악이 나오는 장면 등 인기 드라마의 적당한 장면을 보여주면 더욱 효과적임.)</p> <p>◆ 학생들에게 음악극 수업을 한 후 자신들이 선택하여 삽입한 음악들과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여준 후</p> <p>5. 음악극에 사용된 배경 음악이 장면 내용의 분위기에 적합하였는지 말해 보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말해 보자.</p>
<p>논술하기</p>	<p>1.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정서적), 학습적, 사회적 측면 중 하나의 측면을 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자.</p> <p>2. 음악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근거를 들어 서술해 보자.</p>

영역	창작	관련 단원	상황 묘사 음악, 함께 음악 만들기, 여러 가지 음색으로 창작하기 등
<p>논술 수업 연계를 위한 학습 목표</p>			<p>1. 다양한 물건이나 악기를 이용하여 즉흥적으로 창작할 수 있다. * 묘사음악이란? 자연이나 동물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소리 등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다.</p>
<p>자료 제시 (읽기 자료)</p>		<p><b>상황 묘사 음악 만들기</b></p>	<p>1. 모둠을 나누어 모둠별로 주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 모둠1 - 싱그러운 봄바람에 숲 속의 나무들이 살랑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 모둠2 - 동물들이 뛰어 노는 모습이나 특징을 묘사한 음악</p> <p>2. 생수병에 콩이나 돌맹이를 약간 넣어 남미의 마라카스와 같은 악기 효과, 막대기를 빨래판에 대고 위아래로 긁어서 타악기 효과를 낸.</p> <p>3. 책상 두드리는 소리, 의자 끄덕이는 소리, 쓰레기통 두드리는 소리, 분필 지우개 터는 소리, 바이올린을 활의 등으로 연주하기 등 다양한 소품을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어 창작곡을 만든다. - 「중학교 음악 교과서」 중에서 -</p>

<p>자료 제시 (읽기 자료)</p>	<p>음악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닮았다. 그래서 음악학자들은 음악의 생리를 설명하기 위해 음악 언어라는 말을 즐겨 쓴다. 학창 시절 교실에서 나는 언어가 사회적 약속의 한 모습이라는 것과 또 사회적 약속이란 개인이 함부로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사회적 약속이란 반드시 불변적인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의미를 담은 새 용어를 쓰고 기존의 발음을 달리해 가는 사회의 구성원 수가 점차 늘어나면 사회는 그 약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래, 사회가 약속해 둔 ‘음악’, 사회에서의 ‘음악’ 이 곧 ‘음악’ 의 절대적 정체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의 ‘음악’ 은 언젠가 그 모습을 바꾸게 되리라. 그러한 ‘음악’ 의 탈바꿈은 누가 이루어 내는가. 사회를 이루는, 사회에 앞서 존재하는 개인 각각이 자신의 음악적 삶에 진정으로 충실할 때, 그러한 개인에게의 ‘음악’ 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음악’ 을 꿈꾸어 본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음악학을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음악읽기 세상읽기』, 주성혜 -</p>
<p>생각 나누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이란 어떤 물체가 진동할 때 발생하는 파동이 공기를 통해 우리 귀에 전달되는 것으로 음악에는 대개 고른음이 사용되지만 때때로 타악기 등에서 만들어지는 시끄러운 음이 쓰이기도 한다. 시끄러운 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자.</li> <li>2. 음악이란 음을 소재로 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 예술을 말한다. 여러분이 창작한 상황 묘사 음악도 음악이라 할 수 있는지 근거를 들어 말해 보자.</li> </ol>

영역	감상	관련 단원	현대 음악(12음 기법, 무조성 음악, 전자음악, 구체 음악 등)
<p>논술 주제 탐색에 따른 감상 요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상곡의 작곡자가 말하고자 하는 작곡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감상한다.</li> <li>2. 일반적인 음이 아닌 어떤 종류의 음을 소재로 하여 작곡하였는지 파악하며 감상한다.</li> </ol>
<p>자료 제시 (읽기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b>예술 음악에서의 소음(騷音) 활용</b></p> <p>음악은 음(소리)을 가지고 만든다. 사람들은 듣기에 좋은 고른음을 음악에 사용해 왔다. 시끄러운 소리는 타악기 등 특수한 효과를 제외하고 19세기까지 예술 음악에서 별로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음악 표현을 위해 여러 유형의 소음(곡의 특정 부분에 허 차는 소리, 고향 소리 등의 음성 효과를 표현하는 혁신적인 기법)을 음악에 활용하는 등 소음조차도 적극적으로 쓰고자 했다. 소음은 한 악기나 물체에서 생산된 것과 여러 종류의 음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 있다. 소음을 음악적으로 활용할 때는 음악적 진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음색과 음의 크기 및 빠르기를 적절히 변화시킨다.</p> <p style="text-align: right;">- 『중학교 음악 교과서』 중 -</p> <p>● 기타 참고 도서 「클래식은 내친구 2」, 김정환</p>



<p>생각 나누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이란 어떤 물체가 진동할 때 발생하는 파동이 공기를 통해 우리 귀에 전달되는 것으로 음악에는 대개 고른음이 사용되지만 때때로 타악기 등에서 만들어지는 시끄러운 음이 쓰이기도 한다. 이 감상 곡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끄러운 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자.</li> <li>2.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li> <li>3. 이 곡의 감상 느낌을 말해보고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설명해 보자. (크럼의 '가을의 11개 메아리', 바레즈의 '이온화' 등을 감상한 후)</li> </ol>
<p>논술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음(시끄러운 음)도 음악의 소재가 될 수 있는지 긍정적, 부정적인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 서술해 보자.</li> </ol>

영역	감상	관련 단원	역경(장애)를 이겨낸 음악가(베토벤, 안드레아 보첼리 등)
<p>논술 주제 탐색에 따른 감상 요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주자가 이겨낸 어려움의 종류를 생각하며 연주를 감상한다.</li> <li>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음악가(연주자)들의 노력 정도를 상상하며 감상한다.</li> </ol>
<p>자료 제시 (읽기 자료)</p>		<p>◆ 연주곡 또는 연주 실황 동영상 감상 후(예 :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안드레아 보첼리 공연 동영상, 이블린 글레니의 마림바 연주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나는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피아노를 처음 배운 게 여덟 살 때였다. 나이가 들수록 음악에 대한 열정은 커졌지만, 차츰 청력을 잃기 시작했다. 의사들 말이, 신경 손상이 원인이고 좋아질 가망은 없다는 것이다. 열두 살 때 나는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타악기 독주자는 한 사람도 없을 때였는데, 나는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 나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듣는' 법을 배웠다. 맨발로 연주하면, 내 몸과 상상력을 통해 느껴지는 진동으로 음의 고저를 분간할 수 있다. 내 소리 세계는 내가 가진 감각을 거의 다 활용함으로써 존재한다. ... 남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 당신 자신의 열정에 따르도록 하라.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블린글레니는 최초의 여성 타악기 독주자로 명성을 얻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 「갈림돌을 디딤돌로 삼아라」 중, 신시아 커지, 김석희 역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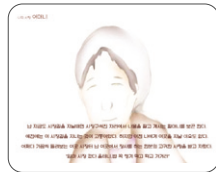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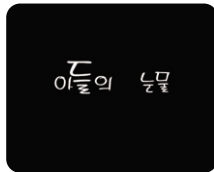


자료 제시 (읽기 자료)	<p>❑ 기타 참고 도서</p> <p>「침묵의 음악(안드레아 보첼리 자서전)」, 안드레아 보첼리, 이현경 역</p> <p>「나에겐 지금 못할 것이 없다(3)」, 켈린 터너, 이용일 역</p> <p>「장애로 세상을 감동시킨 용기있는 사람들」, 정해왕</p> <p>「시련과 절망 앞에서 용기를 주는 이야기」, 김동범</p>
생각 나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베토벤(안드레아 보첼리, 이블린 글레니 등)은 어떤 장애를 견디고 세계적인 음악가(연주자)가 되었는지 말해 보자.</li> <li>2. 주변 이웃 중에 장애를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li> </ol>
논술 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명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생활이나 가정의 어려움, 성적 등을 비관하여 가출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 나갈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자.</li> </ol>

위 수업 사례 외에 음악과 논술 수업을 처음 하는 1학년 새내기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벼운 주제의 논술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다.

1) 부모님(가족)의 사랑과 관련한 곡의 가창 수업 시 -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등 감동 플래시 ‘어머니’, ‘어머니의 밥그릇’, ‘나의 사랑 엄마’, ‘아들의 눈물’ 등의 플래시 자료를 보여주며 분위기 조성 및 동기 유발을 한 후, 플래시 내용 속의 한 인물이 되어 부모님께 글을 쓰게 한다. 또는 수업날 아침 어머니와 다툰 친구가 있다면 자신이 겪은 어머니와의 갈등 사건을 다른 친구는 ‘나’가 되어, 나는 ‘어머니’가 되어 역할극을 한 후 소감문을 쓰게 한다.

- <http://eduict.org>(교사커뮤니티), <http://www.happy.co.kr>(행복닷컴) 플래시 자료 참고



## 2)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또는 〈에델바이스〉 등 관련 수업

◆ 학생들에게 〈사운드 오브 뮤직〉의 즐거움을 들려주고, 관련 음악이 나오는 부분, 주인공 가족이 도망하는 장면은 직접 DVD로 보여준다.

주인공인 폰 트랩 대령 가족이 망명을 계획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도원에 몸을 숨기는 긴박한 상황 장면 부분. 수도원 묘지에 숨어있던 트랩대령 가족은 독일군들이 수도원 묘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큰딸의 연인인 롤프(군인)에게 발각된다. 롤프는 잠시 멈칫(갈등)하다가 이 가족을 발견했다고 소리쳐 알린다.

위의 장면에서 어떤 템포의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 나오는지 유의하며 듣게 하고, 음악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서술하게 한다.



### 3) 대중음악(생활 속의 음악) 관련 수업 시

음악적 취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각각의 입장이 되어 의견을 나누게 한다.

- 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록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딸의 음악적 취향에 대하여
- 대중 가수 입장에서 판소리 명창의 음악적 취향에 대하여 등

#### ▣ 기타 참고 도서

- 「우리가 듣는 클래식은 다르다」, 김경수
- 「금난새와 떠나는 클래식여행」, 금난새

## 3. 마치며

음악은 자주 들을수록, 적극적으로 들을수록, 또 작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작품을 느끼게 된다. 다양하고 좋은 음악을 많이 접해 보아야 치우침 없이 음악을 판단하는 안목이 자란다. 듣고 느끼는 음악과 더불어 생각하고 표현해 보는 ‘음악 하기’를 해 보자.

음악 교과에서 어떻게 논술을 하지?

활동 중심, 실기 중심인 수업에서 무얼, 어떻게 논술거리로 끌어내야 하는 걸까?

논술 주제는 어떤 것이 적당한지, 음악적 지식과 관련되어 어떻게 사고를 확장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현장에서 하고 있는 교과서 수업 내용에서 생각할 거리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여, 기존 수업 내용을 어떻게 논술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이 길라잡이를 만들었다.

음악 교과 논술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적 지식을 얻어 자신만의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르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통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길라잡이가 음악 수업과 논술 지도에 직면한 음악 교사들에게 자그마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른 선생님들의 연구와 보태어져 더 나은 수업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미술과에서의 논술 지도

김 영 복(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1. 시작하며
- 2. 이론적 배경
- 3. 실천 설계
- 4. 실천하기
- 5. 마치면서

## 1. 시작하며

### 가. 필요성

요즘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의 화두는 학습 수행 과정에서 습득된 지식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서술이나 논술의 능력을 어떻게 길러 줄 것인가이다. 논술은 생각이나 느낌을 떠오르는 그대로 써 내려가는 감상문이나 수필과는 성격이 다른 글이다. 논술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자기 나름의 견해나 주장을 내세운 다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글쓰기 활동이다. 이런 글쓰기 활동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하게 될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폭넓은 독서이다. 학생들의 가장 좋은 독서 교재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교과 학습 내용을 실생활과 연계하여 자기 자신의 문제와 우리 공통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게 하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암기식 공부로는 더 이상 논리력과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논리력과 창의성 향상에는 배경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교과적인 풍부한 배경 지식과 사고는 학생들에게 논리적,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논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교사는 미술 교과 학습 내용을 심화·확대시켜 논술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미술 교과 논술 지도 길라잡이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 나. 목적

미술과 실기·이론 학습을 통한 체계적인 논술 쓰기의 다양한 배경 지식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가. 미술 교육에서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표현 활동과 감상, 비평, 글쓰기의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 나. 미적 안목을 가진 문화인을 육성하기 위해 미적 체험, 표현, 감상 능력을 향상시킨다.
- 다. 미적 대상을 보고 미적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내면화 과정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다. 제한점**

- 가. 논술 지도 길라잡이는 관련 서적과 논술 관련 문헌, 중학교 미술 교과서, 미술과 독서 지도 매뉴얼의 내용을 고찰하고 참고한 다음 구안했다.
- 나. 본 자료는 미술 시간의 실기 학습 단원에 활용할 수 있는, 논술과 연관된 아이디어나 학습 활동지를 제안했다.

## 2. 이론적 배경

**가. 미술 교과와 논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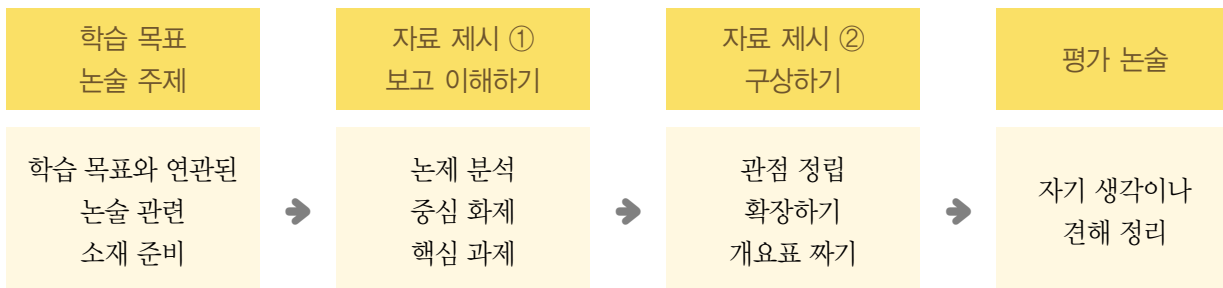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논술 교육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공통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일선의 교사 입장에서 미술 교과의 영역별 대단원에 논술 교육을 접목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각 교과에서의 논술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과 사고력 신장에 기여한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술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미적 대상과의 만남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논술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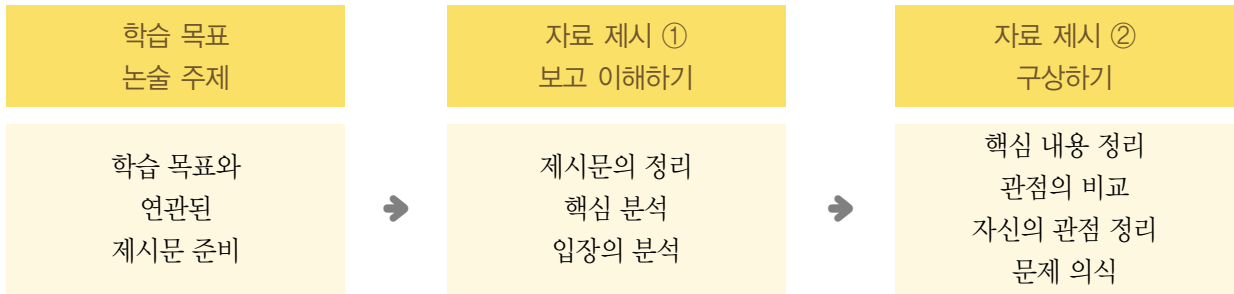
학생들이 수업에서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영역별 논술 지도 전략**

1) 미적 체험, 표현 영역



2) 감상



3. 실천 설계

가. 영역별 내용

1) 미적 체험

학습 대단원	논술 배경 지식을 위한 수업 단원의 예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자연과 조형물의 구조에서 아름다움과 조화를 발견)	●우리 전통의 색채 개념 ○입체 미술의 확장
미술과 생활의 관계 (생활에서 미술의 기능과 역할 이해)	●생활 속의 우리 미술 ○거리의 조형예술

2) 표현

학습 대단원	논술 배경 지식을 위한 수업 단원의 예
주제 표현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조형적 질서, 시각 전달과 환경에 필요한 것 등)	○수막새 만들기 ●세상의 모든 것이 상상 재료 ○꽃 그리기
표현 방법 (평면, 입체의 효과적 표현, 주제와 목적에 알맞은 표현 방법 탐색)	○판화로 표현하기 ●광고 만들기
조형 요소와 원리 (형, 색, 질감, 동세, 명암, 양감, 공간, 비례, 구조 등)	●조형의 언어 : 대칭과 반복 ○한국미 표현을 위한 시각 디자인
표현 재료와 용구 (주제와 표현에 알맞은 재료 선택, 여러 가지 용구의 사용)	●인물 만들기과 석고형 만들기 ○곤충 만들기

3) 감상

학습 대단원	논술 배경 지식을 위한 수업 단원의 예
미술품 감상 (작품과 미술품의 특징 찾아 비교·설명)	● 예술가와 예술혼
미술 문화의 이해 (각 나라 미술의 특성을 이해)	● 서양화 읽기
우리나라 미술의 이해 (시대별, 양식별 특징)	○ 한국 미술의 이해
다른 나라 미술의 이해 (시대별, 양식별 특징)	○ 영화 이어 바꿔 그리기

(●표시 : 논술 자료 제시 단원명)

## 4. 실천하기

### 가. 미적 체험 영역 수업 및 논술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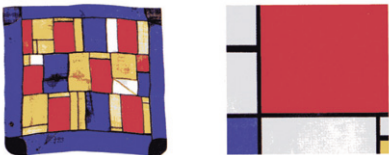
#### 1) 우리 전통의 색채 개념

활동 목표	1. 우리나라 고유의 색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 고유의 색채 개념을 살려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전통 미술 작품 도록, 인터넷, 먹, 벼루, 붓, 먹물, 창호지, 도화지, 한국화 물감
활동 과정	감상 및 이해 활동(논술 배경 지식) ⇒ 표현 활동 ⇒ 비평 및 감상 활동
학습 목표 논술 주제 학습 목표와 연관된 제시문 준비	<p>▣ 고분벽화 사신도와 색의 관계 이해하기</p> <p>고분벽화의 사신도인 &lt;현무도&gt;, &lt;청룡도&gt;, &lt;백호도&gt;, &lt;주작도&gt;를 빔 프로젝터나 슬라이드 등으로 제시하고, 동물 이름과 색채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p> <p>① 고구려 고분은 주로 어떤 사람의 무덤인가? ② 무덤 속의 네 방향의 벽에 그려진 그림은 무엇이라 하나? ③ 사신도의 상징색은 각각 어떤 색인가? ④ 고분벽화에 사신도가 그려진 이유는 무엇인가?</p>



<p>자료 제시 ① 보고 이해하기 문제 분석 중심 화제 핵심 과제</p>	<p>■ 음양오행과 오방색의 관계 이해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오방색은 어떤 색인가?</li> <li>② 오방색이 나타내는 다섯 가지 방향은 각각 무엇인가?</li> <li>③ 화(火, 불), 수(水, 물), 목(木, 나무), 금(金, 쇠), 토(土, 흙)와 관련된 색, 방향, 계절, 상징, 오륜은 각각 무엇인가?</li> <li>④ 전통 미술에서 오방색의 개념이 잘 나타난 경우는 무엇인가?</li> <li>⑤ 단청에서 오방색을 찾아보자.</li> <li>⑥ 불화에서 오방색을 찾아보자.</li> <li>⑦ 민화에서 오방색을 찾아보자.</li> </ol>																																				
<p>자료 제시 ② 구상하기 관점 정립 확장하기 개요표 짜기</p>	<p>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음양오행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색채 문화 역시 이 음양오행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음양오행이라 함은 우주나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 및 만물이 생기고 죽는 것을 음양과 오행의 관계와 조화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음양이란 음(陰)과 양(陽)이 합쳐진 말로, 양은 세계의 적극적인 극과 확장력을 뜻하고 음은 수동적인 극과 수축력을 상징한다. 오행은 요일에 붙어 익숙한 화(火, 불), 수(水, 물), 목(木, 나무), 금(金, 쇠), 토(土, 흙)이다. 이 다섯 가지가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한다는 사상이다.</p> <p>색깔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오행 사상에 바탕을 두어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였다. 오방색이란 파랑(청색), 빨강(적색), 노랑(황색), 검정(흑색), 하양(백색)을 말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493 1267 1394 1519"> <thead> <tr> <th>오행</th> <th>오방색</th> <th>방향</th> <th>계절</th> <th>상징</th> <th>오륜</th> </tr> </thead> <tbody> <tr> <td>木(나무)</td> <td>파랑(靑)</td> <td>동</td> <td>봄</td> <td>청룡(용)</td> <td>仁</td> </tr> <tr> <td>金(쇠)</td> <td>하양(白)</td> <td>서</td> <td>가을</td> <td>백호</td> <td>義</td> </tr> <tr> <td>火(불)</td> <td>빨강(赤)</td> <td>남</td> <td>여름</td> <td>주작</td> <td>禮</td> </tr> <tr> <td>水(물)</td> <td>검정(黑)</td> <td>북</td> <td>겨울</td> <td>현무</td> <td>智</td> </tr> <tr> <td>土(흙)</td> <td>노랑(黃)</td> <td>중앙</td> <td></td> <td>사랍(왕)</td> <td>信</td> </tr> </tbody> </table>	오행	오방색	방향	계절	상징	오륜	木(나무)	파랑(靑)	동	봄	청룡(용)	仁	金(쇠)	하양(白)	서	가을	백호	義	火(불)	빨강(赤)	남	여름	주작	禮	水(물)	검정(黑)	북	겨울	현무	智	土(흙)	노랑(黃)	중앙		사랍(왕)	信
오행	오방색	방향	계절	상징	오륜																																
木(나무)	파랑(靑)	동	봄	청룡(용)	仁																																
金(쇠)	하양(白)	서	가을	백호	義																																
火(불)	빨강(赤)	남	여름	주작	禮																																
水(물)	검정(黑)	북	겨울	현무	智																																
土(흙)	노랑(黃)	중앙		사랍(왕)	信																																
<p>평가 논술 자기 생각이나 견해 정리</p>	<p>■ 더 생각해보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분벽화 사신도와 색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li> <li>② 음양오행과 오방색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li> <li>③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음양오행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해 보시오.</li> <li>④ 우리 조상들은 이 음양오행 사상에 바탕을 두고 오방색을 사용하였다. 자신의 관점에 입각하여 현대 문화 속의 오방색의 예를 한 개 이상 들어 설명해보시오.</li> </ol>																																				

2) 생활 속의 우리 미술

<p><b>활동 목표</b></p>	<p>1.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한 예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보자기의 아름다운 무늬를 색 한지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p>
<p><b>준비물</b></p>	<p>전통 미술 작품 도록, 인터넷, 슬라이드, 보자기 사진이나 도록, 색 한지, 가위, 풀, 도화지</p>
<p><b>활동 과정</b></p>	<p>감상 및 이해 활동 ⇒ 표현 활동 ⇒ 비평 및 감상 활동</p>
<p><b>학습 목표</b> <b>논술 주제</b> 학습 목표와 연관된 제시문 준비</p>	<p>▣ 조각보와 몬드리안의 작품 비교하기</p>  <p>① 두 작품은 각각 어느 시대의 무슨 작품인가? ② 두 작품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③ 두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어느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④ 조선시대 보자기는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가?</p>
<p><b>자료 제시 ①</b> 보고 이해하기 논제 분석 중심 화제 핵심 과제</p>	<p>▣ 조상들의 생활 속의 예술 찾아보기</p> <p>① 도록이나 인터넷에서 창살 무늬를 찾아보자. 어떤 문양들이 나타나 있는가? ② 우리 조상들이 쓰던 부채에는 주로 어떤 그림들이 있는가? ③ 기와나 다식판, 자수 등에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문양을 찾아보자. 가장 마음에 드는 문양은 어떤 문양인가?</p>
<p><b>자료 제시 ②</b> 구상하기 관점 정리 확장하기 개요표 짜기</p>	<p>▣ 전통 문화를 현대에 활용하는 방법 이야기하기</p> <p>전통 문화를 현대에 계승하고 창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 고유의 문화나 미술보다는 서양의 문화나 미술에 더 익숙한 경우가 많다. 김홍도나 정선보다 피카소나 고흐가 더 익숙하고, 오방색이나 삼원법보다 삼원색이나 투시원근법에 더 익숙하다.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를 현대에 계승하고 창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p>
<p><b>평가 논술</b> 자기 생각이나 견해 정리</p>	<p>▣ 더 생각해보기</p> <p>① 우리나라 조각보와 몬드리안의 작품 비교하며 설명하시오. ② 주변에서 현대에 전통 문화와 전통 미술을 계승하는 예를 찾아보자. ③ 우리의 전통 미술을 새롭게 계승하고 창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④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전통 문화를 찾아보고, 그것을 현대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나열해보고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시오.</p>

나. 표현 영역 수업 및 논술 관련 자료

1) 세상의 모든 것이 상상 재료

<p>학습 목표 논술 주제 학습 목표와 연관된 제시문 준비</p>	<p>표현 영역의 대부분은 실기 수업이다. 이때 어떤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창의성을 키우는 활동지를 작성해서 주제 표현, 표현 방법, 표현 재료, 용구 설명 시에 활용한다. 아래는 상상력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예로 만든 활동지이다.</p> <p>무궁무진한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발상 훈련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예시 작품들을 준비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그림 이야기가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창의적인 사람들은 결코 평범한 것도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허술하게 대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p> <p>‘호기심’, ‘집중’, ‘열정’ 이 창의성을 싹틔우는 씨앗이라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생각들이 놀이처럼 즐겁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을 억지로 짜내지 않으며, 창의성은 머리로 하는 유쾌한 놀이라는 점, 그림은 정신의 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p> <p>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꺼내서, 미적 요소를 찾고, 주제도 찾고, 미적 가치 판단, 생각 넓히기 등으로 연결시켜 좋은 논술하기로 연결할 수 있다.</p>
<p>자료 제시 ① 보고 이해하기 논제 분석 중심 화제 핵심 과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아르침볼도&lt;아채상&gt; 159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달리&lt;메 웨스트&gt; 1935</p> </div> </div> <p>▣ 미적 요소 찾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li> <li>②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가?</li> <li>③ 각각의 그림에 사용된 재료는 무엇일까?</li> </ol>

<p>자료 제시 ① 보고 이해하기 논제 분석 중심 화제 핵심 과제</p>	<p>■ 주제 찾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작품을 제작했을까?</li> <li>② 왜 작가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li> <li>③ 각각의 그림이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li> <li>④ 사실적인 그림인가, 추상적인 그림인가?</li> </ol> <p>■ 미적 가치 판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 보자.</li> <li>②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li> <li>③ 표현이 잘된 부분은 어디인가?</li> <li>④ 표현이 독창적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며,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가?</li> <li>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치겠는가?</li> </ol>
<p>자료 제시 ② 구상하기 관점 정립 확장하기 개요표 짜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김재홍&lt;모자상&gt; 1999</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달리&lt;코끼리를 비추는 백초&gt; 1937</p> </div> </div> <p>■ 다시 생각해보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각의 그림에 제목을 붙여 보자.</li> <li>② 그림을 좌우로 뒤집어 감상해 보자.</li> <li>③ 그림에 사용된 조형의 요소(원리)는 무엇인가?</li> </ol>
<p>평가 논술 자기 생각이나 견해 정리</p>	<p>■ 더 생각해보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달리의 두 작품처럼 예술가들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표현하는 방법이 평범하지 않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술가에 관하여 재능이나 천재, 또는 신비로운 존재로까지 생각을 하기도 한다. 또한 예술가를 구분해 주는 매우 다른 특질로 “예술가적 매체에 의해서”라고 제시하고 있다. 색깔이나 그림 내용 등을 어떤 방식으로 구사하여 그 형식을 발견하는 과정을 창조 과정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예술가의 창조성’과 그 ‘예술적 매체’의 관련을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술가, 예술 작품을 예로 들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자.</li> </ol>

<p>평가 논술 자기 생각이나 견해 정리</p>	<p>②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기까지 성장하면서 배운 지식과 훈련된 재능, 그리고 예술가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 소재의 선택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술가가 예술작품에 있어서만은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 점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근거를 제시하여 말해 보자.</p> <p>※ 아르침볼도의 그림은 뒤집으면, 야채상의 모습은 없고, 검은 항아리에 야채가 수북하게 담긴 정물화가 나타난다. 김재홍의 그림은 경치가 아름다운 강원도 영월의 동강을 그린 풍경화로 바위에 새겨진 굵은 주름살과 티 없이 맑은 물은 동강이 얼마나 깨끗한 강인지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왜 제목이 &lt;모자상&gt;일까? 바로 해답은 그림을 왼쪽으로 90도로 틀었을 때 전혀 다른 상황을 연출하는 그림이다. 신기하게도 엄마와 아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림이 보인다.</p> <p>달리의 &lt;메 웨스트&gt;는 달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할리우드의 여배우이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호화로운 실내로 바뀐다. 여배우의 머리는 방 입을 장식한 화려한 커튼으로, 빨간 입술은 소파로, 두 눈은 벽에 걸린 두 점의 그림으로, 매끈한 피부는 마루바닥으로 변한다. &lt;코끼리를 비추는 백조&gt;라는 작품은 티 없이 맑은 날, 투명한 햇살이 호수를 비추고, 호수에 떠 있는 세 마리 백조가 물에 젖은 몸을 햇볕에 말리고 있다. 밝은 대낮인데도 천지가 밤처럼 고요하다. 물에 드리워진 백조들의 긴 그림자도 한낮의 정적을 더한다. 그런데 물에 비친 백조의 그림자를 보라. 백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코끼리가 난데없이 나타난다. 기다란 백조의 목은 코끼리의 긴 코, 백조의 몸체와 날개는 코끼리의 길고 커다란 귀, 호숫가에 서있는 나무의 그림자는 굽직한 코끼리 다리로 변한다.</p>
------------------------------------	---

## 2) 광고 만들기

<p>학습 목표 논술 주제 학습 목표와 연관된 제시문 준비</p>	<p>광고는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사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따라서 광고는 짧은 시간 안에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라고 하는 광고. 그 많은 광고 속에서 광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 능력을 기르는 것이 광고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다.</p>
<p>자료 제시 ① 보고 이해하기 논제 분석 중심 화제 핵심 과제</p>	<p>▣ 광고의 이점은?</p> <p>① ② ③</p>

<p>자료 제시 ① 보고 이해하기 논제 분석 중심 화제 핵심 과제</p>	<p>※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음/과장 광고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로서 현명한 판단 능력을 기름/광고주와 광고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효과 등</p> <p>■ 광고 만들기 학습의 효과</p> <p>① 광고 만들거나 광고 해석을 통해 창의력, 관찰력, 해석력, 판단력 등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기름</p> <p>② 다양한 그림이나 캐릭터, 디자인 등을 통해 미적 감각을 기름</p> <p>③ 경제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는 경제 교육 효과</p> <p>④ 짧고 설득력이 강한 광고 문장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기름</p> <p>⑤ 광고업과 관련된 소질 계발 및 직업 교육의 효과</p>
<p>자료 제시 ② 구상하기 관점 정립 확장하기 개요표 짜기</p>	<p>■ 직접 해보기 1 : 신문에서 상품광고를 고르고, 다음 내용을 생각, 정리해 보자.</p> <p>① 이 광고가 제시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제품 이름, 특징,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 등)</p> <p>② 이 광고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p> <p>■ 직접 해보기 2 : 신문에서 마음에 드는 기업 광고를 찾고, 다음 내용을 생각, 정리해 보자.</p> <p>① 이 광고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기업의 이미지는 무엇인가?</p> <p>② 이 기업에 대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p> <p>③ 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광고 때문인가? 실제로 상품을 이용해 보아서인가?)</p> <p>④ 이 기업의 상품을 사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 직접 해보기 3 : 신문에서 공익 광고를 찾아보고,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자.</p> <p>① 이 광고의 주제는 무엇인가?</p> <p>② 이 광고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p> <p>③ 이 광고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나의 행동은 무엇인가?</p> <p>■ 직접 해보기 4 : 여러분이 심사 위원이 되어 광고 대상을 선정해 보자. 그리고 그 광고를 선택한 이유를 적어보자.</p> <p>①</p> <p>②</p> <p>③</p>



<p>자료 제시 ② 구상하기 관점 정립 확장하기 개요표 짜기</p>	<p>▣ 직접 해보기 5 : 신문에서 마음에 드는 광고를 선택하여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자. 그리고 패러디하거나 바꿔보자.</p> <p>① 서브헤드라인(부제) _____ → _____</p> <p>② 헤드카피(제목) _____ → _____</p> <p>③ 보디카피(광고의 본문) _____ → _____</p> <p>④ 슬로건(강조구) _____ → _____</p>									
<p>평가 논술 자기 생각이나 견해 정리</p>	<p>▣ 더 생각해보기</p> <p>①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생각하면서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_____</li> <li>• 소재 _____</li> <li>• 광고주 _____</li> <li>• 기획 의도 _____</li> <li>• 광고 내용 _____</li> <li>• 광고 전략 _____</li> <li>• 주요 공략 대상 _____</li> <li>• 이미지 _____</li> <li>• 기타(꼭 들어가야 할 내용 등) _____</li> </ul> <p>● 스토리 구성(콘티 짜기)</p> <table border="1" data-bbox="493 1555 1394 1915"> <thead> <tr> <th>순서</th> <th>내 용</th> <th>삼 화</th> </tr> </thead> <tbody> <tr> <td>1</td> <td></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r> </tbody> </table>	순서	내 용	삼 화	1			2		
순서	내 용	삼 화								
1										
2										

평가 논술 자기 생각이나 견해 정리	순서	내 용	삼 화
	3		
	4		
	5		

② 소비자는 광고가 없다면 상품 구입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고, 기업은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광고는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지만 광고는 현대인들에게 역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광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열해 보시오.

### 3) 조형의 언어-대칭과 반복

학습 목표 논술 주제 학습 목표와 연관된 제시문 준비	다음에 제시하는 작품의 예는 판화나, 조형 요소를 설명할 때 이용하면 좋다. 놀이와 예술을 결합, 수학까지 덧붙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꺼내서, 미적 요소를 찾고, 주제도 찾고, 미적 가치판단, 생각 넓히기 등으로 연결시켜 좋은 논술하기로 연결할 수 있다.
자료 제시 ① 보고 이해하기 논제 분석 중심 화제 핵심 과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에셔&lt;대칭63&gt; 1944</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에셔&lt;원형극한&gt; 1960</p> </div> </div>

<p>자료 제시 ① 보고 이해하기 논제 분석 중심 화제 핵심 과제</p>	<p>■ 미적 요소 찾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li> <li>②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가?</li> <li>③ 각각의 그림에 사용된 재료는 무엇일까?</li> </ol> <p>■ 주제 찾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작품을 제작했을까?</li> <li>② 왜 작가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li> <li>③ 각각의 그림이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li> <li>④ 사실적인 그림인가, 추상적인 그림인가?</li> </ol> <p>■ 미적 가치 판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 보자.</li> <li>②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li> <li>③ 표현이 잘된 부분은 어디인가?</li> <li>④ 표현이 독창적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며,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가?</li> <li>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치겠는가?</li> </ol>
<p>자료 제시 ② 구상하기 관점 정립 확장하기 개요표 짜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이중근&lt;위장-먹이사슬&gt; 2002</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이중근&lt;동감내기&gt; 2002</p> </div> </div> <p>■ 다시 생각해보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각의 그림에 제목을 붙여보자.</li> <li>② 그림을 좌우로 뒤집어 감상해 보자.</li> <li>③ 그림에 사용된 조형의 요소(원리)는 무엇인가?</li> </ol>

<p>자료 제시 ② 구상하기 관점 정립 확장하기 개요표 짜기</p>	<p>※ 에셔의 &lt;대칭&gt;은 마치 자로 잦 듯한 똑같은 모습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언뜻 보면 벽지의 문양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심히 관찰하면 두 가지 형상이 숨어있다. 커다란 날개를 단 여자 천사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하얀 천사의 배경인 검은 부분에 눈길을 돌리면 박쥐를 닮은 흉측한 검은 악마가 두 눈을 번뜩이며 이빨을 드러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lt;대칭63&gt;이란 작품 역시, 흰색은 한 남자가 유쾌한 표정으로 손발을 뻗으며 즐겁게 길을 가는 모습을, 검은 색은 또 다른 남자가 침울한 표정을 지은 채 마지못해 걸어가는 모습을 담았다.</p> <p>이중근의 &lt;위장-먹이사슬&gt;이란 작품 역시 멀리서는 화려한 벽지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난데없는 군인이 짓궂게 혀를 내미는 모습이 규칙적으로 대칭 반복되고 있다. &lt;동갑내기&gt;란 작품도 노란 귀여운 벽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기가 자신의 생일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모습이다. 그 옆에 애견의 모습까지.</p>
<p>평가 논술 자기 생각이나 견해 정리</p>	<p>▣ 다시 생각해보기</p> <p>① 에셔의 &lt;대칭63&gt;(1944)와 &lt;원형극한&gt;(1960) 두 작품은 마치 자로 잦 듯한 똑같은 모습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왜 에셔는 천사와 악마를 똑같은 숫자로 반복해서 그린 것인지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자.</p> <p>② 이중근의 작품에서는 아름다운 벽지인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군인 아저씨가 짓궂게 혀를 내미는 모습이 규칙적으로 대칭 반복되고 있다. 작가는 왜 화려한 문양 속에 군인아저씨가 혀를 날름 내미는 우스꽝스런 장면을 숨겨놓은 것일까? 또 무한히 반복하는 이미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자신의 관점을 써 보자.</p> <p>③ 회화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면(場面)과 화면(畵面)이다. 장면은 여러 장면 가운데 하나이며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토막인데, 기록화, 역사화, 고분화, 종교화는 모두 장면을 중시한다. 화면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독자적인 것으로 심미감을 만족시키거나 홀로 즐길 수 있는 소재, 구도를 취한 감상을 위한 그림은 모두 화면을 중시한다. (이동주, 「우리나라의 옛 그림」에서)</p> <p>미술을 이해할 때 기록용이거나 장식용, 감상용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구분 기준은 모호할 수도 있다. 위에 제시된 에셔와 이중근의 그림에 대해 이동주의 화면과 장면의 개념으로 설명해 보자. 자료와 근거를 들어 말해 보자.</p>

4) 인물 만들기와 석고형 만들기

▣ 활동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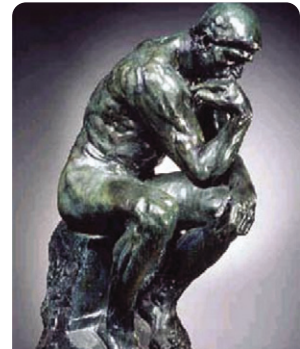
인물 만들거나 입체 표현 수업 때 활용하는 아이디어 활동지이다. 세 작품을 통해서 각 나라의 조각적 특징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표현 재료나 용구 등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홈페이지나 교과 홈페이지에 미리 다음과 같은 활동지를 올려서 아이디어 스케치 전에 도입 학습이나 평가 부분에서 활동지를 작성해서 발표해 보도록 한다.



국보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고류지반가사유상(일본)



생각하는 사람(로댕)

구분	작품명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고류지반가사유상	생각하는 사람
	각 작품의 첫인상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체의 모습을 설명해 보자			
	재료는 무엇일까?			
	생동감은 느껴지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조각이 주는 느낌은?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작품에 임했을까?			
	주제는 무엇일까?			
	표현이 독창적인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며, 어떤 점인가?			
	원래 제목 말고 다른 제목을 붙여보자.			

다. 감상 영역 수업 및 논술 관련 자료

1) 서양화 읽기



보테로<벨라스케스를 따라서> 1988



보테로<아담과 이브> 1990

읽기 자료



보테로<시인> 1987

콜롬비아 태생의 보테로(Botero, Fernando/1932)는 전통 미술의 소재와 방법을 계승한 고전주의 작가이며, 그것을 만화와 같은 대중 매체의 감각으로 변모시킨 작가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고전 미술의 중심을 이루어 온 '조각적인 형태'를 회화와 조각을 통해 꾸준히 탐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세잔이나 고갱, 마네, 피카소와 같은 근·현대 작가와 전통 미술가들의 작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더욱이 그는 거장들의 걸작을 아비한 표정과 원색의 부풀린 형태로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오늘날 자신의 양식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p>읽기 자료</p>	<p>보테로가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것은 1952년 마드리드 산 페르난도 왕립 미술 학교와 1953년 피렌체의 산마르코 미술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수학한 것이 전부이다. 그의 예술은 학교 교육보다는 오히려 인쇄물이나 유럽, 멕시코 등지의 미술관 작품들로부터 형성되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윤곽선, 원색의 색조, 매끈한 채색 기법, 크기의 과감한 확대와 축소 등에 의한 명확한 양감의 표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 인물들은 풍만한 양감으로 견고한 입체의 속성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주로 과거 거장들의 작품을 자신의 방법에 의해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다. 1973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조각 작품은 그의 회화의 궁극적인 귀결이다. 회화는 '붓으로 평면을 조각하는 예술'이라는 보테로 자신의 말처럼 회화에서도 그는 조각적 형태를 지향해 왔기 때문이다. 대리석이나 브론즈, 합성수지로 제작된 조각들은 일상생활의 공간에 놓여졌을 때 그 물질적인 형태가 더 풍만하게 느껴진다.</p>
<p>자료 제시 ① 보고 이해하기 논제 분석 중심 화제 핵심 과제</p>	<p>■ 생각 꺼내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의 작품 주제는 무엇인가?</li> <li>②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가?</li> <li>③ 각각의 재료는 무엇일까?</li> </ol> <p>■ 주제 찾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작품을 제작했을까?</li> <li>② 왜 작가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li> <li>③ 각각의 그림이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li> <li>④ 사실적인 그림인가, 추상적인 그림인가?</li> </ol> <p>■ 미적 요소 찾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 보자.</li> <li>②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li> <li>③ 표현이 잘된 부분은 어디인가?</li> <li>④ 표현이 독창적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며,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가?</li> <li>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치겠는가?</li> </ol> <p>■ 생각 넓히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각의 그림에 제목을 붙여 보자.</li> <li>② 그림을 좌우로 뒤집어 감상해 보자.</li> <li>③ 그림에 사용된 조형의 요소(원리)는 무엇인가?</li> <li>④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시오.</li> </ol>

자료 제시 ②  
더 읽을거리  
학습 내용 정리  
관점의 비교  
자신의 관점 정리  
문제의식

▣ 더 생각해보기

① 보테로의 예술적 의도나 형식을 위의 작품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오.



벨라스케스<궁정의 시녀들>



<궁정의 시녀들> 부분 확대

② 보테로의 <벨라스케스를 따라서>란 작품은 제목에서 보듯, 벨라스케스의 <궁정의 시녀들>이란 작품을 따라서 그린 것이다. 하지만, 외견상 보여지는 인물의 형태와 색채는 사뭇 다르다. 그렇다면, 보테로는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몇 가지 견해를 나열해 보고 정리하시오.

③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보테로의 그림 속의 여인의 뚱뚱한 모습보다는, 가냘프다고 할 정도의 날씬한 외모의 여인을 미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은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얼마 전 크게 몰아친 열쌍, 몸짱 열풍을 비롯해 드라마, 오락 프로 등의 대중매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되어 버렸다.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원인과 그 해결책을 논술해 보시오.

④ 보테로가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인용한 것은 일종의 ‘패러디’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패러디는 ‘또 다른 창작’ 일까, ‘원전 모독’ 일까?

⑤ ‘패러디’의 한 예를 들고,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2) 예술가와 예술혼

읽기 자료



앤디워홀<마릴린> 1967



앤디워홀<210개의 코카콜라병> 1962

“TV에 콜라 광고가 나온다. 그 콜라는 대통령도 마신다. 리즈 테일러도 마신다. 거지도 마신다. 그리고 당신도 마신다.” 미국의 유명한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이 한 말이다. 대중매체의 위력 앞에 꼼짝없이 포로가 되는 현대인을 풍자하는 말이면서도 또한 대중매체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자신도 최고 권력가나 저명 배우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통 사람이 평생 대면하기 어려운 외국의 톱스타도 대중 매체 때문에 이웃 얼굴처럼 늘 친숙하게 느껴진다.

TV에 비쳐지는 현실, 그리고 대중문화의 이미지는 실제로 내 곁에 엄존하는 현실보다 훨씬 막강한 실재감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런 터이니 현대미술이 힘센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짝사랑하게도 됐다. 광고를, 만화를, 영화를, 출판물을 슬금슬금 훑내 내기 시작한 현대미술. 한편 딱하게도 보이지만 광고와 사진 등 영상매체도 순수 미술을 그리워하게 된 사정은 마찬가지니, 서로 죽이 맞는 사이라고나 할까. 예술이 고상하고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강경론자에겐 죄스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다. 사실 대중문화와 미술이 화간, 또는 통전한 예는 이루 손꼽기 힘들 정도다. 대중문화가 사람들이 호흡하는 공기와 진배없이 행세하는 세상이니 그 둘이 살림을 차린들 대수냐 하는 관대한 해석이 없는 건 물론 아니다.

앞서 인용한 워홀은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무수히 찍어낸 작가다. 손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실크스크린으로 복제한 먼로의 얼굴은 그 오리지널이 따로 있다. 1953년 먼로가 나온 영화 <나이아가라>를 선전하고자 찍은 광고 사진이 원판이다. 주로 만화 장면을 판에 찍거나 유채로 그린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인 <공놀이 소녀>도 출처가 있다. 원피스 수영복 차림의 아가씨가 비치 볼을 쳐들고 있는 이 작품은 허니문 고객을 끌어들이는 어느 호텔의 신문 광고에서 슬쩍 따온 것이다. (...중략...)

대중문화의 이미지는 알게 모르게 화가의 두툼한 밀천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통찰은 대중문화의 우산 속에서 참말이다.

(손철주, 「아는 만큼 보인다」 중에서)

<p><b>자료 제시 ①</b> 보고 이해하기</p> <p>논제 분석 중심 화제 핵심 과제</p>	<p>■ 미적 요소 찾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의 작품 주제는 무엇인가?</li> <li>② 무엇을 하는 장면인가?</li> <li>③ 각각의 재료는 무엇일까?</li> </ol> <p>■ 주제 찾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작품을 제작했을까?</li> <li>② 왜 작가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li> <li>③ 각각의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li> <li>④ 사실적인 그림인가? 추상적인 그림인가?</li> </ol> <p>■ 미적 가치 판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 보자.</li> <li>②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li> <li>③ 표현이 잘된 부분은 어디인가?</li> <li>④ 표현이 독창적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며,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가?</li> <li>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치겠는가?</li> </ol> <p>■ 생각 넓히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각의 그림에 제목을 붙여 보자.</li> <li>② 그림을 좌우로 뒤집어 감상해 보자.</li> <li>③ 그림에 사용된 조형의 요소(원리)는 무엇인가?</li> <li>④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시오.</li> </ol>
<p><b>자료 제시 ②</b> 더 읽을거리</p> <p>학생 내용 정리 관점의 비교 자신의 관점 정리 문제의식</p>	<p>■ 더 생각해보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앤디 워홀의 예술적 의도나 형식을 위의 작품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오.</li> <li>② 팝아트의 대표적 작가인 리히텐슈타인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즐겨 읽는 만화를 대중미술로 승격시켰고, 만화를 실제 그대로 복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만화의 인기 있는 이미지를 두세 편 골라 단순화시켜 거기에 강한 색채를 가했다. 이 작품은 토니아브로조의 만화 주제를 응용해 만든 작품으로 남의 아이디어를 재편집하여 소녀의 얼굴에서 긴장과 갈등, 걱정, 절망, 불행 등을 클로즈업시켜 형성한 작품이다. 리히텐슈타인이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또 과연 이런 작품을 예술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나열해 보고 정리하시오.</li> </ol>

자료 제시 ②  
더 읽을거리  
학생 내용 정리  
관점의 비교  
자신의 관점 정리  
문제의식



리히텐스타인<물에빠진소녀> 1967



리히텐스타인<로이> 1995

③ 예술 행위의 자유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자신의 견해를 근거를 들어 밝히고 논술해 보시오.

## 5. 마치면서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해도 누구나 좋아하는 음악이나 노래가 한두 개쯤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술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흔히 ‘난 그림을 잘 못 그려’, ‘난 미술을 잘 몰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받았던 미술 교육이 그림 그리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실적인 표현을 잘 해야만 미술을 잘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잘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의 틀에 갇혀,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삶 속에서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미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미술을 활용하면서, 미술을 누리면서, 미술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옷에도, 차에도, 건물에도, 미술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변화된 미술 교육 과정에서는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감상과 비평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술과 교육 목표에서는 각 영역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 미술 교육 현장에서는 각 영역의 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통합 논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교과에서는 논술 교육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미술 교과에서 할 수 있는 논술 지도 자료도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길라잡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서 미적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의 수업을 논술 수업과 접목했던 내용,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다. 크게 미적 체험, 표현 영역에서 여섯 가지, 감상 영역에서 두 가지 정도의 논술 교육 접목의 아이디어였다.

미술 수업과 논술 교육 지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학교 현장의 동료 미술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많은 다른 미술 교사들의 멋진 아이디어와 연구도 앞으로 기대해 본다.



# 영어과에서의 논술 지도

홍 윤 빈(정원여자중학교 교사)

1. 영어 과목과 논술 지도

2. 논술 지도의 실제

## 1. 영어 과목과 논술 지도

### 가. 영어와 논술

논술이,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글쓰기라고 생각할 때, 논술에 대해서 통합교과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논술을 국어나 도덕 교과와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즉, 국어 실력 향상을 통해서 글의 틀을 완성하고, 도덕 교과와 철학이나 윤리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글의 내용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학 입학 시험에서 제시되는 논술 문제나 모의고사의 논술 문제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전 교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논술이 단지 한두 과목에 대한 학습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해 준다. 영어도 이 흐름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과거의 문법 번역식(GTM) 수업 방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수업 방법이 변화되고, 영어 교과에서의 독서 지도가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더구나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지문의 주요 내용과 의도 등을 파악하는 소위 ‘독해 문제’ 들이 주로 출제됨으로써, 영어와 논술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어 교과에서 어떻게 논술을 지도할 수 있을까?

### 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영어와 논술을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영어 실력 자체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논술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관점과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 실력 향상’ 과 ‘논술 실력 향상’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 1) 주제 중심의 학습

우선 영어 과목에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화, 국제적인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읽을거리들을 제공할 수 있다. 매일 매일 수업 시간에 접하는 교과서에서도 교과서 한 권 당 대체로 12가지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영어 지문이 제시되어 있으며, 영어과 독서 지도나 NIE와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영어 과목에서 논술과 연계하여 다룰 수 있는 영어 지문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 문화적인 차이와 문화 충격과 관련된 주제
- 영미권 사람들의 사고방식 및 생활 방식과 관련된 주제
- 영미권의 역사, 문화 및 문학과 관련된 주제
- 모국어 및 외국어 습득, 학습과 관련된 주제
- 우리 사회와 영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및 이슈
- 현재 영미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 (NIE 연계)

이와 같이 영어로 되어 있는 다양한 주제의 읽을거리들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단순 독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양한 Comprehension Questions을 통해 학생들이 지문 자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게 한다. 또 지문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 거리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술 주제를 제공하여 직접 글을 써 보게 한다면 이는 영어 실력과 논술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글쓰기는 주제의 성격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우리말로 작성하게 할 수도 있고 영어로 Essay를 쓰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영어식 글쓰기 방법 익히기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가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Paper 혹은 Essay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식 글쓰기가 글과 글 사이의 맥락이나 전반적인 흐름을 중시하는 반면에 영어식 글쓰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글의 전반적인 논리적 구조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어떤 글쓰기가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요구하는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논술 고사에서 써야 하는 글쓰기 방식은 영어식 글쓰기에 더 근접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영어가 논술 학습에 결정적 도움이 되는 이유이다.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TOFEL의 쓰기 영역 Test는 찬반이 분명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글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채점 기준은, 단순히 영어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답안이 주어진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충실하였는지, 전반적인 구성 및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본다. 아마도 여기에 창의성만 더 첨가된다면 우리나라 대학 입학 시험에서 요구하는 논술 고사의 채점 기준과 거의 유사할 것이다.

논술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두서없이 적어 내려가는 글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에 관해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글이다. 학생들이 실제로 논술 대회에서 쓰는 글을 보면, 주장은 있되 적절

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글을 써 내려가다가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논술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주장을 내세우는 글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근거를 갖춘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독창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TOFEL의 쓰기 시험같이, 찬반이 분명한 주제에 대한 영어식 글쓰기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우리글로 쓰는 논술 실력도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 제시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글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적절한 근거를 갖추어 정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영어식 글쓰기의 연습은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지문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영어 학습지용으로 구할 수 있는 영자 신문 등의 짧은 기사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TOFEL 쓰기 시험의 잘된 답안들을 모아서 함께 분석함으로써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동시에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즉, 해당되는 영어 지문을 학생들과 학습한 후에, 학생들 스스로가 지문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파악해 보도록 유도한다. 낮은 수준에서는 학생들에게 제시되어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게 함으로써 논리적인 글쓰기를 연습하게 할 수 있고, 높은 수준에서는 학생들에게 유사한 주제의 글을, 제시되어 있는 지문의 전개 형식에 맞추어 직접 쓰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영어식 지문을 학생들에게 많이 접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 2. 논술 지도의 실제

실제로 영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논술 지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은 회의적이다. 주어진 수업 시간에 진도를 다 나가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영어 과목과 논술 지도가 학교의 정기적인 지필 평가와도 관련이 없고, 이를 수행 평가와 연결시키는 것도 평가 면에서 다른 과목 교사들과 전반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영어 시간 내의 논술 지도란 그리 녹록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어와 논술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이 둘을 연계해서 지도했을 때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영어 시간에도 논술을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간 지도 계획 및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연간 지도 계획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영어가 일주일에 4시간 배당되고, 일 년 동안 교과서 한 권에 해당하는 12과의 학습을 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연간 지도 계획을 세워 보았다. 요점은 12개의 과 중에서 논술로 접근이 가능한 4~5개의 과를 선정하여, 최종적인 Wrap Up 과정으로 접근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1학기·2학기 말(특히 중3의 경우는 2학기 말)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영자 신문이나 쉬운 읽을거리들을 제공하여 독해 및 논술 연계 학습을 진행하도록 계획했다.

\* 연간 지도 계획 예시 \*

차시	학습 주제	논술 주제
1차시	● More Than One Language	- 다양한 종류의 영어가 존재하는 이유 - '표준 영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 - '콩글리쉬'에 대한 자신의 생각
2차시	● Healthy Eating & Physical Fitness	-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자신의 생각 -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
3차시	● Ms. Wise, What should I Do?	- 상대방의 고민에 대한 조언
4차시	○ 지나친 영어 오남용	- '콩글리쉬'의 순기능과 역기능 - 우리 사회에 필요 이상으로 영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
5차시	○ 영어 학습의 결정적 시기	- 언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6차시	● Cultural Understanding	-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7차시	● The Little Prince	- 길들여진다는 것의 의미
8차시	○ 친밀감의 거리	- 유럽 문화권과 한국 문화권의 친밀함의 태도의 차이
9차시	○ 영어 공용화	- 영어 공용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 - 영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10차시	○ 영어의 어원 이야기	- 차용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주) 천재 교과서 중3 교과서 참조
- ●표시는 교과서와 연계된 단원, ○표시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한 중학교 논술 읽기 자료 「읽기에서 논술까지」의 영어과 영역과 관련된 주제들임.
- 교과서와 연계된 단원은 1, 2학기의 진도에 근거하였음.
- 주당 4시간, 연간 128시간 중, 10차시를 할애하였음.

나. 수업 지도안 및 예시 답안

수업 지도안은 지도 교사의 편의를 위해서 교과서와 연계된 주제의 수업 지도안과 「읽기에서 논술까지」와 연계된 주제의 수업 지도안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과서와 연계된 주제의 수업 지도안의 경우 교과서 진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원의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는 Master Plan과 논술 지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 9차시의 Sub Plan을 함께 제시한다.

1) Cultural Understanding

## Master Plan

- ▶ 교과서 : (주) 천재교육 3학년 영어 교과서
- ▶ 단원명 : 7. Cultural Understanding
- ▶ 단원 학습 목표
  - 학생들이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한다.
  - 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 교과서에서 제시된 관련된 언어적 표현을 학습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지도 대상 : 중학교 3학년
- ▶ 차시별 학습 내용

차시	학습 내용	학습 자료
1차시	Warm-up & Listening Practice	Computer, PPT
2차시	Dialogue	PPT
3차시	Let's Talk	Handouts
4차시	Reading (1)	PPT, Handouts
5차시	Reading (2)	PPT, Handouts
6차시	Reading (3)	PPT, Handouts
7차시	Comprehension Questions and Expressions	Handouts
8차시	Grammatical Tips & Wrap Up	PPT, Handouts
9차시	Writing on Cultural Understanding	PPT, Handouts

## Sub Plan(9차시)

Phases	Activities		Teaching Aids	Time
	Teacher	Students		
Introduction	- Greeting - Introduction on today's lesson			5mins
Body	- <b>Questions to think</b> Let students think about some questions below. 1) What is cultural difference? 2) Examples on cultural difference	- As a group or pair, students think about questions suggested. They may write their ideas in Korean or English and can share their opinions on each questions.	PPT Handouts	15mins

Phases	Activities		Teaching Aids	Time
	Teacher	Students		
Body	3) How to overcome Cultural Differ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t students write on "How to overcome Cultural Difference"</li> <li>- General Structure and Organization are very important.</li> <li>- Students are asked to write down 2 or 3 sentences on Introduction. 5 or 7 sentences on Body and 2 or 3 sentences on Conclusion.</li> </ul>	<p>&lt;Individual Work&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udents write down their opinions on the given subject.</li> <li>- They are encouraged to write their essays in English, but sometimes Korean would be fine for some students.</li> </ul>	Handouts	20mins
Consoli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ggest some example essays to students.</li> <li>- Post the best essay on the school homepage as feedback</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nd in their essays</li> </ul>		5mins

▶ 예시 답안

There are so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peoples in this world and they have their own different customs and cultures. Nowadays there is a lot of trade among countries, and sometimes cultural difference can be a big problem for international trade and communication. So we should think about some good ways to overcome cultural differences.

First, we should understand the fact that there would be so many different cultures and customs in this world and each single culture and custom should be respected. It's important to know that your culture and customs are not the only right ones.

Second, although we are not able to know all the different customs in this world, we should know some different customs and cultures that are meaningful to us. For example, if you want to travel to Rome, you should know the cultures and customs in Rome.

Cultural understanding is very important in this so called international world. In this way we can overcome cultural differences among countries.

2) 영어 학습의 결정적 시기

교과서와 연계되지 않고 단독 주제를 제시할 경우, 1차시 내에 학생들에게 읽을거리와 글쓰기를 모두 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사전에 학생들에게 읽을거리를 유인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본 학습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것에 대해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 Lesson Plan

Phases	Activities		Teaching Aids	Time
	Teacher	Students		
Int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eting</li> <li>- Introduction on today's lesson</li> </ul>			5mins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Questions to think</b></li> <li>Let students think about some questions below.</li> <li>1) What is "Critical Period"?</li> <li>2) When would be the high time to start to learn a foreign languag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 a group or pair, students think about questions suggested. They may write their ideas in Korean or English and can share their opinions on each questions.</li> </ul>	PPT Handouts	15m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t students write on "When would be the high time to start to learn a foreign language"</li> <li>- General Structure and Organization are very important.</li> <li>- Students are asked to write down 2 or 3 sentences on Introduction, 5 or 7 sentences on Body and 2 or 3 sentences on Conclusion.</li> </ul>	<p>&lt;Individual Work&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udents write down their opinions on the given subject.</li> <li>- They are encouraged to write their essays in English, but sometimes Korean would be fine for some students.</li> </ul>	Handouts	20mins
Consoli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ggest some example essays to students.</li> <li>- Post the best essay on the school homepage as feedback.</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nd in their essays</li> </ul>		5mins



▶ 예시 답안

These days, many people learn English or other foreign languages for their better future and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language programs for them, but it's more important to know the right time to start learn foreign languages, because if you miss the right time, you can not learn foreign language efficiently.

There is a term called "Critical Period" in language learning, which means if you miss that period, usually around 6 years old however hard you may tr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your result wouldn't be so good, since you miss that critical period of learning foreign languages in your brain.

That's why we should keep that fact in mind and start to learn a foreign language around 6 years old in order to learn a target foreign language more efficiently. Teaching English to the 1st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would be a very good example on this issue.

Your might miss your critical period o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then you should try more and let our children not miss that period.





# 방과후학교와 논술 지도

서 태 진(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1. 방과후학교에서의 논술 교육의 필요성
- 2.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의 실제
- 3.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의 평가와 과제
- 4. 나오며

## 1. 방과후학교에서의 논술 교육의 필요성

방과후 교육활동은 2005년부터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전국에서 진행되었다. ‘방과후학교’는 소득 계층별,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과외 욕구를 방과후학교로 흡수해 보려는 정책이었다. 그리하여 ‘방과후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 활동의 질적 강화와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원 강사나 각 분야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활용,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무상 지원, 중학교에서도 교과 관련 강좌 개설, 방학이나 토요일업일과 연계한 탄력적 강좌 운영을 허용했다. 또한 사교육에 대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초등 보육 프로그램,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이외에 인성·창의성 계발 프로그램, 영재 교육 프로그램, 성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논술 교육도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정규 교과 시간을 통하여 논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긴 하지만, 많은 교과에서 현실적으로도 정규 수업 시간에 논술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진도 나가기도 시간이 빠듯한 데다가, 논술을 지도하는 데 2~3시간이나 소요되므로, 주당 수업 시수가 1~2시간인 교과에서는 논술을 한번 지도하는 데 2~3주에 걸쳐서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업의 흐름이 끊어져서 효과적인 논술을 지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방과후학교는 방과후에 2~3시간을 묶어서 지도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읽고, 해석하고, 간단한 토론을 거쳐 글을 쓰는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논술 지도는 통합교과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규 수업 시간은 각 시간이 독립

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논술 지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에서의 논술 지도는 여러 교과 선생님이 한 교실에 동시 입장하여 통합적인 논술 지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규 교과 시간의 논술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의 논술 교육 프로그램은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 2.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의 실제

### 가.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의 문제점

방과후학교의 논술 수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 수업은 대체로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운영된다. 토요 휴업일이나 방학을 이용해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은, 정규 수업을 끝내고 학급 담임 업무, 수업 교재 개발, 학교 행사 준비, 그리고 각종 공문 처리 등을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잠시 쉬거나 숙제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 학원에 가는 시간인 경우가 많다. 결국 방과후학교는 일종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수업인데, 교사와 학생이 모두 지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될 확률이 높고 다른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은 이러한 여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계획 단계, 진행 단계, 정리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논술 강좌의 계획 단계에서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강사나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논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강사풀이 부족하며, 학교 교사들도 논술 자체에는 스스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교사들은 수업 부담의 가중과 정규 수업의 부실을 우려하여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막상 논술 강좌를 운영하고자 해도 논술 수업을 위한 자료나 연수가 풍부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논술 강좌의 진행 단계에서 문제점은 더욱 커진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학교 행사와 겹쳐 연기되거나 너무 떠엄떠엄 운영이 되어 연속성이 떨어지기 쉽다. 둘째, 학생들은 각종 행사 참여나 수행 평가, 그리고 학원 수업 등을 이유로 결석을 자주 한다. 출결 관리는 학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셋째, 수준별로 반을 나누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논술 수준 차이가 현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수준 차이는 개별 지도를 통해 극복되어야 하는데, 개별 지도를 하기에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편이다.

논술 강좌 진행 단계의 부수적인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 첫째, 논술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쓴 논술문을 첨삭해야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논술 수업에서 가장 만족하는 지점이 바로 첨삭이기 때문에 첨삭을 포기할 수도 없다. 둘째, 논술 수업 자체가 약간 따분하고 생각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쉽게 지치고 수업을 지겨워하는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사의 통솔력

이 부족한 경우 학생들이 너무 떠들어서 수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담임교사가 강사를 맡는 경우에는 학급 운영을 거의 못하는 문제가 있다.

**논술 강좌의 정리 단계**에서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학부모가 학생을 방과후학교에 보내는 것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믿음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방과후학교는 과외나 학원 수업과 양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교육을 대체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애초의 방과후학교 취지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1기, 2기, 3기, 4기를 거듭할수록 논술 수업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강사를 바꾼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논술 수업의 흐름은 대동소이하다. 각각의 기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다져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나.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의 장점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에서 학습한 학습 내용을 보충하고 심화하게 해준다. 또한 정규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문제 해결력, 비판력, 탐구력, 창의력, 상상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정보처리 능력, 호기심, 흥미,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인성, 도덕성, 심미성 등을 길러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방과후학교의 최대 장점은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양질의 특기·적성이나 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외나 학원 수업을 대체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가정적 배경이나 사교육의 차이로 생기는 교육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와 맞물린 논술 열풍은 교육청에서 공문까지 보내 학부모의 열기를 누그러뜨려야 할 만큼 강력했다. 학원 논술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 여러 신문에 실리긴 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논술 영역에서 학교가 학원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논술 열기가 다소 식기는 했지만 우수한 학생 선발을 둘러싼 대학 간의 경쟁은 논술이나 논술의 변형을 다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의 논술 수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논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논술 과외나 학원 논술 수업을 대체하며, 소수를 대상으로 과외처럼 진행되는 논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 다.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 계획서의 예

### 1) 국어과 교사들의 논술 수업 계획서와 특징

국어과 교사들이 만든 논술 수업 계획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기르기, 문장이나 문단 쓰기, 서론-본론-결론 쓰기, 요약하기,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논술문 쓰기와 첨삭 지도 등이 나온다. 물론 사고력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주제에 초점을 두는 다른 교과와 달리 논술문의 체계와 형식, 논술의 글쓰기 전략 문제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다. 도구 교과인 국어과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사고를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수업 계획서 1]은 비판적 읽기 연습과 주제별 논술 실전 문제 풀이가 특징이다. 실제 수업에서는 사진 자료나 우화, 그리고 반박의 여지가 많은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진행했다. [수업 계획서 2]는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방법 제시가 특징이다. 실제 수업에서는 논술의 이론에 대한 차분한 설명과 이론에 근거한 논술문 쓰기로 진행되었다. [수업 계획서 3]은 신문을 활용한 요약 연습, 문제의 발견-해결 방법 제시, 그리고 나-가족-이웃-사회로 주제를 확대하며 실시하는 300자 논술 쓰기가 특징이다. 제시문에 대한 요약을 바탕으로 제시문에서 제시한 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특히 300자 논술 쓰기는 논술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었다. [수업 계획서 4]는 독서와 논술의 통합,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논술 지도가 특징이다.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은 자료를 활용하여 폭과 깊이를 갖춘 사고를 유도하고 있다. 같은 국어과 교사의 수업 계획서이지만 각자의 장점과 특징이 드러난다.

차시	주 제	학 습 내 용
1	수업 안내	논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써야 하나
2	기본실력 기르기	문장 바르게 쓰기, 문단 바르게 쓰기
3		개요짜기-쟁점 파악하기
4		서론 쓰기- 다양한 글의 구성 방법
5		본론 쓰기
6		결론 쓰기
7	유형별 논술 쓰기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1 -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묻는 문제
8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2 -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하는 문제(찬반양론)
9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3
10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4 - 제시문을 비판하는 문제
11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4
12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5 - 글의 일부분을 완성하는 문제
13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5
14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5
15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5
16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5
17	비판적으로 읽기	비판적으로 읽기란? 비판적으로 읽기 연습
18	주제별 논술	논술 실전 문제 풀이
19		
20		

<수업 계획서 1>

차시	주 제	학 습 내 용
1	문장 쉽게 쓰기	- 어법에 맞는 문장 쓰기 - 간결하고 쉬운 문장 쓰기 -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문장 쓰기
2	문단 쉽게 쓰기	- 문단의 성격과 구실 - 문단의 구성 요소 - 글, 문단, 문장의 관계
3	요약하기의 원칙	- 일반화의 원칙 - 선택의 원칙 - 재구조화의 원칙 - 긴밀성의 원칙
4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	- 비교, 대조, 인과, 유추 등
5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창의적 사고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다른 관점으로 사고하기 - 뒤집어서 사고하기
6	인상적인 서론 쓰기	- 주의 환기(독자의 관심 유도) - 문제 제기(과제의 제시)
7	기본에 충실한 본론 쓰기	- 문단의 소주제 결정(중심적인 생각) - 주장과 논거의 배치(논증 구성)
8	결론 쓰기 및 고쳐 쓰기	- 제시된 주제 요약 강조 - 앞으로의 전망과 새로운 과제를 제시 - 내용면, 구성면, 표현면 점검

<수업 계획서 2>

차시	주 제	학 습 내 용
1	논술의 시작	현행 대입 제도, 논술 공부의 필요성 및 방법
2	요약 연습 및	요약의 비법 · 요약 연습
3	실전	
4	신문 읽기 연습	요약 연습 · 논리적 사고력 기르기
5	문제의 발견 및 생각 정리하기	'진정한 나'
6		'진정한 나' 관련 주제 300자 논술 및 첨삭
7		'가족'
8		'가족' 관련 주제 300자 논술 및 첨삭
9		독서 토론 - 카프카의 '변신'
10		'변신'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참된 모습
11		'이웃의 불행'
12		'이웃의 불행' 관련 주제 300자 논술 및 첨삭
13		'우리와 너'
14		'우리와 너' 관련 주제 300자 논술 및 첨삭
15	'우리 시대의 이상'	
16	'우리 시대의 이상' 관련 주제 300자 논술 및 첨삭	
17	논술 실전 연습	논술 쓰기 및 첨삭
18	문제의 발견	의심하기, 확대 · 축소하기, 관계 바꾸기
19	및 해결 방법	비교하기, 상황 연상하기
20	논술 실전 연습	논술 쓰기 및 첨삭

<수업 계획서 3>

차시	학 습 내 용
1	어떻게 하면 논술을 잘 할까요?
2	독서 토론 및 논술 <천재 돼지 프랜시스 베이컨>
3	원고지 사용법
4	우리 학교 논술 대회 입상작 읽고 토론하기
5	틀리기 쉬운 맞춤법
6	제시문 읽고 논술하기: 인체 연구와 미래 사회
7	문장과 문단 쓰기
8	독서 토론 및 논술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1
9	개요 작성
10	제시문 읽고 논술하기: 사형제도
11	서론 쓰기
12	독서 토론 및 논술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2
13	본론 쓰기 1
14	제시문 읽고 논술하기: 영웅이란?
15	본론 쓰기 2
16	독서 토론 및 논술 <흑설 공주 이야기>
17	결론 쓰기
18	제시문 읽고 논술하기: 동서양의 전래동화
19	글을 구성할 때 유의할 점
20	핵심어 찾아 요약하기 연습
21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1
22	-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묻는 문제
23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2
24	-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하는 문제
25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3
26	- 제시문을 비판하는 문제
27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4
28	- 제시문의 분석을 토대로 하는 문제
29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5
30	- 글의 일부분을 완성하는 문제

<수업 계획서 4>

## 2) 타 교과 논술 수업의 계획과 실천 - 사회과의 예

방과후학교의 통합 논술에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등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수업 계획서 5]와 [수업 계획서 6]은 둘 다 사회과에서 만든 자료이다. 수업 계획서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수업 내용을 보면 국어과에서 만든 수업에 비해 신문이나 칼럼 등의 시사성이 강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교과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을 거쳐 논술로 이르는 특징을 지닌다.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북 공정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등의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접근이 많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논술 수업을 계획했다. 그러나 차시가 국어과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과의 특성을 지닌 논술 수업을 하기에는 무리였다.



### Ⅲ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논술 지도

차시	주 제	학 습 내 용
1	통합 논술 안내 사회 영역 맛보기	신문 기사나 칼럼 찾아보기 시사 분야에 관심 갖기 역사 문제와 현실의 관련성 탐구
2	내용 파악하기	핵심어와 주제 문장 찾기 쟁점 파악하기
3	사고력 기르기	새롭게 읽기 토론하기 비판을 통한 대안 찾기
4	생각 정리하기 쓰기 능력 기르기	토론 내용 바탕으로 글쓰기

<수업 계획서 5>

차시	주 제	학 습 내 용
1	통합 논술 안내 사회 영역 맛보기	칼럼 읽고 분석하기 - 핵심어 찾기
2	논술 준비	논리적 사고력 기르기 - 주제와 쟁점 파악하기
3	논술 준비	창의적 사고력 기르기 - 토론을 통한 새로운 대안 찾기
4	과정별 논술 쓰기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 - 토론 내용 바탕으로 글쓰기

<수업 계획서 6>

#### 라. 논술 수업의 전체 진행과 구성의 사례

차시	주 제	학 습 내 용	차시	주 제	학 습 내 용	
1	알고 가기	논술의 첫걸음 1 - 문장, 문단, 개요 짜기, 요약하기	13	혼자 가기	제재 읽기와 토론, 논술문 쓰기 - 사형제 폐지	
2		논술의 첫걸음 2 - 논술문 쓰기에서 유의할 점			14	제재 읽기와 토론, 논술문 쓰기 - 일기 검사와 인권 침해
3		논술의 첫걸음 3 - 논술 문제 유형에 따른 글의 구성 방법				15
4		논술의 첫걸음 4 - 관점의 종류와 다양한 관점 기르기			16	
5	달고 가기	토론하기와 논술문 개요 짜기 - 늑대와 양치기 소년	17			제재 읽기와 토론, 논술문 쓰기 - 과학 발달과 인간의 행복
6		논술 개요 짜기와 논술문 쓰기 -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문제 해결책			18	제재 읽기와 토론, 논술문 쓰기 - 법과 의리의 충돌
7		논술문 쓰기 과정 지도 - 집단 따돌림				
8		논술문 분석과 첨삭 지도				
9						
10						
11						
12						

<수업 계획서 7>

논술 수업은 전체 24차시인데, 활동은 크게 ‘알고 가기’, ‘딛고 가기’, ‘혼자 가기’의 3단계이다. 전반부인 ‘알고 가기’에서는 논술의 이론을 간단한 활동과 더불어 배우며, 중반부인 ‘딛고 가기’에서는 몇 개의 논제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개요를 짜고 내용을 분석하고 첨삭을 하는 활동을 해본다. 마지막 ‘혼자 가기’에서는 제시문을 읽고 간단히 토론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개요를 짜고 논술문을 쓰는 활동이 행해진다. 논술의 이론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논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부에 이론이 놓이는데, 논술의 이론 부분은 실감이 잘 나지 않으므로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을 많이 해야 하며, 논술의 이론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중반부에서는 결과보다 과정 지도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며 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혼자 가기’에서는 이론에서 배운 논술 문제 유형에 따라 여러 논제와 제시문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제시문의 길이는 전체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A4용지 2쪽 분량의 쉬운 자료**로 선택하여, 제시문의 이해나 분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쓰이지 않게 한다. 논제와 제시문을 읽고 난 뒤에 **교사는 가급적 용어나 개념의 뜻만 간단히 설명**하여, 학생들이 교사의 의견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논술문을 쓰기 전에 논제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 토론**을 넣어 다른 사람의 주장과 논거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면 독선이나 독단에 빠진 논리 전개를 막을 수 있다. 약 100분 이내에 논술문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논술문 쓰기에서는 사고와 표현의 뼈대가 되는 **개요 짜기**와 전체 구성에서 가장 쓰기 쉬운 **본론 1문단 쓰기** 활동을 하면 적당하다. 그러나 논술을 오래 배웠거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완결된 형태의 논술을 써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학생들이 개요를 짜거나 본론 쓰기를 할 때 교사는 개요 작성을 도와주거나 학생들이 쓴 글에 대한 첨삭문을 바탕으로 **개별적 첨삭문 분석 지도**를 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집에 가서 서론과 결론을 모두 채워서 다음날 제출하면 교사가 첨삭을 해서 학생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교사가 첨삭한 글은 학생이 반드시 깨끗하게 고쳐 써서 교사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 3.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의 평가와 과제

### 가.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의 효과

방과후학교의 논술 수업에서 얻은 **효과**는 매우 크다. 첫째, 학생들은 사교육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논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둘째, 교사가 진행하는 방과후학교의 논술 수업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방과후학교의 논술을 통해 학생들은 논술의 논제를 파악하는 능력과 논제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넷째, 요약하기를 통해 제시문의 주장이나 근거, 의도나 함축 등을 분석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다섯째, 풍부한 논술문 쓰기 경험과 꼼꼼한 교사의 첨삭으로 학생들의 논술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 여섯째, 문단 및 문장 쓰기 능력도 향상된다. 일곱째, 논술문 쓰기의 형식뿐만 아니라 사고력 신장에 중점을 두는 강의 덕분에 학

생들은 심도 있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 나.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의 외적 방해 요소와 제거 방안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의 외적 방해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기 중에는 각종 학교 행사, 모둠별 수행 평가, 학원 수업 등으로 인해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출석률을 높이는 게 힘들다. 방학 때 논술을 해도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도 영어나 수학 등의 강의만 듣고 가는 학생들이 일부 있다. 둘째, 종례 직후에 수업이 시작되는데, 청소나 종례가 늦어지면 학생들이 정시에 오지 않아 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셋째, 무엇보다 7교시에 수업이 진행되므로 교사와 학생이 매우 지친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셈이므로 학습 의욕이 크게 높지 않다. 넷째, 전체 학생이 매 시간 쓴 논술문을 모두 첨삭해 주었기 때문에 교사의 논술 수업 준비와 첨삭 지도가 매우 힘들었다. 다섯째,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왔으나 학생들은 학원 수업이나 과외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교사의 논술 수업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의 부족이다. 물론 교사만큼 우수한 강사는 없지만 논술 지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적 연수가 필요하다.

수업 외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방과후학교 날짜와 시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를 진행시킬 경우라면 학교는 날짜와 시간이 최대한 바뀌지 않고 각종 학교 행사의 영향을 덜 받도록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기 중보다 방학 중에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학생들은 매우 피곤한 상태이므로 방과후학교 수업 중간에 휴식 시간을 두어 실 틈을 주어야 한다. 넷째, 방과후학교로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풀을 운영하여 학교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논술문 첨삭의 경우는 매 시간 학생들이 쓴 전체 논술문을 첨삭하기보다 대표 글을 첨삭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논술문에 대한 첨삭만 해서 돌려주면 문제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학생이 읽어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첨삭 내용과 이유를 학생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으며, 교사의 첨삭문을 바탕으로 학생이 예전에 썼던 논술문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준이 높은 심화반의 경우에는 교사의 첨삭을 하기 전에 학생들끼리 상호 첨삭을 미리 해보게 할 수 있다. 다섯째,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사람만 받게 하고 논술 수업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과외나 학원 수업을 대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연수 기회의 확대나 학교 내 팀 티칭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 다.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의 내적 방해 요소와 제거 방안

방과후학교 논술 수업의 내적 방해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술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과 전혀 받은 적이 없는 학생 간에 격차가 심하다. 둘째, 같은 학년에서도 여러 기가 진행되는데, 초급, 중급, 고급, 심화 등으로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셋째, 수준이 높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개요 짜기까지 겨우 따라오다가 실제 논술문 쓰기에서 거의 손을 놓았는데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은 수업 시간 안에 논술문을 작성하지도 못하고, 나중에라도 논술문을 거의 제출하지 못한다. 넷째, 논술 제시

문이 중학생의 읽기 수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제시문 내용 이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다섯째, 논술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서 학생들은 제시문의 내용을 짜깁기하여 제시문의 주장이나 논거를 거의 원문 그대로 베껴 쓰기 일쑤이다.

수업 내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수준별 반 편성과 수준별 수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 학년 내에서와 학년 간, 그리고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 그리고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 논술이 반복되는데 서로의 관계나 체계를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향상반의 경우에는 전체 논술문을 쓰게 하기보다 자기 생각 300자 쓰기, 본문 1문단 써보기, 결론 써보기, 서론 써보기 등과 같이 비교적 부담이 적은 글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 심화반의 경우에는 논술문을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과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결합하여 자기의 주장이 없는 글을 쓰기 쉬우므로 솔직하면서도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너무 학문적이거나 무게감이 있는 글 대신에 설화나 동화나 생활문 같이 쉽거나 만화, 광고, 노랫말, 드라마 등의 재미있는 매체를 제시문으로 삼는 것도 좋다. 다섯째, 논술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되는 글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많이 읽는다고 논술 실력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를 사전에 제시하여 학생들이 미리 읽고 논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나오며

세상의 모든 제도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여 그 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유를 통해 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논술은 지금 대학 입시 수험생들에게 내신, 수능과 더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 논술 교육의 여건이 마련되기도 전에 논술이 대학 합격 여부의 열쇠로 부상하면서 교육 현장에는 논술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자 논술은 대학 입시에서 상위권 학생만을 변별하며 고액의 논술 사교육비 때문에 논술 평가의 혜택은 부유층으로 다시 쏠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논술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봉사의 아름다움이 봉사활동 점수제로 타락하듯이, 독서의 즐거움이 독서 인증제로 퇴색하듯이, 입시 제도와 결합하는 정책들은 제 빛깔과 향기를 잃곤 한다.

그러나 논술의 핵심은 그 첫 마음에 있다. 논술은 인간과 사회와 자연의 여러 현상과 문제에 대해 그것과 연관을 맺고 사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논술은 나와 내가 맺고 있는 대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나를 주체로 만들어가는 긴 과정이며, 이것은 어느 날 만들어진 특별한 평가 방식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가꾸어온 꽃이다.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빨리 배워 실용적으로 쓰기에 급급했던 시절의 학습과 평가 방식으로는 미래를

제대로 구성해내기 어렵다. 지식과 정보가 사회 발전의 기본 동력이 되며, 각종 사회의 문제가 뒤엉킨 한국 사회에서 창의력, 비판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력은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논술은 중등학교 공교육의 부실에서 온다기보다 사회의 요구 때문에 밀려오는 파도이다. 어차피 배는 항구를 떠났고, 이제 배는 파도를 넘어 어느 항구에든 도달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배가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보면서 키를 굳게 잡고 갈 길을 가는 의연함이다. 사회적 요구와 대학 진학이라는 해일에 떠밀려 가기보다 천천히, 그러나 바르게 올바른 논술 교육의 길을 가야할 것이다.





# 특별활동을 통한 논술 지도

양정석(신상중학교 교사)

1. 들어가는 말
2. 계발활동을 통한 논술 지도
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논술 지도
4. 다양한 형태의 논술 지도
5. 자치 활동, 행사 활동을 통한 논술 지도
6. 제언

## 1. 들어가는 말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하고, 건전한 취미 함양 및 여가 선용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37)</sup>

특별활동을 통한 논술 지도는 특별활동 5개 영역 중에서 주로 계발활동 영역의 학예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자치활동의 협의·토론이나 행사활동도 논술 능력 제고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계발활동반은 참여 학생들의 수준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논술반 지도의 경우에도 논술반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신문논술반, 영화논술반, 독서논술반, 고전논술반, 토론논술반, 만화논술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논술반이 있다는 것은, 논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술 지도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계별 논술 지도에서 소개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술반을 지도할 때 사용 가능한 자료와 다양한 논술반 운영 자료를 몇 가지 제시해 본다.

37) 교육인적자원부, 특별활동교육과정, 2007, pp.1~2.



## 2. 계발활동을 통한 논술 지도

### 가. 지도 목표

- 1)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2) 자기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글의 전개 순서에 따라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지도 중점

- 1) 읽기, 쓰기, 토론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배경 지식을 확장하도록 한다.
- 2)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 3) 도서·토론·논술 지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과제를 제시하여 많은 글을 직접 써 보게 한다.

### 다. 지도 계획(예시)

차시	활 동 내 용	활 동 자 료
1	자기 소개, 논술반 선택 이유 쓰기, 모둠 조직	
2	논술의 필요성, 논술 관련 용어 알기	낱말 퍼즐
3	원고지 사용법, 좋은 글의 요건	
4	글의 구성 방법, 글의 전개 방식	
5	문장력 익히기	예화 자료
6	주제의 선정과 주제문 쓰기	공익광고
7	개요 작성하기, 문단 구성하기	마인드맵
8	글쓰기의 실제 - 서론 쓰기	상업 광고
9	글쓰기의 실제 - 본론 쓰기	통계 자료
10	글쓰기의 실제 - 결론 쓰기	카메라 고발
11	글쓰기의 실제 - 종합	
12	토론 논술	만화
13	독서 논술	
14	영화 논술(1)	영화
15	영화 논술(2)	
16	논술반 활동 소감문 쓰기	
17	평가	

## 라. 지도상의 유의점

계발활동 논술반 지도에서 이론적인 면에 치우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논술반 운영은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하되,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소재(영화, 신문, 비디오, 문학 작품, 토론 등)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그 자료가 가진 장단점을 살펴, 본래 목적에 맞도록 구성해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 마. 평가방향

- 1) 평가는 활동 결과로서의 지식 습득이나 기능 향상에 두기보다는 활동 과정에서의 참여도, 진보 정도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2) 계발 활동 상황(출석률, 활동 상황, 준비도 등)을 누가 기록하고, 학년 말에 종합 평가를 문장으로 기술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다.

## 바. 교수-학습 지도안(예시)

실시일	2007. .	차시	7차시
활동 주제	개요 작성과 문단 구성하기		
활동 목표	개요 작성의 요령을 알고 문장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문단을 구성하는 요령을 알 수 있다.		
단계	활동 주제	유의점 및 준비물	
도입	<p>▶ 개요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방지해 준다.</li> <li>- 불필요한 내용의 반복을 막을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알아낼 수 있다.</li> <li>- 글의 전체적인 균형과 논리적 흐름을 미리 조절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게 한다.</li> </ul>	
전개	<p>▶ 개요 작성 시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단락의 배열 순서는 논리적이고 질서 있게 한다.</li> <li>- 떠오르는 항목들을 대강 적어 놓고 배열한 다음, 문장으로 바꾸어 쓴다.</li> <li>- 개요 짜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li> </ul> <p>▶ 개요 작성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설정 주제문 작성 서론, 본론, 결론의 주요 내용 항목화 주장이나 견해 제시 논거 마련 개요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령을 설명하고 주제를 주어 실제로 개요를 작성하게 한다.</li> </ul>	

<p>전 개</p>	<p>◆ 3단 구성의 개요 짜기의 요령과 실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론 :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야기나 현실 문제 제기, 글의 과제나 문제점 제시, 앞에서 제시한 화제와 뒤에 전개할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li> <li>- 본론 : 주장을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 풍부하고 다양한 논거를 제시한다.</li> <li>- 결론 : 요약·정리나 제시된 주장의 전망 등을 제시한다.</li> </ul> <p>◆ 문단 구성의 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은 학생들이 문단을 적절히 나누지 못하여 논지가 흐려지고 산만한 글이 되는 것이다.</li> <li>- 문장 개요 하나를 한 문단으로 구성하면 좋다.</li> <li>- 문단이 바뀌기 전에는 행을 바꾸지 않는다. 이때, 문장을 마치는 문장 부호가 행의 첫머리에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li> </ul>	
<p>정 리</p>	<p>◆ 개요 작성의 중요성 및 순서를 상기시킨다.</p> <p>◆ 문단 구성의 요령을 알게 한다.</p> <p>◆ 차시 예고 : 서론 쓰기</p>	<p>• 상업 광고를 한 편씩 준비하도록 한다.</p>

### 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논술 지도

#### 가. 낱말 퍼즐 활용 - 논술 용어 알기(2차시)

퍼즐은 흥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문제를 풀었을 때의 희열로 인해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낱말 퍼즐 맞추기는 동기 유발, 문제 해결은 물론 공간 지각, 추리 및 직관력을 키울 수 있다. '논술 용어 관련 낱말 퍼즐' 코너는 논술의 개념 학습을 위한 보조 자료로도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다음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를 이용하여 낱말 퍼즐을 풀어보시오.

<문 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정 답>

		주	장			본			
서	편	제			토	론	반	논	
론		문	제	제	기		대	안	제
				시					시
연	역	법		문	제				해
		전	개	언					결
			요	약		주	경	야	독
원	인				논	거			서
	용				리		퇴		습
	문	제	해	결	력		고	정	관
				론					념

### • 가로 열쇠

1. 자기 의견을 내세움 3. 전라도 서남 지방에 전승된 판소리의 한 형태 4.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밝히는 계발활동 부서 6. 해결해야 할 사항을 드러내어 제시함 7. 다른 안을 내놓는 것 8. 귀납법에 상대되는 추리 방법 9. 해결해야 할 사항 10. 사건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것 11. 논리를 펼쳐 나감 12. 중요한 것을 추려 정리함 13. 바쁜 틈을 타서 어렵게 공부하는 것 15. 까닭, 그렇게 된 이유 16. 자신의 주장을 입명하기 위해 채택하는 논리적 이유나 증거 17.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18. 굳어져 흔들리지 않는 생각

### • 세로 열쇠

1. 주제를 문장으로 나타낸 것 2. 논술 등의 중심이 되는 부분 3.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 실마리가 되는 부분 4. 흠으로 빚은 그릇 5. 글을 쓸 대상. 즉 쓰도록 제시한 과제를 이해하는 것 6. 문제를 낸 사람의 의사나 방향 등을 드러낸 문장 7. 어떤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것 9.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함 10. 어떤 까닭으로 인한 결말 12. 대강의 요점, 논술을 쓰기 전에 미리 짜는 설계 13.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사는 것 14. 책을 읽는 습관 15. 다른 글에서 가져 온 문장 16. 사고·추리 등을 끌고 가는 능력 17. 글의 끝 부분 18. 고쳐 쓰기

## 나. 예화 이용-문장력 키우기(5차시)

문장력이란 사고력으로 논술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문장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이러한 문장력은 글쓰기의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좋은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독해력과 사고력뿐만 아니라, 문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꾸준히 쓰기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 다음에 제시한 봉사 활동 소감문을 읽고 두 글의 차이점을 간단히 써 보시오.

**소감문 1**

봉사를 하면서 우리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한 명씩 정성스럽게 씻어 주며 우리 자신의 달린 마음의 때를 밀어 본다. 활동을 거듭하면서 목욕시키는 일에 능숙해졌고, 아이들과도 정이 들어 아이들의 천진스런 모습이 떠올라 그들을 향한 발길을 재촉한다. 힘든 만큼 보람도 크게 느낀다.

**소감문 2**

오늘도 나는 봉사 활동을 하러 간다. 몇 시간만 더 하면 모든 시간을 채운다. 한동안 짐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 그런 짐을 벗을 수 있을 것 같다. 도대체 봉사 활동을 왜 하는 것일까? 방학이라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설 틈 없는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내신 성적에 반영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 다음 통계 자료 기초로 주제를 설정하여 글을 간단히 써 보시오.

한국인의 평균 수명 (단위: 세)

연 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평균	52.4	63.2	65.8	71.6	73.5	74.9	78.1
남	21.1	59.8	62.7	67.7	69.6	71.0	74.5
여	53.7	66.7	69.1	75.7	77.4	78.6	81.7

자료 :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

노인 인구 증가 속도의 국제 비교 (단위: 년)

인구비율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스웨덴	한국
7%	1970	1945	1930	1865	1930	1890	2000
14%	1996	2020	1975	1980	1975	1975	2022
소요기간	26	75	45	115	45	85	22

자료 :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

## 다. 공익광고 이용-주제 선정과 주제문 쓰기(6차시)

☞ 다음 '공익광고' 를 보고, 쓰고자 하는 논술의 주제와 주제문을 써 보시오.



(1) 주제 : \_\_\_\_\_

(2) 주제문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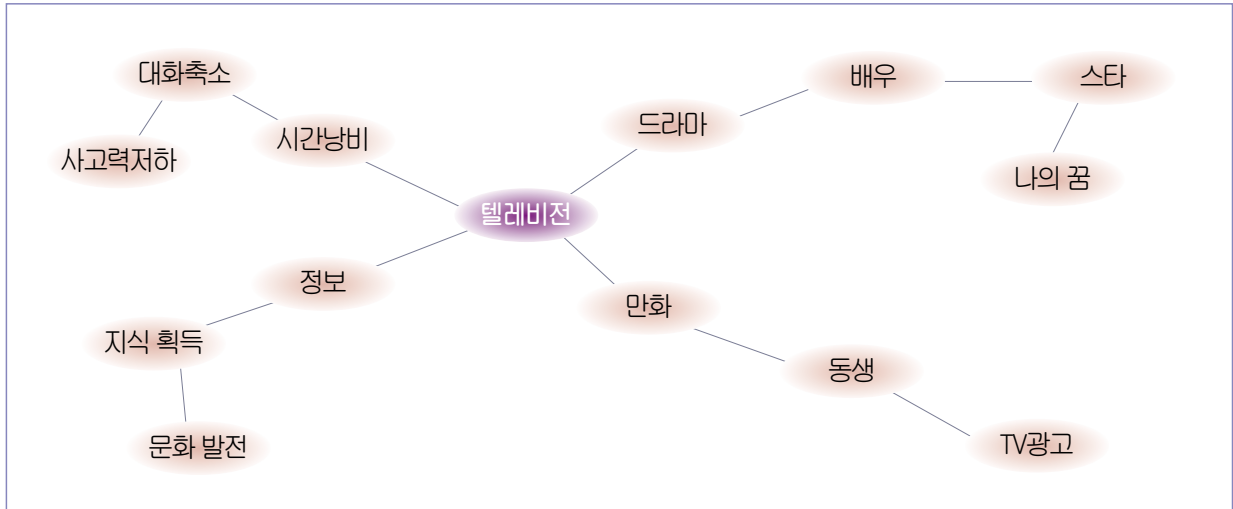
## 라. 마인드맵 활용-개요 짜기(7차시)

마인드맵은 Tony Buzan이 연구한 두뇌 개발 이론의 결정판이다. 논리와 어휘력이 주기능인 좌뇌와 색감과 형태가 주기능인 우뇌를 이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종이 위에 생각을 그려 나가는 것이다. 마인드맵은 무질서한 구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글을 쓸 때 부딪치는 스트레스를 없애 주고,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끌어내 창의성과 독창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분석과 창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어, 글쓰기 작업을 준비하고 구성하고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각적인 표현은 어떤 주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고를 유연하게 해준다. 또한 글자로 된 요약서로는 파악할 수 없는 주제의 구조도를 한눈에 들어오게 해 주기 때문에 개요 짜기를 쉽게 하기 위해 시도해 볼만하다.

☞ '텔레비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보시오.





(1) 긍정적인 면 : \_\_\_\_\_

(2) 부정적인 면 : \_\_\_\_\_

**마. 만화를 이용한 토론 논술(12차시)**

만화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웃음과 상상력을 주고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치·경제·시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혀 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되며 비현실성, 폭력성 등 지나친 흥미와 오락에 머무르는 부정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만화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p>안돼! 살려줘!</p>	<p>다시는 오버하지 않을게 용서해 주!</p>	<p>솔직한 방송... 줄다 이거야. 하지만 절제없는 솔직한 방송이야!</p>	<p>1. 제시한 만화에 등장한 인물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시오.</p>	
<p>네 친구 '인터넷' 가봐... 지나친 열기와 사람 죽이는 인명성 때문에 미쳐가는 거 너도 알잖아.</p>	<p>너만큼은... 너만큼은 믿었는데. 갈가라 TV야.</p>	<p>조... 조만간 더 큰 방송 사고가 생겨!</p>		<p>2. 토론한 내용을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써 보시오.</p>
	<p>거짓말 한거 미안해! 죽고 싶지 않았어!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p>			

## 4. 다양한 형태의 논술 지도

### 가. 신문 활용을 통한 논술 지도

신문에는 각종 사회 현상이 실려 있어 상식을 기르는 데 적절하다. 또한 기획 특집 기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문제점과, 대립되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며,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는 자기주장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알게 해 준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신문을 활용하여 토론과 논술 교육을 할 경우, ‘what, why, how’의 문제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고, 삶의 폭과 깊이를 더해 주며, 궁극적으로 논술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의할 점은 처음부터 무거운 주제로 이끌지 말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며,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마무리하여 자신의 것으로 축적하는 과정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 나. 독서를 활용한 논술 지도

#### 1) 독서와 논술

독서(讀書)란 필자의 생각을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독서란 글 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 내는 것만이 아니라, 글의 내용에 관하여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논술 교육에서 독서가 꼭 필요한 이유는 배경 지식이 되는 정보는 대부분 활자 매체를 통하여 습득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기본 지식이나 정보가 지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찰 결과를 논리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발달 단계에 맞게 학생들의 취향이나 흥미,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서를 선정하여 읽게 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인 쓰기를 지도하는 것은 논술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지도 절차

- 가) 도서 안내, 토의 학습 과제 제시
- 나) 읽은 내용 확인하기(개인별)
- 다) 읽은 후 토의 학습 과제 해결하기(조별)
- 라) 정리하여 논술하기

3) 독서 논술 활동 예시

도 서 명	활 동 내 용
심청전	지금까지 심청이는 효녀의 모델로 인식되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효도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지만 진정한 효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진정한 효의 정의를 내리고 ‘심청이는 효녀인가, 불효녀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서편제	소리꾼의 아버지는 좋은 목청을 길러주기 위해 자기 딸의 눈 속에 청강수를 넣어 장님이 되었다고 한다. ‘판소리의 길 때문에 아버지가 딸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옳은 일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박씨전	못생긴 외모 때문에 가족의 천대를 받던 박씨는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게 엄청난 구박을 받는다. 그러다가 변신을 통해 절세가인이 되자 남편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것은 여성의 외모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더욱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 ‘외모도 실력’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성별이나 연령 대와 상관없이 성형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4) 지도상의 유의점

- 가) 읽기 자료는 등장인물의 행위가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 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쓰게 한다.
- 나) 다양한 읽기 자료를 다루도록 하고,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글쓰기를 통해 표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다)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story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낮은 독서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시간에 토론을 위한 학습지를 미리 배부한다.

다. 영화를 활용한 논술 지도<sup>38)</sup>

1) 영화와 논술

영상 세대인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의 관심이 많은 영화를 활용하는 것은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데 뛰어난 학습 효과가 있다. 영화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 글로 표현하는 것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도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줄 수 있다. 영화를 보고 글을 쓰든, 독서를 하고 쓰는 사고력 확대와 논술 능력의 증진에 있어 다를 바는 없다.

영화를 보고 논술을 쓸 때, 영화 텍스트의 핵심 요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독해력이 키워진다. 독서 활동

38) 영화를 활용한 논술 자료는 부산연일중학교의 방과후학교 영화논술반 자료를 발췌한 것임.

에서는 이해도가 낮고 핵심을 잡아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영화 감상을 통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핵심도 잘 추출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영화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해 논술을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리력과 표현력이 길러진다. 영화를 보고 생각한 것을 논술에 활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또 다른 콘텐츠를 축적해 놓는 것이 된다.<sup>39)</sup>

## 2) 지도 절차

구분	학 생 활 동	비 고	준비물
도입	▷ 영화 감상 - 조원 역할 분담 - 영화에서 제시하는 문제 상황 찾기 - 우리의 현실과 연관 짓기 - 영화에서 암시하는 해결 방안 찾기	개인별	• 영화 감상보고서
전개	▷ 조별 토론 - 감상한 영화에 대한 정보 나누기 - 브레인스토밍 - 주제에 따른 문제 해결하기 ▷ 개인별 심화학습 - 주제와 관련된 책 읽기 - 다양한 자료 검색하기 - 주제와의 연관성 찾기	조별  개인별	• 토론 보고서
정리	▷ 개인별 논술 활동 -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정하기 - 자신의 주장 정하기 -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찾기 -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논술하기	개인별	• 논술 학습지

## 3) 학습지 예시

### 가) 영화 감상 보고서

개인별 영화 감상보고서는 다음 내용 중에서 적절히 선택하여 유인물로 준비한다.

영화 제목, 주제, 관람 일시, 줄거리 요약하기, 등장 인물 분석하기, 중심 사건, 배경, 인상 깊은 장면, 주제 강조 중요 장면, 느낀 점, 궁금한 점, 아쉬운 점, 주제 암시 핵심 대사, 현실 적용

39) 황영미, 영화로 논술 쓰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의 글을 요약한 글임.

나) 조별 토론 보고서

조별 토론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별 토론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여 배부한다.

(시청 영화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영웅'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은 무엇을 뜻할까요?
- 자신이 알고 있는 인물 중에서 '영웅' 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인물을 꼽아 봅시다.
- 세상에 '영웅' 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영웅' 을 만들어 내는 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영웅' 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 '영웅' 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에서 잘못된 상황으로 만들어간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다) 개인별 논술 학습지 양식

논 술 학 습 지		(            ) 중학교 영화논술반	학년	반 이름
문 제 제 기	'영웅'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나의 주장' 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를 들어 봅시다.			
논 술	서론			
	본론			
	결론			

## 4) 지도상의 유의점

영화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 적합해야 하며, 문제의식이 분명한 작품, 작가 또는 감독의 주제 의식이나 해결 방안이 제시된 작품, 중학생의 인지적 능력에 적합한 수준으로서 작품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혼자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지도 교사가 미리 작품을 감상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개별 또는 조별 질문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 라. 토론을 통한 논술 지도

### 1) 토론과 논술

논술은 타당한 논거 제시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논리적인 글쓰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특히 중요한데, 이러한 사고력은 토론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그 이유는 토론을 거치는 동안 주어진 과제나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자료 분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며, 과제나 대상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살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토론은 토론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면 토론과 논술은 서로 병행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 2) 지도 절차<sup>40)</sup>

- 가) 계획 짜기 : 논술 교수 학습은 일반적인 교과 영역과 마찬가지로 수업의 준비 단계인 계획 단계에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지도 목표, 지도 시간, 지도 대상, 토론의 유형, 방법 등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짚는다.
- 나) 논제 및 읽을거리 제시 : 논제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면서도,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예민한 정치 사회 문제나 청소년의 심성을 해칠 수 있는 폭력과 선정적인 것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논제가 선정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을 읽을거리로 제시한다.
- 다) 초고 논설문 작성 : 이 단계에서 말하는 초고 논설문이란 다음 단계에서 전개될 토론을 위한 원고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완결된 논술문을 쓰기 위한 초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과제 형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 라) 토론하기 : 실제로 토론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토론이 진행 중일 때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론 시작 전에 토론자와 사회자에게 토론 진행과 관련된 유의 사항을 알려 준다.
- 마) 논설문 작성 : 초고 논설문과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주장을 종합하여 논설문을 작성한다.

40) 심재홍, 서울교육 2006 가을호, 토론방식을 적용한 논술의 단계, pp. 58~62의 내용 요약



### 3) 지도상의 유의점

- 가) 논제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정책) 또는 ‘~인가’ (사실)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명백하게 긍정·부정의 양측에 설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한다.
- 나) 논제는 그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 용어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의’ 를 해 두어야 한다.
- 다) 주장은 하나여야 한다. 주제가 둘 이상의 주장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는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 라) 자신의 주장과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조사하고 탐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 마)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여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 바) 사회자는 어떤 주장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정한다.

## 5. 자치 활동, 행사 활동을 통한 논술 지도

자치 활동은 학급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협의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르고, 다양한 협의 및 실천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를 익히기 위한 활동이다.

자치 활동의 활동별 내용은 협의 활동(학급회 조직 및 운영, 학급 전반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 역할 분담 활동(1인 1역 활동, 학급 부서 활동, 운영 위원 활동 등), 민주 시민 활동(모의 의회, 토론회, 대화의 광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 활동을 통한 논술 능력은 주로 민주 시민 활동과 협의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다. 토론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과 분석적·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키워주는 데 유용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협의나 토론을 한다고 해서 바로 논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제만 던져 주고 학생들에게 토론하라고 자율적으로 맡길 경우 토론은 산만하고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토론은 비생산적인 말의 잔치로 끝나버리기 쉽다. 토론 수업은,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잘 조직한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 진행된다면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행사 활동을 통해서 논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논술 능력 향상을 위한 행사로는 논술 올림피아드(독서 논술, 영화 논술, 신문 논술) 대회, 자기주장 말하기 대회, 토론 대회, 현장 학습 보고서 쓰기 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의 날에 과학 논술 대회를 한다거나 한글날 국어사랑 논술 대회를 하는

등의 계기 교육과 관련된 행사를 할 수도 있다.

### 6. 제 언

계발활동 논술반은 다양하고 흥미 있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독서, 영화, 토론, 신문을 활용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내 한 가지 활동만을 하게 되면 집중력을 흐트리뜨려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 따라서 사전 예고, 학습지 준비, 논술 쓰기, 사후 첨삭 지도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논술 지도는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활동, 즉 학생들이 스스로 논제를 읽고,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앞뒤가 맞게 하나로 엮어내고, 자기가 엮은 것과 다른 사람이 엮은 것을 견주어 보며, 스스로 다듬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표현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논술 지도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그러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논술은 실기라고 한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자신이 직접 써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술 지도 또한 이 두 가지에 맞추어 다양한 쓰기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최근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주당 수업 시수가 감축됨에 따라 특별활동 시간 수를 감축하는 학교도 증가하고, 전일제 계발활동을 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2주일에 1회 또는 1개월에 1회씩 계발활동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일제 계발 활동을 운영할 경우에는 논술반 학생들을 3~4명씩 모둠을 조직하여 글을 쓰게 한 후에, 모둠원끼리 글을 돌려 읽고 고쳐주도록 한다거나, 인터넷 논술 카페를 개설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과제를 제시하고 지도 교사가 첨삭을 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문 및 기획 위원

- 이경복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김성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
- 김한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 이시우 교육연구정보원 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 신현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 한미철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서금화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민병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 신호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
- 정재성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 권세화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홍주희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강방식 동북고등학교 교사

개발 위원

- 위 원 장 | 이홍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장
- 부위원장 | 심재홍 흥은중학교 교감

집필 위원

- 원만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 이홍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장
- 강용철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 이희자 흥은중학교 교사
- 김근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서태진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박세란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김영복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김은아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 심재홍 흥은중학교 교감
- 양정석 신상중학교 교사
- 이환철 흥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교사
- 최기옥 광신중학교 교사
- 홍윤빈 정원여자중학교 교사
- 이지나 동대문중학교 교사
- 노영준 경인고등학교 교사
- 양한재 서울정민학교 교사
- 정형근 정원여자중학교 교사

검토 위원

- 정복선 신창중학교 교사
- 김정선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편집 위원

- 김은아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교사

표지 디자인 위원

- 임규정 영신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논술지도 길라잡이」

인 쇄 : 2007년 6월  
 발 행 : 2007년 6월  
 발행처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우110-781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00-177(소월길 28) / Tel. 3111-319 · Fax. 3111-307  
 편집 디자인 · 인쇄처 : 경인정보문화사 ☎(02)741-5941~5









[www.serii.re.kr](http://www.serii.re.kr)

**본 논술지도 길라잡이 파일 탑재 위치**

서울교육포털시스템 : [www.ssem.or.kr](http://www.ssem.or.kr) / 교과교육/  
교육청 교과자료/ 논술 구술 지도자료/논술지도 길라잡이